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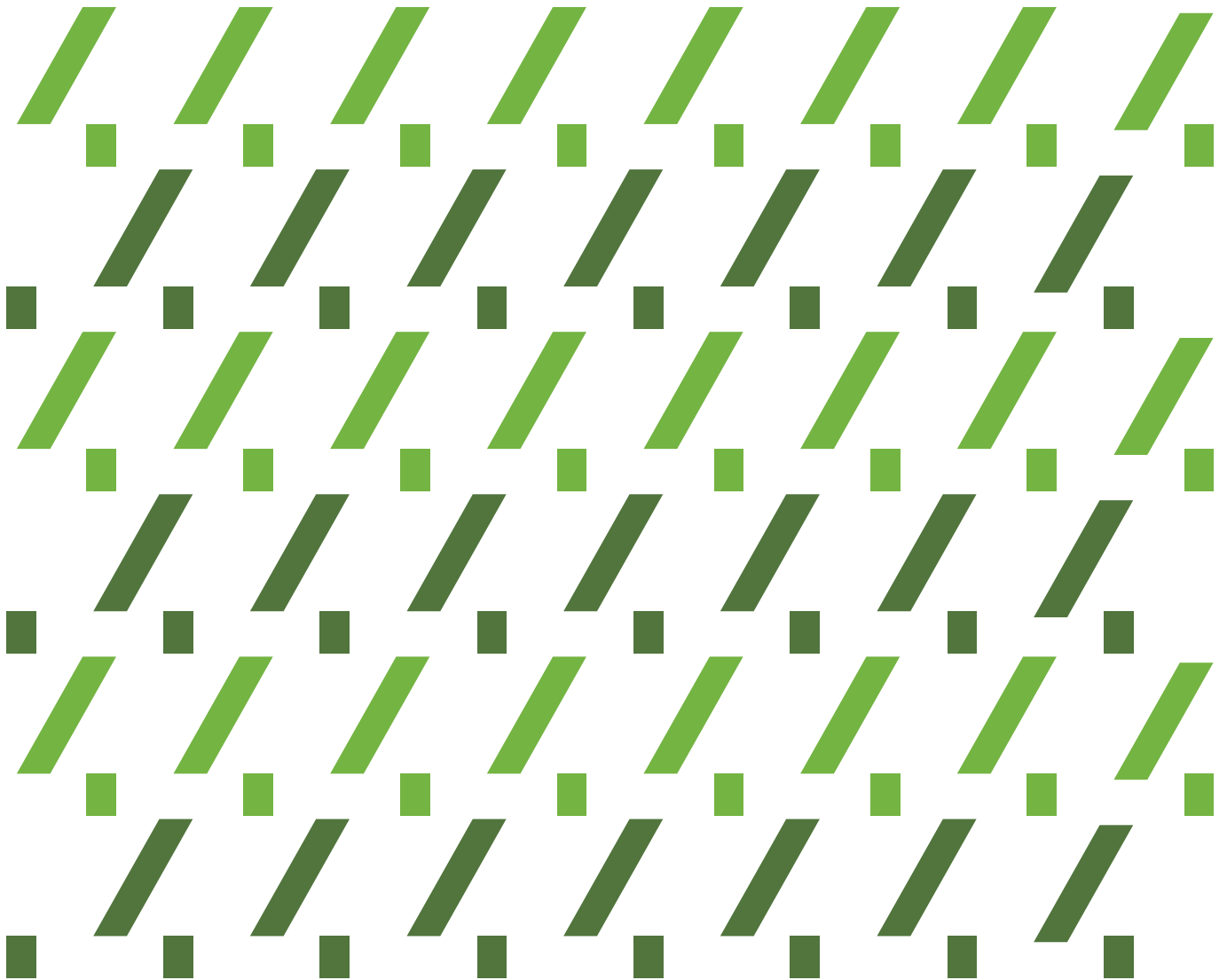
유한김벌리 숲·환경 캠페인 40주년 백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Since 1984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숲·환경 캠페인 40주년 백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Since 1984

본 백서는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40주년을 맞이하여, 캠페인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유한킴벌리 지음

발행일 2024년 3월 30일

책임편집진재승

프로젝트팀 유한킴벌리 손승우, 전양숙, 이수연, 배철용, 김희웅, 유란
생명의숲 연구소 이수현

편집집(주)윌든

사진김선규

자료도움 (기관) 동북아산림포럼, 문학의집서울, 산림조합중앙회
서울그린트러스트, 생명의숲, 평화의숲,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개인) 곽윤아, 김상훈, 김승순, 김유리, 유명민, 윤여진, 이안도성, 이우향, 이정민, 이정현
이한아, 이현아, 이호연, 이화연, 임영수, 정용숙, 정종복, 최승희 (가나다 순)

펴낸곳(주)윌든

펴낸이김승현

출판등록제 377-251002019000035 호

주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5, 301호

전자우편hello@willdencorp.com

ISBN 979-11-90752-54-1 15060

©2024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40주년 백서의 저작권은 유한킴벌리에 있으며,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www.yuhan-kimberly.co.kr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목차

| | | | |
|-----|------------|---------------------|------------|
| | | 캠페인 성과와 의미 | 009 |
| 발간사 | 005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연대기 | 010 |
| 축사 | 006 | 통계로 본 40년 | 012 |
| | | 이해관계자가 본 캠페인 | 020 |
| | | 사회적 성과와 임팩트 | 024 |
| | | 캠페인의 시작 | 035 |
| | | 1984 산림자원 조성과 숲가꾸기 | 037 |
| | | 1984 공익광고 캠페인 | 041 |
| | | 1985 신혼부부 나무심기 | 048 |
| | | 1988 그린캠프 | 051 |
| | | 1995 학생들 곁에 숲을 선물하다 | 057 |

| | |
|-----------------------------|------------|
| 숲과 거버넌스 | 067 |
| 1998 숲을 가꾸며 실업 위기를 극복하다 | 069 |
| 1999 북한 황폐지 복원을 위해 나무를 심다 | 076 |
| 2000 도시민들과 산촌을 꿈꾸다 | 080 |
| 2000 한국의 아름다운 숲을 공유하다 | 085 |
| 2001 숲을 문학에 담다 | 087 |
| 2003 몽골 토진나르스에 나무를 심다 | 091 |
| 2003 회색 도시에 작은 숲을 만들다 | 102 |
| 숲과 공존 | 111 |
| 2014 청춘과 소통하다 | 113 |
| 2015 지역주민들과 공존숲을 조성하다 | 115 |
| 2016 시니어 산촌을 배우다 | 125 |
| 2017 나무를 키워 한반도 푸른 미래를 준비하다 | 130 |
| 2021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의 숲을 조성하다 | 136 |
| 숲과 생물다양성 | 137 |
| 2020 산불피해지 숲 복원에 동참하다 | 139 |
| 2021 한국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보전을 함께하다 | 141 |
| 2022 한국 자생식물 꿀벌숲 조성을 시작하다 | 144 |

| | |
|------------------------|------------|
| 환경적 성과연구 | 147 |
| 부록 | |
| 사업별 누적 실적 | 159 |
| 산림자원조성사업 사업 내역 | 160 |
| 신혼부부 나무심기 사업 내역 | 161 |
| 그린캠프 사업 내역 | 162 |
| 전국 학교숲 조성 내역 | 163 |
| 북한 산림황폐지 복원사업 내역 | 164 |
| 몽골 산림복원 사업 내역 | 165 |
|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내역 | 166 |
| 문학의집·서울 사업 내역 | 168 |
|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수상지 내역 | 169 |
| 신혼부부 나무심기 식재지 현장조사 보고서 | 177 |
| 전국 나무심기 식재지 현장조사 보고서 | 202 |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인쇄광고 모음 | 209 |
| 함께 한 고마운 분들 | 314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발간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듭니다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생태환경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올해로 4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 보호 활동으로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숲을 매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온 과정이었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사회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던 우리의 작은 실천이,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 발전할 수 있었으며, 시민들과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해 확대되고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은 기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덕분입니다.

이번 백서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꿈꿨던 비전, 고민, 노력, 성과를 기록함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통한 배움까지 얻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숲의 중요성을 알렸던 시대를 지나, 산림 선진국의 비전, 숲 가꾸기 국민운동, 학교숲 운동, 도시숲으로의 전환, 생물다양성의 숲과 산불피해지 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과 활동, 성과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캠페인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유한킴벌리를 대표해 캠페인을 이끌어온 모든 분들의 해안과 노고 그리고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0년의 기록이 우리가 왜 나무와 숲 그리고 이들이 제공해 왔던 우리의 강산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세계유일 사례라 알려진 우리나라 산림녹화에 기여했던 민간영역에서의 노력과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며 앞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번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생명이숲 연구소와 흔쾌히 기억과 자료를 공유해주신 소중한 선배님들과 이해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든든한 지원자인 유한킴벌리 사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백서가 기업과 사회가 숲과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나누고 기후위기 해법으로서 '함께한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진재승 **진재승**

축사

모이고 심고 키우다! 유한킴벌리와 함께 한 숲만들기



생명의숲 이사장 허상만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40주년 백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백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40년이 되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숲이 되고, 캠페인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공익캠페인이 40년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캠페인이 추구하는 더 나은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과 행동에 진정성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특별함을 넘어선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시간에 기록된 전국 곳곳의 '숲'과 '신혼부부 나무심기', '그린캠프' 등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1984년부터 오늘까지, 나무를 심고, 가꾼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처음 심은 나무, 숲에 처음 가본 날, 숲과 나무를 배우게 된 날 등 사람들의 기억 속에 '특별한'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특별한 날들은 동네숲부터 몽골의 숲까지 40년을 한결같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캠페인은 생명의숲 뿐만 아니라 서울그린트러스트, 동북아산림포럼, 평화의숲 등 더 건강한 숲, 사회를 위한 숲운동의 시작과 연결점이 되었고, 현시대의 가장 큰 위기이자 문제인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입니다. 숲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더욱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입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행동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캠페인의 지난 40년의 기록이 행동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40주년 백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나무 심기가 쏘아올린 한반도 평화의 희망, 그리고 유한킴벌리



산림청장 남성현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40주년 기념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0년간 유한킴벌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국내외의 산림복원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산림자원 조성사업, 신혼부부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 생명의 나무심기 등 다양한 숲 조성을 통해 숲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북한황폐지 복원, 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몽골 산림복원 사업 등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햇빛은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익 광고와 그린캠프 운영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등 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부단히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0년간 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숲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유한킴벌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40주년이 과거의 기록과 영광을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민간영역에서 선도적인 활동을 펼치는 캠페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숲이 갖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 우리 숲이 임업인들에게는 보물산으로, 국민에게는 건강과 힐링 치유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산림 100년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유한킴벌리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캠페인이 주요 숲의 환경적 측면만을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숲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환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푸른 자연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정신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유한킴벌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캠페인 40년의 성과와 의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크리넥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크리넥스 티슈와 함께 나무 100만 그루를 조림합니다.

모든 시기 좋은 환경 보다 중요한 산림자원을 이룩하는 데에
요즘이냐?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 없이 1984년 8월부터
이러분이 구입하신 크리넥스 티슈 매출액 중 1천원 100만 그루를
산림청 산하 국립조림장 중앙하여 기증하여 조림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시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크리넥스 티슈와 함께 우리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시다.

유한킴벌리

Kleenex Tissues Help Us Help Keep Korea Green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연대기

핵심
아젠다

국토녹화의 필요성을 알리다

산업화로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시기에 국토 녹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숲가꾸기 운동을 시작하다

환경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시기로,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와 사막화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숲을 조성하다

숲이 있는 학교를 실현해서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미래세대를 키우고, 더 나은 학교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회색 도시에 숲을 만들다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한편,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숲을 만들어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고자 했다.

지역주민들과 '공존숲'을 가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숲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중심의 산림탄소상쇄의 중요성을 알렸다.

숲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꿈꾸다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산림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여 미래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84

- 1984 · 산림자원조성기금사업 운영위원회 설립



- 1985 · 신혼부부 나무심기

- 1988 · 그린캠프



1990

- 1995 · 학교숲 조사 및 연구

- 1998 · 생명의숲 국민운동 창립 지원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 동북아산림포럼 창립 지원



- 1999 · 평화의숲 창립 지원



2000

- 2000 · 아름다운숲전국대회
- 생태산촌 창립 지원



- 2001 · 중국 사막화방지 사업
- 문학의집서울 설립 지원



2010

- 2003 · 서울그린트러스트 창립지원
- 서울숲 조성 참여
- 몽골 토진나르스 숲 조성



- 2005 · 금강산 신혼부부 나무심기

- 2006 · 진안마을조사단 사업
- 에코피서리더십 센터 창립 지원

- 2007 · 우리동네숲 사업

2020

- 2020 · 탄소중립의 숲 사업
- 강릉 옥계 산불피해지 복원 사업



- 2022 ·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현지외보전 사업
- 한국 자생식물 꿀벌숲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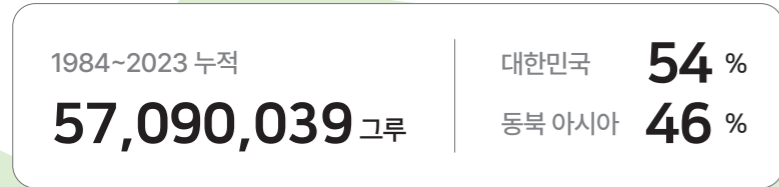


- 2023 · 동해 산불피해지 복원 사업
- 울진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사업
- 궁궐숲 숲가꾸기(창경궁)

- 2024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40주년

*굵게 표기된 사업은 2024년 2월 기준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국내외 40년간 심고 가꾼 숲



몽골 사막화 방지

12,780,000 그루
 2003~2023



몽골 토진나르스



울란바토르

중국 사막화 방지

422,000 그루
 2001~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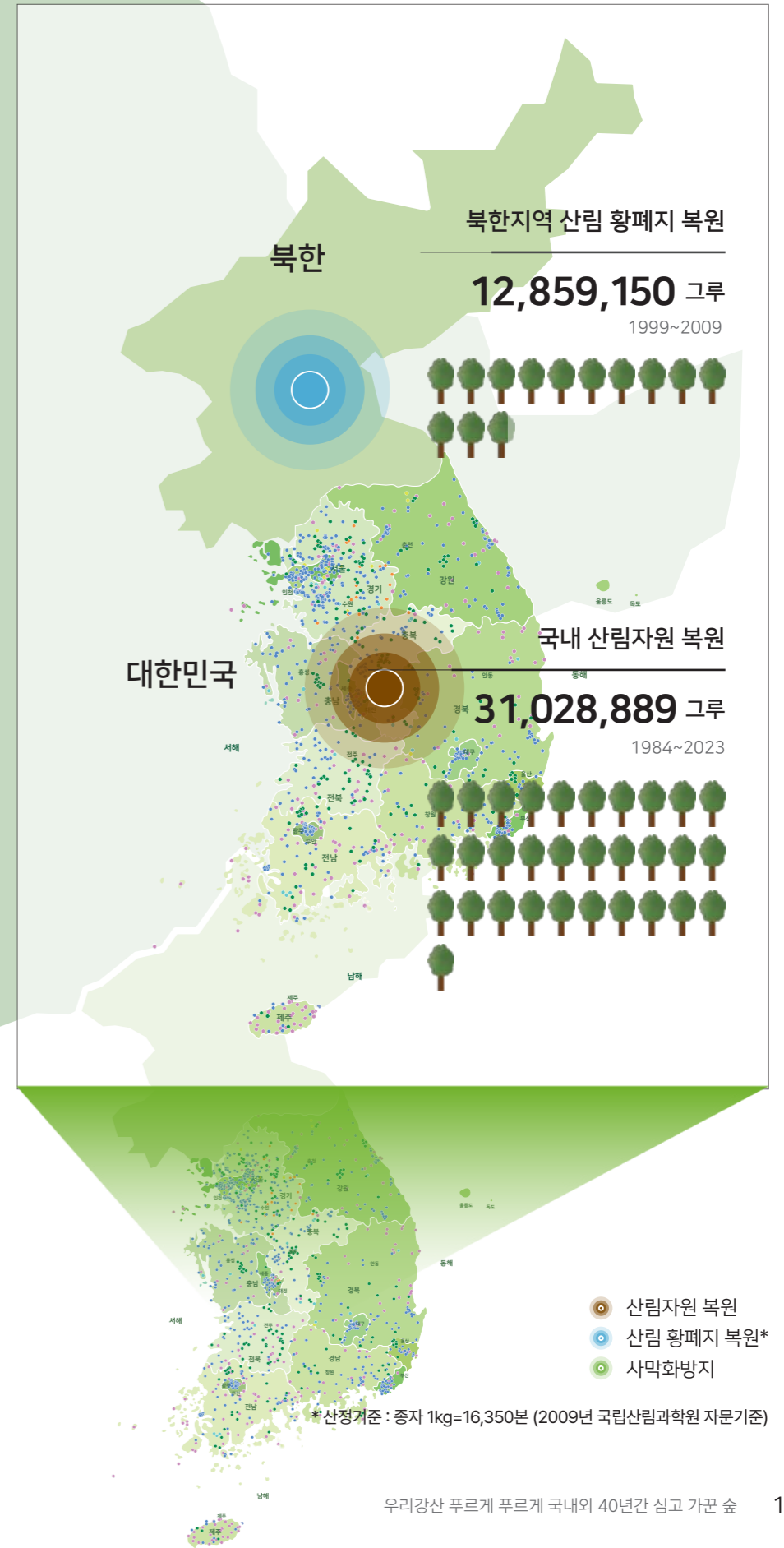
중국



베이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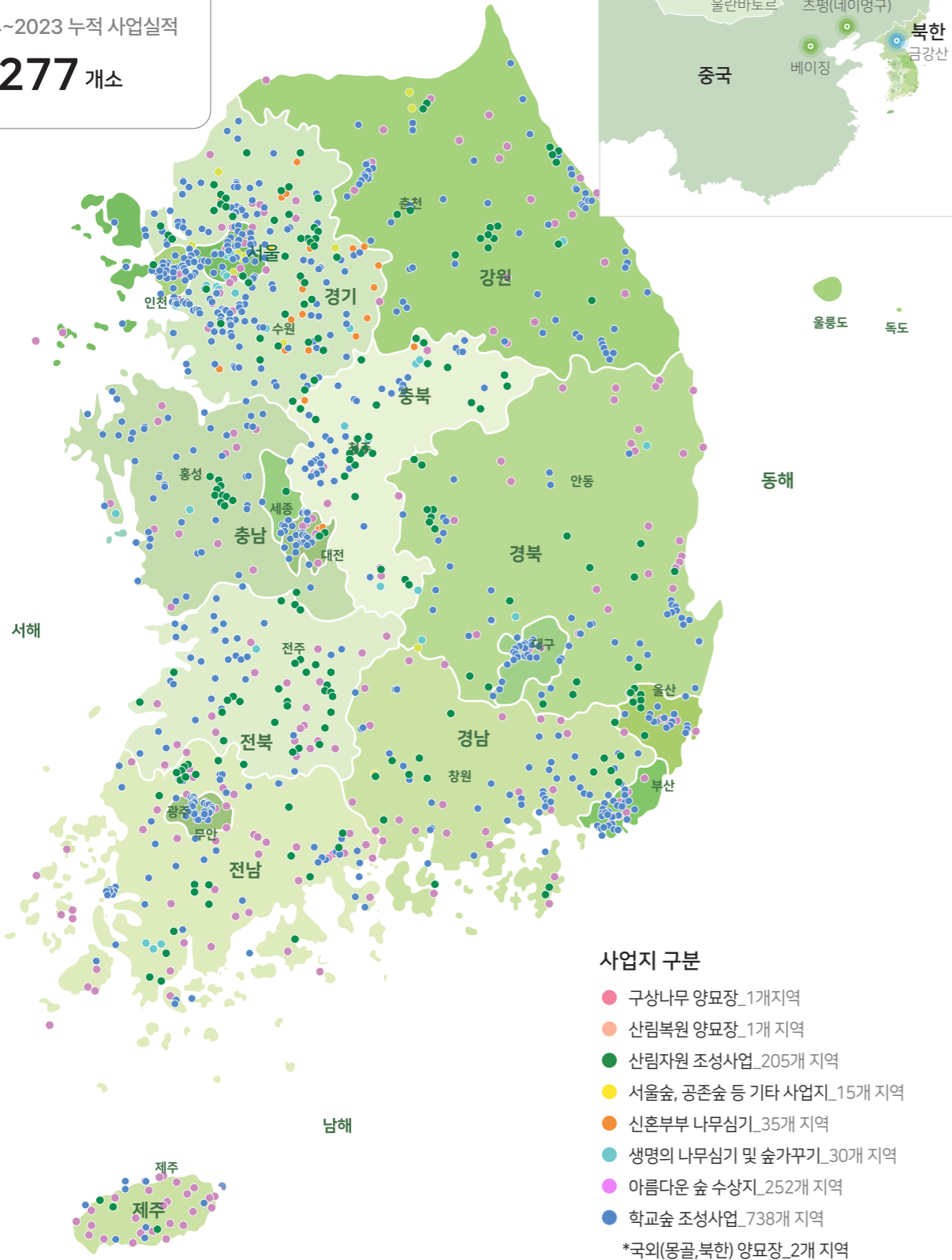
츠핑(네이멍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국내 사업지 분포도

1984~2023 누적 사업실적

1,277 개소



사업지 구분

- 구상나무 양묘장_1개지역
- 산림복원 양묘장_1개 지역
- 산림자원 조성사업_205개 지역
- 서울숲, 공존숲 등 기타 사업지_15개 지역
- 신혼부부 나무심기_35개 지역
-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_30개 지역
- 아름다운 숲 수상지_252개 지역
- 학교숲 조성사업_738개 지역
- *국외(몽골,북한) 양묘장_2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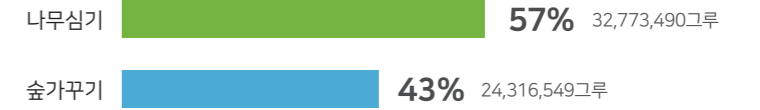
1984~2023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누적

총 실적과 비중

단위: 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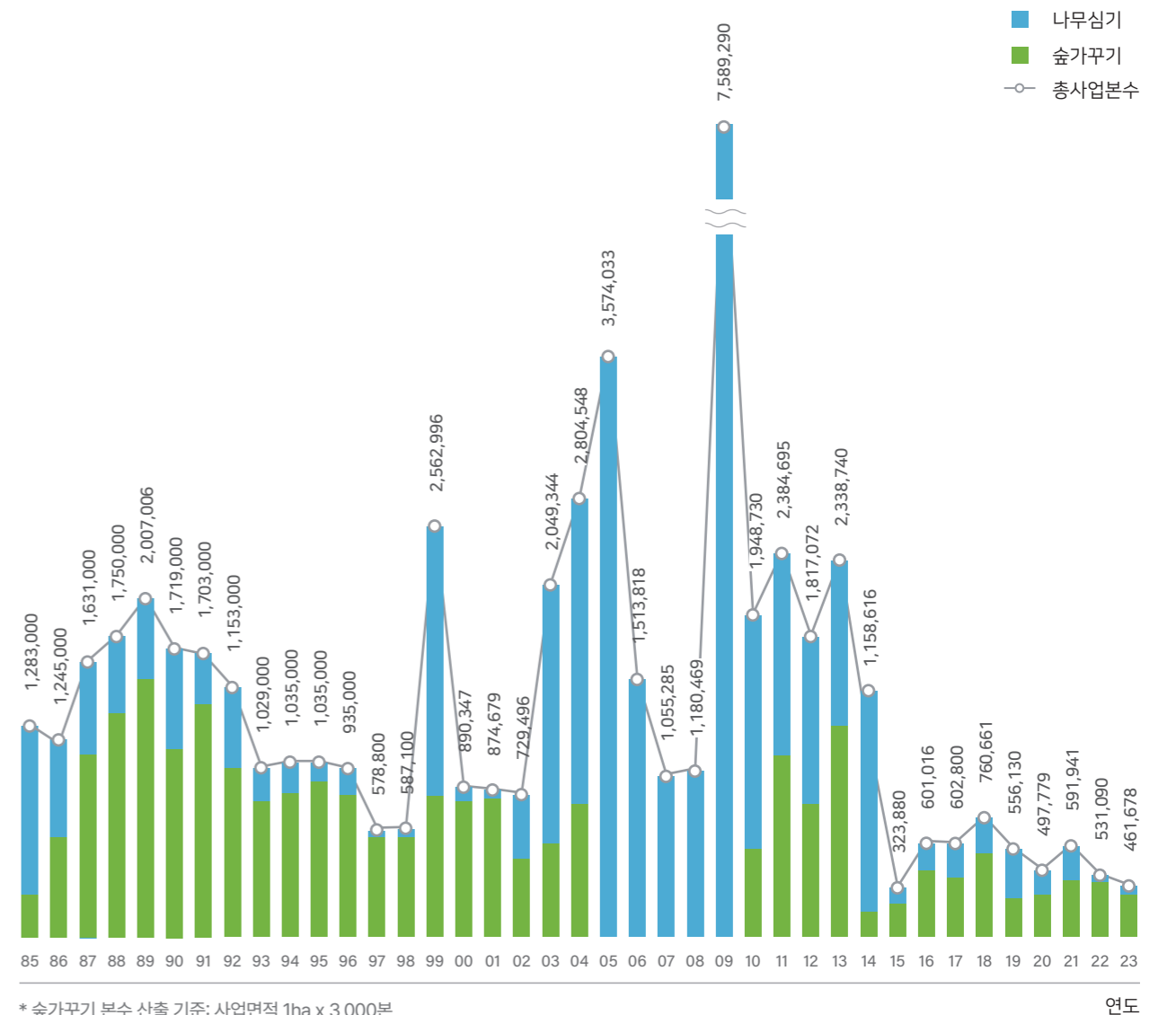
누적 사업실적

57,090,039 그루



연도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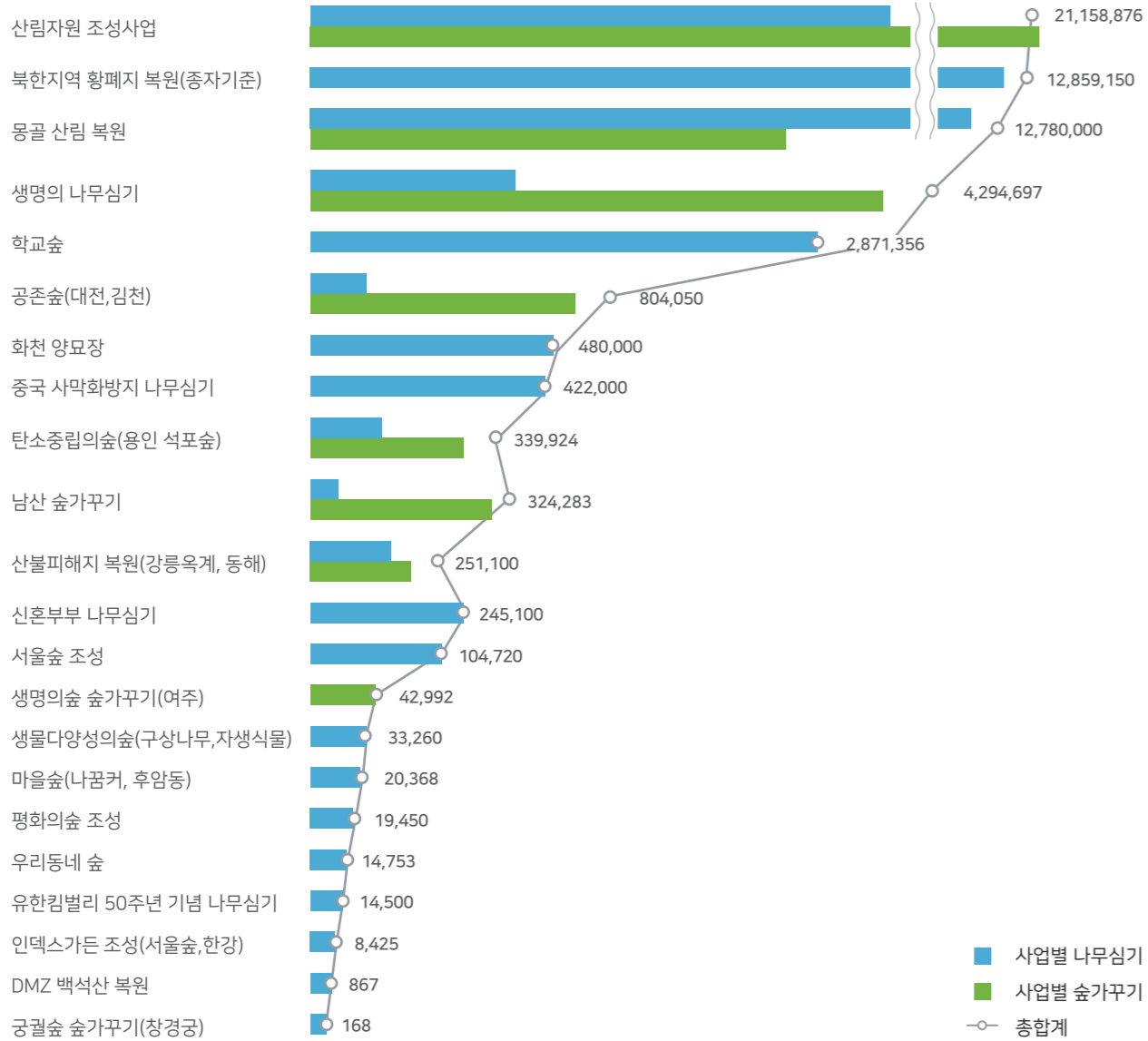
단위: 그루



* 숲가꾸기 분수 산출 기준: 사업면적 1ha x 3,000본
 * 종자 1kg = 16,350본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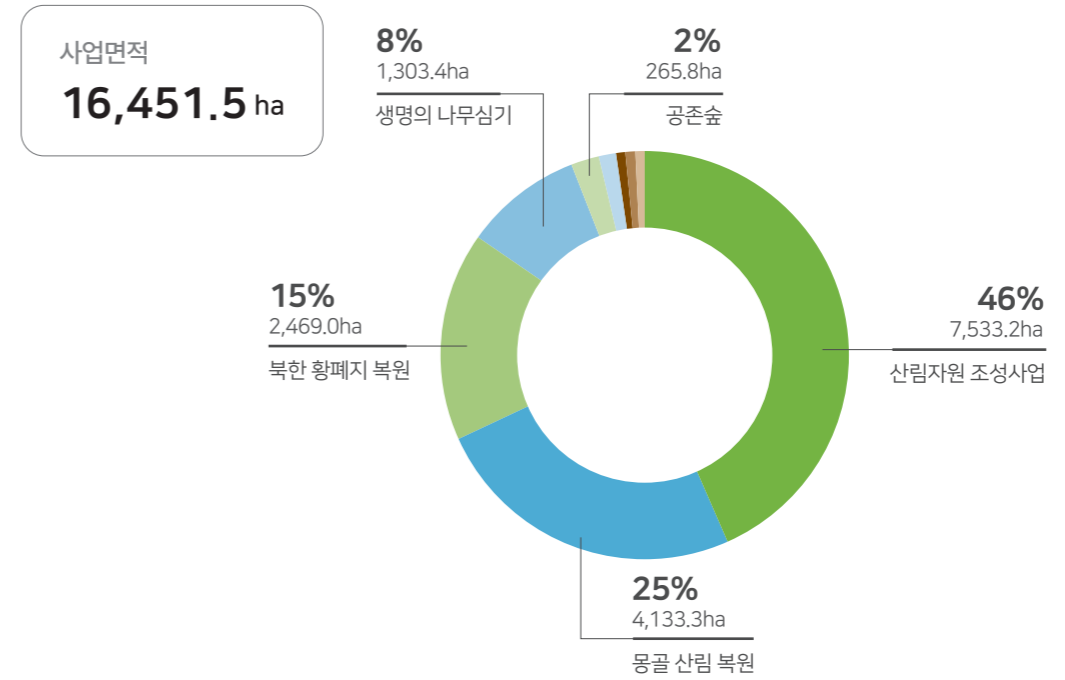
사업별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실적

단위: 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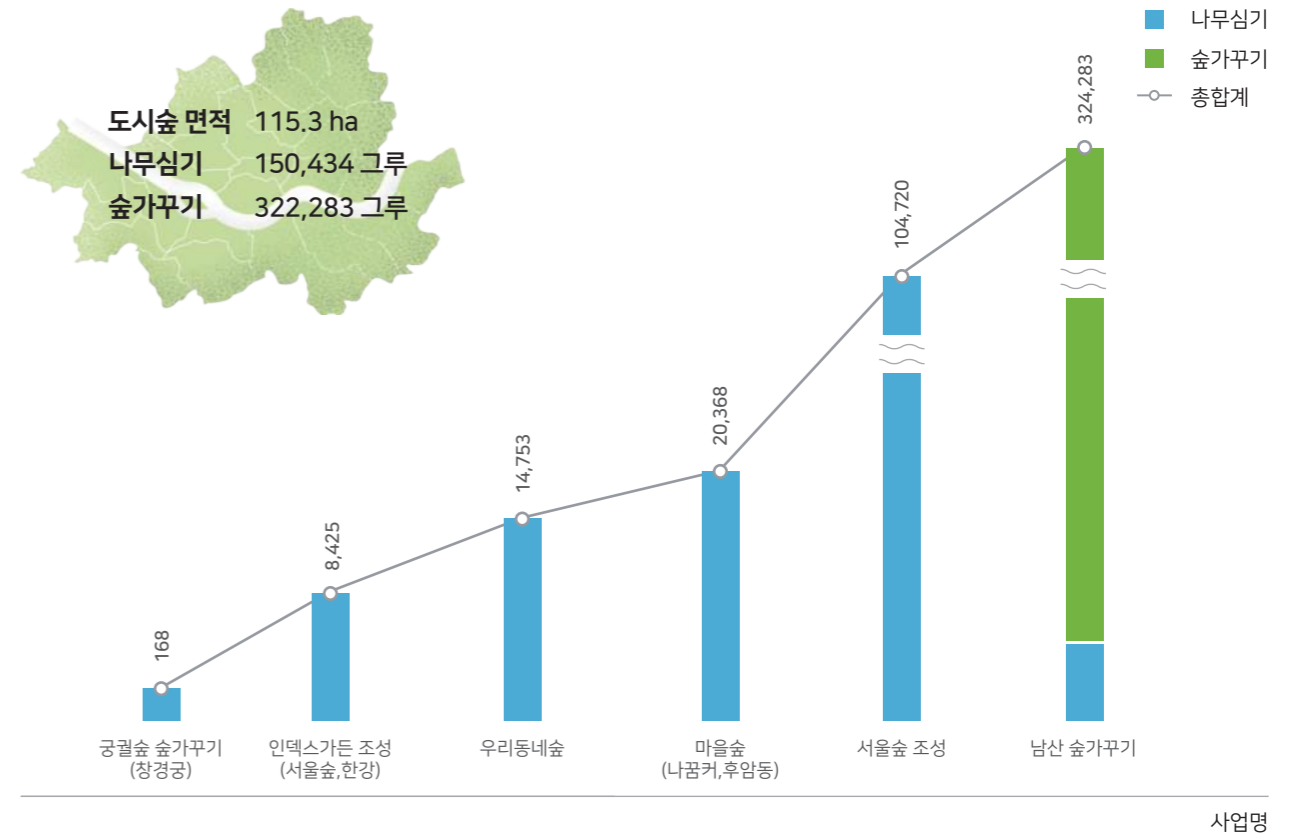
주요 사업별 총면적

단위: %,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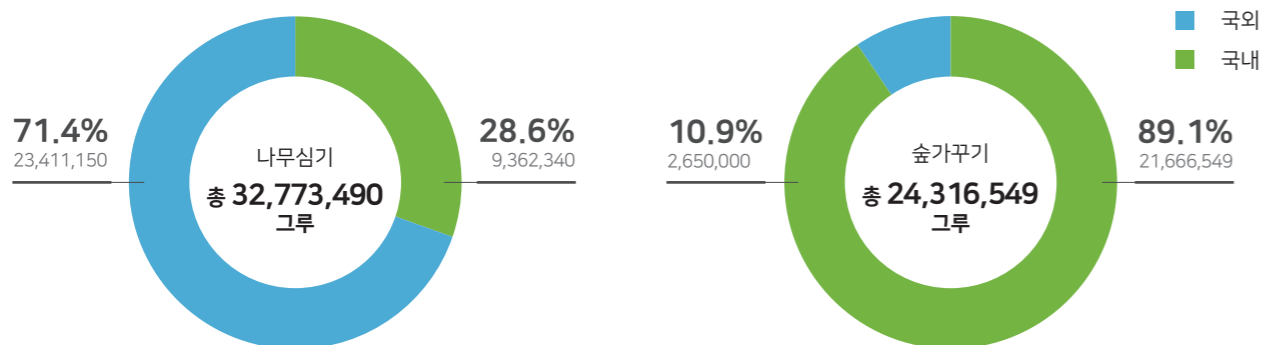
도시숲 조성 실적

단위: ha, 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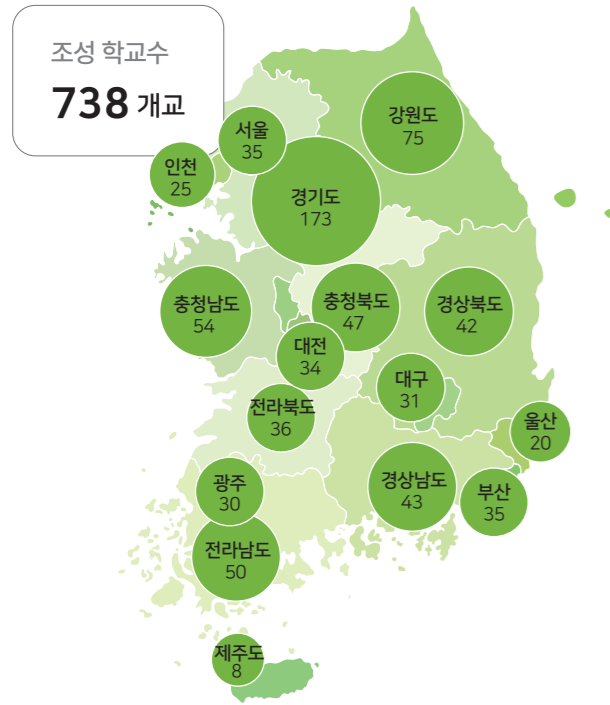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국내외 비중

단위: %, 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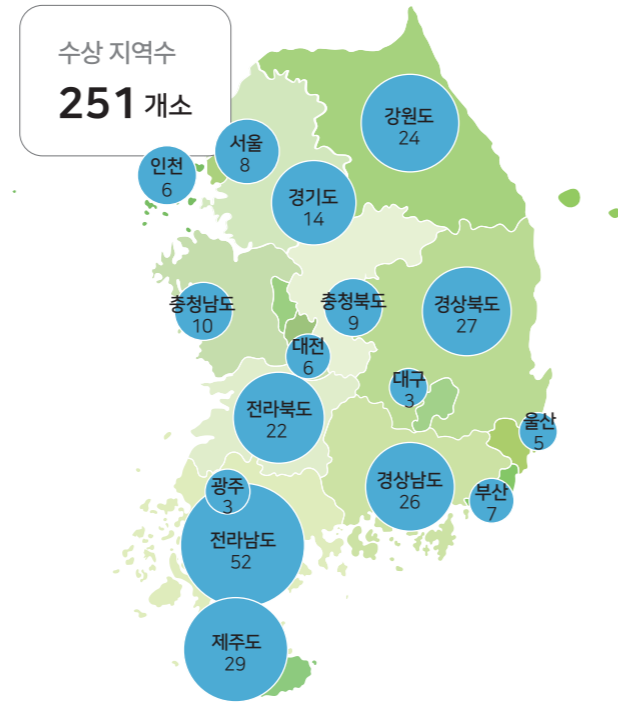
학교숲 조성

단위: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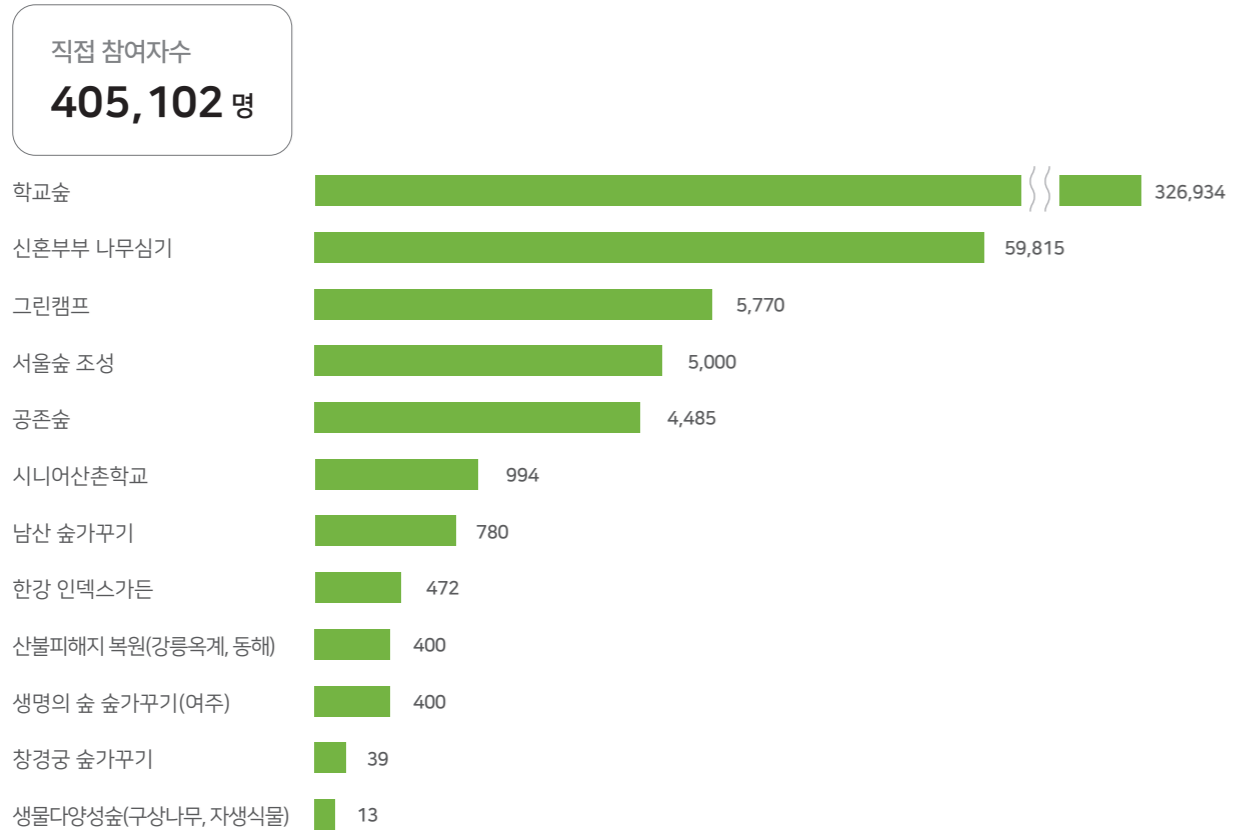
아름다운숲 전국대회 수상지

단위: 개소



사업별 시민참여 현황

단위: 명



숲길 조성

단위: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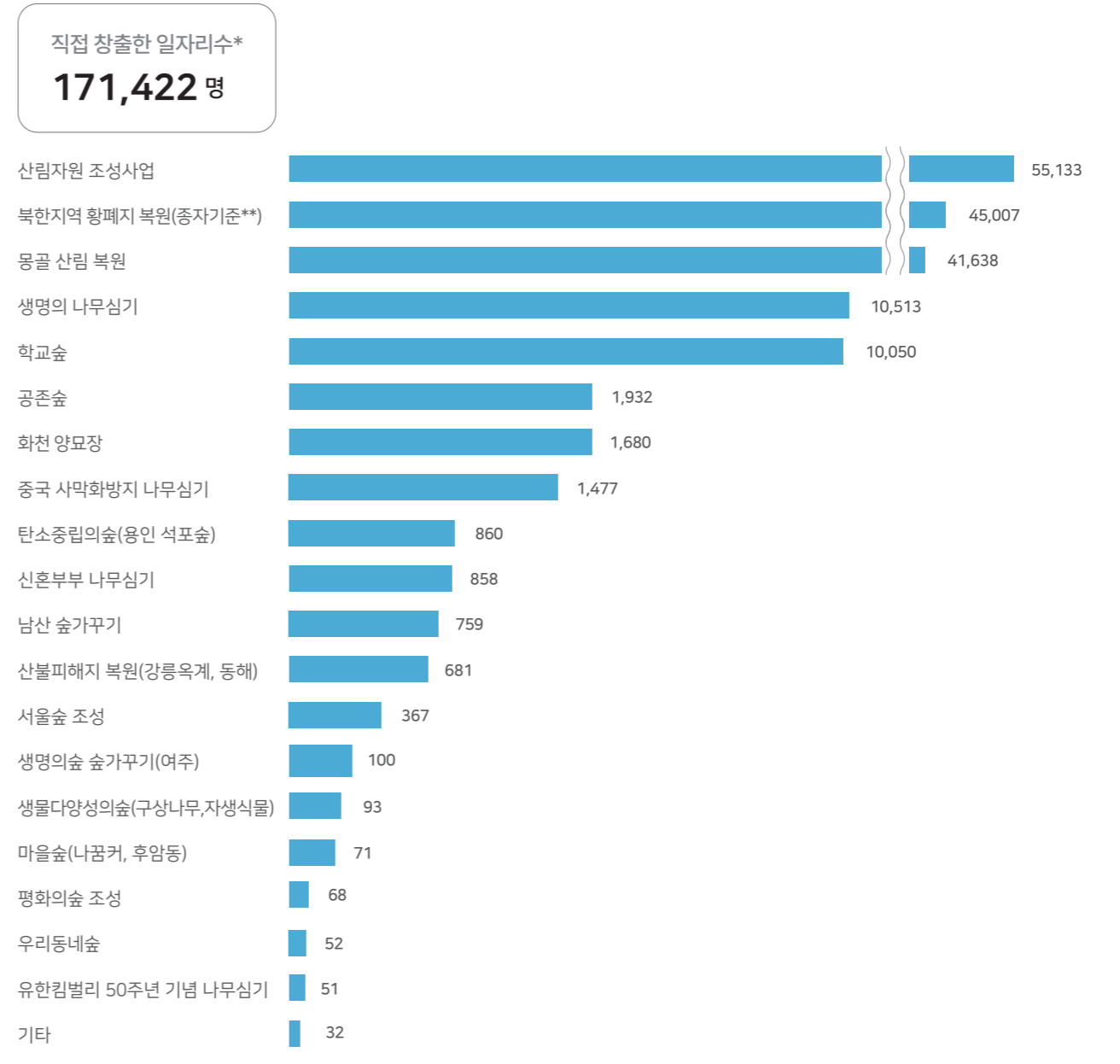


숲길 총 **66.8** km 조성



일자리 창출 성과

단위: 명



* 일자리 산출 기준: 식재 1,000본당 3.5인, 숲가꾸기 1ha 당 7인
 ** 산출기준: 종자 1kg=16,350본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 자문 기준) 적용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40년 이해관계자가 본 캠페인

본 내용은 위원회를 주관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ESG연구센터 결과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발췌 구성했으며, 별도의 인터뷰로 백서 내에 소개되는 인물을 제외한 전문가들의 의견 중 성과 중심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2023년 10월 11일 '생명의숲'과 공동으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39년간의 성과와 가치』라는 주제로 제20회 이해관계자위원회를 한국여성재단 행사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숲 조성 및 발굴, 일자리 창출, 국민인식 개선 등 여러 성과를 일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40년(2024년 기준) 발자취와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캠페인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가치확장에 주목했으며, 참가자들의 캠페인 미래 방향성 제언도 있었다.

표1.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임팩트 요약**

| KKG 가치의 확장 | 유한킴벌리로의 임팩트 | 사회로의 임팩트 |
|---|---|---|
| <p>1. 캠페인 대상지 확장 - 국내 → 북한, 중국, 몽골</p> <p>2. 캠페인 주제 및 목표 확장 - 당대의 사회환경 이슈에 대응 - 국내 환경 → 국내 사회 및 글로벌 환경 - SDGs 4(양질의 교육), 8(양질의 일자리), 11(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15(육상 생태계 보전), 16(평화와 정의)</p> <p>3. 파트너십 확장 - 오랜 시간 추진됨에 따라 정부,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파트너십 확대</p> | <p>1. 선도적 사회공헌 사업 인정 - 40년의 일관성 및 지속성으로 사업 진정성에 대한 평가 - 제도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회책임경영의 선도적 수행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정당성 인정</p> <p>2. ESG연계 아젠다 선점 - 생물다양성 확보, 탄소배출저감과의 직접적 연계(희귀성, 차별성, 모방불가성, 비대체성)</p> <p>3. 브랜드 가치 향상 - 소비자 인식도/기업명성 조사 결과 '친환경 기업', '윤리적 기업' 등 상위권 유지</p> <p>4. 기업 명성 확보 - 기업명성확보에 '기업 정체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오랜 캠페인 수행으로 철학에 기반한 활동으로 인정됨</p> | <p>1. 국민인식 증진 - 나무심기, 숲가꾸기에 대한 인식 확산 - 숲가꾸기를 넘어 도시숲, 국제산림협력 등 '산림'에 대한 인식 증진</p> <p>2. 직간접 일자리창출 - 171,422개의 산림일자리 창출 - 정부의 산림일자리 정책 흐름에 긍정적 영향</p> <p>3. 국가차원의 법제도 형성 기여 - 기업의 산림자원조성 협력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 (법제정에 앞선 활동 시작)</p> <p>4. 기업시민 역할의 제시 - 여러 파트너 기관과의 주체적 활동과 거버넌스로 기업시민의 역할을 제시</p> |



* 참석자: 오충현 교수(동국대), 김재현 교수(건국대), 문정빈 교수(고려대), 김병규 교수(연세대), 김석권 소장(前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김인호 센터장(국가환경교육센터), 신강군 교수(前 한세대), 이강오 원장(前 한국임업진흥원), 차희원 교수(이화여대), 최준석 대표이사(前 산림조합중앙회), 진재승 유한킴벌리 CEO와 경영진
 ** 출처: 제20회 유한킴벌리 이해관계자위원회 결과보고서, 수행기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ESG연구센터

유한킴벌리가 위장환경주의 기업들과 다른 차별점은 진정성, 이를 확인하는 두 가지 요소는 투입된 시간과 일관성

문정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경제학, 경영학 관점에서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같은 캠페인이 어떤 비즈니스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나 나무를 심고 싶다는 그런 의지는 있으나, 왜 지난 1년 동안 한 그루도 안 심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은 굉장히 간단한 답을 내놓고 있다. 그게 외부성의 문제 또는 공공재의 문제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을 하면 다양한 기여 효과가 있지만, 그 혜택을 나무를 심는 사람이 직접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서 나무가 심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을 내세우는 친환경이 대세인 현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 유한킴벌리는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가장 큰 핵심가치는 결국 진정성이며, 진정성을 확인하는 두 가지 요소는 '투입된 시간' 그리고 '일관성'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왔고 다른 기업들보다 10년, 20년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1984년에 시작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2030년까지 이제 6천만 그루 이상을 심고 가꾼다고 한다. 1984년, 40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 그 해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을 했고,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5천 달러도 안되던 시기였다. 지금과 다른 세상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친환경 경영이 요즘처럼 대세가 되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친환경 경영에 아무도 관심이 없던 시절도 있었다. 친환경 경영이 주주총회에서 비용 때문에 환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때조차 유한킴벌리는 흔들리지 않고,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는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일관성이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가치는 1984년 시작 당시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시대적 배경이 캠페인의 선도성을 설명한다. 그 당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익명성은 생산자 책임을 피하고 소비자가 가성비를 중시하는 변화를 불러왔으며, 기업의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투입 요소만 생각하던 때이다.

또한 마이클 포터의 경쟁이론(1980), 현재 ESG경영 개념의 시작이 되는 프리만(1984)의 이해관계자 접근이론 등이 시작되었고, 특히 마이클 포터 교수는 환경경영 규제에 기업은 부정적일 필요 없이 규제에 맞춰 기술을 혁신하여 친환경 방식으로 경쟁의 원천을 삼으라고 제안했다. 이때부터 무형자산이라는 모방하기 어려운 핵심자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단기적 이윤극대화보다 진화적 관점의 목적지향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이 경영학에서 처음 받아들여지게 된 시기다.

환경-사회적 가치 창조의 3원칙(Alex Edmans)인 (1)'곱셈의 원칙'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이 있어야 하며, (2)'비교우위의 원칙' 경쟁자보다 잘하는 것을 해야 하고(예: 자동차회사의 장애인을 위한 차량개조), (3)'중대성의 원칙'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해야 하는데, 이 관점에서 유한킴벌리의 공익캠페인은 이미 1984년에 최적의 선택을 하였고, 소비자의 인식 조사를 통해서도 브랜드가치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2023년 제20회 이해관계자위원회 속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높은 기업 명성을 가진 유한킴벌리, 연관성을 갖춘 스토리텔링 전략 필요

차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



유한킴벌리의 브랜드 가치는 사회적 가치 면에서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둘 다 매우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부터 한국형 기업명성지수를 발표하고 명성높은 기업순위를 발표해 왔는데, 늘 3위권 안에 있었다. 순위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액이 높거나 글로벌 기업으로 명성높은 재벌그룹사 등이었는데, 유한킴벌리의 경우 유일하게 사회공헌활동이 높은 기업이자 윤리적인 기업으로 높은 명성순위를 보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기업 명성에 대해, 경영학적 관점인 신호이론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의 활동에 대해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호가 적절하면 명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40년 동안 이해관계자 요구나 기대를 끊임없이 확인하였고 그에 맞춰 회

사의 구조나 미션, 목표 등을 변경해 왔으며 이러한 것에 부합하는 활동과 캠페인을 실현해 왔다. 따라서 경영학 관점에서 볼 때 유한킴벌리는 이해관계자가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데 맞춰서 매우 적절한 신호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영학의 자원의존 이론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특성으로 희귀성·차별성·모방불가능성·비대체성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유한킴벌리의 캠페인이 시작 당시 다른 기업과 매우 차별적이며 희소한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YK에게 브랜드 가치를 갖춘 자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원의 특징인 모방불가능성과 비대체성 요소에서는 다른 많은 기업이 YK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모방하고 대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YK의 명성이 다소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기업이 명성을 얻는다고 본다. 유한킴벌리는 이미 사회 제도권 내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훨씬 이전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했고, 따라서 많은 사람은 유한킴벌리가 우리의 기대나 규범 이상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해 왔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기업이라는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사회적 정당성을 얻어낸 기업은 웬만한 위기에든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게 된다.

조직학적 관점에서는 기업의 정체성이나 철학,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미 40년 전부터 독보적이며 독특한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조직의 철학을 수립하고 이와 일치되는 캠페인을 지속해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조직 철학이나 비전 등 정체성 차원에서도 남다른 차별화된 명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명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소비자 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기업 명성은 사람들의 인지 구조 안에서 매우 견고한 스키마(Schema)로 자리 잡게 되면서 기업에 안정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다. 수십 년간 유한킴벌리가 일관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강한 스키마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게 되면서 기업 명성은 매우 견고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쟁우위를 갖추게 되었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2023년 제20회 이해관계자위원회 속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기업브랜드 가치에 유리한 조건, 유한킴벌리의 열렬한 지지자를 만들 수 있는 사회활동이 되어야

김병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기업이 이익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무형의 가치이다. 과거에는 이런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신뢰도와 인지도, 이 두 가지였다. 그러나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신뢰도, 인지도가 아닌 다른 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그 움직임이 크게 두 가지다. 아주 재밌거나 아주 의미가 있거나. 그래서 재밌고 친숙하게 젊은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브랜드들이 있고 아니면 의미(meaning), 사회나 삶에 의미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최근에 많은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브랜드들이 '브랜드 액티비즘(Brand Activism)'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 단순하게 금전적인 후원을 하는 수

준이 아니라 아예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는, 그게 결국은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기업들의 사회활동은 결국은 다 매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이런 브랜드 액티비즘이 최근 들어서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한킴벌리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성과, 결과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좋은 활동들이 브랜드의 가치, 기업의 매출, 이익률과 연결이 되려면 이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또 이런 활동이 정말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려면 기업에게 일종의 면역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제조 기업은 생산 활동에서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고객들이 편들어 주고 보호해 주려는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그럴 때 들고 일어나는 브랜드가 있다.

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은 브랜드의 열렬한 지지자들, 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유한킴벌리가 앞으로 이런 팬들을 만들려면 이런 활동들에서 주역은 사실은 젊은이들, 고객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 고객들, 소비자들,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로 이런 사회활동을 함께 했을 때 이들이 유한킴벌리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그게 유한킴벌리의 면역력을 높여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글은 2023년 제20회 이해관계자위원회 속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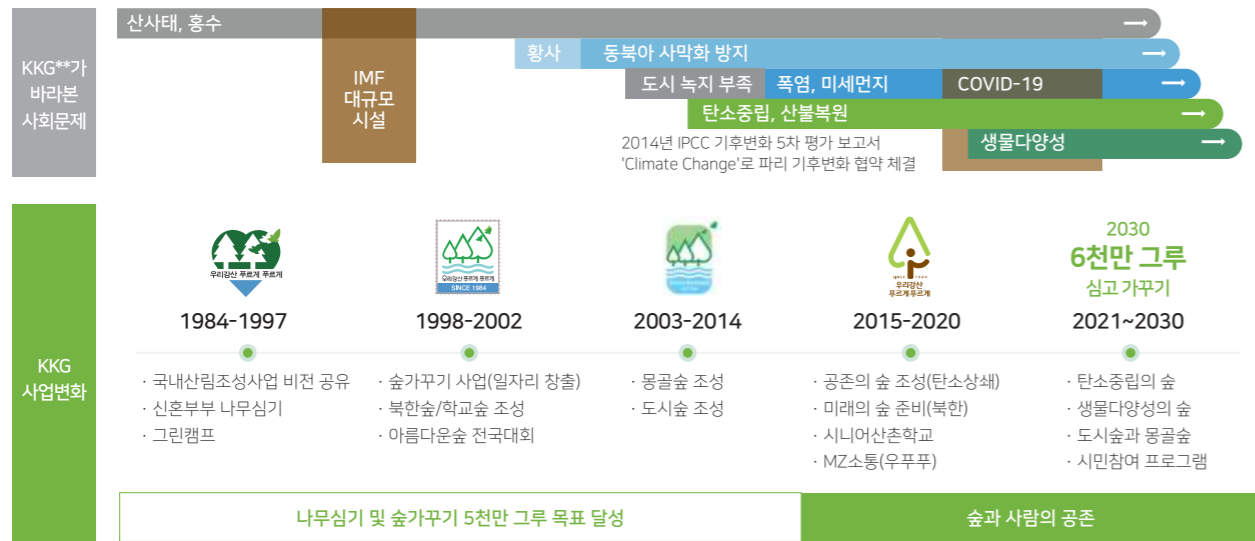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회적 성과와 임팩트

본 내용은 2023년 8월 평화의숲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사회적 성과 정리 및 발전방안 연구'*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성과와 임팩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

유한킴벌리는 1984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Keep Korea Green, KKG)'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캠페인을 통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뿐 아니라 숲을 매개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 국토녹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림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IMF로 인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이후 도시문제, 황사 등 사회·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성숙한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활용함으로써 이와 공존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증진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유한킴벌리는 '탄소중립의 숲', '생물다양성의 숲'을 조성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캠페인의 내용뿐만 아니라 활동 범위도 국제사회로 확장되고 있다.

그림 1. 주요 사회 이슈별 유한킴벌리 사회적 책임 대응



향후 캠페인의 사회적 기여도를 확장하고 심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40년 동안의 캠페인을 통해 축적한 사회적 성과를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기준',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등 3가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난 40년 동안의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 보고서명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사회적 성과 정리 및 발전 방안 수립 연구, 수행기관 : 평화의숲, 대표연구자 :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김재현 교수, 산림사회학연구소 김주연 연구원
** KKG(Keep Korea Green)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따른 사회적 성과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UN SDGs의 17가지 주목표 중 15번 육상생태계를 포함한 7가지 주목표의 달성과 연관되어 있다. 캠페인은 국토녹화에 기여하며 국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림과 당대의 사회적 이슈를 결합하며 점차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SDGs의 5P(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5가지 요소,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 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전반에 걸쳐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확장 및 강화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증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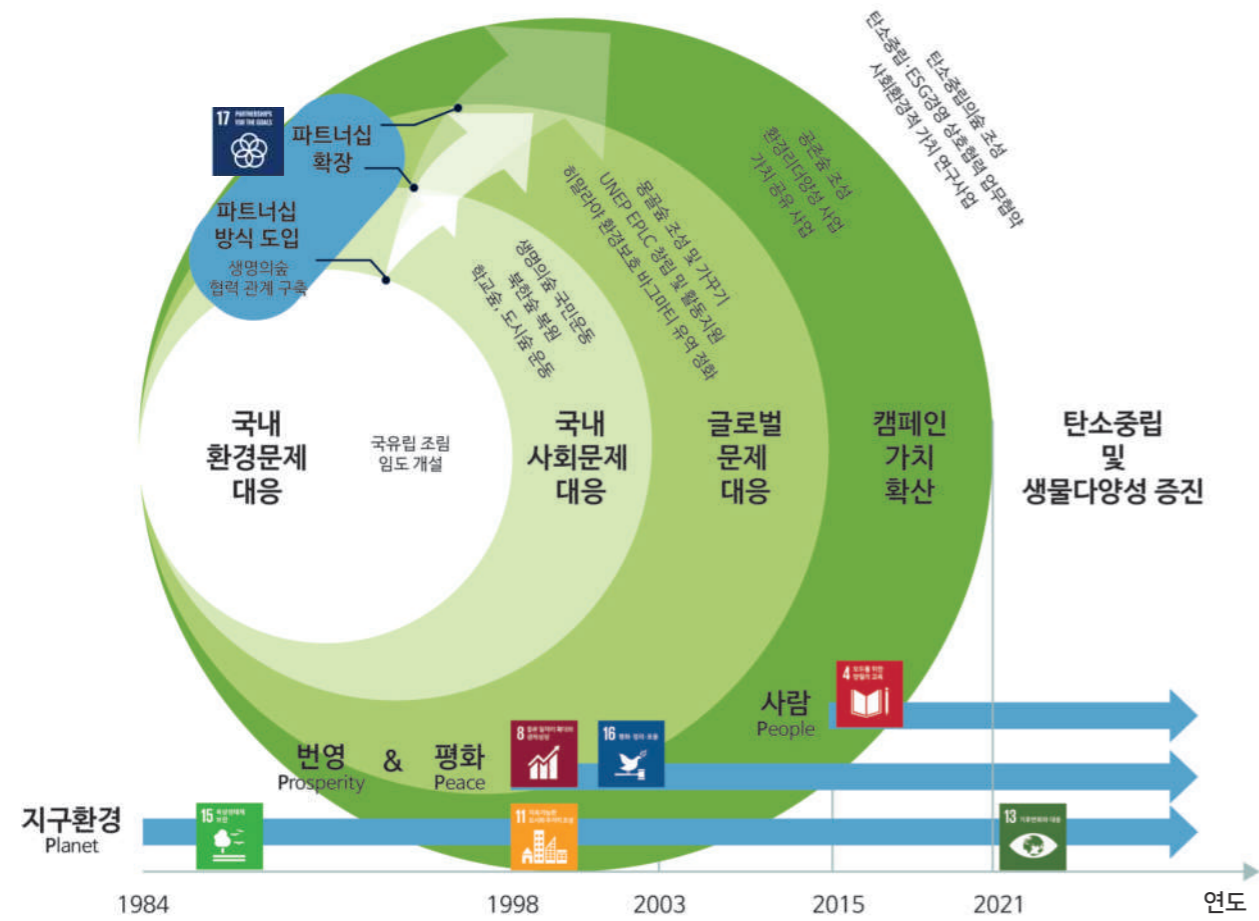
표 2.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과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연계성

| SDGs 주목표 | 캠페인의 주요 활동 |
|--|--|
|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 · 그린캠프 |
| 8. 모두를 위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
| 11. 지속가능 도시 | · 학교숲 운동 · 도시숲 운동 |
|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대응 | · 탄소중립의 숲 · 생물다양성 숲 |
| 15. 육상생태계 | · 산림자원 조성 사업 · 학교숲 운동 · 도시숲 운동 · 공존숲 ·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 사업 |
| 1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 북한 황폐지 복구 |
| 17. 파트너십 | ·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거버넌스 구축 |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아래의 3가지 차원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 성과를 확산해 왔다. 첫 번째는 '공간적 확장'으로, 1984년 캠페인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국내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며 북한 나아가서는 중국과 몽골 등 동북아 생태계 증진에 힘써 왔다. 두 번째는 '캠페인 주제 및 목표의 확장'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다양한 SDGs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뿐 아니라 산림을 매개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캠페인의 주제를 확장해 왔고, 동시에 캠페인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캠페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범위 또한 확장되었다. 세 번째는 '파트너십의 확장'으로, 캠페인 추진 방식이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의미한다. 산림청, 산림조합 중앙회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영역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하였으며, 나아가 국제사회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방식의 캠페인 추진을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다.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 SDGs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 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통해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목표로서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결의되었음.

그림2. SDGs 5P*에 따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발전 도식화



1)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기준
 IMP는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고 보고할 때 서술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UN, G7, OECD 등 정부 간 기구에서부터 GII, Tonic 등 민간투자자 연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로벌 조직 간 합의점을 도출한 표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목받는 임팩트 측정관리 프레임워크 중 하나임. IMP는 'What(사회적 성과의 내용)', 'Who(사회적 성과의 이해관계자)', 'How Much(사회적 성과의 발생 수준)', 'Contribution(기업의 개입에 의해 추가로 창출된 사회적 성과)', 'Risk(리스크의 크기)' 등 5가지 차원, 15가지의 데이터 카테고리 구성되어 있음.

* 5P: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지향하는 원칙을 말하며,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3가지 방향과 제도 구축, 이행 협력의 2가지 실행 방법이 내재되어 있다.

IMP¹⁾ 기준과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²⁾ 개념으로 분석한 사회적 성과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진행해 온 사업들을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IMP 분석과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단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 3.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IMP 분석 결과

| 카테고리 | 캠페인 사업명 | 사회적 임팩트 |
|-------------------------|------------------------------------|---|
| 거버넌스형 산림자원 조성 및 숲가꾸기 | · 산림자원조성사업 ·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 · '숲가꾸기'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 및 국민의 인식 향상 · 정부 주도의 숲가꾸기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중심의 지속적인 숲가꾸기로 변화 ·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 확대 |
| 산림문화 확산 | · 그린캠프 | · '숲체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계기 형성 ·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의 숲체험 및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향상 |
| 도시숲 조성 및 시민참여형 운영관리 확산 | · 학교숲 · 도시숲 | · '학교숲'이라는 새로운 개념 제시 · '학교숲'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출 유도 · 도시숲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 |
|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 | · 공존숲 · 시니어산촌학교 | · 지역주민 참여, 거버넌스형 산림 관리 체계 제시 · 귀산촌 희망자들이 귀산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국외 숲 만들기 | · 북한 황폐지 복원 · 몽골, 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 · 숲을 통한 남북협력의 기반 마련 · 북한의 자립적인 산림복구 지원 · 국제산림협력의 추진력 향상 · 국내 황사 발생 빈도 소폭 감소 |
| 탄소중립 및 생물다양성 증진 | · 공존숲 · 생물다양성숲 | ·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민관협력 활성화 |

2)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집합적 임팩트'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며, 개별 단위의 조직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에 착안하여 등장한 개념임. 단일 조직의 개별적인 임팩트 활동 보다는 여러 섹터의 조직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훨씬 큰 임팩트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음.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개념은 개별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거시적인 차원에서 집합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으로서, '생성단계', '성장단계', '확장단계', '안정단계' 등 4단계의 발전단계를 지니고 있음.

표 4.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집합적 임팩트 생태계 발전 단계 분석 결과

| 카테고리 | 생성 | 성장 | 확장 | 발전 |
|--------------------------|--|---|--|--|
| 거버넌스형 산림자원 조성 및 숲가꾸기 | 1984 ~ 1997 | 1998 ~ 2002 | 2003 ~ 2009 | 2010 ~ 현재 |
| | · 산림자원조성사업 시작 · 국토녹화에 기여 |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 · 생명의숲 국민운동 창립 지원 ·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숲 운동 다양화 | · 숲가꾸기 사업의 정책사업화 · 거버넌스형 사업 추진 모델 활성화 | · 숲가꾸기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 · 기업의 산림분야 CSR 활동 보편화 ·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산림문화 확산 | 1984 ~ 1999 | 2000 ~ 2004 | 2005 ~ 2015 | 2016 ~ 현재 |
| | · 숲과 환경문제에 대한 공익광고 캠페인 · 신혼부부 나무심기 · 그린캠프 | · 전국의 아름다운 숲 발굴 및 홍보 · 숲과 문화 예술 분야 협력 지원 · 문학의 집 서울 지원 · 우리숲 사이트 운영 | · 평화의숲과 협력, 신혼부부 나무심기 진행 · 아름다운 숲 청년 모니터링 단, 아름다운 숲 기행 지원 | · '숲해설'이라는 자연체험 학습의 새로운 영역 형성 · 산림교육법 제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역 중심 산림관광 플랫폼 제시 |
| 도시숲 조성 및 시민참여형 운영관리 확산 | 1995 ~ 2001 | 2002 ~ 2006 | 2007 ~ 2015 | 2016 ~ 현재 |
| | · 학교숲 운동 시작 · 산림청의 학교숲 개념 도입 | · 서울그린비전 2020 프로젝트 제안 · 서울그린트러스트 창립 지원 · 서울숲 조성 지원 · 학교숲 산림청 협력사업으로 확대 | · 학교숲 조성에 기업 참여 확대 · 부산그린트러스트, 수원그린트러스트, 광주푸른길 등 도시숲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 · 우리 동네숲 프로젝트 지원 | · 한강 인덱스가든 프로젝트 지원 · 도시숲 법제화 |
|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 2001 ~ 2009 | 2010 ~ 2014 | 2015 ~ 2017 | 2018 ~ 현재 |
| | · 농산촌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제안 · 마을조사단 사업 지원 · 생태산촌 운동 지원 | · 생태산촌 운동,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지속 참여 | · '숲과 사람의 공존' 비전 제시 · 거버넌스형 지역산림관리 프로젝트 '공존숲' 지원 · 시니어산촌학교 지원 | · 완주군, 정선군 등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사업에 영향을 미침 ·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설립에 영향을 미침 |
| 국외 숲 만들기 | 1994 ~ 1997 | 1998 ~ 2006 | 2007 ~ 2015 | 2016 ~ 현재 |
| | · 세민재단, 산림전문가 등과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논의 시작 · 동북아 지역 산림황폐화 실태 및 복구 대책 연구 | · 동북아산림포럼 창립 지원 · 평화의숲 창립 지원 · 북한 산림복구 지원 · 한중우의림 조성 · 한몽우의림 조성 | · UNEP 에코피스아시아 설립 지원 · 북한 산림 복구 지원 활동, '겨레의숲'으로 확장 · 몽골 토진나르스 숲가꾸기 지속 | ·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미래 준비의숲 양묘장 사업 진행 · 몽골 토진나르스 생태타워 준공 ·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지원 · 국제산림협력이 산림청의 주요 사업으로 설정됨 |

캠페인이 창출한 사회적 임팩트

주요 임팩트는 '산림에 관한 국민 인식 증진의 촉진제', '직·간접적 산림일자리 창출', '국가차원 법·제도 형성의 단초'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림에 관한 국민 인식 증진의 촉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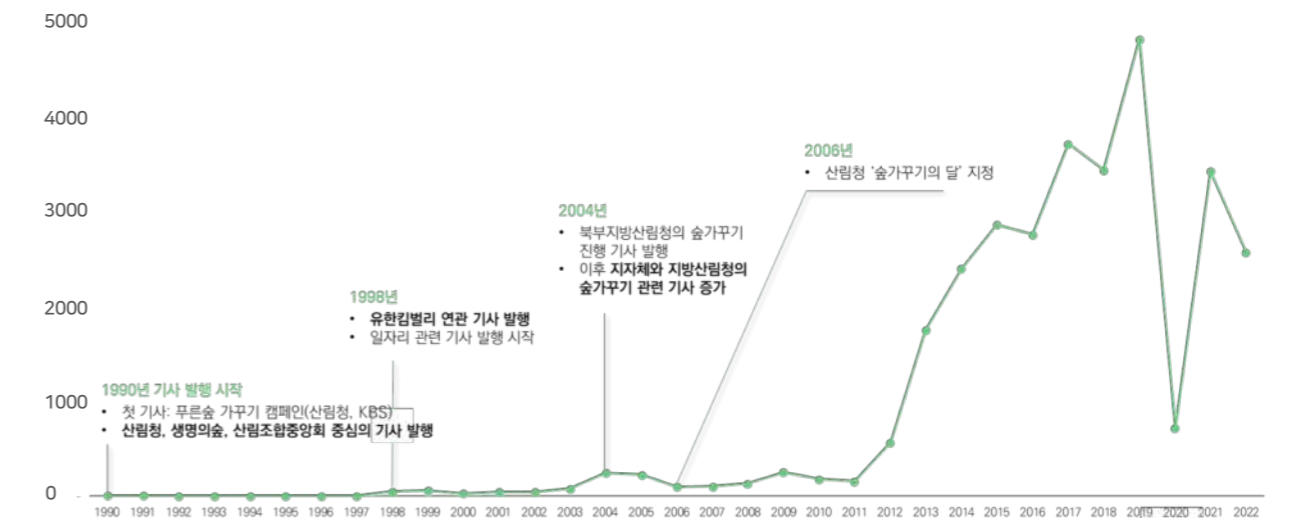
유한킴벌리는 '숲가꾸기', '도시숲', '남북산림협력' 등 산림에 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숲가꾸기'의 경우 1997년까지는 산림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반면, 2010년과 2023년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각각 23%, 82.9%의 국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 점차 숲가꾸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증진이 촉진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8년 유한킴벌리 주도의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제안,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출범 이후부터로 볼 수 있으며, 분기점이 된 1998년 이후에도 시민사회와의 협력구조를 기반으로 한 꾸준한 캠페인 운영을 통해 산림과 관련한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마련을 촉진해왔다.

이는 숲가꾸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조사 결과뿐 아니라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서 숲가꾸기를 언급한 빈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1997년까지 0에 가깝던 횟수가 1998년 46개로 증가하고, 숲가꾸기가 산림청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언급 횟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 숲가꾸기 국민 인식 및 언론 노출 빈도 변화

단위: 건수



둘째, 직·간접적 산림일자리 창출

유한킴벌리는 캠페인을 통해 1985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총 17만 개의 산림일 자리를 창출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뿐 아니라 정부의 산림일자리 정책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가 차원의 산림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1998년의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정책을 정부에 주도적으로 제안하며 '산림일자리'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88년부터는 그린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숲체험', '산림교육' 관련 공감대 확산, 산림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KKG는 숲과 사람의 공존으로 캠페인의 비전을 전환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산림을 매개로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산림 분야의 사회적경제 융합과 산림일자리발전소와 같은 조직 신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KKG의 직간접적 산림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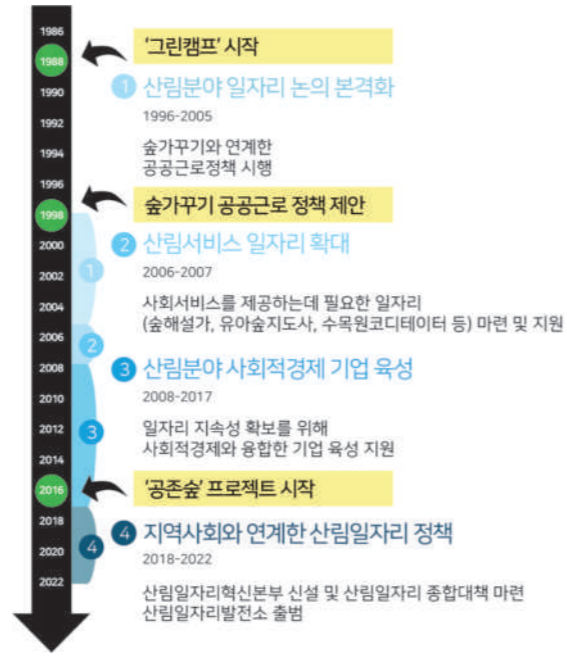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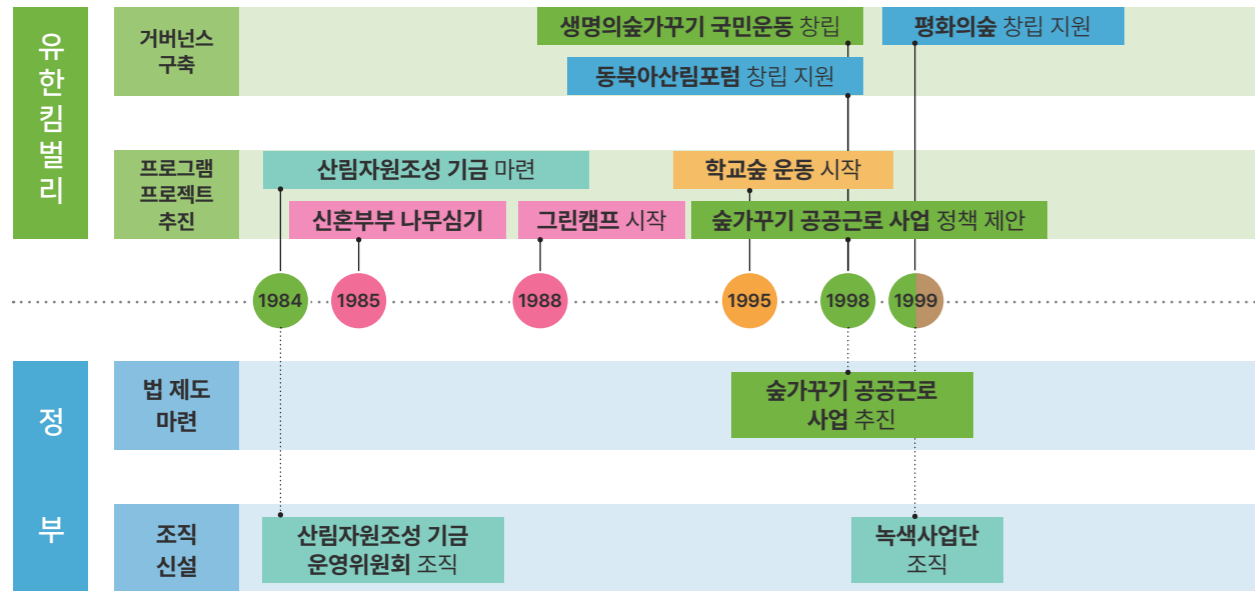


그림 5. 국가차원 법·제도 및 조직 형성의 단초



● 기업의 산림자원조성 협력 ● 산림문화 ● 산림일자리 ● 도시숲 ● 국제 산림협력

셋째, 국가 차원의 법제도형성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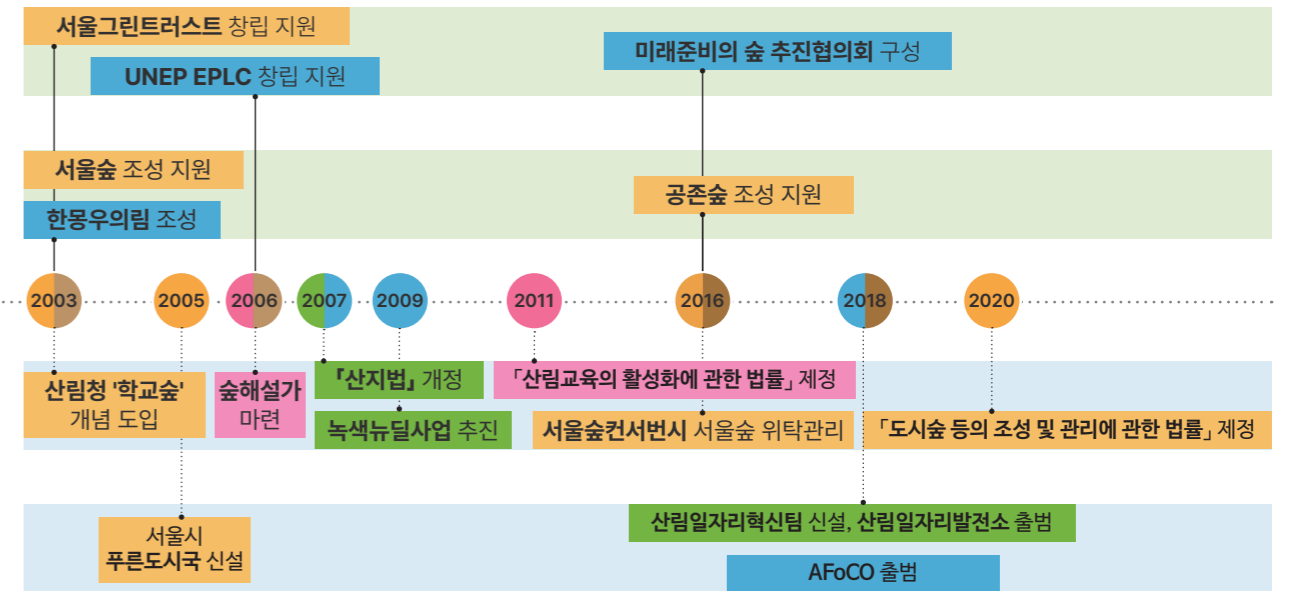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지속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산림 관련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법제도 및 조직 형성에 단초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84년 산림자원조성기금 마련은 1999년 산림청의 녹색사업단 형성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부의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하는 구조의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시작된 그린캠프는 '숲체험', '산림교육' 키워드를 활성화함으로써 '숲해설가' 등 관련 직종이 마련되고, 나아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유도를 이끌어내는 단초 역할을 했다.

1995년 시작한 학교숲 운동과 2003년 서울그린트러스트 창립 및 서울숲 조성 지원은 '도시숲'과 '시민참여형 도시숲 관리'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증진을 끌어냈으며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 운영·관리의 민간 위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도시숲 관련 제도 체계화의 촉진제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평화의숲'과 '동북아산림포럼', 'UNEP EPLC' 창립을 지원하며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생태계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 체계는 이후 국가 간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AFoCO 출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정책 제안 및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창립 지원은 산림일자리 창출 본격화의 시작이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국내외 사회적 환경이 유한킴벌리에게 준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자, 선물



문국현

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전)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탄생의 장본인인 문국현 대표는 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캠페인이 되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 꿈을 버리지 않고
 지속해서 노력한 것,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았던 것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성공 비결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와의
 격차를 지속해서 알리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끌어내는
 끈기, 사명감, 리더십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시작 배경이나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화가 한창일 때였어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인데, 양론이 있었어요. 산업화를 위해서는 환경을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와 선진국처럼 우리도 환경친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70년대 중반부터 폐수 처리 방식 등에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했었지요. 그런데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산업폐기물 문제도 크게 부각될 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1982년 호주에 1년 동안 파견되어 선진 경영을 공부하게 되었지요. 그때 에를플라우먼이라는 아시아 책임자와 함께 환경 문제를 고민하다가, 한국의 물 문제뿐만 아니라 산림 복구도 나라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같이 바꾸면, 성과가 빠를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Help Us Help Keep Korea Green)라는 새로운 국민적 생태환경 캠페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1년 후 귀국해서 한국 경영진의 동의를 받고, 1년 가까이 정부를 설득했어요.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민간이 조립하려는 것이니까 정부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지요. 1984년 8월 14일 드디어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운동이 시작됐죠. 그 첫날,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5,000만

원을 첫 약정금 겸 시드머니로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민간으로부터 정부가 기금을 받는 첫 사례라 이 기금 관리를 산림조합중앙회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설상가상 이런 출연금은 비록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손비 처리가 되지 않으니 44%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큰 시련이었지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회사에 불편을 끼치고, 합법성에 대한 오해를 받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런 불이익과 정부 내 조립 예산이 부족한 원인으로 산림의 중요성, 산불 예방의 중요성, 산림의 수자원 조성 기능 등에 대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이해 부족이 거론되었어요. 그래서 산림조성과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공익광고를 전개하게 되었고, 10년 후 1994년 1월부터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면세 처리를 해주어, 제 입지도 크게 회복이 되었지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원래 국내 강과 산을 1차 목표로 했는데 산림을 좋게 하다 보면 강과 하천도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초기 산림조성에 집중했지요. 다행히 한강유역특별법 제정 시 저희가 앞장설 수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되었었지요. 산, 호수, 강, 하천은 원래 하나거든요. 심지어 대기까지도요. 수증기가 끊임없이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고, 비가 숲을 거쳐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면서 물과 숲과 대지는 함께 생명의 원천이 되지요. 자연생태계는 끊임없이 연어처럼 윤회하는 거거든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 공익 캠페인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성과나 성공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환경적·생태적 민등산과 재앙을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온 국민이 함께 개선할 공동과제이자 기회로 본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둘째는 세계적 격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산림 선진국들의 재조림, 산림복구 사례를 철저히 연구한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알고 보면 독일도, 미국도 심지어 스웨드도 복구한 숲이었거든요.

셋째는 꿈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통해 수십 년 신뢰를 쌓았던 것이 성공의 비결 같



아요. 넷째,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 초기 고난 극복, 다영역 지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있었어요. 특히 외환위기 시절, ‘생명의 숲 국민운동’ 탄생과 추진의 구심점이 되면서 전 국민과 국제 사회의 각별한 신뢰,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요. 끝으로, 임직원들과 공급망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장서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지요. 특히, 숲 운동과 사회책임 운동이 기업의 성과 혁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경영의 뉴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선순환이 이루어졌지요. 더구나 제 임기 중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나고, 순이익이 수십 배 증가하면서도,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사회책임 기업이 되었던 것이, 기업의 숲 운동을 환경과 사회와 기업 모두를 상생발전 시킬 수 있는 사회책임 경영 운동의 하나로 받아들여 주시고 국민들이 마음껏 지지하고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슈였던 점이나 향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10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기부금에 대해 손비처리가 안되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처럼 제도가 세계적 혁신과 젊은이들의 새로운 사고를 못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와의 격차를 지속해서 알리고,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끈기, 사명감, 리더십을 잃지 말아야 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은 건 하겠다. 선진 사회와의 초격차를 메꾸어 나가겠다는 혁신 의지와 사명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태 환경 개선, 사회 혁신의 열망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더욱 빨리 제도화, 정책화되는 선진사회가 하루빨리 도래하면 물론 더 좋겠지요.

캠페인의 시작

| | |
|---------------------|--------------------|
| 1984 산림자원 조성 및 숲가꾸기 |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
| 1984 공익광고 캠페인 | - 신강군 전)오리콤 이사 |
| 1985 신혼부부 나무심기 | - 이은옥 전)유한김벌리 부사장 |
| 1988 그린캠프 | -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
| 1995 학생들 곁에 숲을 선물하다 | 손승우 유한김벌리 전무 |
| | 이재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



유한김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어떻게 시작했나

유한김벌리는 1970년 창립 이후, 생활용품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왔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2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1970년대 말 부정 부패와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1980년 환경청이 설립되고 각종 공해·환경문제 연구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주목한 유한김벌리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신경영 전략 중 하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시작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목재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산림이 황폐해져 있었다. 이러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 1970년대부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산림녹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1980년대가 되어서도 한국의 산림녹화 실적은 열악했다. 당시 평균 임목 축적률은 현재 임목 축적률 166.20m³/ha(2020년 기준)의 6분의 1 수준인 26.29m³/ha(1984년 기준)에 불과했다. 또한, 산지가 국토의 65%를 차지함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 유한김벌리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로서 바로 이런 상황에 주목했다.

1984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산림녹화 과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 산림 소유주도 임업 전문회사가 아닌, 생활용품 제조회사가 산림녹화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내외 사회적 환경이 유한김벌리에게 준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며, 선물이었다.

1984 산림자원 조성 및 숲가꾸기

1980년대 유한김벌리는 지속적인 산림 조성을 위해 산림자원조성기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기업의 후원기금 사업이 가능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유한김벌리가 조성한 기금으로 숲을 만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산림자원조성기금을 기탁하다

1984년 유한김벌리는 산림자원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주력 브랜드인 크리넥스 매출액의 1%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산림청을 방문했다. 산림청은 기업 후원기금 사업이 가능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유한김벌리가 조성한 산림자원조성 기금으로 숲을 조성하도록 했고,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자원조성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과 집행을 위해 '산림자원조성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 운영위원회는 산림청, 유한김벌리와 산림조합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1984년 11월에 첫 회의를 열고 2005년까지 총 42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1984년 산림자원조성기금 1차 전달 기념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첫걸음

산림자원조성기금은 나무심기, 숲가꾸기 및 숲길 만들기 등을 통한 국토녹화사업, 신혼부부 나무심기, 그린캠프 및 학교 숲 만들기 등의 국민참여운동, 산림 관련 연구사업 등에 지원되었다. 유한김벌리가 1984년부터 2004년까지 기탁한 기금의 89%가 산림 조성사업을 위해 집행되었다.



1985년 첫번째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던 제천군 화당리 참가자와 기념 명패

표 5. 연도별 산림자원조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천 원)

| 연도 | 금액 | 연도 | 금액 |
|------|---------|------|-----------|
| 1984 | 100,000 | 1995 | 300,000 |
| 1985 | 100,000 | 1996 | 350,000 |
| 1986 | 100,000 | 1997 | 350,000 |
| 1987 | 150,000 | 1998 | 350,000 |
| 1988 | 150,000 | 1999 | 350,000 |
| 1989 | 170,000 | 2000 | 250,000 |
| 1990 | 200,000 | 2001 | 250,000 |
| 1991 | 200,000 | 2002 | 300,000 |
| 1992 | 200,000 | 2003 | 330,000 |
| 1993 | 450,000 | 2004 | 200,000 |
| 1994 | 100,000 | - | - |
| | | 계 | 4,960,000 |

* 기금은 당시 기부금 금액이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았음.

사업 초기에는 나무심기 사업에 주로 기금이 쓰였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숲가꾸기 사업에 기금이 쓰이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이 기금은 493만 9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총 1,557ha의 숲을 조성하고, 총 5,976ha의 숲을 가꾸는 데 쓰였다. 또한, 65km의 숲길을 만들고, 19ha의 숲에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그림 7. 사업별 사업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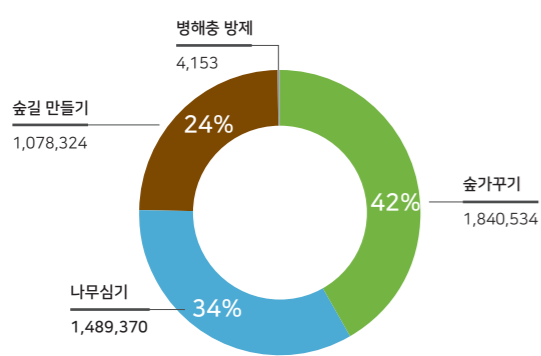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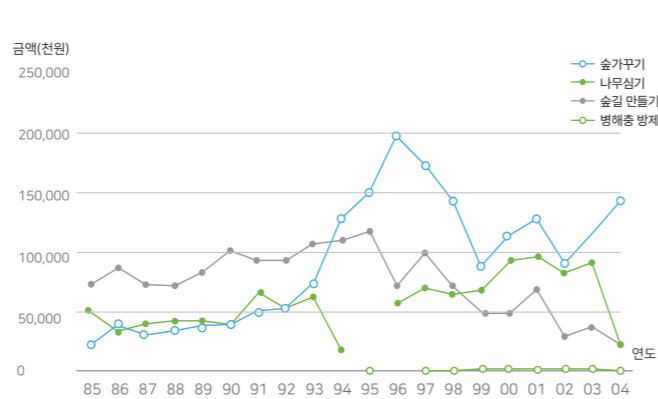


그림 8. 산림사업별 투입금액 추이



7,533ha 숲을 건강하게 심고 가꾸다

숲 조성 사업이 시작된 1985년은 미래 산림 선진국의 기반을 조성하는 원년이었다. 유한킴벌리는 충북 제천시를 비롯해 8개도, 9개의 시군에서 숲을 조성했고, 2004년까지 총 11개 시도, 71개 시군에서 숲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유한킴벌리가 조림 시 중점을 둔 것은 자연환경, 그리고 주변의 조화였다. 이에 맞춰 자생 수종인 잣나무, 낙엽송 등 침엽수를 비롯해 참나무, 자작나무 등 활엽수 20여 종을 선택해 심었다. 분포를 살펴보면 침엽수(70%)의 비중이 가장 크고, 활엽수(25%)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대추나무, 밤나무 등 유실수(5%)를 심었다.

10ha 이상 심은 주요 수종들을 보면, 침엽수인 잣나무가 579.3ha의 면적에 심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활엽수 중에는 자작나무가 153.5ha의 면적에 심어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9. 연도별 식재 면적(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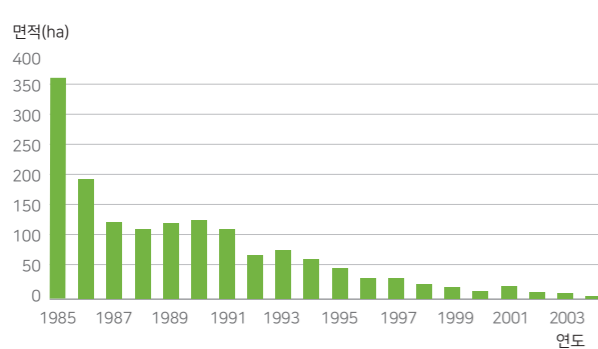


그림 10. 연도별 식재본수(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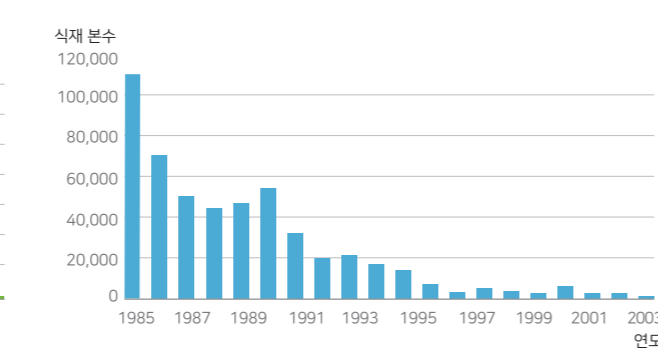


표 6. 주요 식재 수종

| 구분 | 수종 | 면적(ha) | 비율(%) |
|-----|-------------------------------------|---------|-------|
| 침엽수 | 잣나무 | 579.3 | 40.6 |
| | 낙엽송 | 208.7 | 14.6 |
| | 구상나무, 삼나무, 리기다, 버지니아어송, 스트로브잣나무, 해송 | 124.5 | 8.7 |
| | 편백 | 96.5 | 6.8 |
| 계 | | 1,009.0 | 70.6 |
| 활엽수 | 자작나무 | 153.5 | 10.7 |
| | 느티나무 | 97.0 | 6.8 |
| | 상수리 | 90.0 | 6.3 |
| | 물푸레, 고로쇠 | 20.5 | 1.4 |
| 계 | | 361.0 | 25.3 |
| 유실수 | 대추, 밤, 호두 | 24.0 | 1.7 |
| | 은행나무 | 6.0 | 0.4 |
| | 천연하종갱신 | 15.0 | 1.0 |
| | 감나무 | 13.6 | 1.0 |
| 계 | | 58.6 | 4.1 |
| 합계 | | 1,428.6 | 100% |

유한킴벌리는 1985년부터 2004년까지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했다. 총면적 5,976ha에 걸쳐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그리고 천연림 보육, 비료 주기 등이 진행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풀베기와 천연림보육* 작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990년 이후 숲아베기와 비료 주기 등의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림 11. 연도별 숲가꾸기 면적(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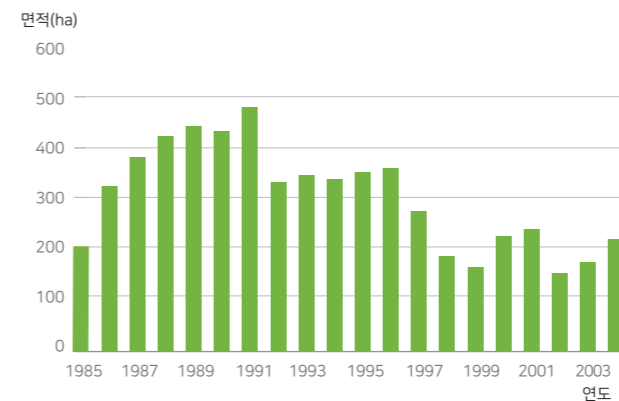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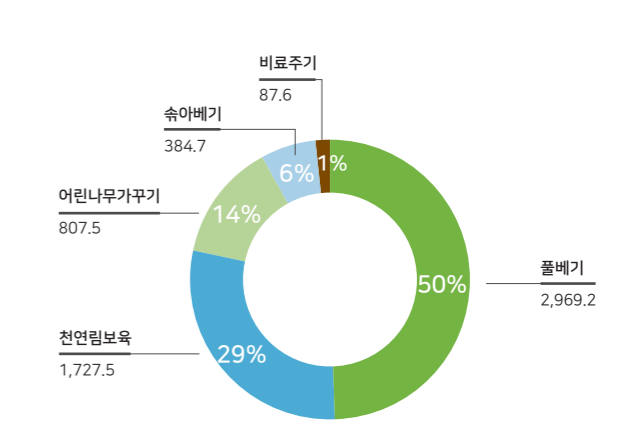


그림 12. 숲가꾸기 사업별 면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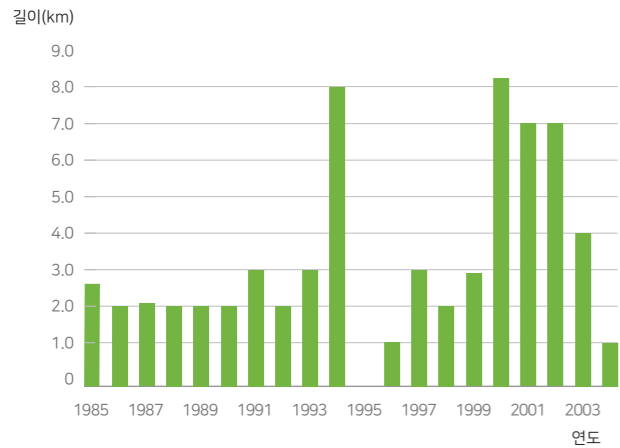
* 천연림보육 : 씨앗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무가 자란 천연림을 대상으로, 형질이 우량한 숲으로 유도하는 산림 작업 방법입니다. 천연림 보육의 목적은 우수한 천연림을 생태적 안정과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65km의 숲길을 만들다

유한킴벌리는 산림사업의 효율화, 재해 방재 등을 위해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총 65km의 숲길을 만들고 정비했다. 1985년 2.6km의 숲길을 처음으로 만든 이후 1993년까지 숲길을 새로 만들어왔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숲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등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숲길은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림보호 등을 위한 교통로와 운반로로 기능하는 것은 물론 산촌 주민의 생활 농로도 쓰이고 있다.

그림 13. 연도별 숲길 신설 및 보수(km)



1997년 나무심기 사업지 거제시 삼거동의 2021년 모습



1997년 거제시 삼거동 조림지 표석

1984 공익광고 캠페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숲가꾸기와 나무심기, 청소년 환경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체험 활동 외에도 TV와 라디오, 신문과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했다. 캠페인 초기인 1980년대에는 숲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캠페인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후에는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과 외국의 선진 사례 소개, 그리고 국내 환경운동과의 연계성을 높인 내용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며 숲의 공익적 가치를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숲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다

캠페인 초기 단계의 시대적 분위기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유한킴벌리는 1980년대의 여러 대중매체의 공익광고를 통해 숲의 중요성 및 숲 조성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취지와 의의를 알리는 데 노력해 온 것이다.

당시 캠페인으로 전개된 내용을 보면 홍수와 가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숲 조성의 필요성, 산불 예방의 중요성, 숲의 수원 함양 기능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TV 광고의 경우 울창한 숲과 인간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 감성적인 소재로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라디오 광고에서는 아름다운 숲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우리강산의 새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희귀한 새소리를 들려주기도 했다.

표 7.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단계 구분

| 단계 | 시기 | 내용 | 목표 |
|--------------------------|-----------|---|---|
| 1단계 이슈 제기 및 인지도 제고 단계 | 1984~1989 | 숲의 중요성을 알리며 나무심기, 그린캠프 등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의의 전달 | 숲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절대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복합자원을 인식시킴 |
| 2단계 사회적 공감 확산 단계 | 1990~1994 | 폐놀 사건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증대에 따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동참 유도 | 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 |
| 3단계 공극적 목표 제시 단계 | 1995~1999 | 외국 환경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미래의 환경에 대한 공극적인 목표 제시 | 숲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해 자연선진국으로의 도약 계기 마련 |
| 4단계 생활속의 구체적 모델 제시 단계 | 2000~2007 | 학교숲, 도시숲 등 생활 밀착형 활동을 통해 21세기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비전 제시 | 생명의숲과 공동으로 생활에 가까운 자연보호 운동의 필요성을 고지하고 동참을 유도 |
| 5단계 사회적 이슈 공감 단계 | 2008~ |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 스케치 | 지구,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제고를 통한 국가적 운동으로의 승화 |

* 출처: 신강균, 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10계명, 컴온 북스

숲의 공익적 가치를 대중매체를 통해 알리다

199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국내에서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CED)'가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유한킴벌리는 숲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국민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건강한 숲, 그리고 숲과 연결된 강과 하천 등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야생동물과 식물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국민에게 수질을 정화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숲이 조성되어야 함을 꾸준히 알려 나갔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숲과 물, 그리고 야생동물을 지켜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모든 내용은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필요했기에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자연선진국의 비전을 이야기하다

환경 보호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환경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다. 유한킴벌리도 기존까지 진행해 오던 공익광고의 방향이 바뀐 것은 이 무렵이다. 숲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던 것에서 이른바 '자연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숲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숲가꾸기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당시 유한킴벌리가 전개한 광고들은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었다. 당시는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강하던 때였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유한킴벌리의 캠페인에 공감하며 숲가꾸기 운동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TV와 라디오 광고를 통해 미국과 뉴질랜드, 독일과 캐나다 등 자연 선진국의 모습을 전하는 감성적인 광고가 주효했다. 특히 숲의 메아리나 굴뚝새, 계곡물과 풀벌레 등 다양한 숲의 소리를 전하면서 숲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효과를 거두었다.

그림 14. 라디오광고 '울새' 편 나레이션

| | |
|-----|--|
| 여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라디오광고 '울새'편 |
| 윤무부 | 우리강산의 새소리를 찾아서 안녕하십니까? 윤무부입니다. 딱새과에 속하는 이 울새는 눈물이 많고 잘 운다고 해서 울새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는 일등새죠. 산림의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운 새이기도 합니다. |
| 여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제공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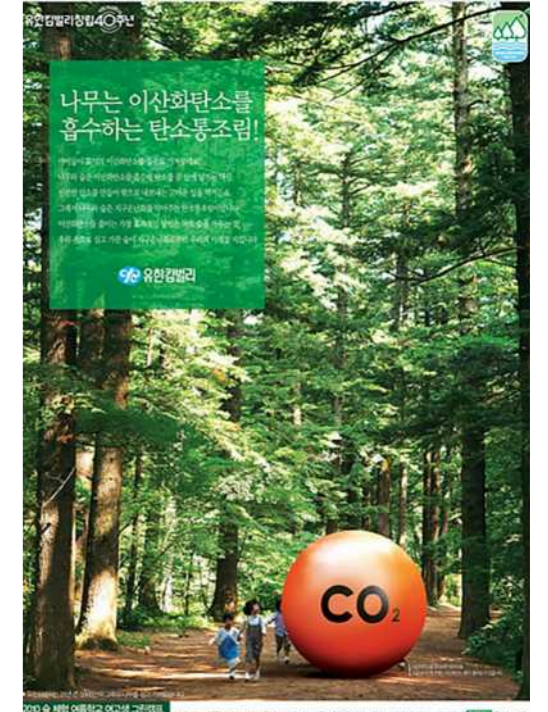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숲운동을 함께 알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숲환경 단체의 출현으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생명의숲, 평화의숲, 동북아산림포럼 등이 숲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들은 학교숲, 도시숲 조성 사업에 이어 북한, 몽골 등 해외에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폭넓은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환경단체의 활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여러 숲환경 단체와 뜻을 모아 생활 속에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의 중요성을 알렸다. TV와 라디오 광고를 통해 '숲이 있는 학교 캠페인' 등 외국의 아름다운 학교 숲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유한킴벌리에서 진행한 캠페인의 핵심은 국민에게 '숲을 더 가까이하는 것'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숲속 생명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일상에서 숲을 더욱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2008년 공익광고 '지구온난화 명태' 편



2010년 공익광고 '탄소통조림' 편

숲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이야기하다

1997년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유한킴벌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구 온난화의 위기를 알리고 숲 조성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당시 전개한 공익광고의 내용은 탄소저장고인 숲을 가꾸자는 취지였는데, 바다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고 산중에 나비가 없어진 이 유가 지구 온난화의 한 단면임을 역설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파괴되는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숲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 공익 캠페인은 당시 국민의 환경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림 15. 공익광고 캠페인의 역대 수상 내역

| | | | |
|------|--|------|--|
| 1999 | '제7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라디오 부문 수상 '대한민국 광고대상' 라디오 부문 금상 및 특별상 수상 | 2008 | '대한민국 광고대상' 라디오광고 은상 및 신문광고 부문 우수상 수상 |
| 2000 | '올해의 광고상' 라디오 광고 캠페인 수상 | 2009 | '대한민국 광고대상' 명태의 숲편 라디오광고 대상 수상 |
| 2001 | '2001 경향광고대상' TV 광고 '학교숲'편 우수상 수상 | 2013 | '대한민국 광고대상' 라디오광고 금상 수상 |
| 2002 | '대한민국 광고대상' 라디오부문 금상 수상 '제10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봄이 오는 소리 편' 라디오 부문 수상 '경향 광고대상' 숲이 있는 도시편 우수상 수상 '세계광고대상' 신문광고 환경광고상 수상 '문화광고 그랑프리' 신문광고 우수상 수상 | 2015 |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
| 2003 | '녹색광고상' 인쇄광고 대상 수상 '대한민국 광고대상' 라디오 부문 금상 수상 | 2016 | '제6회 대한민국 SNS 시상식' 우푸푸채널 사회공헌분야 대상 수상 '대한민국 광고대상' 숲은 해열제편 라디오부문 대상 |
| 2004 | '대한민국 광고대상' 라디오 부문 은상 수상 '대한민국 광고윤리대상' 도시숲편 인쇄부문 우수상 수상 | 2017 | '제14회 서울영상광고제' 동상 수상 '제25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라디오부문 좋은 광고상 수상 '제24회 올해의 광고상' TV부문 금상, 라디오부문 대상 수상 |
| 2005 | '대한민국 광고대상' 라디오부문 금상 수상 | 2018 | '제15회 서울영상광고제' 크래프트 부문 은상 수상 '숲픈날업' 앤어워드(&Award) Winner 수상 |
| 2006 | '제14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인쇄광고 부문 수상 '대한민국 광고대상' 라디오 부문 동상수상 '사회공헌기업대상' 환경보존 부문 대상 수상 | 2019 | '제16회 서울영상광고제' 비TV부문 동상 수상 |
| 2007 | '세계 경향 광고상' 대상 수상 | 2020 | '제17회 서울영상광고제' TV부문 은상 수상 |
| | | 2023 | '앤어워드' 수상, KKG 메타버스숲 나무심기 캠페인 |

*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공익광고 캠페인의 새로운 장을 열다

당시 유한킴벌리가 전개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공익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숲의 소중함, 그리고 숲을 풍요롭게 하는 동식물과 나무와 숲을 가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캠페인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숲과 강에 사는 여러 동식물과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숲을 조성하고, 또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광고는 바쁘게 사는 도시민들에게 숲의 새소리와 바람 소리, 물소리를 전하며 마음의 안식을 주었다.

숲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한 이 공익광고는 학교에서 환경교육 교재로 쓰일 만큼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아울러 자연 선진국들의 숲을 소개하고 숲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숲을 가꾸는 데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유한킴벌리의 공익광고 캠페인은 40년에 걸친 노력 끝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광고 부문에서 여러 상을 받기도 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40년을 일관된 메시지로 전개된 국내 유일무이 캠페인이며, 숲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메시지였다. '국민의 마음속에 숲을 심어주었다'고 평가가 나올 법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공익광고 캠페인들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광고 메시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했다는 게 중요



신강균

전)오리콤 이사

광고대행사 오리콤에서 일하면서 1984년부터 15년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공익광고를 이끌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숨은 증인이기도 합니다.

“ 기업은 소비자, 고객사, 공공기관등 주변의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어울어져 크는 것이지, 기업 혼자 클 수는 없다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한킴벌리는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당시 커뮤니케이션 관련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광고주랑 파트너십 관계였어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자문하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이런 역할인데 내가 유한킴벌리를 맡게 됐죠. 다른 부서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광고 포인트를 잡은 것인가요?

막연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 다음에 나무를 심자. 우리는 매출액의 1%를 어떻게 한다, 그건 그냥 일방적인 고지죠.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게 숲에 가면, 강에 가면, 또 공기 속에서 뭐가 나한테 이득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강에 가면 엄청난 고기들이 있는데 사라지고 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지금은 보지만 곧 못 보는 고기들, 우리 후세대들은 못 보죠. 또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고기들, 이런 고기들을 찾아서 숲이 푸르러지면 물이 좋아지니까 이런 고기들이 계속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 내용을 어떻게 기획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신문을 보면 항상 윗 부분은 기사, 아랫 부분은 광고로 인식하잖

아요. 신문을 구독하기도 하지만, 기사는 돈을 안 내고 보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기업체가 돈을 내고 실는 거라 인식하죠. 신뢰도 면에서 기사에 대한 신뢰도와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사적인 어떤 마인드, 광고지만 기사적인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신뢰도를 높일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기획하게 되었어요. 그걸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광고를 편집하고 개입했던 거죠.



기업 입장에서 공익광고를 1년에 한두 차례 아니면 10년에 한두 차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지금 40년째 계속되고 있죠. 굉장히 특수한 사례일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자기 기업의 이미지와 콘셉트에 맞는 기업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그런 자료가 많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각 기업체가 CEO가 바뀔 때마다 콘셉트가 틀리거나, 아니면 광고를 중단했다가 다시 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콘셉트의 일관성, 또 집행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쌓이지 않는 거죠. 하나를 저금하듯이 이미지를 쌓아 나가는 건데 중간에 사다리가 하나 빠졌다면 이게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관성이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

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보적인 거죠.

캠페인의 성공요인을 뽑으려면 무엇일까요?

성공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기업은 자기 혼자 절대로 일어설 수 없어요. 주변의 모든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 그것이 소비자, 딜러, 공공기관, 그 속에서 어우러져서 크는 거죠, 절대 기업은 자기 혼자 잘나서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진짜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 기업에서는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걸 실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기업의 의지. 그리고 아까 언급한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기부하고 참여하는 것, 주변 네트워크와 같이 해서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를 같이 발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내부·외부의 커뮤니케이션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985 신혼부부 나무심기

신혼부부들이 심은 나무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신혼부부 나무심기는 이러한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시작된 캠페인은 1985년부터 오늘날까지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

신혼부부와 함께 미래의 약속을 심다

환경보호 활동은 단지 나무 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함께 할 때, 숲을 점차 키워나가는 활동이 가능해진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꼽는다면 수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캠페인 초기인 1984년만 해도 나무 심기는 정부 기관이나 산주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던 때였다. 일반 시민이 나무를 심는 일은 흔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황폐해진 숲을 복구하고, 나아가 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였다.

산림자원조성기금의 기부와 함께 나무심기, 숲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캠페인, 그리고 임직원들의 나무심기 프로그램까지, 유한킴벌리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숲을 만들고 가꾸어왔다.



Before 1985년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한 제천시 화당리의 1985년(좌)과 2021년 모습(우)
 After

신혼부부를 초청하여 나무를 심다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숲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무를 심어 숲을 키우자'라는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1988년부터는 숲을 키우는 것과 함께 숲을 가꾸는 일에도 앞장섰다.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무심기 행사에 시민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명사들이 나무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캠페인의 취지인 '시민의 나무심기 참여를 독려한다'라는 점에서 초청 대상으로 신혼부부를 선택했다. 신혼부부가 숲을 지속해서 가꾸는 데 꼭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캠페인은 1985년부터 오늘날까지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

표 8. 신혼부부 나무심기 사업지 생태계 서비스 효과 분석

| 생태계 서비스 항목 | | 가평군 | 광주시 | 안성시 | 제천시 |
|------------|---|---------|---------|---------|---------|
| 공급서비스 | ha당 입목축적량(m ³) | 225.1 | 286.2 | 194.5 | 230.5 |
| | ha당 수원함양량(톤) | 4,810 | 4,578 | 4,183 | 4,754 |
| 조절서비스 | ha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톤) | 16.3 | 17.5 | 14.1 | 16.7 |
| | 단위면적(m ³ /m ²) 당 온도저감 효과(°C) | 3.1~7.7 | 1.8~4.4 | 1.1~2.8 | 2.2~5.5 |
| 문화서비스 | 단위면적(m ²) 당 녹지용적(m ³) | 34.7 | 23.5 | 13.4 | 24.3 |
| 지지서비스 | 식물상(종) | 147 | 44 | 67 | 76 |
| | 곤충상(종) | 27 | 5 | 16 | 미발견 |
| | 조류상(종) | 2 | 3 | 미발견 | 6 |

출처: (사)한국생태계계획연구소, 2021, 신혼부부 나무심기 GIS 분석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1ha의 숲은 연간 168kg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는 가장 정직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며, 미래를 위한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인 셈이다. 1985년 4월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회유림에서 진행된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는 신혼부부들과 유한킴벌리 임직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잣나무 묘목 1만 2천본을 심었다.

이 밖에도 유한킴벌리는 신혼부부들과 함께 1993년에는 지리산 제석봉 일대의 구상나무 군락을 복원하기 위해 구상나무 심기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은 북한 금강산 일대의 산림을 복원하고 북한 주민들의 소득원을 마련해주기 위한 유실수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2023년에는 2022년 발생한 동해안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복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나무심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나무심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숲의 생태계서비스 효과를 높인다

이러한 나무심기 캠페인은 단순히 국토를 녹화하기 위함은 아니다. 유한킴벌리의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한편, 여름철 평균 기온을 낮추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물의 종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서비스* 효과를 만들기 위함이다.

*생태계서비스: 생태계가 직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이득을 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생태계가 사람들이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개념이다.

유한킴벌리는 신혼부부 나무심기를 진행한 숲에 대한 전수조사를 2021-2022년 진행했고, 나무심기 이후 변화에 대해 추적했다. 또한, 이 중 4개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조사를 진행해 실제 숲으로 인해 개선되는 환경적 효과를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수원 함양, 공기질 개선등의 뚜렷한 환경 변화를 보였다. 2021년도에 나무심기를 시행한 경기도 가평군, 광주시, 안성시, 충북 제천시 네 곳을 대상으로 1헥타르(ha)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17.45톤, 제천시 16.76톤, 가평군 16.34톤, 안성시 14.11톤 등으로 환경 개선 효과가 높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나무를 심으며 미래를 준비하다

나무심기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심은 나무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나무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의 뒤를 이어 나무를 심어나갈 것이다. 신혼부부 나무심기는 부모가 심은 나무가 죽더라도 그 자리에 아이들이 심은 나무가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염원을 담은 나무심기 캠페인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이 확정된 예비 신혼부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2004년 신혼부부 나무심기 모집 광고



2023년 신혼부부 나무심기 모집광고

1988 그린캠프

1980년대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지 않던 시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캠프형 환경교육은 없었기 했다. 유한킴벌리는 청소년 맞춤형 캠프를 기획 및 진행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후 타 기관의 청소년 환경캠프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그린캠프는 청소년 숲 환경교육의 롤모델이 되었다.

숲과 환경교육의 중요성

숲은 다양한 생명체가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생태계이다. 숲의 토양은 하늘의 빗물을 저장하고, 빗물은 숲에서 사는 나무와 풀, 그리고 야생동물의 영양분이 된다. 잘 자란 나무의 열매와 잎은 숲에 사는 새와 동물, 곤충의 먹물거리다. 이러한 생명체의 번식을 돕는 것은 숲속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듯 숲의 중요성과 더불어 숲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오늘날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이 숲에서 생명의 원리와 존엄성을 배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환경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숲의 다양한 생명 순환, 지구 순환 체계,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 등을 배우는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2년 그린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새집 달아주기



2004년 그린캠프 인쇄 광고

그린캠프를 기획하다

유한킴벌리는 미래 환경의 주역으로서 환경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인 여고생들에게 숲에서의 경험을 주기 위해 1988년부터 '그린캠프'를 기획하여 진행했다.

1988년부터 2023년까지 설악산 장수대 캠프, 양양군 어성전 숲체험학교, 산음자연휴양림, 횡성 숲체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에서 총 54회의 그린캠프를 진행했다.

그린캠프는 '숲과 물', '숲과 대기', '숲과 토양', '숲과 나무' 등의 학습 프로그램과 '숲 표현하기', '숲속 밤 체험', '영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표 9. 그린캠프 개최 정보

| 기수 | 연도 | 일정 | 참여인원 | 장소 |
|--------|-----------|-------|-------|---|
| 1~2기 | 1988~1990 | 3일/1회 | 300 | |
| 3~5기 | 1991~1994 | 4일/1회 | 422 | 장수대 숲속수련장 |
| 6~26기 | 1995~2005 | | 1,938 | |
| 27~40기 | 2006~2012 | 8일/2회 | 1,127 | 어성전 숲속수련장 |
| 41~48기 | 2013~2016 | | 502 | 산음 자연휴양림 |
| 49기 | 2017 | 4일/1회 | 98 | 상당산성 자연휴양림 |
| 50기 | 2018 | 4일/1회 | 98 | 청태산 자연휴양림 |
| 51기 | 2019 | 4일/1회 | 176 | 횡성 숲체원 |
| - | 2020 | 3일/1회 | 209 | 온라인 |
| 52기 | 2021 | 3일/1회 | 400 | 온라인 |
| 53기 | 2022 | 3일/1회 | 400 | 온라인+백두대간수목원 |
| 54기 | 2023 | 8일/1회 | 100 | 동해 산불피해복원의 숲, 서울숲, 대전 공존숲, 연천 생물다양성의 숲, 봉화 생물다양성의 숲 |

표 10. 2015년 그린캠프 프로그램

| 시간 | 첫째 날 | 둘째 날 | 셋째 날 | 넷째 날 |
|-------|--------------|----------------|------------|------------|
| 06:00 | | 기상 및 아침 산책 | 기상 및 아침 산책 | 기상 및 아침 산책 |
| 07:00 | 잠실운동장 집결 | 아침 식사 | 아침 식사 | 아침 식사 |
| 08:00 | | 봉사 활동 | 봉사 활동 | 봉사 활동 |
| 09:00 | | 필드 스터디 | | |
| 10:00 | 숲 속 학교 이동 | - 숲과 나무 | - 숲 표현 | 수료식 |
| 11:00 | 캠프 등록 | - 숲과 물 토양 | - 숲 다양성 | |
| 12:00 | 점심 식사 | - 숲속 토론 | - 숲속 영상 | 산음 휴양림 출발 |
| 13:00 | 입학식 및 숲 속 안전 | 점심 식사 | 점심 식사 | |
| 14:00 | 친구들과 친해지기 | 에코올림픽 | | |
| 15:00 | | | 숲 탐험 | |
| 16:00 | 숲과 친해지기 | 환경 광고 만들기 | | |
| 17:00 | | 봉사 활동 | | |
| 18:00 | | 저녁 식사 | | |
| 19:00 | 숲속 클래식 | 숲속 특강 | 그린 시상식 | |
| 20:00 | 숲속 밤 체험 | 숲속 페스티벌 | 숲 보이는 라디오 | |
| 21:00 | | | | |
| 22:00 | | 실내취침 및 야영텐트 취침 | | |

청소년 숲·환경교육의 모델이 되다

그린캠프가 시작되었던 1980년대는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조차 없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유한킴벌리는 선구적인 자세로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한 맞춤형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교육이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은 물론, 이후 다른 기관들이 진행한 청소년 대상 환경캠프와 청소년 숲 환경교육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린캠프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4년 그린캠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린캠프 참여 전 자아존중감이 3.78점(5점 만점 기준)이었으나, 참여 후 평균값이 4.06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개방성이 전후 비교 결과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듬해인 2015년 그린캠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그린캠프에 참여한 숲 태도 지표가 참여 전후로 평균값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프에 참여한 이들은 숲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그린캠프가 청소년들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행사가 아닌 숲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숲과 환경 문제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2003년 그린캠프 참가자 모집 광고



2003년 그린캠프 참가자들

“ 앞으로 환경문제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이루어진 아파트에서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는 없습니다. 숲은 보다 큰 학교입니다.

-최철 환경재단 이사장,
2004년 그린캠프 ‘숲속 특강’ 에서 발취 -

“ 그린캠프는 전문가들이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체험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학습 중에 어떻게 호흡하고 교감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참관하는 것 자체가 산교육입니다.

-최소영 천안 성환고등학교 교사,
2004년 그린캠프 참관교사 인터뷰 발취 -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숲·환경 운동, 사회적 자산이 되다



이은욱

한국숲재단 이사장
전)유한킴벌리 부사장

유한킴벌리 마케팅부에 재직할 당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했습니다. 공익광고, 신혼부부 나무심기, 그린캠프를 기획하는 등 캠페인의 산증인입니다.

“ 아이들이 학교 혹은 실내에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걸 옮겨오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실을 현장에 두기 시작한 거죠. 물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물 근처에 자바라 텐트로 교실을 만들어 놓고, 생물다양성 교육은 또 나무들 많은 곳에서 하고, 야외에 교실을 차려 놓고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가는 그런 수업 방식을 채택했던 거죠.

처음 캠페인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국현 대표가 마케팅부장이실 때 마케팅부에서 크리넥스 티슈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문국현 대표가 호주로 마케팅 공부하러 갔다 오시더니 호주에는 코알라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텐데 나무심기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자랐고, 어떻게 공부했고 하는 식의 백그라운드 개념이었어요. 지금처럼 자연환경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킨다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죠. 그때가 한강 개발을 했어요. 그런 큰 범주의 것들, 공공성 있는 것들은, 전부 나라나 이런 데서 하지 민간 기업이 나서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나무는 한번 심으면 회수하는 데 약 60년 걸린다는데, 빨리 이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기업이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문 대표의 아이디어로 크리넥스 마케팅 부서에서 캠페인이 출발했죠. 그런데 문 대표가 기저귀 마케팅 등 다른 업무도 맡으면서 전 회사

차원의 캠페인이 된 거예요. 문 대표의 생각을 뒷받침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었죠. 우리가 그런 캠페인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가 1983년도였어요. 캠페인은 8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초기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나무 심은 것이 있고, 그 다음이 신혼부부 나무심기였는지요?

처음에는 신혼부부 나무심기가 아니었어요. 대리점들, 슈퍼마켓 점주들을 불러서 나무 심는 거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이걸 언론이 보도해 주면 더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생각해 낸 게 신혼부부였어요. 유한킴벌리는 우리나라에서 펄프를 조달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생산된 펄프로 수입해 오는데, 나무를 베어서 펄프를 만든다고 공격받았어요. 경제림에서 올하는 이만큼 베고 다시 심고, 내년에는 이만큼 베고 하는 것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경제림이라는 게 곡물을 경작하는 방식으로 2~30년 주기로 이뤄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시켜야 하겠고, 우리도 시민사회를 배워야 해서 여러 환경단체와 협업하기 시작했죠. 그때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녹색연합, 그리고 산림청, 산림조합, 유한킴벌리,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생명 의식을 만들게 되죠. 우리가 사회운동으로 확장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하고, 우리가 가진 경험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주제별로 많은 단체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죠.

비슷한 시기에 그린캠프도 시작했지요?

당시에 환경으로 접근을 하면서 나무심기 운동을 일종의 '환경운동화'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내설악 장수대에 폐교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산림청의 사용 승인을 받아서 폐교를 청소하고 시설을 정비해서 그린캠프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죠.

정말 숲교육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짜내기 시작해서 만들어 낸 게 '숲은 더 큰 학교입니다'를 만들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왜 여학생 캠프나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너희가 기저귀 팔고, 생리대 팔고, 그러니까 여성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양성을 다 모집해서 할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혹은 실내에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걸 옮겨오지 말자는 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실을 현장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물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물 근처에 자바라 텐트로 교실을 만들어 놓고, 생물다양성 교육은 나무들 많은 곳에서 하고, 토양 공부는 산속에서 토양이 좋은 곳에 가서 하고요. 이런 데 교실을 차려 놓고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가는 그런 수업 방식을 채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을 몇 달 전에 현장답사를 하게 하고, 주제를 찾아내게 하고 그래서 교안을 만들고 책도 만들었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여러 성과를 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이나 사회적 성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거 해서 1년, 2년 하다가 말죠. 저는 이렇게 길게 온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 그런 분들이 좋은 틀을 만드셨고, 잘 지탱해 주었습니다. 환경운동하시는 리더 분들, 학자들, 전문가들의 도움, 산림청에 있는 공무원들, 또 일반 시민, 환경운동단체 활동가들 등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이만큼 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유한킴벌리만의 것도 아니고. 이제는 유한킴벌리는 시작한 책임이 있으니 계속해서 열심히 볼 때는 역할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유한킴벌리는 많은 것을 얻었죠. 회사가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나 같은 업계 사람들에게 환경이라는 좋은 교훈을 줬어요. '아, 저렇게 기업을 끌고 나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마인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직원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매우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런 마음 없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한다 그러면 수동적인데, 스스로 '우리 회사가 이런 좋은 환경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돼' 하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회사가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성과인 것이고요.

1995 학생들 곁에 숲을 선물하다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이 시작한 학교숲 운동은 시간 제약과 안전 문제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로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일상에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현재는 전국에 4천여 개의 학교숲이 조성되어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높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었다.

황량한 운동장에 푸르름을 만들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산림이 황폐해졌다. 1970년대부터 추진된 '치산녹화 계획'을 통해 이를 복구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오늘날 전국 어디에서나 푸르고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도심지의 경우 여전히 나무가 아닌 회색빛 건물에 둘러싸여 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숲을 느끼고 체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특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학교 운동장 중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에 군대 연병장처럼 활용되었던 영향으로 먼지가 날리는 흙바닥으로 조성되어 있다. 오늘날 실내 체육관이 건립된 학교의 경우 운동장은 활용도가 낮은 죽은 공간이 된 상태였다.

유한킴벌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전국 1만여 개의 학교 운동장을 숲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외면받은 죽은 공간을 학생과 인근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면 도시의 환경 문제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황량한 학교 운동장

담장을 허물고 숲을 만들다

유한킴벌리는 1995년부터 학교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옥외공간을 숲으로 만드는 '학교숲 운동'을 추진했다. 초기에 소규모로 진행되었던 학교숲 운동은 1998년 서울시의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만나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9년에는 당시 전영우 국민대 교수 등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에게 의뢰해 체계적인 학교숲 조성 관리와 관리를 위한 매뉴얼인 '숲이 있는 학교'를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그리고 사단법인 생명의숲과 협력하여 산림, 조경, 교육, 홍보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학교숲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학교숲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 1973년부터 시작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6년 만인 1978년에 완료됐다. 108만ha에 나무를 심었고 420만ha의 육림(숲을 가꾸는 일)을 조성했으며 4만 2천ha의 사방사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리고 30억 그루의 양묘를 생산해 조립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서울 화랑초등학교, 안양 신기초등학교, 서울 신양중학교, 서울 성동고등학교 등 수도권의 10개 학교를 학교숲 시범학교로 선정, 해당 학교의 숲 조성을 지원한 바 있다. 2000년부터는 전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추진하여 2000년 20개교, 2001년 24개교, 2002년 15개교를 시범학교로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하기도 했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3~5년 동안 학교숲 조성 비용을 비롯해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 학교 숲 활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교숲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숲 매뉴얼 『숲이 있는 학교』



1999년 학교숲 조성 한일 심포지엄



2000년 학교숲가꾸기 워크숍

학교숲 사업은 2003년부터 산림청과의 협력사업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까지 매년 100여 개의 시범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했다. 당시 전국 대학의 산림자원학과와 조경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학교숲 시범학교 지원팀'이 시범 학교들의 숲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꾸준히 지원한 바 있다. 조성된 학교숲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열악한 도시 녹지 환경 개선에 일조하기도 했다.

유한김벌리와 생명의숲, 산림청 등이 함께 지원한 학교숲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738개교가 만들어졌다.

학교숲의 효과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잘 조성된 학교숲은 시간 제약과 안전 문제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로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일상에서 환경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유한김벌리와 생명의숲은 이처럼 학교숲이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만 활용되지 않고 환경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숲을 활용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사례 및 매뉴얼'을 제작해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숲 담당 교사들을 위한 환경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숲 시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을 개최, 학생들이 숲과 나무의 변화를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숲의 교육적 효과와 정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유한김벌리는 한발 더 나아가 환경교육형 학교숲 모델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했으며, 환경교육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도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99년 학교숲 나무심기



학교숲에서의 야외수업 (수원 원일초등학교)



2012년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발표회 및 시상식

학교숲, 전국으로 확산되다

유한김벌리와 생명의숲이 시작한 학교숲 운동은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산림청과 교육부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학교숲 조성에 나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는 전국에 4천여 개의 학교숲이 조성되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1995년 학교숲 운동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학생들의 체육 공간을 침해한다는 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학교숲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숲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따라 다양한 학교숲 모델을 적용하여 '학생 1인당 6m²의 학교숲'을 조성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했다.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숲속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가꾸는 학교숲'을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하여 학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숲속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 숲속 학교 모델 제안 ▲ 숲속 학교 만들기 매뉴얼 보급 ▲ 숲 활용 교육 매뉴얼 보급 ▲ 숲속 학교 만들기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학교숲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근거로 학교숲 확대가 도심지 미세먼지 저감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숲속 학교 비전에 따라 첫 번째 모델숲 조성사업으로 2019년 서울 화랑초등학교 실내벽면숲, 부천 중앙초등학교 벽면숲, 2020년 김포 고창초등학교에서 학교운동장숲을 조성했다.

표 12. 숲속 학교 유형별 모델숲 조성 성과

| 모델학교 | 조성시기 | 조성유형 | 주요활동 |
|-------------|-------------|-------|---|
| (1호) 서울 화랑초 | 2019년 | 실내녹화 | 건물 내 미세먼지 저감식물의 벽면조경 등 시범조성 → 실내 벽면녹지 65.7m ² , 관목 9그루 식재 |
| (2호) 부천 중앙초 | 2019년~2020년 | 벽면녹화 | 건물 외벽 및 운동장 경계지역 추가 녹화 → 교육 2,018그루, 관목 1,827그루, 초본 1,140본 식재 |
| (3호) 김포 고창초 | 2020년~2021년 | 운동장녹화 | 코로나19 영향 하반기부터 학생, 교사 숲설계 기획 참여 → 교육 71그루, 관목 1,182그루, 초본 20,669본 식재 |

오랜 시간 가꾸어 온 학교숲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높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었다. 이는 수치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2020년 학교숲의 정서적·교육적 효과에 대해 연구한 여러 국내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숲이 없는 학교보다 학교숲이 조성된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 역량, 인성, 심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학교일수록 이점이 더 뚜렷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중 2002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학교숲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과 호기심을 키워준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숲이 행동 관련 정서인 '정서적 균형감'이 좋아져 인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서울 화랑초등학교 녹색필터숲 개장식



2019년 서울 화랑초등학교에 설치된 녹색필터숲



2020년 숲속학교_부천 중앙초



2021년 숲속학교_김포 고창초

도시숲 운동의 물꼬를 트다

학교숲은 학생들이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공간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자연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생태적 교육의 장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전국에서 활발히 펼쳐진 학교숲 운동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성과는 '나무는 산에만 심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도시에 나무를 심는다'는 인식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운동이 추진되는 전환점을 제공하여 숲을 통해 열악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발전된 도시숲은 도시 안에 있는 공원과 산림, 가로수, 정원 등을 의미하며, 도시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 공간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형태의 도시숲 조성은 시민들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숲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18. 학교숲 가꾸기 활동이 한국 초등학생들의 과학 성취도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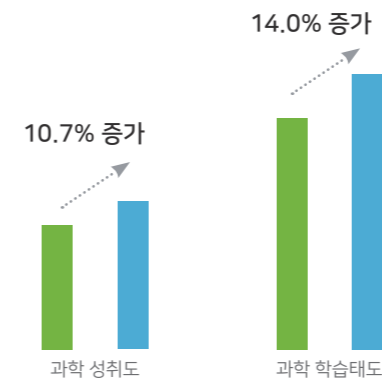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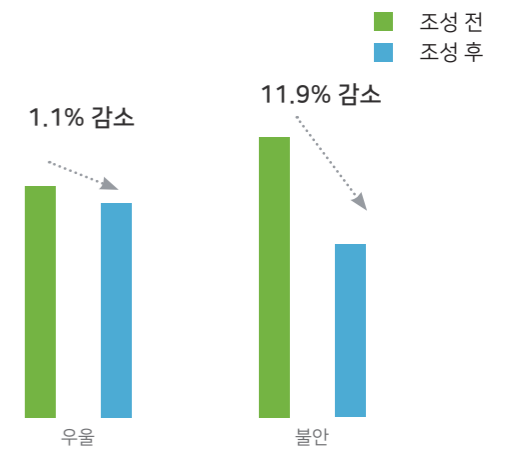


그림 19. 학교숲 조성 후 한국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변화



* 출처: 모두를 위한 학교숲 내용 중 발췌, 국립산림과학원 2019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숲을 모두의 공공재로 만드는 계기 마련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왼)

신구대 교수로 재직 시 학교숲 운동 초기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도시숲 운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손승우 유한킴벌리 전무 (가운데)

학교숲 캠페인 담당 실무자로 일하며, 생명의숲을 비롯한 여러 숲 운동 단체들의 창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등 캠페인의 사회적 영향력 확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재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오른)

학교숲 운동의 환경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환경교육적 측면에서 숲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 학교숲과 도시숲 등 생명의숲 활동을 하면서 유한킴벌리 구성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같은 운동의 주체로서 했던 태도들이 저는 진정성이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그게 유한킴벌리와 같이 일하는 데 나의 노력과 열정을 더 많이 기울이게 한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인호

학교숲과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이 함께 하시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인호 학교숲은 어떻게 보면 조경공사로 끝날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으로 환원시키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하고, 그 장소에 대한 애착과 관심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하는 계기, 공간의 하드웨어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사회적 측면의 부가적인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계기를 학교숲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었죠.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와 함께 하면서 공동체 관점에서의 개선, 학생들이 자기 공간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주체성을 찾고, 참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이재영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이 정부기관인 산림청과 시민단체인 생명의숲, 그리고 기업인 유한킴벌리가 협력해 뭔가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나는 지금도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게 일종의 독립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거의 다 파괴되었던 숲이 온전한 숲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유한킴벌리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중의 하나로 학교숲을 지원하되, 정

부와 시민단체와 같이 협력하면서 보여준 좋은 태도, 접근 방식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숲에 관한 연구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연구가 있는지요?

김인호 초기에 학교숲 조성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만드는 일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공부한 해외 사례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만들었던 매뉴얼이 학교숲 참여를 유도하거나 수목을 선정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물론 그랬고요.

이재영 당시에 했던 연구 중에 학생 1천 명에게 우리 학교를 그리게 하고, 우리 학교의 나무나 숲을 주제로 글을 쓰게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학교숲이 생긴 학교 아이들은 숲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같이 노는 장면을 대부분 많이 그렸다면, 학교에 숲이 없는 아이들은 건물을 그리고 유리창에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쓰고 학교라 그린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교숲이 있다면 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숲이 이룬 성과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재영 학교숲의 성과 중 하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오래됐으니까 그동안에 나무도 자라고, 숲도 만들어지고 축적된 것도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지금 하려는 것과 비슷한 일을 했고, 그 일을 하고 나면 20년 뒤에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사람들이 하려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지역이 생물다양성이 높은 숲으로 변했다는 것 자체가 자연만 건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언어 다양성까지도 지켜내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으로 조사해 보면 바다까지 다양성의 연결이 이어질 거라 보는 거죠.

앞으로 이 캠페인이 어떻게 전개되면 좋을까요?

손승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40년의 역사 속에서 매우 많은 경험과 성공 모델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

가 이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 경험도, 실패 경험도 있으니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캠페인의 가장 큰 자산은 많은 활동과 성과로 쌓여 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해 성공 경험을 쌓았고, 이는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에 참여했던 많은 분, 예를 들어 2만 명의 전문가가 있고, 100만 명의 시민들이 있다면,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 이상의 성공 사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성공 사례와 경험들이 모여 확산이 되고, 이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자 개인의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스텝은 이것보다 더 확장성을 가진, 열린 개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숲이 ‘우리의 공동재’로 역할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재영 저는 환경철학을 가르치는데 수업 시간에 도토리를 심게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학생들과 도토리를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토리를 심어서 20년 동안 자라는 걸 어른이 될 때까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과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라는 건 혼자 자라지 않거든요. 햇빛도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고, 땅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질’이죠. ‘학습과 경험의 질’. 물론 양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이 중요한 때가 옵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했던 캠페인이 다수에게 양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이제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로 초점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 소수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지구시민으로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정신을 올곧게 함께 이어 갈 팬들이 있습니다. 이 ‘찐 팬’들을 질적으로 잘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 경험이 또 다른 확산에 엄청난 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숲과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통해 푸른 숲을 만든다



숲과 거버넌스

- | | |
|---------------------------|---------------------|
| 1998 숲을 가꾸며 실업 위기를 극복하다 |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
| 1999 북한 황폐지 복원을 위해 나무를 심다 | - 조연환 전산림청장 |
| 2000 도시민들과 산촌을 꿈꾸다 | - 김재현 평화의숲 대표이사 |
| 2000 한국의 아름다운 숲을 공유하다 | - 김후란 문학의집 서울 이사장 |
| 2001 숲을 문학에 담다 | - 배상원 동북아산림포럼 공동위원장 |
| 2003 몽골 토진나르스에 나무를 심다 | - 지영선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
| 2003 회색 도시에 작은 숲을 만들다 | - 이강오 전한국임업진흥원 원장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기업, 숲·환경 NGO,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분야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성장해 온 공익캠페인이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생각하는 거버넌스는 ‘마중물로서의 노력이 큰 사회적 효과로 확대되는 구조’이다. 기업 내 부적으로는 CEO를 포함한 리더들의 일관된 비전 공유와 공감으로 실행 추진 동력을 확보했고, 임직원들의 공감과 지지로 캠페인 40년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성장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사회적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외부 이해당사자 그룹, 전문가 그룹들과 협력하여 거버넌스를 이루었다. 이들과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며 숲·환경 의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동과 사업을 시민과 함께 실행했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생명의숲 국민운동’을 탄생시켰다. 이는 평화의숲, 동북아산림포럼,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의 출발로도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협력을 지원하는 자문 커뮤니티가 크게 확대되면서 시너지를 얻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숲·환경과 연관된 사회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플랫폼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해 옴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유한킴벌리가 사회적 책임으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숲을 매개로 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실현해 갈 수 있었다.

1998 숲을 가꾸며 실업 위기를 극복하다

1998년부터 시작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2002년까지 5년 동안 연인원 1,554만 명의 실업자들을 고용해 총 44만ha의 숲을 가꾸었다. 당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연말마다 진행되는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린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외환 위기 이후의 실업 문제 극복을 준비하다

1997년 12월은 모든 국민이 힘들었던 외환 위기 시기였다. IMF 구제금융 신청, 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 유한킴벌리는 산림청과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이미 대규모 실업 발생을 예상했다. 1996년부터 세계 경제 동향을 주시하며 이에 따른 외환 위기를 예상했다. 유한킴벌리와 산림청, 시민단체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대공황 시기에 추진했던 ‘뉴딜정책’과 ‘시민보전단(CCC)’을 보며 영감을 얻기도 했다. 결국 이를 참고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정책을 개발하여 1998년에 출범한 새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1998년 숲가꾸기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 심포지엄



1998년 3월 공익광고 '숲가꾸기' 편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알리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숲가꾸기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숲가꾸기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대다수 국민은 나무를 심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숲을 가꾸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나무는 심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서 거목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나무를 베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국민 정서가 있었다. 특히 숲가꾸기를 위해 일부 수목을 속아베기해야 하는 점에서 반발심이 높았다. 이 점을 보더라도 숲가꾸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유한킴벌리와 시민사회단체는 공공근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우리 숲의 현황을 알리는 한편, 건강한 숲을 위해서는 반드시 숲가꾸기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이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1998년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창립대회

생명의숲 국민운동에 참여하다

정부 주도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이에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이른바 '숲가꾸기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97년 숲가꾸기 사업을 함께 준비했던 이들은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건강한 숲을 보다 폭넓게 조성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1998년 3월 유한킴벌리를 비롯해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물론 여러 기업인과 산림청 등 정부 관계자들, 임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각계 전문가들과 언론인, 종교인 등 많은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해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을 창립했다.



1998년 생명의숲 창립 배경 (당시 사용 자료)

당시 창립대회에서는 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 이설조 불국사 주지, 이연숙 전 정부2장관, 최만휴 임정연구회 회장 등 5인의 공동대표가 선출되었고,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윤여창 서울대 교수,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4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이후 국민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었다.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숲을 가꾸는 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며, '3배나 커진 숲의 경제적 가치는 60조 원을 넘어 매년 3조 원 상당의 국부를 가져다줄 것'이고, '이 땅의 만물에 생명의 활기가 넘치고 반만년 간 면면히 내려온 자연 조화, 생명 존중의 문화가 되살아날 것'을 선언했다. 또한,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 위기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 인구를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우리 숲을 경제, 환경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숲을 통해 1,55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1998년부터 시작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숲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치기, 속아베기, 덩굴 제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사업을 통해 생산된 목재는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경제적 가치를 높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했다.

2002년까지 5년 동안 연인원 1,554만 명의 실업자들을 고용해 총 44만ha의 숲을 조성하였다. 당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연말마다 진행되는 전문기관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린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3년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된 이후 정부 정책 사업으로도 채택되었다. 이 사업은 현재 매년 2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산림청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1998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발대식



1998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 모습

표 13.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실적(1998년 ~ 2002년)

| 단계 | 합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사업비(억원) | 5,712 | 548 | 1,757 | 1,564 | 1,194 | 649 |
| 연고용인원(천명) | 15,544 | 1,486 | 4,833 | 4,299 | 3,220 | 1,706 |
| 사업면적(천ha) | 437 | 43 | 130 | 117 | 95 | 52 |

출처: 산림청

1990년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시민운동이 자리 잡은 시기였다. 당시 경실련을 비롯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많은 시민단체가 창립했고 이들은 경제와 정치, 환경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생명의숲 국민운동은 한국의 숲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 분야 인사들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 기업 관계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 기업, 시민사회 3자 간의 거버넌스 모델이 주가 되는 운동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비판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긍정적인 방식의 활동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생명의숲 국민운동은 이른바 '거버넌스 형' 사업 방식의 모델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민 참여형 운동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1998년 숲가꾸기 1일 현장체험



1998년 생명의숲과 문화의 만남 행사

숲교육, 숲문화 운동을 통해 숲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숲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도 생명의숲 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숲가꾸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숲가꾸기 1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자원 활동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이 직접 숲가꾸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숲에 대한 인식,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할 기회를 제공했다. 청소년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숲해설 교육 프로그램은 자연 체험학습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며, '숲해설가'라고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 또한, 숲속 음악회, 숲과 문화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많은 문화예술인이 숲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림 20. 한국 숲 운동 거버넌스 모델



한국 숲 운동의 시작을 알리다

생명의숲 국민운동은 한국의 숲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동북아산림포럼을 비롯해 평화의숲, 생태산촌,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숲을 조성하고 보전하려는 목적을 가진 다양한 시민운동단체가 설립되었다. 생명의숲 국민운동은 환경운동의 한 영역으로 출발했지만, 그간 제약적으로 전개되어 온 한국의 숲 운동을 전문 시민운동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된 셈이다. 또한 한국의 숲 운동은 우리나라 산을 대상으로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중심으로 하다가 점차 중국과 몽골, 북한 황폐지역의 나무심기 운동으로 확대된다. 숲 체험 교육 운동, 도시숲 운동, 학교숲 운동 등 숲을 매개로 한 여러 영역의 사회운동으로 점차 확장된 것이다.



숲가꾸기의 필요성 홍보



1998년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현판식



1998년 생명의 숲가꾸기 현장체험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앞으로 캠페인이 나무 6영급처럼 결실을 맺기를



조연환

전)산림청장

산림자원조성기금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산림청 재직 당시 생명의숲 국민운동 활동을 통해, 한국의 숲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신문 광고, TV 광고는 기업 광고가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유한킴벌리라는 건 끝에 조그맣게 로고하고 이름만 나올 뿐이죠. 쉽게 말하면 산림청 광고였어요. 이거를 40년 가까이 펼쳐 오기 때문에 소위 나무를 심은 기업으로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관련된 일은 산림자원조성 기금 쪽 운영위원회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떠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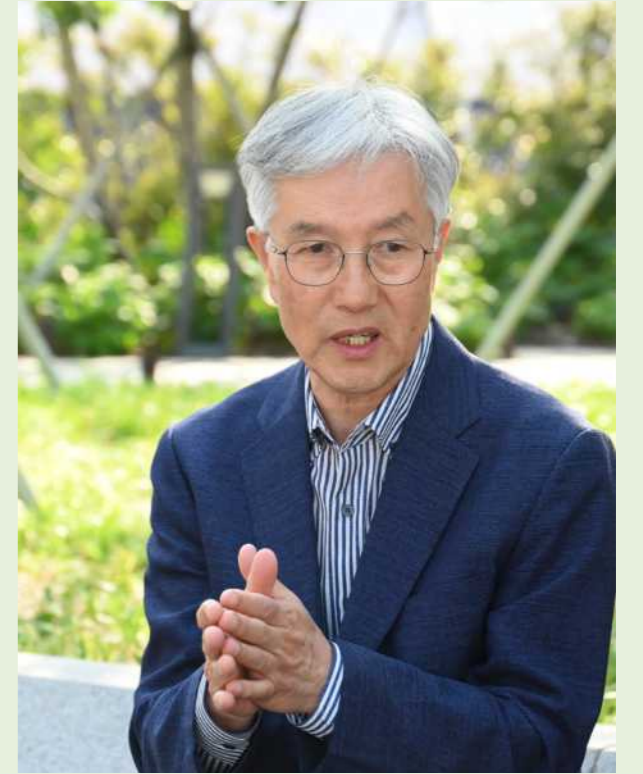
김대중 정부가 이제 막 들어올 때였죠. 유한킴벌리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정부에 실업자를 고용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제안한 거죠. 제일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1월 일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쯤 공문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양쪽을 통해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제안서를 내라며 각 부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 게 있으니까 곧바로 실업자를 고용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제안했던 거죠. 1998년도에 소위 민간 단체하고 같이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CCC를 벤치마킹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하나 만들자면서 당시 제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계 이런 사람들이 모두 같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을 발족하는 발기인 모임이 생겼습니다. 나는 1998년 3월 18일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산림청의 일원으로 생명의숲 국민운동에 참여하게 됐죠.

현직에 계실 때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에 많이 참여하셨고, 퇴직 후에도 생명의숲 상임대표로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사회적 성과는 무엇인지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산림청장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금탑 산업훈장을 하나 받는 거였어요. 2005년도에 산림청 최초로, 산림청 몫으로 유한킴벌리의 대표이사 사장이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누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었고, 그 심은 나무들이 우리 국가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성과를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한킴벌리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신문 광고, TV 광고는 기업 광고가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유한킴벌리라는 건 끝에 조그맣게 로고하고 이름만 나올 뿐이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산림청 광고였어요. 이거를 40년 가까이 펼쳐왔기 때문에 소위 나무를 심은 기업으로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다는 거 아니예요? 저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이 캠페인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정부에, 국민들에게 파급됐는가 하는 점을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봐요.

40주년을 맞아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죠. 그런데 요즘 지친 것 같고, 웬지 모르게 뭔가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40년, 4영급이 됐으면 나무로 보면 한창 왕성하게 활동을 할 시기죠. 지금을 청년기로 보고 앞으로 한 6영급쯤 되어야 우리가 결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999 북한 황폐지 복원을 위해 나무를 심다

유한킴벌리는 한반도 내 산림녹화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북한 산림임을 인식하고, 1999년부터 NGO인 평화의숲 등과 함께 북한 황폐지 복원을 위해, 연간 20만 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금강산 양묘장 3동과 노지양묘장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2009년 이후 중단된 북한나무심기를 통한 한반도 생태복원을 위해 북부산림지방청, 생명의숲과 함께 DMZ(비무장지대)일원 및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를 2017년 준공하기도 했다.

북한 산림의 황폐화 위기

한반도에 자리한 북한은 우리나라 생태계에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북한 생태계가 황폐해지면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와 인접 지역의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자원을 잃게 된다. 유한킴벌리는 북한 산림 황폐화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물, 에너지 부족 문제는 물론이고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 것이다.



북한 산림을 개간한 다락밭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2020년 발간한 '세계 산림자원 평가 2020'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이후 10년 동안 북한에서 평양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21만ha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한, FAO는 매 10년 주기로 수십만 ha씩 산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러한 산림 황폐화가 지속된다면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의 생태계와 환경이 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 자명했다.

북한 산림황폐지 복원을 준비하다

유한킴벌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북아산림포럼을 준비한 세민재단과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논의와 준비를 시작했다.

산림자원조성기금을 활용한 '동북아국가의 산림황폐화 실태 및 복구 대책 연구'를 통해 남북 협력의 시범사업으로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를 추진하는 방안 및 북한지역 황폐 산림복구사업단을 NGO 기구 내에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논의 끝에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 기구로 시민단체 '평화의숲' 설립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평화의숲 운동에 참여하다

'평화의숲'은 1999년 4월, 북한의 산림복구를 통해 북한의 식량과 식수 문제, 그리고 에너지난을 돕고 한반도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했다. 유한킴벌리는 평화의숲 창립 준비 과정에서부터 함께 했다. 이후 1999년 한 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230만 그루에 해당하는 묘목과 수목 종자, 그리고 산림 복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 훼손된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해 1만여 명의 시민 서명 및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는 라디오 캠페인 방송 등을 진행하고 남북한 간 임업 협력을 위해 북한의 국토환경성 산림보호연구소 등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전개했다.



1999년 평화의숲 출범 선언식



1999년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지원물자 전달식

평화의숲은 창립 이듬해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이 황폐지 복구를 하도록 묘목과 종자, 그리고 조림 관련 물품 등을 지원해 왔다. 이렇게 지원된 묘목들은 평양과 남포, 금강산 등 여러 지역의 산림 복구를 위한 조림 사업에 활용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은 매년 남한 신혼부부들과 함께 금강산 인근에 있는 황폐지 복구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매년 남쪽의 신혼부부와 북한 지역 주민이 함께 잣나무, 밤나무, 금강송 등의 묘목을 심으며 한반도의 건강한 미래와 평화를 기원했다.



2004년 북한 금강산 나무심기



2008년 북한 금강산 나무심기

금강산 지역 산림 복원을 위한 양묘장을 만든다

이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산림 복구를 할 수 있는 묘목과 종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묘목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유한킴벌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북한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부근에 양묘 온실 3개 동(450평), 노지 양묘장 2개소(2ha)의 조성을 시작했다. 양묘 시설 조성으로 2008년 기준 강송, 잣나무 등 연간 30만 본의 묘목을 길러낼 수 있었다. 북한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나무심기도 진행되었다. 북한 고성군 금천리 일대 야산 100ha에 밤나무 단지를 조성한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생식 및 군밤용으로 개발한 대보 품종을 주로 하는 밤나무 묘목 4만 본을 심고, 관리 온실 2동, 컨테이너 등의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후 밤나무 단지 관리를 위해 북한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에서 젊은 부부 20쌍을 고용하고, 평화의숲에서는 재배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자문, 비료와 농기구 등을 지원했다.



2004년 금강산 양묘장



2009년 금강산 밤나무 조림지

숲을 통한 남북협력을 시작하다

유한킴벌리는 황폐해진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여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한 일이라고 보았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지구 시민이 기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는 평화의숲이 중심이 되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20여 개의 시민단체, 산림환경단체, 종교계 등이 모여 2007년 4월 창립한 '겨레의숲' 활동을 지원했다. '겨레의숲'은 북한의 황폐된 산림복구를 통해 북한지역에서 건강하고 풍부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농업생산력을 복구하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난과 식수난, 에너지난 극복에 기여하며 남북 간 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창출하고자 설립된 사회단체 간 협의체이다.

2007년부터 정부의 민간단체 대상 정책지원사업 추진단체로 선정되어 북한산림녹화사업을 진행해 온 겨레의숲 활동은 '남북 산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 정상 간의 '2018년 평양공동선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유한킴벌리는 앞으로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한반도, 더욱 나은 환경을 물려 주기 위해서 산림 협력 활동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0 도시민들과 산촌을 꿈꾸다

유한킴벌리는 전국의 산촌이 생태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어 생태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도시민과의 교류가 이뤄지는 생태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생태산촌을 만들고, 산촌 만들기 운동에 참여했다. '생태적인 산촌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설계', '산촌 정책연구개발 및 대안 제시', '산촌 컨설팅 및 생태(시범)마을 만들기', '생태관광과 산촌문화 진흥'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속가능한 생태산촌운동을 만든다

'산촌'은 행정구역 면적 중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이며,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지역을 뜻한다. 산지 면적이 넓은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전국 11개 시도, 109개 시군 내 466개 읍면이 '산촌'으로 지정되어 있다.

산림면적이 넓은 산촌 지역의 거주민들은 필연적으로 숲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런 산촌들을 잘 보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산촌 운동에 참여하다

숲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유한킴벌리가 전개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숲 가꾸기에 전 국민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잘 가꾸어진 숲을 기반으로 조성된 산촌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한킴벌리는 전국의 산촌이 생태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어 생태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도시민과의 교류가 이뤄지는 생태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생태산촌 창립을 지원하고, 산촌 만들기 운동에 참여해 왔다.

2000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생태산촌은 자연과 조화되고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갖춘 생태산촌을 조성하여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생태적인 산촌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설계', '산촌 정책연구개발 및 대안 제시', '산촌 컨설팅 및 생태(시범)마을 만들기', '생태관광과 산촌문화 진흥', '농촌 간 연대를 통한 유기적 관계의 회복', '귀산촌 · 귀농 · 귀촌 교육' 등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2000년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창립총회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지역 살리기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2%에 달한다. 반면 우리 농촌과 산촌은 인구가 점차 줄어서 공동화 우려가 있는 상태다. 유한킴벌리는 우리 농산촌을 살리고 지켜내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농산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농산촌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이유 중,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농업과 임업 이외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사라져가는 농산촌과 고유의 문화 자원을 지켜내는 것이 목표였다.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토론회

유한킴벌리는 생명의숲, 시민경제사회연구소와 더불어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정책 연구(SHARE KOREA PROJECT)'를 진행했다. 이는 마을 교류와 지역해설, 지역복원 등을 통해 도시와 농산어촌, 그리고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본 정책연구에서 유한킴벌리는 '마을문화조사단' 등의 지역교류사업 일자리 모델, '지역해설사' 등의 지역해설사업 일자리 모델, '숲가꾸기 지원단' 등의 지역복원사업 일자리 모델, 지역 살리기 거점센터 일자리 모델 등 약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10개의 일자리 모델을 제안했다. 나아가 이 모델은 대통령 직속 '사람입국신경쟁력위원회'와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제안했으며, 농림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등 관련된 정부 부처와 정책을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제안한 일자리 모델 중 일부가 실제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숲가꾸기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산림청 훈령 제1244호)에 의거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숲을 가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숲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풀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속아베기, 천연림 가꾸기 등과 같은 작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를 실행한 숲은 방치한 숲보다 나무의 양과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각각 42%가 증가하고 물 공급량이 43%가 증가하고, 풀과 작은 나무와 같은 하층식생은 3배가 풍부해집니다. 또한 조류 및 소형 포유류 등 야생동물이 증가하며, 잘 가꿔진 숲은 긍정적 정서를 향상하고 부정적 정서는 완화하는 등 산림 치유 기능을 향상합니다.

* 출처: 산림청

농산촌을 살리는 일자리, 마을조사단

유한김벌리와 생명의숲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06년부터 전북 진안군, 충북 제천시와 '마을조사단'이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의 청년들을 모집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진안군과 제천시에서 마을의 자연 자원과 함께 문화·역사 자원 조사 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2009년까지 지속된 진안군의 마을조사단 사업은 백운면, 마령면, 성수면, 주천면, 동향면 등 5개 면의 마을지도 제작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백운면 마을신문 '월간 백운' 제작 및 배포, '백운면 옛날 사진전' 개최, '진안 마실길' 코스 개발 및 도보 프로그램 운영 등 진안군 마을들의 자연 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을 조사·발굴하고 기록했다.



진안군 마을조사단 조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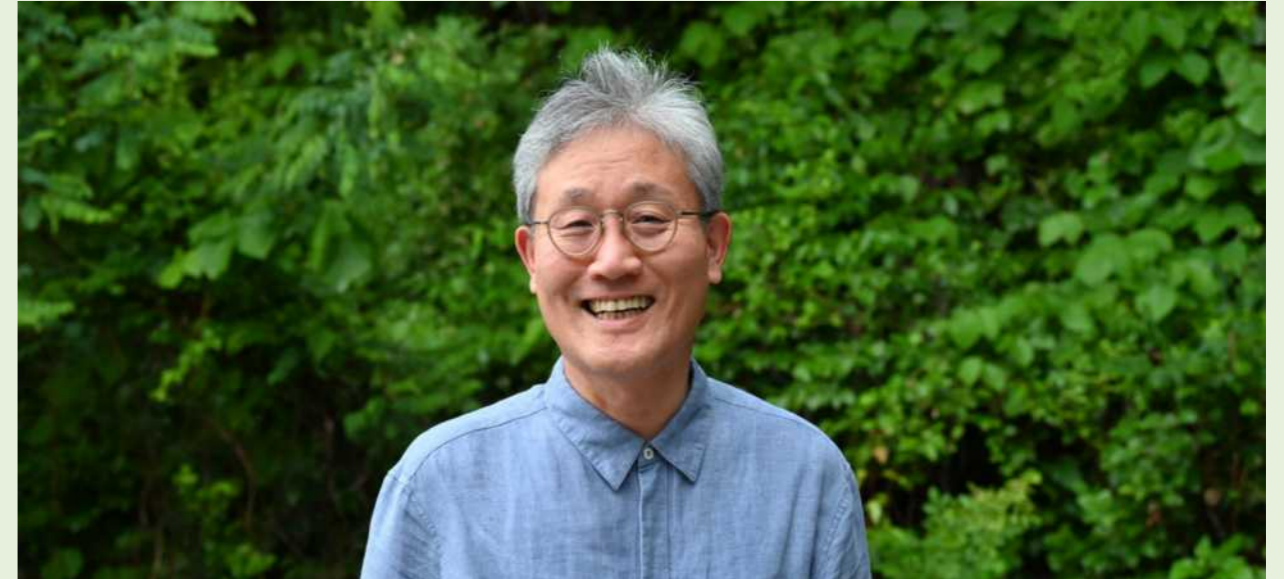
진안군 백운면 옛날 사진전

이렇게 모인 기록들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되기도 했다. 당시 진안군 마을조사단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은 사업 종료 후 독립 단체를 만들어 마을조사단 활동의 성과들을 활용한 사업들을 이어나갔다. 이 중 '진안 마실길' 프로젝트는 진안군청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 마실길 4개 구간을 오픈함과 동시에 '진안고원길'이라는 비영리단체 설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진안고원길'은 진안고원길 15개 구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파트너십과 지속성이 사회적 가치 증대 시켜



김재현

평화의숲 대표이사
전)산림청장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생명의숲 창립 이후 생명의숲 국민운동, 생태산촌 운동을 이끌었으며, 산림청장 재직시 남북산림 협력사업을 주도했습니다.

“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파트너십 혹은 거버넌스, 그리고 지속성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해서 파트너십에 기반해 캠페인을 추진해 오면서 얻게 된 사회적 신뢰가 주요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에는 언제 처음 참여하셨는지요?

1997년 10월경 생명의숲을 준비하는 준비모임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온 후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얻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숲 창립 이후에는 운영위원, 실무기획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숲 운동 관련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의제화하는 작업을 주로 했어요. 생명의숲 사무처장으로도 몇 년 활동하며 운동의 확장과 조직의 내실화를 위한 활동들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구 등도 진행했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관련해서 연구사업도 많이 진행하셨습니까. 그중에 중요한 연구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주요했던 연구사업은 2000년대 중반에 진행했던 산림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구사업, 숲해설가 등 산림 서비스 일자리 창출 연구사업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안했던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대부분 실현되었죠.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에 관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숲을 조성방식에 따라 구분한다면 유한킴벌리에서 직접 조성한 숲, 파트너십에 의해 조성한 숲, 캠페인의 사회적 영향을 통해 조성한 숲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세 번째 케이스가 사회적 영향력, 성과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을 분석하기 위해 산림청의 예산 추이와 증가 시점을 보고 그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과 숲 운동 등을 통해서 도시숲, 산림휴양 분야 등 산림의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산림 분야 참여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죠. 또 이러한 흐름이 정원문화 활성화 등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숲, 학교숲 운동 등을 통해 조경 분야의 녹지 조성 방식이 시설 중심의 녹지 조성에서 생태 중심 조성 방식으로 전환되는데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이슈 공감 단계로 갔을 때 유한킴벌리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숲 같은 건 비교적 확장 성과가 명확하죠. 삼성화재와 같은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이런 확장성이 있으니 비교적 명확한데, 문제는 숲가꾸기 같은 사업입니다.

학교숲이나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 같은 것들은 성과가 명확해 정리하기 쉽지만 숲가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숲가꾸기의 성과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문국현 대표가 정부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관련 일을 하셨죠. 당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가게 되었고, 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산림의 여러가지 서비스 기능을 종합하는 산림 복지 쪽으로 연계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캠프 같은 것들이 산림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에 진행되어서 그런 영향들이 꽤 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면서



산림 이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점도 중요한 성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요?

파트너십 혹은 거버넌스, 그리고 지속성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해서 파트너십에 기반해 캠페인을 추진해 오면서 얻게 된 사회적 신뢰가 주요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한킴벌리의 시드머니와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실행력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가 중요했죠. 이 중 한 가지라도 떨어지면 동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0 한국의 아름다운 숲을 공유하다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그해의 테마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숲들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전국의 251개 수상지는 저마다 숲을 지켜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를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 숨은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숲을 발견하고 알리다

유한킴벌리는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숲이 보전될 수 있도록, 숲을 알리고 발굴하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 울창한 전국의 산촌을 보면 우리나라가 치산녹화 사업 등 오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우리 산촌을 가꾸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의 결실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기도 하다. 산과 숲을 꾸준히 가꾸고 돌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006년 제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시상식



2016년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시상식

이를 위해 유한킴벌리가 시작한 것이 바로 공모전 개최다. 2000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그해의 테마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숲들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아름다운 마을숲’, ‘아름다운 거리숲’, ‘아름다운 학교숲’, ‘22세기를 위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숲’ 등 4개 부문으로 시작한 이 대회는 이후 ‘아름다운 숲길’, ‘천 년의 숲’, ‘아름다운 대학숲’, ‘아름다운 숲지기’ 등 2018년까지 전국 총 251개소의 아름다운 숲을 발굴해 시상하고 홍보했다.

공모전은 단순히 전국의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이벤트는 아니었다. 그보다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이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컸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숲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오랜 시간에 걸쳐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결실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했다.



2000년 제1회 대회 수상지: 강원 강릉시 어흘리 소나무숲

숲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의 251개 수상지는 아름다운 숲만큼 아름다운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수상지인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소나무 숲은 우리 문화재 복원용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다. 1920년대 처음 숲으로 조성된 이곳이 지난 백 년간 우리 땅을 휩쓴 일제 강점기를 비롯해 한국전쟁 등 수많은 풍파에도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숲을 지킨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4년 제5회 대회 수상지: 전남 담양군 관방제림



2008년 제9회 대회 수상지: 서울시 우이동 솔밭공원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의 어부림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목축을 만들기 위해 일곱 그루의 느티나무를 베려고 하자, 당시 마을 주민들이 강경하게 버텨 지켜내 지금까지 2만 3천m²의 숲이 잘 보전된 곳이다. 오늘날 어부림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폭풍우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1628년 담양천 주변 민가들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전남 담양군의 관방제림은 300~400년 이상 된 노목이 거대한 풍치림을 형성하여 지역 주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시 강북구의 우이솔밭공원에 있는 수령 100년의 소나무 1,000그루는 1990년대 아파트 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숲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보전될 수 있었으며, 서울시와 강북구가 사유지인 솔밭을 매입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전국의 251개 수상지는 저마다 숲을 지켜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를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001 숲을 문학에 담다

'문학의집 서울'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이에 2005년 산림청 한국녹색재단의 녹색자금과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기금으로 산림문학관이 건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인들의 보금자리를 만든다

숲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예술인 특유의 감성, 그리고 창의성으로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 차원 높여준 점이 바로 그것이다.

민국현 당시 유한킴벌리 사장은 '문학의집 서울' 김후란 이사장과 함께 문학인들과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적당한 공간을 모색하던 중 남산 기슭에 옛 안기부장공관을 발견하고, 이곳에 '문학의집 서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듯 '문학의집 서울'은 2001년 10월 26일 서울시와 유한킴벌리의 지원으로 탄생했다.



2001년 문학의집 서울 착공식

숲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

문학의집 서울은 자연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문학인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높이고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유용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각종 문학 특강은 물론 전시실, 행사장 등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교류의 장,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문학의집 서울은 우리나라 현대문학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작고 문인을 추모하고,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금요문학마당', 현역 작가를 초청하여 대담을 통해 작가의 문학세계를 살펴보는 '수요문학광장'을 개최했다. 또한, 유한킴벌리와 공동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우리 숲 이야기 공모'를 실시하여, 황폐해져 가는 지구촌에서 도시와 숲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 숲이 손실되었을 때 우리가 겪을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더불어 자연과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연사랑문학제'와 당대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주제를 찾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서울문학인대회', 시와 음악이 만나는 '우리 시 우리 노래 신작가곡음악회', 문학에 대한 강의와 작품을 감상하는 '시인학교-남산문학당', 시 한 편의 즐거움을 느껴보는 '정오의 행복한 시 읽기' 등을 진행했다. '우리 동네 이야기 공모'를 통하여 우리 동네의 골목, 이웃, 자랑거리 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으며, 문학과 문인이 연관된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획



2006년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전시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문인들의 새로운 작품을 게재하고 행사를 알리기 위해 매달 '월간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등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문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민들이 문학작품과 문학 행사를 더 쉽게 접하고 문학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문학의 집

문학과 시민들이 함께 교감하는 문학의 장 '문학의 집·서울'은 우리나라에 세워진 첫 번째 문학의 집이다. 2001년 착공 이후 '문학의집 서울'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2005년에는 산림청 한국녹색재단의 녹색자금과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기금으로 산림문학관이 건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림문학관은 전체면적 563.71m²(170.52평)에 지상 2층인 건물로 남산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면서 자연 친화적인 건물로 설계되었다.




문학의집 서울 산림문학관 완공식 모습

이곳에서는 숲과 나무 등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의 확산 이외에 기본에 충실한 문학, 문화적인 활동도 진행되었다. 문인들의 담론이 함께하는 문학특강,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시낭송회, 문인들의 자화상전과 친필부채전, 청소년 백일장, 창작가곡회 우리 시 우리 노래 등이 열렸다. 김남조, 이어령, 피천득, 정호승, 김훈, 강은교 등 현대문학의 원로 또는 중진 작가와 평론가들이 시민들과 만나 호흡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으며, 매월 개최하고 있는 문학특강과 금요 음악마당 등이 개관부터 최근까지 약 400회 이상 진행되며, 문인, 음악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참여와 함께 시민 4만여 명이 즐기는 곳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남산기슭의 조용한 공간이 서울의 중요한 문화 활동무대의 하나로서 변모했다.

「문학의집 서울」

'문학의집 서울' 건물의 개관은 한국 현대사에 의미가 있다. 2001년에 옛 안기부장 공관자리에 있었던 곳으로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장소가 문학과 예술을 즐기는 곳으로 변모했다. 문학의집 서울은 '남산'이라는 은어로 불리며 군사독재를 대변하던 곳으로써 서울시가 1996년 안기부의 터를 인수한 후, 유한킴벌리가 보수공사를 지원하며, 새롭게 단장되었다. 또한 2005년 완공된 산림문학관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장 경호원 숙소 부지에 신축된 건물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녹색재단의 녹색자금과 유한킴벌리가 힘을 보태, 시민들의 공간으로 개방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숲과 자연 속에서 문학을 즐기고 느끼고 경험하는 기회를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다.



칼럼

한마음으로 참여한 문인의 축하 메시지



김후란

문학의집 서울 이사장
 전)생명의숲 이사장

'현대문학'으로 문단에 등단하고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및 (사)생명의숲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학을 통해 자연환경의 필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 한 기업의 생명과 활성화는 기업의 내실있는 발전이 최우선이라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존재감이 평가되는 여러가지 사회기여도는 매우 뜻깊은 활동의 산물입니다.

평생 시인으로 살아온 내가 어떻게 유한킴벌리라는 대기업이 밀고 나가 는 아름다운 숲가꾸기 행사에 동참하면서 20여년을 참여해왔는지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으로 있을 때 문인 10여명이 서울대학교 숲에 가서 가지치기를 처음 해보았습니다. 그날 숲가꾸기에 참여한 수많은 남성들 틈에서 서투른 솜씨로나마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엇나간 가지들을 톱 끝으로 베어나가면서 자연보호활동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체험이 계기가 되어 우리 문인들은 숲가꾸기 여러 행사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해마다 가장 뜻깊게 참여한 행사 중 하나는 유한킴벌리가 주도 해오면서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였습니다. 신혼부부 젊은이들이 마치 신혼여행하듯이 전국 곳곳에 나무를 심으러 갈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문인들도 동행하면서 참으로 신선하고 뜻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우리도 기쁘게 동참했고 그날의 뜻깊은 행사를 추억하는 글을 문인들은 시와 수필로 썼습니다. 금강산 지역에 나무들을 심으러 갔던 날은 국경을 넘어가서 1박 2일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참가자들은 마치 신혼여행을 간 것처럼 들떠서 저녁회식 후에 노래자랑 등 즐거운 추억을 쌓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연사랑의 정겨운 숲운동과 자연사랑 문학행사

특히 감동했던 일은 그 어린 나무들이 세월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서 숲이 된 현장에 10년 전 심었던 신혼부부들을 다시 초청한 일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다시 찾아온 젊은이들은 아주 행복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초등학교 학생이 된 자녀를 데리고 참가했습니다.

“애들아, 여기 이 나무가 10년 전에 아빠하고 엄마가 심었던 어린 나무란다. 어느새 이렇게 자랐구나”하고 추억하며 숲운동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감회가 깊었습니다.

나라의 번영은 숲이 우거진 삶의 터전에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분위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의 압박 속에서 위축되는 생활권을 어떻게 헤쳐가느냐 하는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릅니다. 그 첫 과제로 숲이 우거진 자연환경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가꿔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우리 모두 안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유한킴벌리의 선각된 환경개선 의지와 자연사랑의 정겨운 숲운동이 참으로 귀한 일임을 재인식합니다.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 역시 글로써 참여하는 사회적인 사명감이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생명의 숲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있던 문국현 사장님과 나는 생명의 숲 행사에 함께 참가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의 집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이 2001년 10월 26일 남산자락에 수년째 비어있던 낡은 건물인 전 안기부장 공관을 유한킴벌리의 문학사랑정신으로 새집으로 수리되고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관자의 입장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이라고 현판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자연을 사랑하는 유한킴벌리의 숲사랑 정신을 문학인들의 문학으로 이어가려는 의지였으며, 실제로 문인들이 천리포수목원을 비롯해서 전국의 산림청 산하 숲탐방 여행으로 자연사랑 문학행사를 자주 시행했습니다. 이 모두 우리나라 자연과의 접촉을 문학으로 깊이 있게 추구하면서 숲사랑 글을 써서 만든 책자를 전국 휴양림과 도서관에 배포하는 성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유한킴벌리와 문학의 집은 동심일체로 우리 사회에 숲사랑정신을 문학의 깊은 뿌리로 심어 숲사랑활동을 힘껏 가꿔왔다고 하겠습니다.

남다른 노력, 보람있게 발전하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표어의 신선한 표제도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유한킴벌리의 사회봉사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왔습니다.

한국에도 심한 황사현상이 일어났을 때 서울사람들은 그것이 몽골의 영향인지 모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몽골은 한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국토임에도 국토의 41%가 고비사막으로 이루어져 이웃국가들의 환경문제 해결은 국경을 넘는 협력만이 해결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의 일환으로 동북아산림포럼이 발족되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몽골 조림사업의 연구와 나무심기를 실행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 주도했던 토진나르스 지역 나무심기 실행은 그후 20년이 지난 오늘에 극심했던 황사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은 국가사업의 수준으로 확대되어왔으며 그 가치는 국위를 높이는 수준인 것입니다.

한 기업의 생명과 활성화는 기업의 내실있는 발전이 최우선이라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존재감이 평가되는 여러가지 사회기여도는 매우 뜻깊은 활동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한 유한킴벌리의 전직 임직원들의 사회기여 정신과 발전적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모든 노력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큰 역할이기에 유한킴벌리의 남다른 노력이 더욱 보람있게 발전해 갈 것을 기원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03 몽골 토진나르스에 나무를 심다

유한킴벌리는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사막화를 예방하는 것의 위급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숲을 조성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전개했다.

숲을 통해 사막화와 황사 피해 예방을 도모하다

1992년 6월 지구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인 리우 회의에서는 사막화 방지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기상 변화로 인해 수목이 말라 죽고 메마른 나대지가 늘어나는 사막화가 지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과 수많은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1994년 6월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인 '사막화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이 채택된 바 있다. 사막화 방지 협약 채택 이후 1995년까지 115개국이 서명했으며, 이 중에서 50개 국가가 비준함으로써 1996년부터 협약이 발효되었다. 현재는 총 194개국으로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1999년에 이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몽골 유한킴벌리의 숲

잘 알려져 있듯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이 인접해 사막 지역과 건조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의 직접 피해를 보는 국가다. 국립기상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1961~1990년까지 30년 동안 황사 관측 일수는 연평균 2.7일이었으나, 1971~2000년은 3.7일, 1981~2010년은 5.9일로, 해가 갈수록 황사 관측 일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황사는 대기 오염과 호흡기 질환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유한킴벌리는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사막화를 예방하는 것의 위급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숲을 조성하는 국제협력 사업을 전개했다.

시민단체인 세민재단, 산림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협력 사업은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지구 환경에 기여하자는 뜻으로 진행되었다.

동북아산림포럼에 참여하다

유한킴벌리는 국제협력사업을 계기로 동북아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넓혀나갔다. 1998년 11월, 사단법인 동북아산림포럼이 '지구촌의 산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환경 측면에서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기여'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창립했다. 동북아산림포럼은 창립 이후 국제 공조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산림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동북아산림포럼 창립 총회

동북아산림포럼에는 이돈구 서울대 교수, 김진수 고려대 교수 등 여러 전문가와 시민재단이 함께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유한킴벌리는 문국현 당시 대표이사와 사원들이 창립 준비 과정은 물론 창립 이후에도 이 포럼을 꾸준히 지원했다.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국가기업이 후원하는 동북아산림포럼 중국지부를 설립하는 한편, 몽골에는 몽골 자연환경부가 후원하는 몽골지부를 설립, 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중우의림을 만들다

유한킴벌리는 동북아산림포럼과 손잡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사막화 방지를 위해 중국 네이멍구 적봉시에 140ha 규모의 소나무와 포플러나무 숲을 조성하기도 했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사막 지역은 황사 발원지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유한킴벌리는 이 지역의 사막화를 지연시키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황사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흡수원인 숲을 늘림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2000년 한중우의림 조성을 위한 협의

이를 위해 북경시 밀운 저수지 인근에 2ha 규모의 전나무 숲을 조성했다. 밀운 저수지 조성 사업에는 중국 국가기업과 북경임업대학, 그리고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중우의림 조성에 의의를 더했다.

표 14. 중국 사막화방지 숲 조성 지원 성과

| 조성년도 | 지역 | 조성면적(ha) | 조림 수종 |
|------|--------------|----------|-----------|
| 2001 | 북경시 밀운저수지 인근 | 1.0 | 전나무 |
| 2002 | 북경시 밀운저수지 인근 | 1.0 | 전나무 |
| 2003 | 네이멍구 츠핑 | 800.0 | 소나무 / 포플러 |
| 2004 | 네이멍구 츠핑 | 600.0 | 소나무 / 포플러 |

출처: 동북아산림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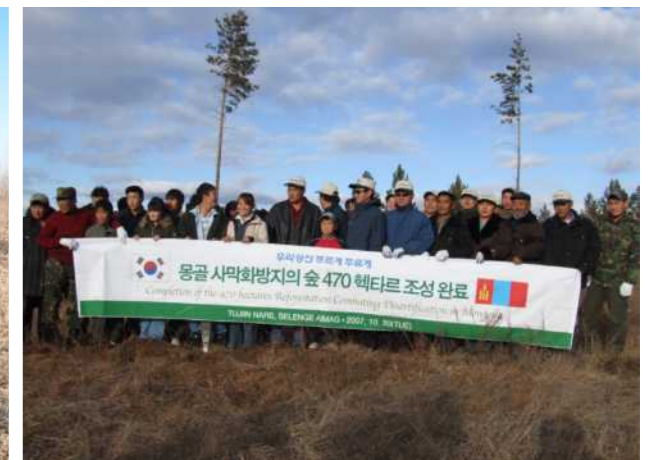
한몽우의림이 유한킴벌리숲이 되다

몽골은 영토의 90% 이상이 건조, 반건조 지역으로 사막화에 취약하다. 오늘날 몽골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사막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사막화가 심한 지역은 6.7%에 달하며, 사막화가 중간 정도로 진행된 지역은 25.9%를 차지한다. 이후에도 사막화는 더욱 심각해져 심한 지역은 9.9%로 급증한 상태다. 몽골은 전 국토의 약 77.8%가 사막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몽골 사막화 원인을 살펴보면 건조 지역 특유의 강수량과 지하수 부족에 더해 과도한 방목이 초래한 식생 훼손, 그리고 산불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더불어 무단 벌채 등으로 인해 숲이 소실된 상태다.

몽골 사막화는 한반도의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증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유한킴벌리와 시민단체는 이러한 건조 지역과 황폐지를 복원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토양이 저장하는 수량이 늘고 물순환이 원활해지면 더욱 많은 식물이 자생하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몽골의 사막화 방지 활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2004년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지



2007년 몽골 사막화 방지의 숲 조성

몽골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350km 떨어진 토진나르스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었고, 이 숲은 몽골 전체 소나무 숲의 16.2%, 특별보호지역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숲이 산불, 불법 벌채, 해충 등에 의해 큰 피해를 보아, 시급한 산림 복구가 필요한 면적이 2만 5,700ha에 달했다.

유한킴벌리는 2002년 5월 18일, 몽골 정부 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한·몽 간 황폐산림 복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기점으로 동북아산림포럼과 함께 2003년부터 토진나르스 소나무 숲 복구 사업을 시작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토진나르스 숲 복구를 위한 1차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하며 총 1,350ha, 연평균 225ha 규모의 면적에 나무를 심었다. 이 시기에 심은 나무는 구주 적송, 잎갈나무 등으로 총 405만 본, 연평균 67만 5,000본에 달한다.

유한킴벌리와 동북아산림포럼은 2차 토진나르스 나무심기 사업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연이어 진행하였으며, 총 1,900ha 면적에 구주 적송 총 608만 본, 연평균 101만 3,000본의 나무를 심기도 했다.



2011년 몽골 사막화 방지의 숲 조성



2012년 몽골 사막화방지 숲 조성 10년 기념 나무심기 행사

표 15. 1차 토진나르스 나무심기 결과

| 1차조성년도 | 수종 | 면적(ha) | 본수(그루) |
|--------|-------------|--------|-----------|
| 2003 | 구주 적송 | 100 | 300,000 |
| 2004 | 구주 적송, 잎갈나무 | 150 | 450,000 |
| 2005 | 구주 적송 | 250 | 750,000 |
| 2006 | 구주 적송 | 250 | 750,000 |
| 2007 | 구주 적송 | 250 | 750,000 |
| 2008 | 구주 적송 | 350 | 1,050,000 |
| 계 | | 1,350 | 4,050,000 |

표 16. 2차 토진나르스 나무심기 결과

| 2차조성년도 | 수종 | 면적(ha) | 본수(그루) |
|--------|-------|--------|-----------|
| 2009 | 구주 적송 | 300 | 960,000 |
| 2010 | 구주 적송 | 320 | 1,024,000 |
| 2011 | 구주 적송 | 320 | 1,024,000 |
| 2012 | 구주 적송 | 320 | 1,024,000 |
| 2013 | 구주 적송 | 320 | 1,024,000 |
| 2014 | 구주 적송 | 320 | 1,024,000 |
| 계 | | 1,900 | 6,080,000 |

몽골에 푸른 숲을 가꾸다

유한킴벌리와 동북아산림포럼은 두 차례에 걸친 토진나르스 나무심기 이후 조성한 숲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숲가꾸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연간 40,000그루의 소나무 등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350m² 규모의 한국형 시설 양묘장을 설치하여, 산림복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8년에는 몽골 산림복원사업 15주년을 기념하여 2003년 처음 조림이 시작된 곳에 생태타워를 준공하고 벤치,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이 전망대는 몽골의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2022년 초에는 몽골 10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모델로 몽골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20주년을 맞이하여 생태타워에서 몽골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2022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생태탐방로를 함께 둘러보며 몽골 산림복원사업 20주년 기념식수를 했다.

2003년부터 심은 나무들은 사막화를 방지하는 역할 뿐 아니라, 몽골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었다. 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다. 유한킴벌리는 2003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나무심기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는 토진나르스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 경험을 쌓은 지역 주민들은 이후 진행된 숲가꾸기 사업과 양묘장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숲을 잘 지킬 수 있는 노하우도 함께 배웠다.



2015년 한몽 산림복원 양묘장 준공식



2023년 몽골 20주년 기념식

유한킴벌리와 동북아산림포럼은 몽골 사막화 방지 노력을 몽골 정부로부터 인정받기도 했다. 2015년에 몽골 자연환경부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고, 2017년 토진나르스 지역이 위치한 몽골 셀렝게 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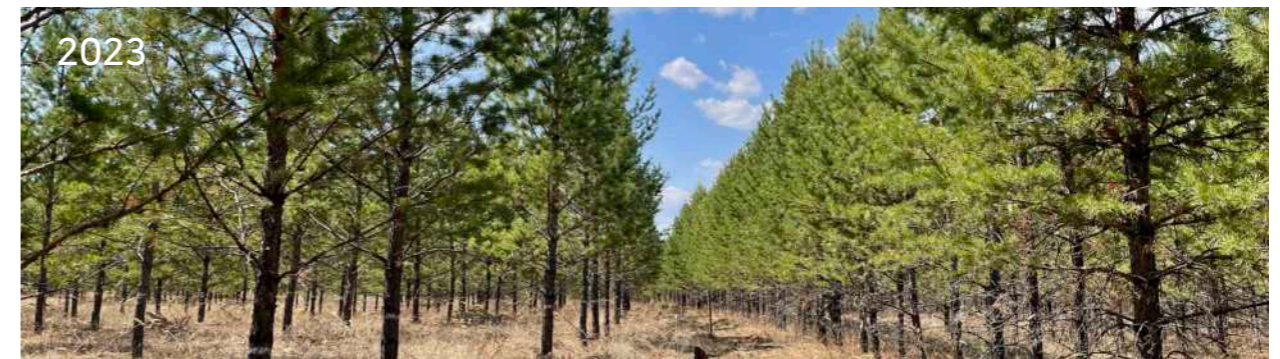
유한킴벌리가 중국과 몽골에까지 숲가꾸기 활동을 진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위치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위치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명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유한킴벌리는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중국, 몽골 등 인접 국가와의 숲을 매개로 한 긴밀한 협력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유한킴벌리숲, 화재로 소실된 숲 복원·사막화방지의 대표적 성공모델

몽골 유한킴벌리숲은 몽골 정부와 유한킴벌리, 시민단체, 학계가 협력하여 사막화를 막고 자연생태계 복원에 성공한 세계적 대표모델로, 2022년에는 몽골 대통령이 유한킴벌리숲을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0억 그루 나무심기'를 선언한 장소이기도 하다. 2003년에 시작한 몽골 토진나르스 지역의 유한킴벌리숲 조림 사업은 몽골 정부와 협약을 통해 지속해 오고 있으며, 나무심기에 이어 기존 조림지를 가꿈으로써 국경을 넘어선 성숙한 숲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한편, 2022년 제15회 세계산림총회 'International Dryland Greening Network' 세미나에서 『몽골숲의 조성 성과와 향후 사막화 방지림 계획』을 내용으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몽골숲 조성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림 21. 몽골 유한킴벌리의 숲 20년 로드맵



1999년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한발 완화에 관한 세미나

2023년 몽골숲 20주년 기념 몽골대통령 면담

2003년부터 조성한 몽골 유한킴벌리숲의 변화 모습

(위에서부터) 2003년 / 2008년 / 2011년 / 2017년, 대통령 나무 인근 / 2018년, 몽골 생태타워 부근 / 2023년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가장 큰 성과는 일반인들에게 산림과 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한 것



배상원

동북아산림포럼 운영위원장

생명의숲이 발족하고 숲가꾸기 운동이 전개될 때 산림과학 자로서 지원했습니다. 이후 공존숲 운동에도 참여하고,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숲 조성사업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용만 하고 이윤을 창출하는데만 신경을 썼는데, 기업도 환경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준 게 또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숲가꾸기를 하던 1998년부터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생명의숲이 발족하면서 IMF가 터졌고 숲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때, 산림과학원 쪽에서 숲가꾸기의 중요성이나 기술 지원, 현장 자문 등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알고 보니 전부 유한킴벌리와 많이 연계된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시작은 숲가꾸기 운동을 할 때 지원하고 거기에 조언을 해주는 거였죠.

그 이후에 공존숲 사업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공존숲은 대전과 김천 지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김천 공존숲은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지자체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줘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갑자기 반달곰이 나타나서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종결하게 됐죠.

대전 쪽은 조림, 숲가꾸기 같은 걸 위주로 해서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데, 국유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다른 NGO들의 참여가 조금 적어서 아쉬운 면이 있고, 상수원보호지역이어서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침녕굴이 매우 많아서 이전에 나무를 심었어도 다 실패한 지역이었는데, 상수원 보호지역이어서 약재를 못 쓰니까 인력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나무를 심어서 지금은 제대로 숲이 커가고 있는 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전은 국유림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속 관리가 되겠지만, 김천 같은 경우는 지자체 공유림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천 공존숲은 휴양림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지역 주민 활동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몽골 조림 사업은 2014년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숲가꾸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조림을 했는데, 조림 대상지가 예전에 소나무 숲이었는데, 산불 피해가 나서 황폐해져 숲이 망가진 곳이에요. 2003년부터 1년에 300ha 정도씩 조림을 했고, 2008년부터는 CDM 사업으로 초지 조림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숲가꾸기로 전환 되었습니다. 초지 조림지역에 숲가꾸기 상황을 점검하고 기상 데이터를 수집할까 해서 생태 타워를 만들었는데, 울창해진 숲을 보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외지 몽골 주민들이 많이 찾고 신혼부부도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공무원들이 SNS를 많이 하는데, 몇 분이 다녀가시면서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는 덕분에 지금은 매우 많은 몽골 사람들이 찾아오는 생태관광 포인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몽골 대통령도 작년에 방문해서 몽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억 그루 나무심기의 모델로 SNS에 올리셨던데요. 몽골 정부와의 관계는 협약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몽골 정부에서 요청한 사업이라 이쪽 지자체나 정부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죠. 저희가 요청하는 내용들을 환경부 쪽의 담당 국장이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도 협조를 해줘서 1년에 많은 면적을 조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협약은 토진나르스 자연보호관리청 하고 유한킴벌리, 동북아산림포럼, 몽골산림포럼 이렇게 네 기관이 협약

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유한킴벌리가 생명의숲, 동북아산림포럼, 산림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건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사회적 성과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는지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에서 가장 큰 성과는 일반인들에게 산림과 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용만 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 기업도 환경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준 게 또 하나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처럼 하는 게 없지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기업도 환경보호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매우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몽골 사업은 계속 숲가꾸기 쪽만 진행할 계획인지요?

숲가꾸기를 지속하고 양묘장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지역주민 소득도 올리게 하고, 우리가 추가로 빈자리에 조림하고 연구용으로 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숲가꾸기만 하면 그 결과, 생태적으로 잘 자라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높아지는 건지 등이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팀을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를 해서 학계에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깐 이렇게 좋은 숲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하고요. 기술 노하우도 축적해서 제시하고 학문적으로 결과를 발표해서 몽골의 숲가꾸기 사업이 확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연구팀 조성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몽골대학과 함께 연구팀 기초 기반 시설을 일부 완공할 계획입니다.

Special Report 유한킴벌리와 도시숲 이야기 20년사

① 2003 - 2005

도시숲조성 - 서울숲조성 및 보전

- 서울숲 총 6,000명 시민의 숲 조성 및 개장
- 서울숲사랑 모임 운영 Main Sponsor
- 교목 5,888주, 관목 98,833주 식재
- 사우가족, 그린캠프 봉사활동

② 2007 - 2010

도시숲조성 - 우리동네숲

-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사업(대상지제공)
- 주민참여형 동네숲 5,537m² 조성, 8,234주 식재
- 주민 워크숍 수행, 나무심기 프로그램 운영
- 총7개소 사업지 조성(석관동, 개화동3개소, 쌍문동, 휘경동, 우면동)



2005년 서울숲 자원자원봉사

③ 2014 - 2016

나눔키르기금지원-그린리더양성, 공모형

- 나누는, 꿈꾸는, 커가는 기금
- 도시 곳곳에 녹색공간 조성 시민활동 17개팀 선정
- 공원녹지(정원형)조성과 녹색커뮤니티 활동 지원
- 주로 양성교육과 활동시드머니 지급
- 전문가-선정팀 멘토링 시스템 운영 팀당 1천만원 내의 지원(사업기간 9개월)

④ 2017 - 2018

작은숲지원(어린이집대상, 공모형)

- 어린이를 위한 숲조성 공간 개선 사업
- 어린이집 마당, 어린이 공원 등 2개팀 선정
- 공원녹지 개선과 워크숍 사업비 지원
- 성동구내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 1팀당 1천2백만원 지원
- 선정 이후, 워크숍 프로세스 지원 및 청년 정원가 대상으로 설계공모전 실시하여 정원조성 사업비 지원

⑤ 2016 - 2021

도시공원재생 인덱스가든

- 도시공원내 유휴공간 18,531m² 재생
- 도시에서 쉽게 만날수 있는 식물수종에 특별한 테마로 색인한 종다양성 정원 총 6개소 조성 (독섬 한강공원3개소, 서울숲 3개소)
- 나무3,365주, 초본5145본 식재
- 인덱스가든 4, 5호(서울숲 설렘정원, 겨울정원) 경우 각컨셉에 부합하는 이벤트 사업후원 병행: 웨딩가든 컨셉 부합하는 결혼식 지원, 겨울철 공원 이벤트 진행



History

서울숲공원 조성에 동참한 것을 시작으로, 44,194명의 사우가족과 숲을 돌봤다. 116,320그루의 나무를 심고, 13개의 도시숲을 만들었다.



2003년 유한킴벌리 사우가족 나무심기 자원봉사

첫만남

유한킴벌리, 서울숲의 시작과 함께하다

2003년 서울숲 조성 당시, 유한킴벌리는 제1회 시민가족 나무심기에 참여하여 서울숲 만들기에 동참했다. 2023년 현재까지 20년간 유한킴벌리 사우 가족은 정기적으로 서울숲 가꾸기 자원봉사에 참여해 도시숲을 만들고 지키는 보전 활동에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원봉사

서울숲을 만들고, 숲을 보전하기 위해 꾸준히 기여하다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절별로 사우 가족과 함께 서울숲 곳곳에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들이 잘 자라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통해 녹지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 서울숲 제막식

새로운 공원 이용 문화 선도

서울숲 인덱스가든, 설렘정원과 겨울정원의 탄생

유한킴벌리와 서울그린트러스트는 2016년부터 사람들이 도시 식물을 좀 더 친근하게 접하면서 도시숲을 더욱 새롭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덱스가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색인'이라는 뜻의 인덱스(index)에 착안한 인덱스가든은 도시공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식물을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데 모은 도시숲 정원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개의 인덱스가든을 만들었고, 이 중 4,5,6호는 서울숲 내에 만들었다. 인덱스가든 4호(설렘정원)에는 서울숲 내 이용 빈도가 낮은 공간에 사랑의 결실을 상징하는 열매가 가득한 식물을 심어 공간을 재생했다. 인덱스가든 5,6호(겨울정원)은 겨울철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식물과 함께 온실을 활용해 공간 가치를 증대했다.

도시숲의 가치증진

공원의 수준과 질을 높인다

유한킴벌리는 공공 공간인 공원의 품격을 높이는 데 함께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머물 수 있는 벤치를 선물하고, 후원자 정원을 조성하여 공원 기부문화를 선도하였으며 숲과 공원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2003년 유한킴벌리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된 서울숲 사업 사례는 다른 기업의 환경 분야 사회공헌 참여 동기가 되었으며, 서울숲의 새로운 파트너가 늘어나는 마중물이 되었다.



유한킴벌리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서울숲에 조성한 설렘가든

2003 회색 도시에 작은 숲을 만든다

유한킴벌리는 2002년 생명의숲과 함께 서울시 녹지 면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서울그린비전 2020'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로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회색 도시와 열악한 녹지 환경

우리나라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영국, 독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조림 성공 국가로 인증받은 나라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으로 황폐해졌지만, 70년대부터 치산녹화 계획 등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숲을 가진 나라로 변모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 환경은 녹화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였고 울창한 숲을 이루는 데는 그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녹지 면적은 6.56m²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9m²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시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2021년도에는 평균 11.48m²까지 늘어나 권고 기준을 넘어섰지만,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녹지 면적은 여전히 4.97m²에 불과하다.

부족한 도시의 녹지 환경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뿐더러, 도심 열섬 현상을 일으키는 등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한다.

회색 도시에 숲을 만든다

유한킴벌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생명의숲과 함께 서울시 녹지 면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서울그린비전 2020'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로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2020년까지 서울의 녹지 면적 500만 평을 추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뚝섬 시민공원 조성', '김포공항 부지 시민공원화', '경춘선 폐철로부지 녹지로 복원' 등의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이 사업들을 시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그린트러스트 재단'의 설립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생명의숲과 유한킴벌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뚝섬 부지에 시민공원(서울숲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3년 3월 생명의숲과 서울그린트러스트 설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림 22. 2002년 서울그린비전2020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다

이후 생명의숲과 서울시는 산림, 조경 관련 전문가, 언론인, 시민사회 관계자,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 설립을 추진, 2003년 6월에 재단법인 창립이사회를 개최했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서울시 생활권 녹지를 확대 및 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창립했다. 생활권 내에서 만나는 녹색 공간을 늘리고 가꾸고, 녹색을 접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원하고 공유하며 녹색문화 확산으로 세대를 연결하고 사회를 소통한다는 세 가지 비전을 세웠다. 유한킴벌리는 서울그린트러스트 창립 준비 과정부터 창립 이후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숲 조성에 참여하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창립과 함께 생활권 녹지 면적 1,000만 평 확대 운동을 추진하며, 제1호 프로젝트로 '뚝섬 서울숲'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2003년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조성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형 나무심기 사업을 주관했다. 2003년부터 2005년 봄까지 총 5회에 걸쳐 매년 봄, 가을 숲 조성 기금 모금과 나무심기를 진행하여 유한킴벌리의 사원과 가족뿐만 아니라 70여 개의 기업과 단체, 25개 구청, 5,000여 명의 개인 또는 가족이 서울숲 조성에 참여했다.

유한킴벌리와 서울그린트러스트의 노력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서울 동북부 지역에 35만 평이라는 대규모의 인공 생태숲이 조성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시민참여형 도시숲의 모델이 되었다. 유한킴벌리는 3,000평의 숲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이후에도 서울숲 나무심기, 정원 조성사업 등에 지속적인 기금을 후원하는 것은 물론, 매년 사원과 사원가족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2003년 서울그린트러스트 창립 이사회



2003년 서울숲 조성 시민 나무심기 행사

주민과 함께 우리동네숲을 만든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을주민의 주도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마을숲'이 있었다. 마을숲은 수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주고, 마을 잔치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주민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유한킴벌리는 이런 마을숲이 도시에도 생긴다면 미세먼지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한편,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어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진행한 '전통 마을숲' 개념이 출발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동네숲 1호 - 석관동 동네숲 (좌)조성 전/(우)조성 후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전통 마을숲의 개념을 도시 지역에서 재현하기 위해 시작된 '우리동네숲' 프로젝트이다. 우리동네숲 사업은 도시 지역의 자투리땅에 소규모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관리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숲의 조성 및 관리 과정에서 기업들의 기부금 후원과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가 이뤄지기도 했다.

유한킴벌리는 2007년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조성된 '제1호 우리동네숲' 후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강서구 개화동에 조성된 '제2호 우리동네숲' 등 2010년까지 7곳의 우리동네숲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표17. 우리동네숲 프로젝트 지원 현황

| 조성년도 | 명칭 | 조성면적(m ²) | 주요 수종 |
|------|-----------------|-----------------------|-----------|
| 2007 | 우리동네숲 1호 '석관동' | 497 | 스트로브잣나무 외 |
| 2007 | 우리동네숲 2호 '개화동' | 1,120 | 소나무 외 |
| 2008 | 우리동네숲 9호 '쌍문동' | 460 | 선주목 외 |
| 2008 | 우리동네숲 10호 '휘경동' | 720 | 스트로브잣나무 외 |
| 2008 | 우리동네숲 11호 '개화동' | 1,048 | 소나무 외 |
| 2009 | 우리동네숲 14호 '개화동' | 1,494 | 상수리나무 외 |
| 2010 | 우리동네숲 17호 '우면동' | 198 | 소나무 외 |

한강에 인덱스가든을 조성하다

유한킴벌리의 환경보호 활동은 비단 숲가꾸기와 나무심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유한킴벌리는 서울의 젓줄인 한강을 시민이 찾는 '건강 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서울숲과 한강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다.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독섬한강공원과 서울숲을 그린웨이로 연결하는 '인덱스가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인덱스가든은 '인덱스(index, 색인)'라는 개념에 착안해, 도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식물을 색깔·향기·열매·계절 등을 주제로 6개의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색다른 방법으로 식물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총 4.4km의 그린웨이로 연결된 인덱스가든은 '색깔'과 '계절'을 기준으로 식물의 잎과 열매, 수피 등에서 독특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을 계절별로 펼쳐놓았다. '색인'이라는 뜻을 가진 인덱스(index)의 의미처럼, 격자무늬로 정원을 구성하여 이 식물이 어느 계절에, 어떤 색을 가진 식물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계절마다 8가지 색을 정해, 총 32종의 꽃과 나무를 식재했다. 어느 계절에 찾아가도 식물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하다.



2018년 도시숲 한강인덱스가든 조성 사원 및 사원가족 자원봉사 나무심기



2018년 도시숲 한강인덱스가든 (좌)조성 전/(우)조성 후

전국으로 확산되는 도시숲 트러스트 운동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다른 지역의 공원녹지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많은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가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숲에 민관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과 민간공원경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한편, 서울그린트러스트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이 이어져 부산그린트러스트, 수원그린트러스트, 광주 푸른길 등 유사한 활동을 하는 도시숲 운동 단체들이 창립되었고, 지역의 공원녹지 확대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인덱스가든 4호 서울숲 설렘정원 조성 유한킴벌리 사원 및 사원 가족 자원봉사

표 18. 인덱스가든 프로젝트 지원 현황

| 조성년도 | 명칭 | 조성면적(m ²) | 주요 수종 |
|------|---------------------|-----------------------|--------------|
| 2016 | 인덱스가든 1호 (뚝섬한강공원) | 4,720 | 개나리 외 21개 수종 |
| 2017 | 인덱스가든 2호 (뚝섬한강공원) | 1,275 | 개쉬땅나무 외 |
| 2018 | 인덱스가든 3호 (뚝섬한강공원) | 300 | 수수꽃다리 외 |
| 2019 | 인덱스가든 4호 (서울숲 설렘정원) | 371 | 호두나무 외 |
| 2020 | 인덱스가든 5호 (서울숲 겨울정원) | 800 | 자작나무 외 |
| 2021 | 인덱스가든 6호 (서울숲 겨울정원) | 350 | 자작나무 외 |

칼럼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한국 숲단체 태동의 산파



지영선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참여정부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 보스턴 총영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숲, 우리동네숲, 인덱스가든 조성 등 우푸푸 도시숲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2003년 3월18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시민단체인 생명의숲 김후란 공동대표가 협약을 체결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고 아름다운 녹색 서울을 가꾸는 사업을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펼친다는 것이다. 6월 24일 그 일을 추진할 시민 조직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출범한다. 이에 앞서 그해 1월 이 시장은 과천으로 옮겨간 경마장의 뚝섬 부지 35만 평에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의 센트럴 파크' 서울숲이 탄생하던 무렵의 이야기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이하 우푸푸)'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안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과정뿐 아니라, 이 시장으로 하여금 뚝섬 부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대신 숲을 조성하도록 설득하는 데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문국현(당시 유한킴벌리) 사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의미에서 '우푸푸'는 우리나라 숲운동 단체의 시초라 할 생명의숲과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산파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산뿐 아니라 도시의 생활공간을 녹화하는 '도시숲'운동이 시작된다.

2년여의 준비를 거쳐 서울숲이 개장하기까지 70여 기업과 그 임직원, 그리고 5천여 명의 시민이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땀을 흘렸다. 그로부터 20년, 서울숲에서 피어난 것은 꽃과 나무와 숲만이 아니다. 더 많은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시민이 힘을 합해' 숲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가 정착되었다. 공원 관리 분야에서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거버넌스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우푸푸'가 이룬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성과다.

도시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우리 동네숲'과 '인덱스 가든' 조성에도 '우푸푸'는 항상 맨 앞에서 서울그린트러스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지난해 창립 20돌을 지낸 서울그린트러스트,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우푸푸'의 더욱 푸르른 미래가 기대된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거버넌스의 힘을 잘 활용한 것이 룡런 비결



이강오

전)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생명의숲에서 활동하며 숲가꾸기 운동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서울그린트러스트 창립부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숲 조성과 도시숲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 자원봉사도 저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원봉사가 승진포인트, 이런 개념으로 의무적으로 하던 자원봉사가 기업들이나 대학생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자원봉사 문화로 크게 바뀌었죠.

유한킴벌리와 어떤 활동들을 함께했나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숲에 와서 숲을 왜 가꾸어야 하는지 교육받았는데, 그게 인상이 참 많이 남아요. 그분들을 교육하고, 전국의 숲가꾸기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했었고, 학교숲이나 아름다운 숲전국대회 같은 일들은 모니터링이나 이런 일들에만 주로 참여하고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2002년부터 서울그린트러스트 준비를 했습니다. 창립하자마자 서울숲을 시작했었고, 한 3년 동안은 서울숲에 정말 올인했죠. 서울숲을 그냥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 과정에 유한킴벌리가 캠페인을 해서 다른 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약 70개 기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모금캠페인을 유한킴벌리랑 같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도시숲에서의 시민참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자원봉사도 저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기업의 자원봉사가 승진 포인트, 이런 개념으로 의무적으로 하던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숲 조성 시 유한킴벌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오더군요. 그런 조직 문화가 서울숲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 실제 기업들이나 대학생들,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문화가 크게 바뀌었던 것 같

습니다. 2007년도 한 해 기준으로 상시적인 자원활동가가 약 200명, 연간 자원봉사자가 약 4천 명 정도 되었고, 시간으로는 약 9만 시간 정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유한킴벌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점은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림청과 환경단체와 기업, 그리고 전문가들이 뭉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느끼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회의하는 방식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익숙한 분들이 아니죠. 산림조합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협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해준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을 발굴하고,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를 튼튼하게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훈련되고, 민주적인 활동가로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숲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지요?

첫 번째는 도시공원이 그냥 공무원들이 똑딱똑딱해서 만들던 거를 처음으로 시민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민이라는 게 거주자가 아니라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로서 내 삶터에 대한, 이런 공간에 대한 민주적 생각, 주권자적 생각을 갖게 해 준 게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원 이름에 '숲'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미친 영향이죠. 그동안 공원을 시설 중심의 시설물로 대개 생각했었던 것을 서울숲을 계기로 '아, 이제 도시에 숲이 필요하구나'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당시 청계천과 함께 서울숲이 던진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원에서 시민참여라는 게 처음 시작이 됐고, 그게 다른 여러 곳에 영향을 주고, 수원, 부산 이런 도시에서도 시작하게 된 거죠. 형식적인 곳도 많겠지만, 공원에 나무 심는 건 다 시민참여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시장, 군수들이, 구청장들이 역할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런 게, 시민참여의 실마리를 열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캠페인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숲을 통해서 우리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였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 게 아닐까요. 이미 우리 강산은 푸르게 돼 있지만 그거를 더 푸르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들자는 거죠. 또 우리 일상에서, 도시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도시공원 같은 곳, 마을에, 이런 곳에 숲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노력 말이에요. 그 숲의 가치를 알리고 실제 그게 프로젝트화 되게 하고, 이런 것이 지대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한킴벌리가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절되고 새로운 것들로 가기 쉬운데, 그래도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리더십 말이죠. 이후의 여러 대표이사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적인 측면. 그 재원을 확보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남의 힘을 굉장히 잘 빌렸습니다. 유한킴벌리는 10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가지고 거의 100 이상을 쓴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시간과 역량, 그리고 정부의 재정과 사람,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에너지와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얻으신 게 아닐까요? 거버넌스 모델을 잘 만드신 게 이렇게 룡런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버넌스를 잘 꾸렸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주인의식을 스스로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숲과 공존

숲과 사람의 공존을 그리다

우리가산 푸르게 푸르게 30^{주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4년 한 그루의 나무로 시작해
우리가산 푸르게 푸르게 숲을 일구는 30년
우리는 이제 사람들 가까이에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일굴 수 있는
작은 숲을 도시 곳곳에 만들려 합니다
집 앞에서, 학교에서, 동네 공원에서
늘 사람과 함께하는 작은 숲들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더 큰 숲으로 커갈 것입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동네 앞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을 만들고
도시 근린 공원을 지상에 끌어와 있던 주변의 숲들이 이어지는 더 큰 숲을 만들어 갑니다

유한김벌리

숲과 공존

- | | |
|-----------------------------|-----------------------|
| 2014 청춘과 소통하다 |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
| 2015 지역주민들과 탄소중립의 숲을 조성하다 | - 김석권 생명의숲 공동대표 |
| 2016 시니어 산촌을 배우다 | - 최규복 전)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
| 2017 나무를 키워 한반도 푸른 미래를 준비하다 | |
| 2021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의 숲을 조성하다 | |

1984-1998 1998-2003 2004-2013 2014

- 1) 숲
초록색 삼각형은 푸른 숲을 상징
- 2) 사람
갈색 나무기둥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을 상징
- 3) SINCE 1984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땅을 상징

'숲과 공존'이란 무엇인가

2014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30주년을 맞아 '숲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캠페인의 출발과 함께 수립했던 목표, '국내외 5천만 그루'를 달성함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사회책임과 공헌의 방향성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숲과 사람의 공존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나무심기와 숲가꾸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숲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시숲, 지역 공존숲, 미래숲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캠페인의 관점도 자연의 숲을 넘어 숲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2014년 새로워진 캠페인 마크는 자연의 숲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더 나은 미래를 상징한다.

2014 청춘과 소통하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공익 캠페인으로 성장해 나갔다. 세대를 이어오며 발전해 온 만큼, 이러한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하고자 가상 세계에서 사회공헌을 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SNS를 통해 숲의 소중함을 알리다

푸른 숲을 가꿔온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젊은 세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청춘과 숲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해 미래 세대와 소통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우푸푸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주요 히스토리

- 2014년 우푸푸 프로젝트 시작
우푸푸 페이스북 오픈
- 2015년 우푸푸 인스타그램 오픈
우푸 캐릭터 탄생
- 2019년 네이버 블로그 'YK스토리'와 통합운영 시작

우푸푸 페이스북

표 19. 우푸푸 채널

| 채널 | 팔로워수 | 대표 콘텐츠 | 소개 |
|----|-------|---|--|
| | 8.8만 | 기업의 주요 소식을 전하는 [월간 YK] 숲과 멋진 글귀를 전달하는 [숲속 힐링글귀] | 블로그, 유튜브 게시물을 추가로 게재하는 허브 채널은 물론 전반적인 게시물을 저장하는 아카이브 역할로 진행 중 |
| | 6.7만 |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는 [푸르덕트] 우리 주변의 숲을 소개하는 [우리동네 숲세권] | 감성 이미지를 추구하는 채널 특성에 맞춰 보다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비주얼 위주의 실사 콘텐츠 발행 중 |
| | 5천 | 캠페인 현장을 밀착 취재하는 [우푸푸 가이드] 유한킴벌리 사우들의 이야기 [YK HERO] | 우푸푸 캠페인 현장을 밀착 취재한 정보성 콘텐츠 및 유한킴벌리 사우&제품 등 브랜드 전반의 콘텐츠를 다루는 중 |
| | 1.19만 | 숲 ASMR을 통해 힐링하는 [숲멍]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취재 콘텐츠 | 몽골숲, 그린캠프 등 다양한 캠페인의 현장 이야기를 상세히 다루며, 최근 사우 브이로그를 통해 기업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는 중 |

'우푸푸 프로젝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숲과 더욱 친해지고 숲과 함께하는 푸른 일상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우푸푸' SNS 채널을 통해 숲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이벤트를 개최해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다. 여러 이벤트 중 젊은 세대의 눈길을 끈 것은 '숲속 꿀잠대회'이다.

바쁜 일상에서 젊은 이들이 숲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행사는 가장 깊게 잠을 취한 사람을 뽑는 이색 행사다. 2023년에는 8회째 행사가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렸는데 경쟁률이 약 220대 1을 기록할 만큼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우푸푸 숲 속 꿀잠대회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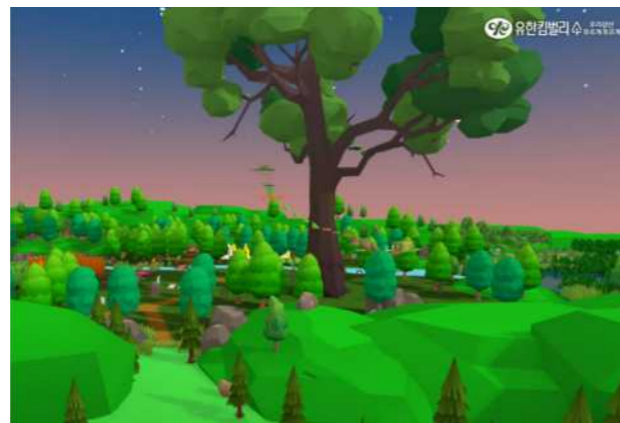
가상 숲을 통한 소통 플랫폼, 제페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을 만든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공익 캠페인으로 성장해 나갔다. 세대를 이어오며 발전해 온 만큼, 이러한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하고자 가상 세계에서도 사회공헌을 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메타버스 공간에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우푸푸숲’을 열었다. 공간을 방문한 이들은 몽골숲과 바다숲 등이 구현된 맵 안에서 숲을 즐기며 동시에 숲 환경 보호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또한 나무심기 이벤트를 통해 숲을 가꾸는 경험도 함께 공유받을 수 있다.

‘우푸푸 나무를 심어줘’ ‘우푸푸 숲을 지켜줘’ 등의 캠페인을 통해 가상세계에서 실제 사용자의 참여도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용인의 탄소중립 숲에 1,000그루, 동해 산불 피해지역에 1,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가상세계의 나무심기를 현실로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었다.

이는 유한킴벌리가 숲과 지구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미래 세대와 소통하며 숲과 환경에 관한 인식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제페토 월드

2015 지역주민들과 공존숲을 조성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숲은 온실가스를 흡수, 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안으로 제시 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건강한 삶과 미래세대를 위한 숲, 사람이 함께 지속가능한 숲인 공존숲 운동을 전개했다.

숲과 사람의 공존

건강해진 숲은 우리에게 이산화탄소 흡수, 대기오염 정화, 소음 저감, 수자원보호, 생물서식처 제공, 재해 안전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연간 남한 면적 이상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숲의 공익적, 환경적 기능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숲을 찾아 갈 수 있고 숲으로부터 건강, 치유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숲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되었다.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지역의 숲을 건강하게 조성, 관리하며,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공존숲을 만들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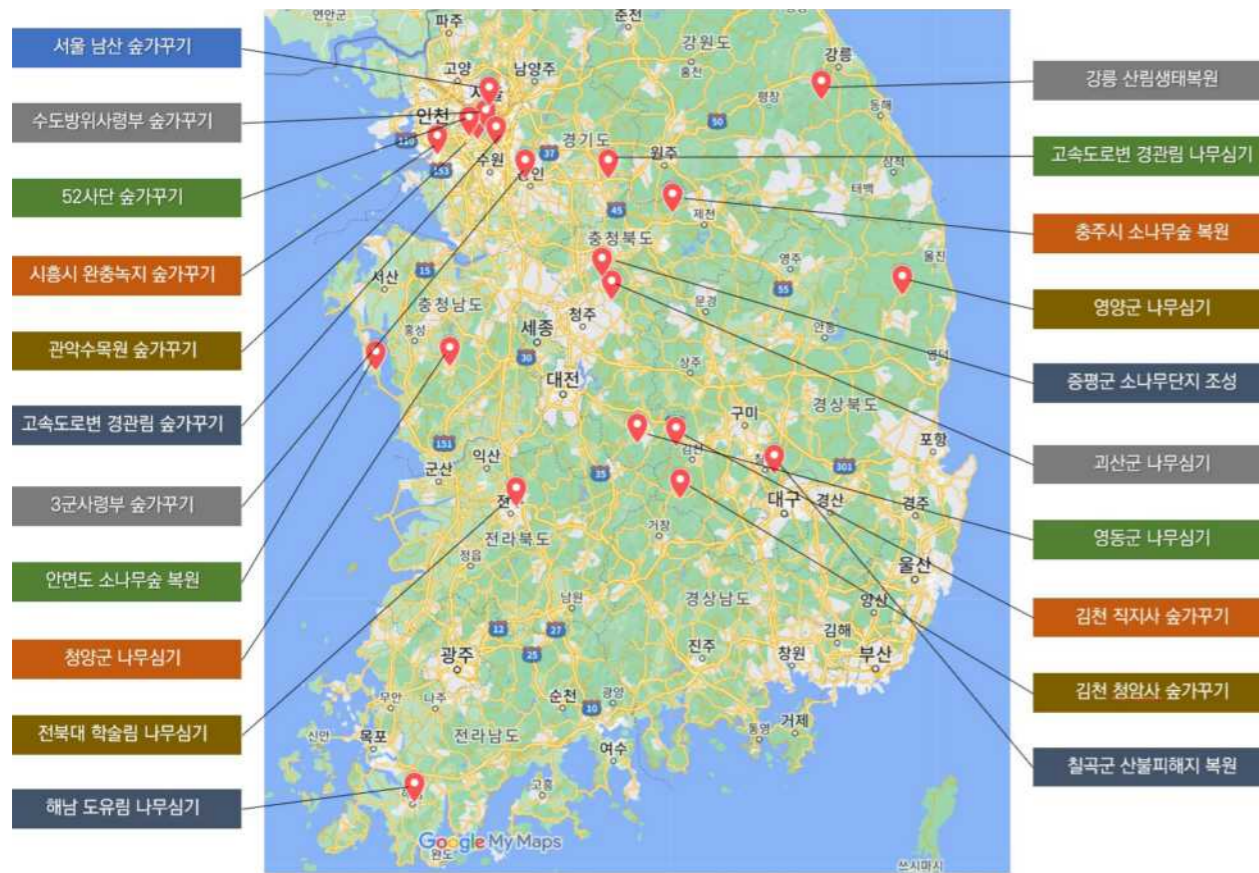


공존숲에서의 야외수업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숲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많은 시간을 노력해왔다.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대상지 숲의 특성에 맞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다. 매년 100만~19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은 5년의 시간동안 총 57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꿨다. 기존 숲가꾸기 영역에서 소극적이었던 사찰림, 병영림, 학술림 등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논의를 통해 숲의 목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를 추진하고자 했다. 하나의 모델임을 만들고자 했다. 이 사업으로 김천 직지사, 청암사 사찰림의 숲가꾸기를 진행했으며, 서울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경기도 광명시 52사단,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등에서 병영숲가꾸기 등을 추진했다.

그림 23.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지(2010년~2013년)



*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기금후원을 통해 자치단체, 학교법인 소유 학술림 등 공공기관 산림에서 매년 100만~190만 그루씩 모두 57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다.

공존숲 운동을 시작하다

유한킴벌리는 생명의숲과 함께 추진한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논의를 통해 숲의 목적과 기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는 '공존숲* 운동'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2015년부터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30주년을 맞아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를 넘어 도시숲, 지역숲, 미래숲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숲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비전으로 새로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 중 '지역숲' 프로젝트는 '지역공존숲'으로 명명된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가꾸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과 사회의 공존을 도모하는 숲'으로 지속가능한 숲 관리와 사회의 숲지킴이,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숲과 새롭게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림 24.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진화



* 공존숲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탄소흡수능을 높이는 산림관리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가는 숲을 뜻한다.

공존숲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홍보하기 위한 탐방 프로그램도 기획되었다. 김천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존숲 탐방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3회 진행되기도 했다. 매주 토요일에는 수도산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존숲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 바 있다.

공존숲 운동은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김천시, 유한킴벌리, 생명의숲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인 '김천 공존숲 운영위원회'가 중심점이 되어 운영된 것이다. 매년 2~4회 진행된 김천 공존숲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천 공존숲 운동 전반에 대한 계획과 평가, 현안에 관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김천 공존숲이 효율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김천공존숲 전경



2017년 김천 공존숲 생태숲 탐방



2019년 김천 공존숲 체험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에 있는 공존숲 또한 유한킴벌리가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해 조성한 곳이다.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로, 공익용 산지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넓은 면적에서 칩과 같은 덩굴류가 기존 식생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 숲 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대상지의 숲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며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숲 관리 활동을 통해 사람도 건강해지는 '산림 탄소 상쇄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칩덩굴을 제거한 후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를 높이는 활동이다. 숲을 생태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환경보전 활동인 '그린짐(Green Gym)'이 도입되기도 했다.

그림 27. 대전 공존숲 구상도



표 21. 대전 공존숲 조림사업 실적

단위: ha

| 구분 | 조성년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조림 | 소나무 | 1.5 | - | - | - | - | - | - | - | 1.5 |
| | 백합나무 | 1.5 | - | - | - | - | - | - | - | 1.5 |
| | 가래나무 | - | 0.6 | - | 1.5 | 2.5 | - | - | - | 4.6 |
| | 편백나무 | - | - | 1.0 | - | - | - | - | - | 1.0 |
| | 느티나무 | - | - | 1.0 | - | - | - | - | - | 1.0 |
| 합계 | | 3.0 | 0.6 | 2.0 | 1.5 | 2.5 | - | - | 9.6 | |
| 숲가꾸기 | 풀베기 | 6.0 | 15.0 | 22.9 | 21.2 | 22.1 | 14.5 | 7.5 | 6.6 | 115.8 |
| | 덩굴제거 | 7.6 | 10.8 | 2.0 | 5.4 | 7.8 | 9.6 | - | - | 43.2 |
| | 어린나무가꾸기 | - | - | - | - | - | 1.5 | 4.0 | - | 5.5 |
| | 합계 | | 13.6 | 25.8 | 24.9 | 26.6 | 29.9 | 25.6 | 11.5 | 6.6 |

그린짐 프로그램은 1997년 영국의 의사 윌리엄 버드와 환경보전 자원봉사 단체인 TCV(The Conservation Volunteers)에서 처음 고안한 활동으로, 숲과 같은 녹지 공간에서 진행되는 야외활동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활동을 뜻한다. 유한킴벌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월 1회 정기활동과 상시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그린짐 리더를 양성하기도 했다.

대전 공존숲은 2015년 산림 탄소 상쇄 사업에 등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6년에 중부지방산림청, 유한킴벌리, 생명의숲 3자 간의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맺고 향후 10년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년간의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로 총 28,86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공존숲 산림관리는 2015년 작성된 '사회공헌형 산림 탄소 상쇄 모델링 조성 계획'을 기본으로 소나무, 백합, 가래나무, 편백, 느티나무 등을 조림했다. 또한 대전 공존숲에서도 김천 공존숲과 동일하게 유한킴벌리 대전 공장 사원 자원봉사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숲지킴이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총 30회의 교육과 현장 활동을 통해 대전 공존숲의 산림 관리에 도움을 준 바 있다.



2016년 대전 공존숲 사원 및 사원가족 자원봉사 나무심기

유한킴벌리는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충남생명의숲 주관으로 매월 1회 '도시숲 어린이 생태학교'를 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존숲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꿈꾸다

유한킴벌리는 김천 공존숲, 대전 공존숲 운동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숲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꾸준한 숲 관리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공존숲 운동은 이 목적에 따라 기본 계획과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관리, 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사원들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의 협력 구조를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유한킴벌리는 공존숲 조성, 숲가꾸기 10년을 토대로 김천 공존숲과 대전 공존숲이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대전 공존숲 어린이 생태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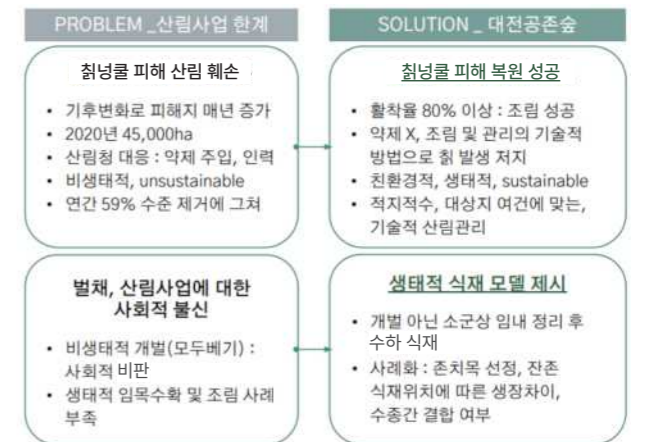


2019년 대전 공존숲 그린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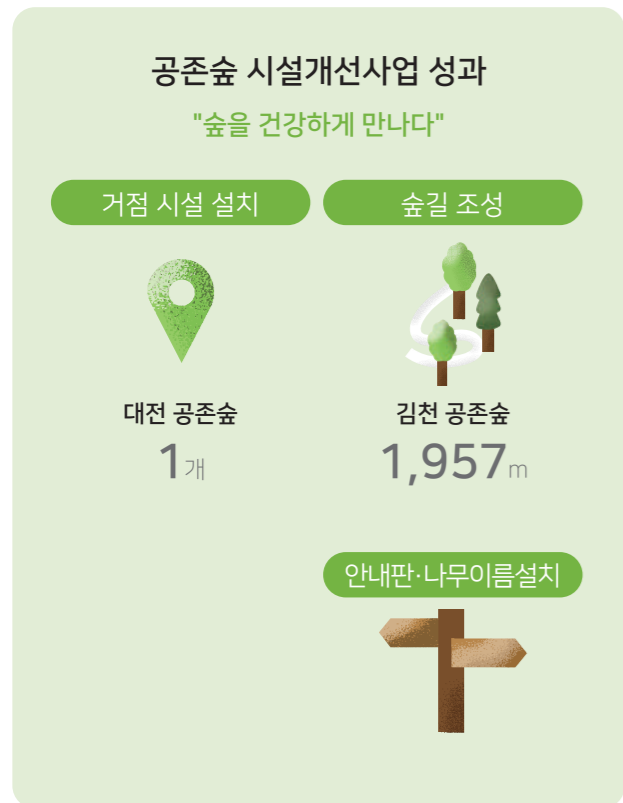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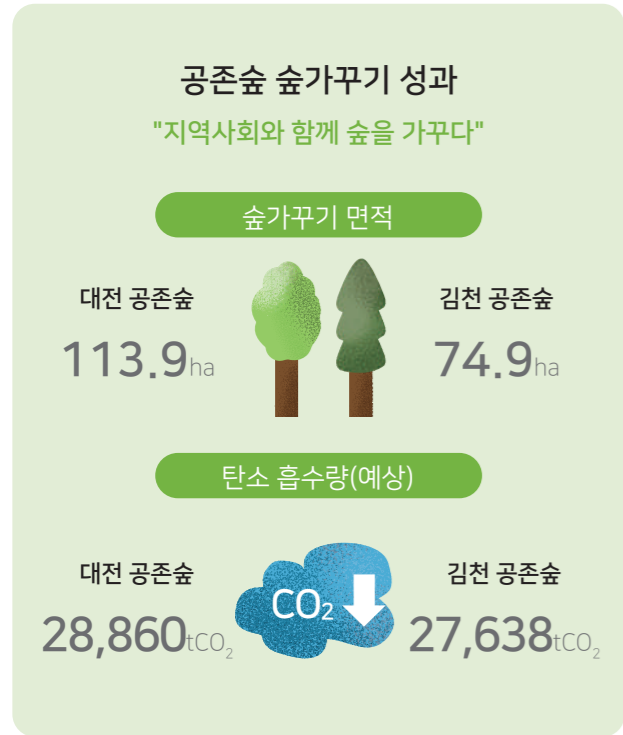
Highlight - 문제해결형 숲모델

대전공존숲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임직원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참여형 모델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대학 등이 어울려 지역주도의 산림관리 모델을 만들고자 시작되었다. 대전시 추동지역에 자리 잡은 이 숲은 유한킴벌리 대전사업장과 직선거리로 1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방도, 임도 등의 접근성은 좋았으나, 숲가꾸기가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었다. 숲가꾸기가 진행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었으며, 도시공원으로 이용객이 많아, 민원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자생하고 있는 침녕쿨로 조림을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대전공존숲은 문제해결형 숲으로 산림관리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지역의 시민, 지자체, NGO, 기업이 참여한 거버넌스 중심으로 해결하고, 해당 사례를 모델화하여,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었다. 수원함양림, 탄소상쇄림(비거래형 탄소등록),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해당 조림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사례화했다. 예를 들어, 침녕쿨 피해로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를 생태적 식재 모델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 모델은 약제나 굴삭기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과 조림 및 관리의 기술을 활용하여 침녕쿨을 제거하고, 활착률이 높은 나무를 심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디자인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 여건에 맞고, 기술적 산림관리의 노하우를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벌채 및 산림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생태적 식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상쇄시키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비생태적인 벌채 대신 소군상 임내 정리 후, 수하식재 방식을 활용하고, 생태적인 임목 수확 모델을 만들기도 했다.



공존숲 운동의 성과 2014~2019년 누적



2016 시니어 산촌을 배우다

'시니어산촌학교'는 귀산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숲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산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유한킴벌리는 귀산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막연한 관심을 넘어 체계적으로 귀산촌 준비 단계에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귀산촌과 제2의 인생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92%에 이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함으로써 도시지역의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 삶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농산촌은 일자리와 사람이 부족해 해체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도시민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며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다. 농림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산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국 귀농 가구는 11,144가구였으며, 귀촌 가구는 33,442가구에 해당한다. 귀농 가구는 2012년 당시 11,220가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귀촌 가구는 2012년(15,788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귀농보다는 농업이 아닌 다른 소득원이 있는 귀촌을 도시민들이 더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정착해 우리 농산촌의 미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연구 사업과 교육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012년~2014년 귀농인구 현황

먼저 유한킴벌리는 2015년 '도시 거주 또는 귀농·귀촌인들의 생태적, 경제적, 지역 친화적인 산림 이용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사업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귀산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 '시니어 산촌학교'를 개설했다. 이 교육은 우리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성을 갖춘 숙련자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는 과정으로, 2019년까지 총 7기가 진행되었다.



[가구원수 27,665명] [가구원수 37,442명] [가구원수 61,991명]

2012년~2014년 귀촌인구 현황



2016년 시니어산촌학교 1기 입학식

시니어들을 위한 산촌학교를 열다

‘시니어산촌학교’는 귀산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숲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산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되었다. 귀산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막연한 관심을 넘어 체계적으로 귀산촌 준비 단계에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시니어산촌학교’는 그동안 총 7기 교육과정을 진행하며 26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누적 지원자는 2,159명으로 평균 경쟁률 8:1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영상강좌 ‘슬기로운 산촌생활’의 경우, 실시간 참여자 수가 650명으로, 귀산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22. 2016년 제1기 시니어산촌학교 프로그램

| 구분 | 일정 | 프로그램 | 강사 |
|-------|---------------|---|---|
| 입문 단계 | 6/15(수) | · 특강: 숲의 가치와 철학 · 우리숲·문화로서의 자연 | 신원섭(산림청장) 김석권(시니어 산촌학교 담임교수) |
| | 6/17(금) | · 기후변화와 숲, 그리고 인간 | 김선희(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
| | 6/22(수) | · 백두대간에서 읽는 삶 | 김진순((주)코리아루트 대표이사) |
| | 6/24(금) | · 숲이 잉태한 목재문화 | 정성호(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
| | 6/29(수) | · 현장교육 - 마을숲에서 미래가치 찾다 - 전통숲과 우리자연의 짜임새 | 신준환(동양대학교 초빙교수) 박찬열(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 |
| 심화단계 | 7/1(금) | · 귀촌, 참 좋다! | 장병윤(부산귀농학교 운영위원) |
| | 7/6(수) | · 도시에서 숲으로 잇기 | 김수환(소호산촌유학센터 대표) |
| | 7/8(금) | · 산촌을 디자인하다 | 정성호(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임경수(논산시 공동체경제사업단장) |
| | 7/13(수) | · 산림에서 보물찾기 · 소득과 일자리가 되는 산림 · 인생이막, 새로운 도전 | 조연환(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김남균(한국임업진흥원장) 박범준(강원일자리센터 자문위원) |
| | 7/15(금)-16(토) | · 현장교육 - 산촌에서 살아가기 실전편 | 김석권(시니어 산촌학교 담임교수) 박기윤(화천귀농학교장) |

유한킴벌리는 귀산촌 준비를 돕기 위해 정규 과정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016년에는 책 ‘반농반X의 삶’의 저자인 일본인 시오미 나오키를 초청하여 북콘서트를 여는가 하면, 2017년에는 ‘산촌학교 사람들 행복 토크콘서트’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2018년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춘(村)극장’과 산촌살이 토크콘서트 ‘산촌별곡-산촌에 살어리랏다’를, 2019년에는 시니어 산촌학교 토크콘서트 ‘새로운 봄을 위한 첫 발’, 2020년에는 ‘슬기로운 산촌 생활’이라는 영상 강좌를 개최했다.



2016년 반농반X의 삶 북콘서트



2018년 청춘극장

산촌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다

오늘날에는 도시에서의 삶에 피로감을 느끼고 농산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 귀농·귀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도시민들에게 농산촌에서의 생활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다. 안정적인 소득원의 확보를 비롯해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적응해야 할 일도 많다.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농산촌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고자 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산촌을 지키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곧 우리 미래를 준비해 가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강과 산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앞으로도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년 시니어산촌학교 3기 졸업식



2019년 시니어산촌학교 토크콘서트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산림 분야와 국민과의 연결고리로 확장



김석권

생명의숲 공동대표

국립산림과학원 재직시 숲가꾸기 관련 연구 활동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공존숲 운동, 시니어산촌학교 등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캠페인의 충실한 진행에 기여했습니다.

“ 일반인들에게는 산림청 정책이 생명의숲을 통해 흘러갔고, 산림청 정책이 유한김벌리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로 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원’했 던 거예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에 참여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1998년부터 생명의숲 창립 회원으로 시작해서 2014년 은퇴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면서 생명의숲 회원 자격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년 태풍 루사 등 대형 산림 재해를 복구하는 데 생명의숲이 앞장서서 운동할 때 산림 연구자로서, 생명의숲 회원 자격으로 백업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2015년에 시니어산촌학교 관련 연구를 하시고, 2016년부터 본 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주관하셨는데요.

유한김벌리 김혜숙 상무님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비하여 퇴직 후 사회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죠. 당시에는 이미 귀농, 귀촌과 관련된 사회적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이와는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한김벌리의 지원을 받아 시민 숲 문화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농경문화의 공간 구조인 산림을 배경으로 형성된 농촌, 산촌에서 행복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시니어산촌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인문 사

회학적 접근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 연관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거였죠. 당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은 이런 조건으로 가면 얼마를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식이었는데, 우리들은 가능한 한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게 하고, 새롭게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떻게 개척하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걸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걸까 등 이런 걸 고민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귀농, 귀촌 교육과 같은 사회적 프로젝트들은 지자체 등에서 많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퇴직자 중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도 현상’은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는 출산율에 쫓겨서 그 얘기만 하는 데, 출생도 문제지만, 지속해 배출되고 있는 퇴직자들의 이도 현상도 문제죠. 자기 기업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마련해주지 않는 사회가 어디 있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유한김벌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한 발 앞서 접근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죠.

그걸 잘 해주는 기업 사례가 있을까요?

해외에도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면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농사짓고, 뭘가를 경쟁력 있게 해보겠다고 하니까요. 자꾸 그런 걸 가르치고, 기술 교육 해주고, 여기 오면 너희들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게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죠. 시니어산촌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일본의 시오미 나오키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한국에서 시니어산촌학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 경험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해서 토크쇼도 했었어요.

결국 기존의 사회에서 하는 방식은 벗어나서, 그걸 하지 않으려면 많이 고민해야 하고, 내가 가서 살 곳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전통사회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통을 알아야 하고, 우리

몸 속에 있는 생태 DNA를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갈 강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를 찾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지금과 같은 생활 공간이 바뀌어도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죠. 시니어 산촌학교도 그런 식으로 매기마다 30여 명씩 배출하고 그중에서 몇 명이 귀촌, 귀농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게 될 도시생활자들의 ‘이도 현상’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사회적 성과나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숲을 가꿔야 한다는 거죠. 나무는 심고 가꿔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치산녹화에 이어 숲가꾸기가 유한김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만나 확장성을 갖고 학계에도, 정책에도, 일반 국민에게도, 사회운동으로도 파급 효과가 매우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하는 것보다 이 캐치프레이즈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제 몫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생명의숲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민간단체, NGO하고도 연결해서 하고, 또 NGO도 국민들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산림 분야에서의 국민과의 연결고리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를 같이 함께 했었다는 것, 거기에 추동력이 된 거니까 굉장한 거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숲가꾸기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니까 당연하게 그냥 쪽 해 온 건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게 되죠. 민간 단체인 생명의숲이라고 하는 NGO가 중간 역할을 해 주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산림청 정책이 생명의숲을 통해 일반인에게 흘러갔고, 산림청 정책이 유한김벌리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로 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원’했 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운동이라는,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2017 나무를 키워 한반도 푸른 미래를 준비하다

2014년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향후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미래준비의숲'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숲을 통한 남북협력

황폐해진 북한의 산림은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환경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과 에너지 위기를 해소하려면 훼손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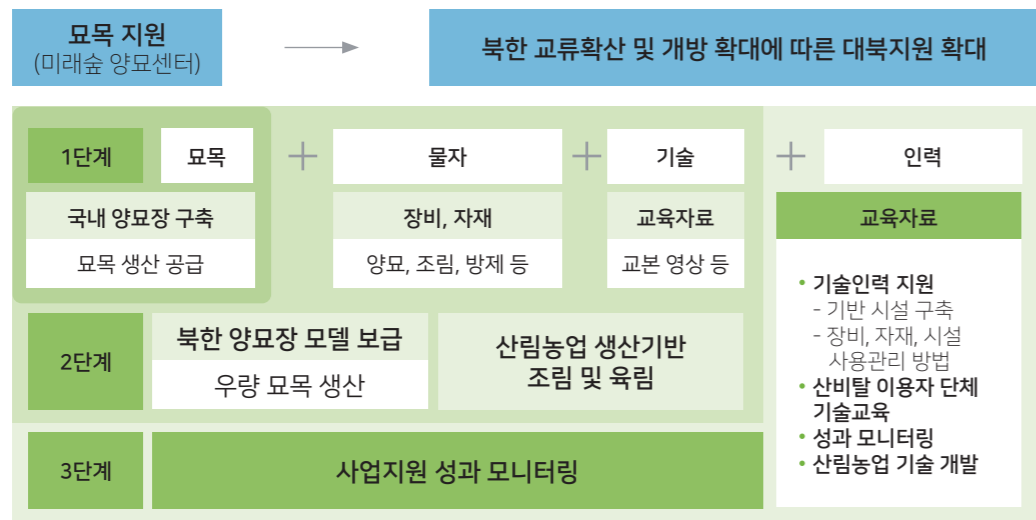
이에 유한킴벌리는 평화의숲과 함께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의 산림 훼손지에 나무를 심고,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진행했다.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미래준비의숲' 사업을 추진하다

2014년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향후 변화된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써 '미래준비의숲'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북한 황폐지 복구 추진전략 수립' 연구와 북부지방산림청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2014년 12월, 북부지방산림청, 유한킴벌리, 생명의숲은 미래준비의 숲 프로젝트 공동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미래준비의숲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양묘장을 조성하여 북한 및 민북지역(DMZ) 인근의 황폐지 복구를 위한 묘목을 길러내기도 했다.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 있는 국유지를 양묘장으로 선정하고 2017년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를 조성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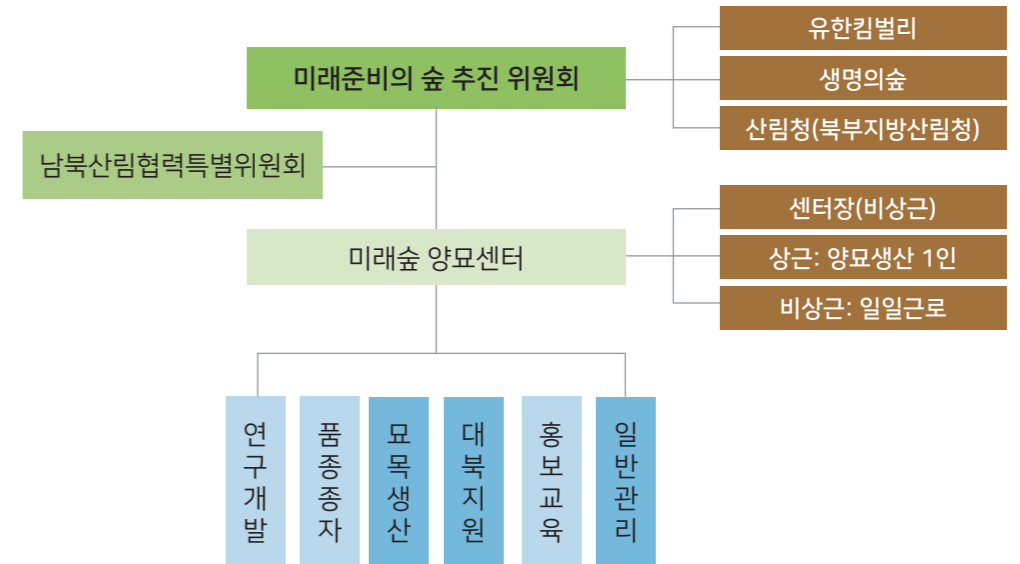
그림 28. 남북산림협력활동 추진전략



'미래준비의숲' 사업은 '한반도의 건강한 숲을 준비한다'라는 비전 아래, 첫째, 묘목 지원을 통한 민북지역과 북한 산림 황폐지를 복구하고, 둘째, 홍보 교육을 통한 산림 황폐지 복구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며, 셋째, 기술지원을 통해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핵심 목표를 가지고 △묘목 생산 전용 양묘장 조성, △양질의 묘목 생산 체계 구축, △민북지역 및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 묘목 생산 및 지원, △양묘시설 기반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양묘시설 기반 산림 황폐지 복구 홍보체계 구축, △양묘시설 기반 묘목 생산 체계에 대한 자료 공유, △장비, 자재, 인력 등 기술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묘목 지원 등 지원 사업 성과 모니터링 등의 과제를 추진했다.

미래준비의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부지방산림청, 유한킴벌리, 생명의숲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미래준비의숲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점검하기도 했다.

그림 29. 미래준비의숲 추진협의회 구조



2016년 북한산림 복구를 위한 공동산림사업 협약식



2017년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 준공식

북한 황폐지 복구를 위한 양묘장을 시작하다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는 시설면적 11,195㎡ 규모로서 비닐온실 3동, 야외생육시설 4동과 관리동, 창고동 등으로 조성되었다. 소나무, 낙엽송 등의 침엽수와 상수리나무, 쉬나무, 자작나무 등의 활엽수 묘목을 연간 45만 그루 길러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 온실



화천 양묘장 운영 모니터링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는 북한과 민북지역의 황폐해진 산림 현황과 함께 양묘 방법과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현장 교육시설로도 활용되었다. 2018년에는 양묘장을 찾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나무 묘목 심기, 자연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총 14회 진행했으며, 465명이 이를 경험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종자 파종과 제초 작업 등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5회 진행했고, 10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2017 미래숲 화천 양묘장 오픈식



어린이숲탐사대 체험활동

2018년 북한 황폐지 복구사업에 양묘센터에서 생산한 묘목과 양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측과의 협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 같은 해 4월에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IUFRO), 생명의숲 3자간 '남북산림협력합의'가 체결되었지만,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실제 지원사업은 이행되지 못했다. 비록 묘목들을 북한 황폐지에는 심을 수 없었지만, 2018년 북한지역 조림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경기도 연천군 내 무단 경작지 1.8ha를 복원하기 위한 조림 사업에 양묘센터의 묘목을 지원하여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 조감도

한반도의 푸른 미래를 준비하다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에서 자란 소나무, 쉬나무 등의 묘목은 연천군 황폐지 복구를 위해 심은 묘목들을 제외하고 157,143본이 2019년 경기도 교육청과 인제군 등 18개 기관에 양도되어 산불피해지 복구 및 다양한 숲 조성을 위해 사용되었다. 유한킴벌리는 양묘센터 운영과 함께 소규모 시설을 갖춘 양묘장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 양묘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용문양묘사업소 등 17개소에 배포하기도 했다. 미래세대에 푸른 한반도를 남겨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은 언젠가 다시 찾아올 한반도의 봄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미래준비의숲 프로젝트의 과정과 경험은 한반도의 푸른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될 것이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지속성으로 이뤄낸 누적된 자산, 선한 영향력의 마중물 역할



최규복

현 사단법인 CEO지식나눔 회장
전)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2014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30주년을 맞아 '사람과 숲의 공존'을 선언하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는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계승·발전하도록 리더했습니다.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가치는 기업의 역할을 재무적 측면에서 사회·환경적인 역할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어떻게 전 문경영인이 바뀌어 가면서도 40년을 지속했는가’입니다. 왜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사장이 바뀌면 전임 사장이 하던 일을 다 없애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것이 옳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1984년도에 시작하고 제가 2010년에 사장이 됐으니까, 그때도 이미 25년이 지난 시절이었죠. 그 세월 동안 캠페인은 사회적으로도 회사로도 이미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의 그런 귀한 자산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판단하고, 그런 자산을 당시 환경에 맞게 쪽 끌고 가고 발전시키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국민 자산이예요.

CEO가 바뀌었지만, 캠페인의 기본 정신과 가치 그리고 문화적인 것은 그대로 계승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죠. 나무와 숲 캠페인으로 집중을 통한 효율화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25년 넘게 지속성(continuity)을 바탕으로 구전 효과를 만들어 낸 자산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케팅을 했던 사람으로서 누적 효과는 무적의 효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노력은 이미 자산이었고, 이를 계승하는 것은 유한킴벌리의 좋은 문화 덕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신입사원부터 경험하고 진행했던 것이라, 개인적인 애착도 높기도 했고요.

몽골숲, 토진나르스 유한킴벌리숲이 2023년 20년 맞이했습니다. 당시 7년된 몽골숲 사업을 지속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당시에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우리나라숲, 몽골숲, 북한숲 세 개가 축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안타깝지만, 토진나르스에 위치한 몽골숲은 제가 종료하려고 했어요. 물리적으로도 너무 멀고, 우리와의 관계 설정도 복잡해서요. 그런데 송명식 부사장이 현장에 갔다 오더니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봤죠. 당시에는 나무도 아직 어리고 작았지만, 대단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봤죠. 두 가지 측면에서 몽골숲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하나는 생각보다 투자비용이 높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몽골숲은 우리 소유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숲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어린 숲이 가진 미래 잠재력을 본 거죠. 20년 뒤 100년 뒤에도 숲이 계속 성장한다면 정말 명품숲이 되는 거잖아요. 이후로 제가 몽골에 우리가 명품 숲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리더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작은 숲이 자라서 오늘날 정말 대단한 숲을 이루었더라고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30주년에 숲과 사람의 공존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으셨고, 어떤 비전을 꿈꾸셨나요?

어떤 일이든 30년 정도 하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당시에 이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유한킴벌리의 존재도 알렸고, 명성도 높았는데요. 다시 한번, 숲을 매개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와 광고대행사,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도 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또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사람과 숲을 연결시키면서 숲을 위한 숲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숲이라는 의미를 재발견했고, 그 사람을 위한 숲을 또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숲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컨셉을 만들어 내었죠. 그냥 심고 가꾸

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통해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숲으로 변모해 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한 거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가치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를 보면 양극화,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정치만으로도, 학계의 학자만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업이 재무적 측면과, 이해관계자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한 영향을 계속 앞서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기업의 변화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최근에는 기업이 뭔가 신제품을 발견, 발명해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에 고민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게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가치는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역할을 재무적 측면에서 사회·환경적인 역할까지 확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높은 명성을 얻은 것도 사실이죠. 우리 회사를 보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뿐 아니라, 문국현 전 사장님께서 추진하셨던 ‘윤리경영’, ‘평생학습’, ‘가족친화’가 있었고, 이후에 제가 계승하면서 ‘스마트 오피스’, ‘시니어가 자원이다’, ‘힘내라 딸들아’, ‘이른둥이 기저귀 무상지원’ 등을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한 것도 있고 그게 확산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보여주고자 노력해 왔어요. 선한 트렌드를 조금씩 앞서서 도입하고, 실천하면서 사회적으로 본보기 모델로 끊임 없이 주려고 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사회적 확산에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인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고민을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어요. 기업도 사람도 착하고 꾸준히 인성이 좋아야 성공하잖아요. 결국엔 말이죠.

2021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의 숲을 조성하다

2021년 유한킴벌리와 생명의숲은 산림청과 함께 탄소흡수원인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의 숲 1호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석포숲' 조성을 시작했다.

전 지구적인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다자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탄소흡수원인 숲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인 만큼 전 지구적인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관·기업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민참여 통한 탄소 상쇄원으로서의 가치 확산

유한킴벌리는 2021년 4월 북부지방산림청, 생명의숲과 탄소중립의 숲 조성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협약 후 용인 지역 국유림인 석포숲 일부를 탄소중립의 숲 1호로 지정하고 2026년 4월까지 총 5년 간 19.3ha 면적에 전나무·낙엽송 등 약 57,000그루의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유한킴벌리 임직원 및 신혼부부 등 시민들도 참여했으며, 예상되는 산림 탄소흡수량은 10년 기준 총 1,591tCO₂이다.

그리고 2021년 9월 산림청과 '탄소중립 활동과 ESG 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한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몽골에서의 산림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Af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몽골 셸렝게 아이막 만달 솜 지역의 REDD+ 타당성조사를 공동 수행했다.



2021년 용인 탄소중립의 숲 1호 나무심기

표 23. 용인 탄소중립의 숲 1호 조성 개요

| 항목 | 용인 석포숲 (탄소중립의 숲 1호) | |
|---------|--------------------------------|--|
| 전체 사업기간 | 2021년 4월 8일 ~ 2026년 4월 7일 (5년) | <주요 관리계획> |
| 협약 | 공동산림사업 | - 2025년까지 나무심기 및 풀베기 및 덩굴제거 진행 - 대상지에 적합한 조림목 선정 및 연차별 모니터링 |
| 협약 주체 | 북부지방산림청, 유한킴벌리, 생명의숲 | - 자연발생한 어린 나무도 함께 성장상태 모니터링 - 각 사안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숲 조성 |
| 협력 기관 |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 <23년 주요 사업현황> |
| 주요 사업내용 | 탄소중립의 숲 조성 및 관리 | - 총 29.2ha 면적에 풀베기/덩굴제거 진행 - 3차례 덩굴제거 작업 진행 (19,034본) |
| 규모(ha) | 19.3 | - 20, 21, 22 식재지 전체 작업 진행 |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등을 통해 탄소흡수량을 증진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숲과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꿈꾸다



숲과 생물다양성

- 2020 산불피해지 숲 복원에 동참하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 2021 한국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보전을 함께하다 **- 최준석 전)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 2022 한국 자생식물 꿀벌숲 조성을 시작하다



왜 생물다양성의 숲에 주목하는가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숲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연 기반 해법으로 꼽힌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더 많고 건강한 숲을 위해 2030년까지 6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숲 모델을 개발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부터 조성 중인 '생물다양성의 숲'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멸종 위기에 근접한 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EN 등급)인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해 현재 서식지는 물론 그 외 지역에서도 보전 숲을 조성 중이며, 한국 야생식물 서식 환경 개선을 통해 꿀벌까지 보호하는 '밀원 꿀벌숲'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한국 산림 복원을 위해 산불 훼손지 복원 모델 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앞으로도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숲 모델을 발굴하고 구축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0 산불피해지 숲 복원에 동참하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숲의 환경이 고온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의 빈도는 높아지고,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2019년 발생한 강릉 산불을 기점으로, 산불피해지의 숲 복원과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고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릉 산불피해지의 숲 복원

유한킴벌리는 2020년부터 생명의숲과 함께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지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2019년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의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시민, 시민단체, 기업, 행정의 협력을 통한 빠른 산림의 복원과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산불 재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2020년 강원 옥계면 산불피해지 현장 모니터링 2020년 강원 옥계면 산불피해지 복원조림 직후 2020년 강릉산불피해지 복원현장

숲 조성 계획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면적과 피해 규모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지역의 특성과 복원 목표를 고려하여 수립했다. 이를 통해 복원 지역 약 20ha 면적에 소나무와 방화림* 조성을 위한 굴참나무를 심었고, 현재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베기 등의 숲가꾸기 추진과 복원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릉 옥계 산불피해지 복원 사업은 민·관·기업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생태계와 경관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2년 동해 초구동 산불피해지

2023년 동해 초구동 산불피해지 신혼부부 나무심기

* 방화림: 산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거진 수림의 변두리에 상록 활엽수나 낙엽 활엽수 등 화재에 강한 나무를 심어서 조성한 수림을 말한다.

2021 한국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보전을 함께하다

유한킴벌리는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희귀·특산식물이자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인 구상나무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구상나무 현지외보존원을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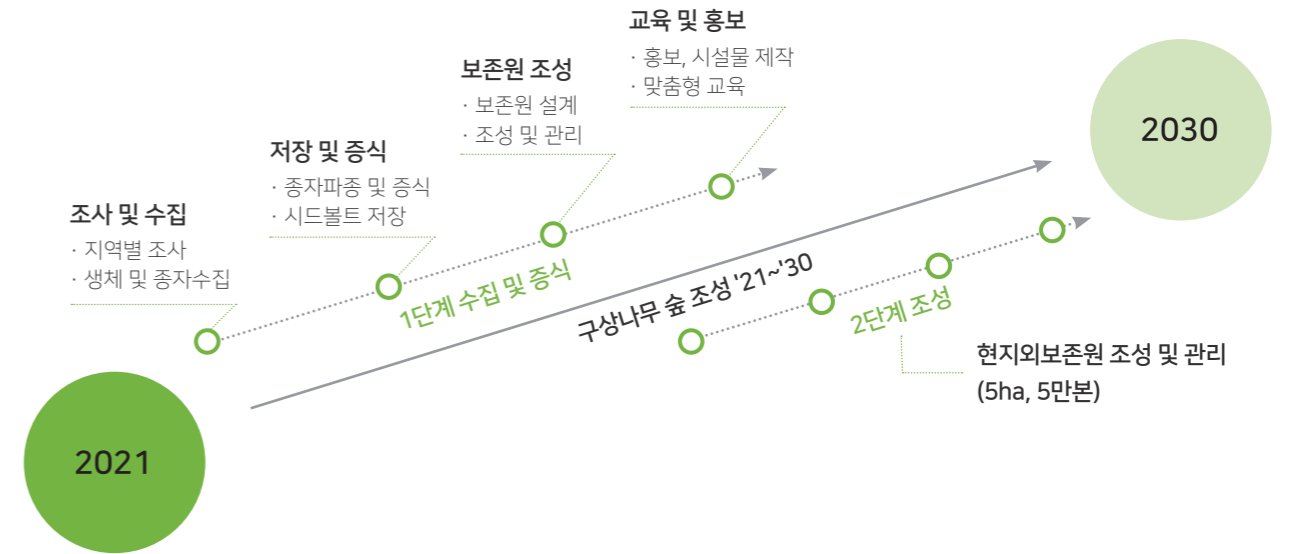
구상나무 현지외보존원 조성 계획

2021년 산림청과 '탄소중립 활동과 ESG경영 상호협력'을 협약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침엽수인 구상나무를 보전하는 기틀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고산지역 침엽수종이 대규모로 고사하고 있다. 그중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EN(위기) 범주 식물로 보전가치가 높다. 또한 지난 20년간 구상나무의 약 33%가 지속해서 쇠퇴하고 있다. 구상나무숲은 우리나라 고유수종을 보호하는 생물다양성의 숲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한킴벌리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구상나무 보전을 위해 2021년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에 2030년까지 총 50,000m² 면적에 5만 그루를 키우는 구상나무 현지외보존원을 조성하기로 협약했다.

그림 32. 유한킴벌리 구상나무 현지외보존원 조성 계획



구상나무 자생지 조사 및 유전자원 확보

사업 초기인 2021년~2025년까지 지리산 및 한라산 등의 자생지에서 관련 기관의 승인하에 구상나무 씨앗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에 구상나무 전용 양묘장을 건립하고 모목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씨앗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Seed Vault)에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기증했다. 식물자원 확보와 보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해·울진 산불피해지의 숲 복원

2022년 3월 울진, 삼척, 동해 등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9박 10일 동안 이어지며 역대 두 번째 최대 피해, 최장기 산불로 기록되었다.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는 산불피해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유한킴벌리는 산불피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숲복원과 인식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국민의 숲에 참여해, 산불 피해지 특성에 맞는 복원 계획을 세우고 2023년부터 추진 중이다. 2023년에는 동해시 초구동에서 나무심기를 진행하는 등 지속해서 산불피해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와 그린캠프를 통해 피해지에서 개최해, 산불로 소실된 숲의 심각성을 시민과 대학생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울진 산불피해지는 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새로운 방식의 생태복원을 통해 모델숲 조성 경험을 계획하고 있다.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건강한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표 24. 유한킴벌리X생명의숲 산불피해지 숲복원 사업

| 항목 | 동해 산불피해지 | 울진 산불피해지 | |
|---------|--------------------|---------------------------|-------------------|
| 전체 사업기간 | 2023.3~2027.12(5년) | 2023.3~2027.3(5년) | |
| 협약 | 국민의 숲 - 단체의 숲 | 공동산림사업 | |
| 협력기관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 |
| 주요 사업내용 | 산불피해지 복구 |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사업 | |
| 규모(ha) | 9.5 | 10 | |
| 2023 | 숲 조성 | 조림 2.4ha / 풀베기 4.8ha(2회) | - |
| | 시민참여 | 신혼부부 나무심기(1회) 그린캠프(1회) | - |
| | 연구/정책 | 모니터링 현장토론회(1회) |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수립 |
| 비고 | 신규 | 신규 | |

그림 30. 대한민국 산불 발생 현황(10년주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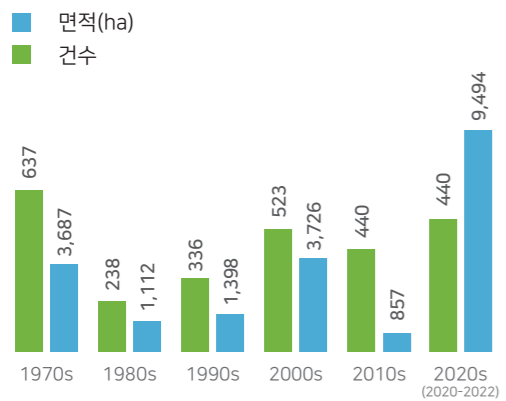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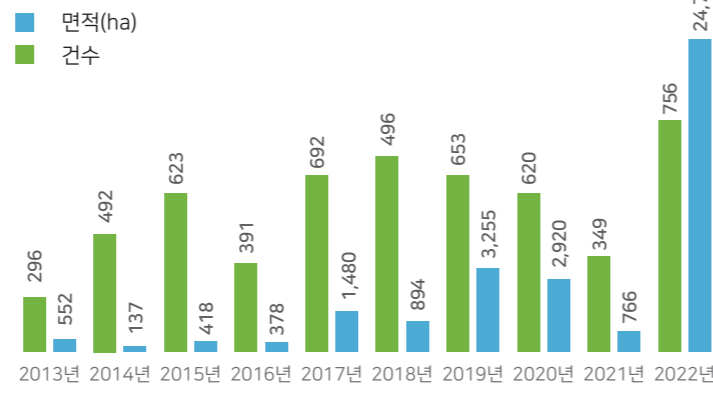


그림 31. 산불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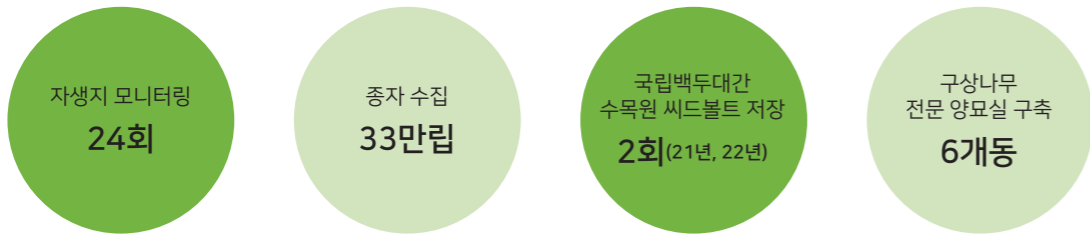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2024년에는 구상나무 자생지 조사 및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덕유산과 가야산 등에 구상나무 종자를 수집할 계획이다. 종자 결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량증식체계도 마련한다.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에 구상나무 전문양묘 온실 2동과, 생육 실험 온실 6동을 개소했으며, 2030년까지 총 5만 본을 식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나아가 유한킴벌리는 구상나무숲 조성 목적을 홍보하는 '구상나무 숲 모델정원' 조성 등 구상나무숲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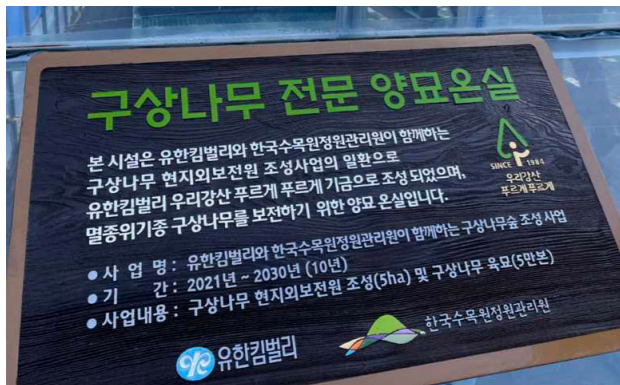
그림 33. 2021~2023년 사업실적



2022년 한라산 구상나무 모니터링 및 Seeds 채종답사



2023년 구상나무 전문 양묘시설 개소식



2023년 구상나무 전문 양묘시설 안내판



2023년 한라산 채종 구상나무 시드(Seeds) 양묘 시작

표 25. 구상나무 현지외보전원 조성 사업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 연도 | 추진 내용 |
|-------|---|
| 202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유한킴벌리 업무협약 체결 · 10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유한킴벌리 지리산 구상나무 종자 공동 수집 · 11월 전국 구상나무 종자, 시드볼트 저장 행사 |
| 202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2022년 사업계획 협의 · 3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한라산 구상나무 묘목 확보 · 4월 21년도 수집 종자 파종을 통한 실생묘 증식 · 8월 유한킴벌리 그린캠프 현장강의 개최 · 9월 한수정-유한킴벌리 한라산 구상나무 공동조사 및 종자수집 · 9월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 현장대회 개최 및 수상작품 특별전시 진행 · 11월 2022년도 사업보고회 및 구상나무 종자 시드볼트 기탁식 개최 |
| 202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2023년 사업계획 협의 · 3~7월 <나자식물, 그리고 그리다> 특별전시 개최 · 4월 22년도 수집 종자 파종을 통한 실생묘 증식 · 8월 유한킴벌리 그린캠프 현장강의 개최 · 9월 덕유산, 백운산일대 구상나무 조사 및 종자수집 · 11월 2023년도 사업보고회 및 구상나무 전문양묘 온실 개소식 |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국내·외 야생식물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지하터널형 야생식물종자 연구 저장시설이다. 연중 항온항습(영하 20°C, 상대습도 40% 이하)상태로 유지된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국가 및 기관에서 위탁받은 종자를 무상으로 영구보존하며, 총 200만점 이상의 종자를 보존할 수 있다. (출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22 한국 자생식물 꿀벌숲 조성을 시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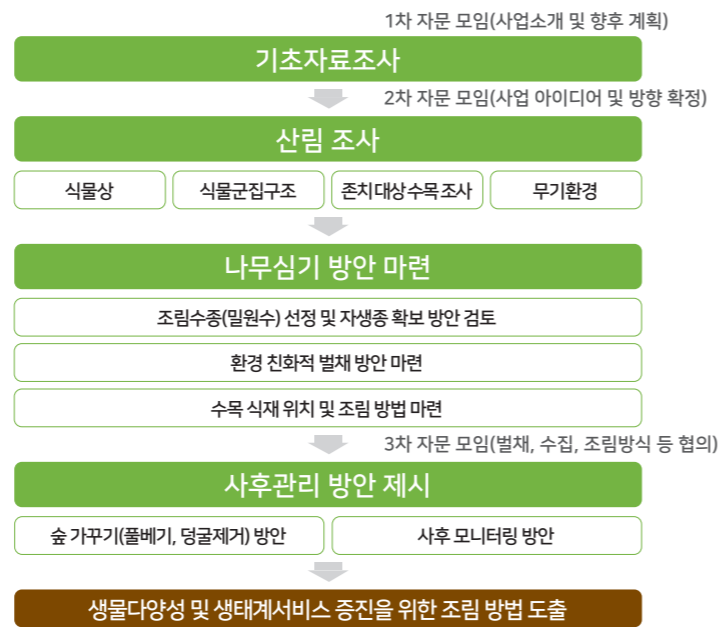
유한킴벌리는 평화의숲과 함께 2022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연천군 내산리 일원에 한반도 접경지역 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벌을 부르는 꽃과 나무를 심어 꿀벌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밀원숲을 조성을 목표로 하며, DMZ 접경 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첫 번째 시도다.

한반도 접경지역 생태계를 복원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두 번째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으로 2022년부터 국유림 내에 오랜 시간 숲을 이루고 있는 자생식물* 수종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공간에 필요한 밀원식물** 수종으로 숲을 조성하여 점차 멸종위기를 겪고 있는 꿀벌 등의 먹이활동이 가능한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꿀벌 보존을 위해서는 건강한 서식지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년에는 이를 구체화하고자 북부지방산림청,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밀원수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공동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 1-1 국유림 내에 약 44ha 규모의 밀원숲 조성 사업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민관 협력팀은 비무장지대(DMZ) 인근 연천지역의 국유림의 생물다양성 조사를 진행하여, 멸종위기종인 꿀벌과 조류, 곤충류 등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와 먹이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헛개나무, 쉬나무 등 4종을 주요 조림수로 선정했다. 연천 숲 조성지역 내 기존 식생 보존지역과 완충지역을 제외하고 2027년까지 총 24만m² 면적에 4만 5천여 그루가 식재되어 다양한 생물에게 건강한 서식처와 먹이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한반도 산림녹화와 평화를 기원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34. 22년 연천 자생식물 모니터링 과업수행체계도



2022년 동국대학교 연구팀 연천 국유림 현장조사

*자생식물: 일정한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식물(indigenous plants)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일정 지역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spontaneous plants)을 뜻한다. 따라서 외래식물이라 해도 오래 전부터 귀화하여 살고 있는 귀화식물(naturalized plants)도 토착식물과 함께 자생식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밀원식물: 벌이 꿀을 빨아 오는 원천이 되는 식물. 꽃이 많이 피고 꿀이 많은 식물을 뜻한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함께한 사람들에게 듣다

거버넌스 플랫폼, 공공 프로젝트로 성장해



최준석
연산림조합중앙회 대표이사

산림청 재직 시 유한킴벌리에 파견되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실무를 직접 지원했습니다. 이후 산림청 국장을 거쳐 산림조합중앙회에 근무하며 캠페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 유한킴벌리와 산림조합이 처음부터 거버넌스 속에서 협력했던 것이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 국민 운동이 되고, 생명의숲이 탄생하는 데 있어 하나의 불씨가 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 공무원 신분으로 유한킴벌리에서 일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기업의 광고 홍보로 인식해서 그냥 구호로 하는가보다, 어디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해 주는 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흐른 뒤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계획 자체가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한다는 걸 느꼈어요. 일종의 순수함과 성실함이었죠.

그냥 불우이웃 돕기식으로 5천만 원 준다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그 5천만 원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고, 사용된 다음 다시 평가를 해 보니까 진짜 주기를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겠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잘 돼 있었죠. 거기에 좀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브랜드 자체가 산림보호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완전 녹화가 아니라 산이 조금 부실했죠. 그래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만해서는 확장성이 없는 것 같았죠. 강산이 진짜 푸르러졌기 때문이에요. 푸르러졌으면 이 푸르른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화두였죠.

최근 지속 가능한 소재로서 목재 이용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민관협력으로 해서 숲을 푸르게 잘 가꾸면, 대부분의 사람은 잘 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잘 쓰자, 이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산림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만 해서는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이 탄소중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걸 가미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목재의 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을 잘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합판이나 뿔 만들려면 나무가 최소 30cm 이상은 되어야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되어서 그냥 나무면 됩니다. CLT라고 해서, 이런 것이 벽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무작정 굽게 하는 게 정답이 아니죠. 지금은 빨리 키워서 조금 자라면 베어서 쓰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해야 탄소흡수량도 많아집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NGO와 산림 당국 간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캠페인에서 기여한 것이 있는지요?

오늘날에는 언제든 이슈가 발생했을 때 모여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숲가꾸기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았죠. 나무를 왜 베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무를 베고, 숲가꾸기를 통해서 숲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일종의 좋은 플랫폼이죠. 제가 유한킴벌리에 있을 때 ‘산림치유포럼’이 처음 발족했어요. 그 시드머니가 유한킴벌리입니다. 그때 제가 회사에 제안해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산림치유포럼 창립하고 심포지엄하고, 사단법인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커져서 치유의 숲으로, 산림복지로 커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자, 국가에서 하기 전



에 우리가 먼저 치유의 숲을 만들자고 해서 대상지도 보러 갔는데 그 기금으로 치유에 관한 연구도 하고, 책자 발간도 하고, 포럼 설립도 했습니다. 그게 씨앗이 돼서 지금 산림치유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는 몽골에도 함께 했었습니다. 토진나르스 조림지 산림 피해 복구 조림을 잘했어요. 거기가 소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20년 가까이 지속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해 나가는 데는 캠페인의 ‘독심’이 제일 컸죠.

캠페인의 사회적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회사의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공 프로젝트 성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팝, K-콘텐츠처럼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캠페인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기업에 팀을 꾸려 해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이런 걸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경적 성과연구

캠페인 40년의 환경적 성과연구



환경적 성과연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환경적 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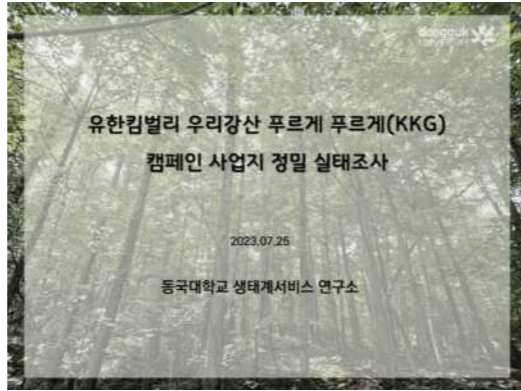
본 내용은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학과 오충현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사업지 정밀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환경적 성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환경적 성과 분석을 위해 2021년도와 2023년도에 걸쳐 캠페인 사업지 14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와 생태계서비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0개 사업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분석 결과 '목재축적량', '탄소저장량', '온도저감효과' 등에서 환경 측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재축적량' 분석 결과 조림지의 경우 제천시 자작나무 대상지를 제외한 모든 대상지에서 전국 평균값을 상회하여 공급서비스 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숲가꾸기 사업지의 경우, 목재축적량 증가율이 10~20%로 숲가꾸기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탄소저장량' 분석 결과 숲가꾸기 대상지 4개소에서 연간 승용차 1,376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온도저감효과' 분석 결과 평균 2°C~6°C 정도의 온도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캠페인은 환경 측면으로도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푸르게 캠페인 사업지 정밀 실태조사 표지

표 26. 환경적 성과 분석 항목

| 구분 | 환경적 성과 분석 항목 |
|------------|--|
| 현장조사 | · 대상지별 임황조사를 통한 조림 현황 및 성과 분석 · 조림지와 대조군에 대한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한 비교 연구 · 숲길 및 안내판 유무 등의 대상지 관리상황 조사 |
| 생태계 서비스 분석 | · '생태계서비스(조절·공급서비스) 평가 항목 및 주요 평가지표 선정 · 생태계서비스 계량화 및 가치평가 |

* 보고서명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사업지 정밀실태조사, 수행기관 : 생명의숲, 대표연구자 : 동국대학교 생태서비스연구소 오충현 교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나무심기 사업내용

1) 조림지

표 27. 나무심기 사업 내용

| 구분 | 사업목적 | 사업연도 | 식재수종 | 조림면적 (ha) | 조사면적 (ha) | 조림공률 여부 | 비고 | | |
|-------------|--------------|-------------------------------------|-------------------------------------|--------------------------------|-----------|---------|------|------------------|---|
| 2023 연구 대상지 | 서울 남산 (남산) | 남산 소나무림 유지 | 2017 | 소나무 | 1.00 | 1.00 | ○ | 조림목 생존율 70% 이상 | |
| | 대전 공존숲 (대전) | 침당굴 피압지 산림복원 및 탄소흡수원 활용 | 2016~2020 | 가래나무, 백합나무, 소나무, 편백, 느티나무 | 9.60 | 9.60 | ○ | 수관올폐하여 침당굴 발생 억제 | |
| | 안면도 | 난대수종 시범조림, 태풍피해지 산림복원 | 2011 | 소나무,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굴거리나무 | 24.00 | 5.60 | △ | 조사지역 조림 성공 | |
| | 충주 송강리 (충주) | 소나무숲 복원 및 경관림 조성 | 2010~2016 |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 32.10 | 22.40 | ○ | 목재 수확하여 활용단계 | |
| | 증평 노암리 (증평) | 지역 경관 및 문화적 정체성 증진 | 2012 | 소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 15.70 | 11.70 | ○ | 간벌 단계, 간벌목 활용 필요 | |
| | 제천 화당리 (제천) | 목재 생산을 위한 용재수 조림 | 1985~2002 | 일본잎갈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 193.05 | 30.80 | △ | 일부 지역 조림목 본수 부족 | |
| | 거제 삼거동 (거제도) | 목재 생산을 위한 용재수 조림 | 1987~1990 | 편백 | 240.00 | 61.00 | ○ | 조사지역 조림성공 | |
| | 서울숲 | 서울숲 조성 | 2003~2005 | 소나무, 병꽃나무 등 | 0.99 | 0.99 | ○ | 조경수목식재지 성격 땀 | |
| | 2021 연구 대상지 | 경기 광주 수양리 (광주) | 신혼부부 나무심기 대상지, 숲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향상 | 1992 | 잣나무 | 1.00 | 1.00 | ○ | - |
| | | 안성 옥정리 (안성) | 신혼부부 나무심기 대상지, 숲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향상 | 1995 | 잣나무 | 5.00 | 5.00 | ○ | - |
| 제천 화당리 (제천) | | 신혼부부 나무심기 대상지, 숲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향상 | 1992 | 잣나무 | 4.00 | 4.00 | ○ | - | |
| 가평 울길리 (가평) | | 신혼부부 나무심기 대상지, 숲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향상 | 1994 | 잣나무 | 1.00 | 1.00 | ○ | - | |

* 조림면적: 기록상에 있는 조림면적
* 조사면적: 조림한 나무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지역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면적

2) 숲가꾸기 사업지

표 28. 숲가꾸기 사업 내용

| 구분 | 산림기능 | 사업목적 | 사업연도 | 사업면적 (ha) | 숲가꾸기 효과 여부 | 비고 |
|-------------|-----------------|-----------------------------|--|------------------|------------|-------------------------------------|
| 2023 연구 대상지 | 서울 남산 (도시자연공원) | · 자연환경보전 · 경관기능, 휴양기능 증진 | · 남산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 경관기능, 휴양기능 증진 | 2014, 2016, 2018 | 67.40 | ○ · 소나무 활력 증진 · 9년간 재적 20% 증가 |
| | 관악수목원 (수목원) | · 자연환경보전 (수목원) | · 숲 생육환경 개선 · 종 다양성 증진 | 2010 ~ 2013 | 219.80 | ○ · 수목 활력 증진 · 13년간 재적 16% 증가 |
| | 대전 공존숲 (탄소상쇄사업) | · 수원함양림 (탄소상쇄사업) | · 대청댐유역 수원함양 증진 · 탄소흡수량 증진 | 2016, 2018, 2019 | 115.00 | ○ · 수목 활력 증진 · 7년간 재적 10% 증가 |
| | 김천 공존숲 (탄소상쇄사업) | · 산림휴양림 (탄소상쇄사업) | ·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 종 다양성 증진 · 탄소흡수량 증진 | 2016, 2018 | 74.90 | ○ · 수목 활력 증진 · 7년간 재적 15% 증가 |

* 사업면적: 실시계획서상의 사업면적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1) 목재축적량

① 조림지

- 목재축적량은 조림수종이 제공하는 목재자원 공급원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2015년 기준 전국의 단위면적당 목재축적량은 146.014m³/ha로, 제천 자작나무 대상지를 제외한 모든 대상지에서 전국 평균값을 상회하여 공급서비스 기능이 양호함.

표 29. 조림지 목재축적량

| 구분 | 단위면적당 목재축적량(m ³ /ha) | 총 목재축적량(m ³) |
|-------------|---------------------------------|--------------------------|
| 전국(2015 기준) | 146.02 | 925백만 |
| 2023 연구 대상지 | 제천 | 112.53 ~ 300.42 |
| | 거제 | 257.52 ~ 275.31 |
| | 광주 | 286.20 |
| | 안성 | 194.50 |
| | 제천 | 230.50 |
| | 가평 | 225.10 |

② 숲가꾸기 사업지

- 숲가꾸기 사업지의 사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 실행 후 입목재적 증가량을 산정함.
- 대상지 목재축적량은 모두 전국 평균값을 상회하며, 목재축적량 증가율은 남산 20%, 관악수목원 16%, 김천 공존숲 15%, 대전 공존숲 10% 등 10~20%로 숲가꾸기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표 30. 숲가꾸기 목재축적량

| 구분 | 경과년수 | 단위면적당 목재축적량(m ³ /ha) | 목재축적량 증가율(%) |
|-------------|--------|---------------------------------|--------------|
| 2023 연구 대상지 | 서울 남산 | 13 | 221.23 |
| | 관악수목원 | 7 | 146.05 |
| | 김천 공존숲 | 7 | 334.75 |
| | 대전 공존숲 | 7 | 196.57 |

* 숲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목재축적량이 아닌 숲가꾸기 후 잔존목들의 재적 증가량을 산정함

2) 수원함양량

① 조림지

- 남산, 대전, 서울숲, 충주 등 임령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대상지의 단위면적당 수원함양량은 20112~1,120.71t/ha로 전국 평균값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임.
- 제천의 경우 3,058.25~5,420.70t/ha로 평균값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안면도, 거제도 등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비교적 평균값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됨.
- 다만 수원함양은 임령, 수종 뿐만 아니라 모암의 종류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술평균을 낸 수치로 수원함양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표 31. 조림지 수원함양량

| 구분 | 단위면적당 수원함양량(t/ha) | 총 수원함양량 (t) |
|--------------|-------------------|---------------------|
| 전국(2008년 기준) | 2,989.80 | 190.6억 |
| 2023 연구 대상지 | 남산 | 815.39 |
| | 대전 | 663.36 ~ 892.91 |
| | 안면도 | 1,548.90 ~ 2,401.84 |
| | 충주 | 658.02 ~ 1,120.71 |
| | 중평 | 1,444.88 ~ 2,071.90 |
| | 제천 | 3058.25 |
| | 거제도 | 2,071.90 |
| 2021 연구 대상지 | 서울숲 | 218.72 |
| | 광주 | 3,389.07 |
| | 안성 | 3468.90 |
| | 제천 | 3701.57 |
| | 가평 | 2,442.77 |

② 숲가꾸기 사업지

- 숲가꾸기 사업 이후 수원함양 증가량을 산정함. 비교적 사업년수가 낮고 침엽수림에 가까운 남산 대상지의 수원함양량이 240.16~446.72t/ha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사업년수가 높고 혼효림인 지역인 관악수목원이 1,675.22~2,316.92t/ha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숲가꾸기를 통해 숲의 건강성이 유지 및 증진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값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상지에 적합한 관리를 통해 수원함양량을 유지, 증진이 필요함.

표 32. 숲가꾸기 사업지 수원함양량

| 구분 | | 단위면적당 수원함양량(t/ha) | 총 수원함양량 (t) |
|-------------|--------|---------------------|-------------|
| 2023 연구 대상지 | 서울 남산 | 1,675.22 ~ 2,316.92 | 407,080.52 |
| | 관악수목원 | 240.16 ~ 446.72 | 22,105.21 |
| | 김천 공존숲 | 801.29 ~ 1,170.59 | 74,382.30 |
| | 대전 공존숲 | 1,001.83 ~ 1,816.77 | 152,999.88 |

* 숲가꾸기 사업 이후 수원함양 증가분을 산정한 것으로, 도출된 수원함양량이 모두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숲가꾸기를 통하여 건강한 숲이 유지되어 제시된 수치만큼의 생태계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탄소저장량

① 조림지

- 제천과 거제도 대상지 탄소흡수량의 총량은 466.611tCO₂/ha임. 주행거리가 15,000km/년이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1등급인 휘발유 승용차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1.2t/year로, 조림 대상지 2개소에서 승용차 389대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연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국립산림과학원, 2019).
- 2021년 대상지의 경우 11ha의 사업 면적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주행거리가 15,000km/year이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1등급인 휘발유 승용차 147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3. 조림지 탄소흡수량

| 구분 | |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량(tCO ₂ /ha/year) | 전체면적 탄소흡수량 계 (tCO ₂ /year) |
|------------|----|--|---------------------------------------|
| 2023 연구대상지 | 제천 | 7.297 ~ 27.381 | 295.71 |
| | 거제 | 2.360 ~ 3.779 | 170.896 |
| 2021 연구대상지 | 광주 | 21.79 | 21.79 |
| | 안성 | 15.18 | 75.92 |
| | 제천 | 16.74 | 66.95 |
| | 가평 | 11.57 | 11.57 |

② 숲가꾸기 사업지

- 주행거리가 15,000km/년이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1등급인 휘발유 승용차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1.2t/년으로, 숲가꾸기 대상지 4개소에서 승용차 1,367.47대가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국립산림과학원, 2019).

표 34. 숲가꾸기 사업지 탄소흡수량

| 구분 | |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량(t/ha) | 총 탄소흡수량(t) |
|-------------|--------|-------------------|------------|
| 2023 연구 대상지 | 서울 남산 | 6.263 | 141.534 |
| | 관악수목원 | 4.259 | 936.183 |
| | 김천 공존숲 | 0.611 | 45.765 |
| | 대전 공존숲 | 4.594 | 528.282 |

4) 온도저감효과

① 조림지

- 제천 화당리 자작나무 조림지의 온도저감량은 5.19~12.76°C으로 활엽수림의 특성상 온도저감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일본잎갈나무 조림지는 2.28~5.62°C, 잣나무림은 2.36~5.81°C가량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 거제 삼거동 조림지의 경우 소반의 위치에 따라 3.08~7.56°C, 4.09~10.06°C의 범위에서 온도저감 효과가 나타남.
- 2021년 연구대상지의 경우 광주 대상지는 단위면적당(m³/m²) 1.79~4.41°C, 안성 대상지는 단위면적당(m³/m²) 1.53~3.76°C, 제천 대상지는 2.27~5.58°C, 가평 대상지는 3.24~7.96°C의 온도 저감 효과를 가짐.

표 35. 조림지 온도저감효과

| 구분 | | | 온도저감량 | | |
|------------|----|------|--|--|--|
| | | | 0.148°C/m ³ /m ² | 0.122°C/m ³ /m ² | 0.300°C/m ³ /m ² |
| 2023 연구대상지 | 제천 | 자작나무 | 2.77 ~ 6.29 | 2.28 ~ 5.19 | 5.62 ~ 12.76 |
| | 거제 | 편백 | 3.73 ~ 4.96 | 3.08 ~ 4.09 | 7.56 ~ 10.06 |
| 2021 연구대상지 | 광주 | 잣나무 | 2.18 | 1.79 | 4.41 |
| | 안성 | 잣나무 | 1.86 | 1.53 | 3.76 |
| | 제천 | 잣나무 | 2.75 | 2.27 | 5.58 |
| | 가평 | 잣나무 | 3.93 | 3.24 | 7.96 |

* 현지점에서 대상지의 조사 분수와 녹지용적 계수에 따라 산정한 값이므로, 제시된 온도저감량이 모두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숲가꾸기를 통하여 건강한 숲이 유지되어 제시된 수치만큼의 생태계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② 숲가꾸기 사업지

- 남산 숲가꾸기 사업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온도저감효과는 2.29~5.62°C, 관악수목원 녹지용적량은 16.40m³/m², 단위면적당 온도저감효과는 2.00~4.92°C로 나타남. 대전 공존숲의 녹지용적량은 18.93m³/m², 온도저감효과는 2.31~5.68°C로 나타남. 김천 공존숲의 녹지용적량은 18.43m³/m², 온도저감량 2.25~5.53°C으로 나타남.
- 숲가꾸기 사업지는 침엽수림 지역이 다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온도저감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6. 숲가꾸기 사업지 온도저감효과

| 구분 | 온도저감량 | | | |
|-------------|---------------|---------------|---------------|------|
| | 0.148°C/m³/m² | 0.122°C/m³/m² | 0.300°C/m³/m² | |
| 2023년 연구대상지 | 서울 남산 | 2.77 | 2.29 | 5.62 |
| | 관악수목원 | 2.43 | 2.00 | 4.92 |
| | 김천 공존숲 | 2.73 | 2.25 | 5.53 |
| | 대전 공존숲 | 2.80 | 2.31 | 5.68 |

* 현시점에서 대상지의 조사 분수와 녹지용적 계수에 따라 산정한 값이므로, 제시된 온도저감량이 모두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숲가꾸기를 통하여 건강한 숲이 유지되어 제시된 수치만큼의 생태계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5) 토사유출방지량

① 조림지

- 남산, 대전, 충주, 거제, 가평의 경우 국내 모암별 토양유출방지량에 근접하여 토양유출방지량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면도, 광주, 안성, 제천은 국내 평균 수치에 비해 다소 낮게 예측됨.
- 다만 증평 및 제천의 경우 변성암 지역에서의 국내 토사유출방지량 평균값에 비해(353.29m³/ha/year)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냄(증평 261.81~261.95m³/ha/year, 제천 263.27~263.50m³/ha/year).

표 37. 조림지 토사유출방지량

| 구분 | 국내 모암별 토사유출방지량(m³/ha/year) | | 연구대상지 토사유출방지량(m³/ha/year) | 토사유출방지량 계(m²/year) | |
|-------------|----------------------------|---------|---------------------------|--------------------|-----------|
| | 모암 | 토사유출방지량 | | | |
| 2023년 연구대상지 | 남산 | 화강암 | 356.14 | 355.80 | 355.80 |
| | 대전 | 화강암 | 356.14 | 355.69 ~ 355.82 | 1,992.25 |
| | 안면도 | 편마암 | 262.72 | 252.12 ~ 252.86 | 1,415.67 |
| | 충주 | 화강암 | 356.14 | 355.74 ~ 355.90 | 7,971.80 |
| | 증평 | 변성암 | 353.29 | 261.81 ~ 261.95 | 3,064.11 |
| | 제천 | 변성암 | 353.29 | 263.27 ~ 263.50 | 8,113.94 |
| | 거제도 | 화강암 | 356.14 | 356.32 ~ 356.36 | 21,380.70 |
| 2021년 연구대상지 | 서울숲 | 퇴적암 | 231.03 | 231.36 ~ 231.38 | 229.75 |
| | 광주 | 편마암 | 262.72 | 253.41 | 253.41 |
| | 안성 | 편마암 | 262.72 | 253.42 | 1,267.10 |
| | 제천 | 편마암 | 262.72 | 253.46 | 1,013.83 |
| | 가평 | 화강암 | 356.14 | 356.45 | 356.45 |

② 숲가꾸기 사업지

- 관악수목원, 남산, 김천, 대전 대상지 모두 국내 모암별 토사유출방지량에 근접한 수치로 나타나 토사유출 방지 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시간 경과에 따른 토양유출 방지량 증가분도 대상지별 5.43~30.89m³/year 범위로 나타나 숲가꾸기가 조절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표 38. 숲가꾸기 사업지 토사유출방지량

| 구분 | 국내 모암별 토사유출방지량(m³/ha/year) | | 연구대상지 토사유출방지량(m³/ha/year) | 토사유출방지량 계(m²/year) | |
|-------------|----------------------------|---------|---------------------------|--------------------|-------|
| | 모암 | 토사유출방지량 | | | |
| 2023년 연구대상지 | 서울 남산 | 화강암 | 356.14 | 356.45 | 30.89 |
| | 관악수목원 | 화강암 | 356.14 | 356.47 | 5.43 |
| | 김천 공존숲 | 화강암 | 356.14 | 356.43 | 5.73 |
| | 대전 공존숲 | 화강암 | 356.14 | 356.25 | 10.26 |

* 조림사업 이후 대상지의 토사유출 방지량 증가분을 산정한 것으로, 도출된 값이 모두 숲가꾸기 사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움. 숲가꾸기를 통하여 건강한 숲이 유지되어 제시된 수치만큼의 생태계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밭간을 마치며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 사원



본격적으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에 대한 관심을 더 깊이 갖게 된 것은 대표가 되면서부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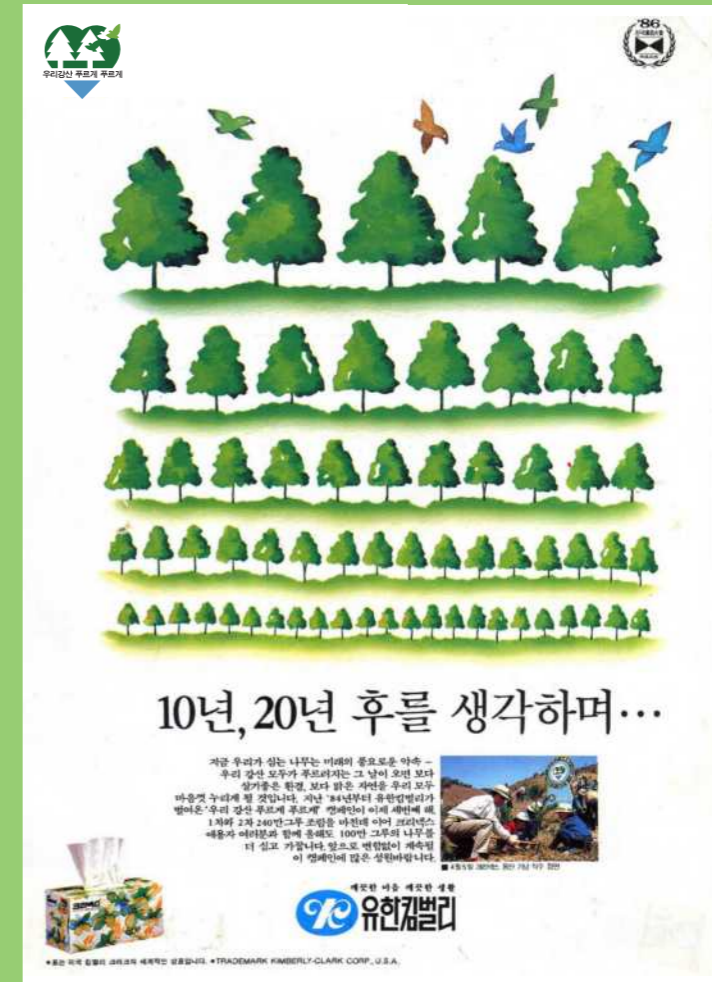
지난 몇 년간 숲·환경 캠페인을 리드하면서 발견한 경이로운 점은, 함께한 분들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알면 알수록 더 비전과 선한 뜻에 더 깊이 들어가 매료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숲, 몽골숲, 궁궐숲, 신혼부부 나무심기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 그리고 숲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나이, 직업, 성별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표정과 마음이 섰고, 그 선함과 밝음이 서로 전해지고 전이되고 있었다.

40년이 넘은 오늘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몽골의 숲 모델이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숲이 만들어지고 복원되고 있고, 탄소중립의 숲, 산불피해지 복원 사업, 생물 다양성을 위한 숲 사업 등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기후위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 등 미래 삶의 무게가 가중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리더가 되도록 사회 전체가 돕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얻는 기원을 생각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숲과 자연을 회복하고 지키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여전히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과 함께함으로써 더 힘을 얻고, 지혜를 모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안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

부록



부록

- 부록1 사업별 누적 실적
 - 부록2 산림자원조성사업 사업 내역
 - 부록3 신혼부부 나무심기 사업 내역
 - 부록4 그린캠프 사업 내역
 - 부록5 전국 학교숲 조성 내역
 - 부록6 북한 산림황폐지 복원사업 내역
 - 부록7 몽골 산림복원 사업 내역
 - 부록8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내역
 - 부록9 문학의집·서울 사업 내역
 - 부록10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수상지 내역
 - 부록11 신혼부부 나무심기 식재지 현장조사 보고서
 - 부록12 전국 나무심기 식재지 현장조사 보고서
 - 부록13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인쇄광고 모음
- 함께 한 고마운 분들

부록1 사업별 누적 실적

| 사업명 | 사업 면적(m ²) | 면적(ha) | 식재본수 | 숲가꾸기 본수 | 총사업본수 | 숲길(m) | 참여자수 | 참여학교수 | 일자리 (식재) | 일자리 (숲가꾸기) | 일자리 합계 | 협력기관 (단체) |
|---------------------|------------------------|-----------|------------|------------|------------|--------|---------|-------|----------|------------|---------|--------------------------|
| 산림자원조성사업 | 75,332,000 | 7,533.20 | 4,938,776 | 16,220,100 | 21,158,876 | 64,800 | 0 | 0 | 17,286 | 37,847 | 55,133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
| 북한지역 황폐지 복원 (종자기준) | 24,690,000 | 2,469.00 | 12,859,150 | 0 | 12,859,150 | 0 | 0 | 0 | 45,007 | 0 | 45,007 | 평화의숲 |
| 몽골 산림복원 | 41,333,333 | 4,133.33 | 10,130,000 | 2,650,000 | 12,780,000 | 0 | 0 | 0 | 35,455 | 6,183 | 41,638 | 동북아산림포럼 |
| 생명의 나무심기 | 13,034,300 | 1,303.43 | 422,030 | 3,872,667 | 4,294,697 | 0 | 0 | 0 | 1,477 | 9,036 | 10,513 | 생명의숲 |
| 학교숲 | 1,106,730 | 110.67 | 2,871,356 | 0 | 2,871,356 | 0 | 326,934 | 738 | 10,050 | 0 | 10,050 | 생명의숲, 산림청 |
| 공존숲 (대전,김천) | 2,657,833 | 265.78 | 48,000 | 756,050 | 804,050 | 1,957 | 4,485 | 0 | 168 | 1,764 | 1,932 | 생명의숲 |
| 화천 양묘장 | 1,600,000 | 160.00 | 480,000 | 0 | 480,000 | 0 | 0 | 0 | 1,680 | 0 | 1,680 | 생명의숲 |
| 중국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 1,420,000 | 142.00 | 422,000 | 0 | 422,000 | 0 | 0 | 0 | 1,477 | 0 | 1,477 | 동북아산림포럼 |
| 탄소중립의숲 (용인 석포숲) | 584,500 | 58.45 | 56,867 | 283,057 | 339,924 | 0 | 0 | 0 | 199 | 660 | 860 | 생명의숲 |
| 남산 숲가꾸기 | 1,060,647 | 106.06 | 2,000 | 322,283 | 324,283 | 0 | 780 | 0 | 7 | 752 | 759 | 생명의숲 |
| 산불피해지 복원 (강릉목계, 동해) | 320,333 | 32.03 | 81,700 | 169,400 | 251,100 | 0 | 400 | 0 | 286 | 395 | 681 | 생명의숲 |
| 신혼부부 나무심기 | 843,500 | 84.35 | 245,100 | 0 | 245,100 | 0 | 59,815 | 0 | 858 | 0 | 858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평화의숲, 생명의숲 |
| 서울숲 조성 | 9,900 | 0.99 | 104,720 | 0 | 104,720 | 0 | 5,000 | 0 | 367 | 0 | 367 | 서울그린트러스트 |
| 생명의숲 숲가꾸기(용인,여주) | 179,000 | 17.90 | 0 | 42,992 | 42,992 | 0 | 400 | 0 | 0 | 100 | 100 | 생명의숲 |
| 생물다양성숲 (구상나무, 자생식물) | 110,867 | 11.09 | 33,260 | 0 | 33,260 | 0 | 13 | 0 | 93 | 0 | 93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평화의숲 |
| 마을숲 (나눔꺼, 후암동) | 67,893 | 6.79 | 20,368 | 0 | 20,368 | 0 | 0 | 0 | 71 | 0 | 71 | 생명의숲 |
| 평화의숲 조성 | 71,667 | 7.17 | 19,450 | 0 | 19,450 | 0 | 0 | 0 | 68 | 0 | 68 | 평화의숲 |
| 우리동네숲 | 5,500 | 0.55 | 14,753 | 0 | 14,753 | 0 | 0 | 0 | 52 | 0 | 52 | 서울그린트러스트 |
| YK 50주년 기념 나무심기 | 75,000 | 7.50 | 14,500 | 0 | 14,500 | 0 | 0 | 0 | 51 | 0 | 51 | 평화의숲 |
| 인덕스가든 조성 (서울숲, 한강) | 8,110 | 0.81 | 8,425 | 0 | 8,425 | 0 | 472 | 0 | 29 | 0 | 29 | 서울그린트러스트 |
| DMZ 백석산 복원 | 2,890 | 0.29 | 867 | 0 | 867 | 0 | 0 | 0 | 3 | 0 | 3 | 생명의숲 |
| 공곶숲 숲가꾸기 (창경궁) | 560 | 0.06 | 168 | 0 | 168 | 0 | 39 | 0 | 1 | 0 | 1 | 서울그린트러스트 |
| 그린캠프 | 0 | 0.00 | 0 | 0 | 0 | 0 | 5,770 | 0 | 0 | 0 | 0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
| 시니어산촌학교 | 0 | 0.00 | 0 | 0 | 0 | 0 | 994 | 0 | 0 | 0 | 0 | 생명의숲, 국립산림과학원 |
| 합계 | 164,514,563 | 16,451.46 | 32,773,490 | 24,316,549 | 57,090,039 | 66,757 | 405,102 | 738 | 114,683 | 56,739 | 171,422 | - |

* 숲가꾸기 본수 산출 기준: 사업면적 1ha x 3,000본
 * 종자 1kg = 16,350본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 자문 기준)
 * 일자리 산출 기준: 식재-1,000본당 3.5인, 숲가꾸기-1ha당 7인

* 부록의 사업별 누적 실적은 유한킴벌리 집계자료 및 협력 기관과 단체에서 제공 받은 실적데이터를 근거로 비교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부록2 산림자원조성사업 사업 내역

| 연도 | 사업면적(ha) | 나무심기 본수(그루) | 숲가꾸기 본수(그루) | 총 사업본수(그루) | 숲길(km) |
|------|----------|-------------|-------------|------------|--------|
| 1985 | 560.0 | 1,071,000 | 200,000 | 1,271,000 | 2.6 |
| 1986 | 511.0 | 682,000 | 548,000 | 1,230,000 | 2.0 |
| 1987 | 510.0 | 504,000 | 1,116,000 | 1,620,000 | 2.1 |
| 1988 | 535.0 | 444,000 | 1,303,000 | 1,747,000 | 2.0 |
| 1989 | 560.0 | 483,006 | 1,521,000 | 2,004,006 | 2.0 |
| 1990 | 562.0 | 525,000 | 1,191,000 | 1,716,000 | 2.0 |
| 1991 | 592.0 | 330,000 | 1,370,000 | 1,700,000 | 3.0 |
| 1992 | 393.0 | 198,000 | 952,000 | 1,150,000 | 2.0 |
| 1993 | 389.0 | 204,000 | 822,000 | 1,026,000 | 3.0 |
| 1994 | 396.0 | 167,000 | 865,000 | 1,032,000 | 8.0 |
| 1995 | 397.7 | 118,500 | 901,500 | 1,020,000 | - |
| 1996 | 390.0 | 72,000 | 857,000 | 929,000 | 1.0 |
| 1997 | 302.7 | 13,800 | 559,000 | 572,800 | 3.0 |
| 1998 | 208.0 | 26,100 | 555,000 | 581,100 | 2.0 |
| 1999 | 188.2 | 17,340 | 505,800 | 523,140 | 2.9 |
| 2000 | 230.6 | 12,750 | 655,800 | 668,550 | 8.2 |
| 2001 | 248.0 | 59,000 | 681,000 | 740,000 | 7.0 |
| 2002 | 163.0 | 7,280 | 462,000 | 469,280 | 7.0 |
| 2003 | 180.0 | 4,000 | 516,000 | 520,000 | 4.0 |
| 2004 | 217.0 | - | 639,000 | 639,000 | 1.0 |
| 합 계 | 7,533.2 | 4,938,776 | 16,220,100 | 21,158,876 | 64.8 |

* 출처: 산림조합중앙회

부록3 신혼부부 나무심기 사업 내역

| 연도 | 행사 장소 | 식재본수 | 수종 |
|------|------------------------------|--------|--------|
| 제1회 | 1985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3-1 외 | 12,000 | 잣나무 |
| 제2회 | 1986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산120 | 15,000 | 잣나무 |
| 제3회 | 1987 대전 동구 추동 산32-1 | 10,000 | 잣나무 |
| 제4회 | 1988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89 | 3,000 | 잣나무 |
| 제5회 | 1989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139-1 | 3,000 | 잣나무 |
| 제6회 | 1990 대전 대덕구 비래동 산8-5 | 3,000 | 잣나무 |
| 제7회 | 1991 경기 포천군 일동면 화대리 산206 | 3,000 | 잣나무 |
| 제8회 | 1992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206 | 3,000 | 잣나무 |
| 제9회 | 1993 지리산 제석봉 | 3,000 | 구상나무 |
| 제10회 | 1994 경기 가평군 상면 울길리 산102 | 3,000 | 잣나무 등 |
| 제11회 | 1995 경기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77-1 | 15,000 | 잣나무 |
| 제12회 | 1996 경기 포천시 내촌면 소흘리 산105-1 | 6,000 | 잣나무 |
| 제13회 | 1997 경기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산159 | 6,000 | 잣나무 |
| 제14회 | 1998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 6,000 | 잣나무 |
| 제15회 | 1999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 6,000 | 잣나무 |
| 제16회 | 2000 경기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2 | 6,000 | 잣나무 |
| 제17회 | 2001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산63-1 | 3,000 | 전나무 등 |
| 제18회 | 2002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산63-1 | 3,600 | 전나무 |
| 제19회 | 2003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 598 강북정수장 내 | 3,000 | 느티나무 등 |
| 제20회 | 2004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239 | 3,000 | 주목 등 |
| 제21회 | 2005 강원 고성 금강산 | 3,000 | 잣나무 |
| 제22회 | 2006 강원 고성 금강산 | 1,200 | 밤나무 |
| 제23회 | 2007 강원 고성 금강산 | 6,000 | 금강송 등 |
| 제24회 | 2008 강원 고성 금강산 | 4,000 | 금강송 등 |
| 제25회 | 2009 경기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산6 | 6,000 | 잣나무 |
| 제26회 | 2010 경기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2 | 6,200 | 잣나무 |
| 제27회 | 2011 경기 여주시 하거동 산5-1 | 8,000 | 소나무 등 |
| 제28회 | 2012 경기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산5 | 8,600 | 소나무 |
| 제29회 | 2013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16 | 8,000 | 소나무 |
| 제30회 | 2014 경기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산120 | 13,000 | 잣나무 등 |
| 제31회 | 2015 경기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7 | 9,000 | 잣나무 |
| 제32회 | 2016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산174 | 9,000 | 전나무 |
| 제33회 | 2017 경기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140 | 8,000 | 전나무 등 |
| 제34회 | 2018 경기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140 | 8,000 | 전나무 등 |
| 제35회 | 2019 경기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140 | 8,000 | 전나무 등 |
| 제36회 | 2020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96 | 8,000 | 전나무 |
| 제37회 | 2021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96 | 10,000 | 전나무 |
| 제38회 | 2022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85-3 | 1,000 | 전나무 |
| 제39회 | 2023 강원 동해시 초구동 산23 | 3,000 | 소나무 등 |

* 출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한킴벌리

부록4 그린캠프 사업 내역

| 기수 | 연도 | 학생수 | 장소 |
|------|------|------|------------|
| 제1기 | 1988 | 150명 | |
| 제2기 | 1990 | 150명 | |
| 제3기 | 1991 | 150명 | |
| 제4기 | 1992 | 150명 | |
| 제5기 | 1994 | 122명 | |
| 제6기 | 1995 | 133명 | |
| 제7기 | 1995 | 125명 | |
| 제8기 | 1996 | 158명 | |
| 제9기 | 1996 | 146명 | |
| 제10기 | 1997 | 81명 | |
| 제11기 | 1997 | 82명 | |
| 제12기 | 1998 | 92명 | |
| 제13기 | 1998 | 91명 | 설악산 장수대 캠프 |
| 제14기 | 1999 | 80명 | |
| 제15기 | 2000 | 69명 | |
| 제16기 | 2000 | 77명 | |
| 제17기 | 2001 | 79명 | |
| 제18기 | 2001 | 82명 | |
| 제19기 | 2002 | 73명 | |
| 제20기 | 2002 | 75명 | |
| 제21기 | 2003 | 80명 | |
| 제22기 | 2003 | 79명 | |
| 제23기 | 2004 | 78명 | |
| 제24기 | 2004 | 77명 | |
| 제25기 | 2005 | 89명 | |
| 제26기 | 2005 | 92명 | |

| 기수 | 연도 | 학생수 | 장소 | |
|------|------|-----|---|------------|
| 제27기 | 2006 | 136 | | |
| 제28기 | | | | |
| 제29기 | 2007 | 149 | | |
| 제30기 | | | | |
| 제31기 | 2008 | 152 | | |
| 제32기 | | | | |
| 제33기 | 2009 | 175 | 어성전 숲속수련장 | |
| 제34기 | | | | |
| 제35기 | 2010 | 176 | | |
| 제36기 | | | | |
| 제37기 | 2011 | 168 | | |
| 제38기 | | | | |
| 제39기 | 2012 | 171 | | |
| 제40기 | | | | |
| 제41기 | 2013 | 136 | | |
| 제42기 | | | | |
| 제43기 | 2014 | 136 | 산음 자연휴양림 | |
| 제44기 | | | | |
| 제45기 | 2015 | 120 | | |
| 제46기 | | | | |
| 제47기 | 2016 | 110 | | |
| 제48기 | | | | |
| 제49기 | 2017 | 98 | | 상당산성 자연휴양림 |
| 제50기 | 2018 | 98 | | 청태산 자연휴양림 |
| 제51기 | 2019 | 176 | | 황성 숲체원 |
| - | 2020 | 209 | | 온라인 |
| 제52기 | 2021 | 400 | 온라인 | |
| 제53기 | 2022 | 400 | 온라인+국립백두대간수목원 | |
| 제54기 | 2023 | 100 | 동해산불 복원숲 서울숲 대전 탄소중립의 숲 연천 생물다양성의 숲 봉화 생물다양성의 숲 | |

* 출처: 유한킴벌리

부록5 전국 학교숲 조성 내역

| 연도 | 지원학교수 | 사업면적(ha) | 식재본수 | 참여학생수 |
|------|-------|----------|-----------|---------|
| 1999 | 10 | 1.25 | 36,855 | 4,430 |
| 2000 | 20 | 4.27 | 85,797 | 8,860 |
| 2001 | 24 | 5.12 | 115,679 | 10,632 |
| 2002 | 15 | 2.08 | 58,366 | 6,645 |
| 2003 | 127 | 21.78 | 699,776 | 56,261 |
| 2004 | 105 | 18.35 | 519,491 | 46,515 |
| 2005 | 78 | 10.89 | 285,245 | 34,554 |
| 2006 | 111 | 21.40 | 524,912 | 49,173 |
| 2007 | 118 | 14.21 | 290,856 | 52,274 |
| 2008 | 85 | 5.99 | 111,293 | 37,655 |
| 2009 | 15 | 2.47 | 80,938 | 6,645 |
| 2010 | 10 | 0.85 | 36,744 | 4,430 |
| 2011 | 9 | 0.03 | 1,168 | 3,987 |
| 2012 | 5 | 1.14 | 11,567 | 2,215 |
| 2013 | 3 | 0.39 | 5,277 | 1,329 |
| 2019 | 1 | 0.09 | 3,357 | 443 |
| 2020 | 1 | 0.18 | 3,359 | 443 |
| 2021 | 1 | 0.18 | 676 | 443 |
| 합계 | 738 | 110.67 | 2,871,356 | 326,934 |

* 출처: 생명의숲

부록6 북한 산림황폐지 복원사업 내역

| 연도 | 식재 본수(그루) | 종자지원(kg) | 지원본수 합계 |
|------|-----------|----------|------------|
| 1999 | 666 | 122.1 | 1,997,001 |
| 2000 | 130,000 | - | 130,000 |
| 2001 | 15,000 | - | 15,000 |
| 2002 | 197,250 | - | 197,250 |
| 2003 | 680 | 11.1 | 181,348 |
| 2004 | 57,400 | 58.5 | 1,013,057 |
| 2005 | 46,500 | 152.3 | 2,535,788 |
| 2006 | 3,901 | 14.3 | 237,706 |
| 2007 | 6,000 | - | 6,000 |
| 2008 | 6,000 | - | 6,000 |
| 2009 | - | 400 | 6,540,000 |
| 합계 | 463,397 | 758.3 | 12,859,150 |

* 출처: 평화의숲

부록7 몽골 산림복원 사업 내역

토진나르스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사업 내역

| 연도 | 식재수종 | 사업면적(ha) | 식재 본수(그루) |
|------|------------|----------|------------|
| 2003 | 구주적송 | 100 | 300,000 |
| 2004 | 구주적송, 잎갈나무 | 150 | 450,000 |
| 2005 | 구주적송 | 250 | 750,000 |
| 2006 | 구주적송 | 250 | 750,000 |
| 2007 | 구주적송 | 250 | 750,000 |
| 2008 | 구주적송 | 350 | 1,050,000 |
| 2009 | 구주적송 | 300 | 960,000 |
| 2010 | 구주적송 | 320 | 1,024,000 |
| 2011 | 구주적송 | 320 | 1,024,000 |
| 2012 | 구주적송 | 320 | 1,024,000 |
| 2013 | 구주적송 | 320 | 1,024,000 |
| 2014 | 구주적송 | 320 | 1,024,000 |
| 계 | | 3,250 | 10,130,000 |

토진나르스 사막화 방지 숲가꾸기 사업 내역

| 연도 | 사업면적(ha) | 숲가꾸기 본수(그루) |
|------|----------|-------------|
| 2015 | 100 | 300,000 |
| 2016 | 100 | 300,000 |
| 2017 | 100 | 300,000 |
| 2018 | 100 | 300,000 |
| 2019 | 100 | 300,000 |
| 2020 | 100 | 300,000 |
| 2021 | 100 | 300,000 |
| 2022 | 100 | 300,000 |
| 2023 | 100 | 250,000 |
| 합계 | 900 | 2,650,000 |

* 출처: 동북아산림포럼

부록8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내역

| 연도 | 사업대상지 | 사업면적(ha) | 사업본수(그루) | 사업종 |
|------|----------------|--------------|----------------|------|
| 2010 | 경기 시흥시 정왕동 | 4.0 | 1,250 | 나무심기 |
|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 6.0 | 18,000 | |
|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 11.6 | 34,800 | |
|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 11.0 | 24,500 | |
|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리 | 16.5 | 49,500 | |
| |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 1.0 | 2,700 | |
| | 소 계 | 50.1 | 130,750 | |
| | 경기 안양시 안양동 | 10.8 | 32,400 | |
| | 경기 시흥시 정왕동 | 35.3 | 105,840 | |
|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 95.0 | 285,000 | |
|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 50.0 | 150,000 | |
|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 59.0 | 177,000 | |
| | 소 계 | 250.1 | 750,240 | |
| | 합 계 | 300.2 | 880,990 | |

| 연도 | 사업대상지 | 사업면적(ha) | 사업본수(그루) | 사업종 |
|------------|----------------|------------------|----------------|------|
| 2011 |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24.0 | 67,500 | 나무심기 |
|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 10.0 | 30,000 | |
| | 경기 광명시 소하동 | 2.0 | 6,000 | |
| | 경기 여주시 상거동 | 19.0 | 51,200 | |
| | 소 계 | 55.0 | 154,700 | |
|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 52.0 | 142,836 | 숲가꾸기 |
| | 경기 의왕시 청계동 | 35.0 | 91,945 | |
| | 경기 광명시 소하동 | 42.0 | 168,468 | |
|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 28.2 | 97,831 | |
| | 경기 안양시 안양동 | 17.0 | 190,547 | |
| |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20.3 | 61,950 | |
| | 경기 시흥시 정왕동 | 2.0 | 1,850 | |
| | 전남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 44.3 | 132,990 | |
| | 소 계 | 240.8 | 888,417 | |
| 합 계 | 295.8 | 1,043,117 | | |

* 출처: 생명의숲

| 연도 | 사업대상지 | 사업면적(ha) | 사업본수(그루) | 사업종 |
|----------------|----------------|------------------|----------------|------|
| 2012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 1.5 | 4,000 | 나무심기 |
|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 1.0 | 3,000 | |
|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 15.7 | 40,250 | |
|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 10.1 | 23,550 | |
|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 12.0 | 36,000 | |
|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 | 250 | |
| |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 - | 250 | |
| | 경기 광명시 소하동 | 1.0 | 5,330 | |
| | 소 계 | 41.3 | 112,630 | |
|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 92.5 | 277,500 | 숲가꾸기 |
| | 서울시 남산 | 40.0 | 120,000 | |
|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 31.0 | 93,000 | |
| | 경기 안양시 석수동 | 120.0 | 360,000 | |
| |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15.0 | 36,000 | |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 15.7 | 40,250 | | |
| 경기 시흥시 정왕동 | 2.0 | 1,850 | | |
| 25 | 316.2 | 928,600 | | |
| 합 계 | 357.5 | 1,041,230 | | |

| 연도 | 사업대상지 | 사업면적(ha) | 사업본수(그루) | 사업종 |
|----------------|----------------|------------------|----------------|------|
| 2013 | 전북 전주시 금암동 | 10.0 | 16,500 | 나무심기 |
|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 10.0 | 30,000 | |
|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 1.3 | 1,950 | |
| | 충북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 1.5 | 3,000 | |
| | 충북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 1.0 | 3,000 | |
| | 소 계 | 23.8 | 54,450 | |
|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 100.0 | 300,000 | 숲가꾸기 |
| | 경기 용인시 역북동 | 31.4 | 94,050 | |
|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 226 | 678,000 | |
| | 전북 전주시 금암동 | 45.0 | 135,000 | |
| | 경기 안양시 석수동 | 192.0 | 576,000 | |
| | 서울시 남산 | 40.0 | 120,000 | |
|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 6.0 | 18,000 | |
| | 경기 시흥시 정왕동 | 2.0 | 6,000 | |
| 경기 광명시 소하동 | 2.0 | 6,000 | | |
|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 15.0 | 45,000 | | |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 28.2 | 84,600 | | |
| 소 계 | 687.6 | 2,062,650 | | |
| 합 계 | 711.4 | 2,117,100 | 316,756 | |

부록9 문학의집·서울 사업 내역

| 연번 | 사업명 | 사업시기(연도) | 사업 횟수 | 참여인원(명) | 비고 |
|----|----------------------------|----------------------------------|-------|-----------|-----------------|
| 1 | 금요문학마당-그림습니다 | 2001~2023 | 203 | 18,641 | |
| 2 | 수요문학광장-이 작가를 말한다 | 2001~2023 | 201 | 17,129 | |
| 3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우리 숲 이야기 공모 | 2014~2023 | 8 | 6,947 | 2023년 9회차 개최 예정 |
| 4 | 자연사랑문학제 | 2001~2021 | 21 | 3,827 | |
| 5 | 서울문학인대회 | 2006~2021 | 16 | 3,848 | |
| 6 | 우리 시 우리 노래 신작가곡음악회 | 2003~2019 | 19 | 20,930 | |
| 7 | 시인학교-남산문학당 | 2013~2021 | 261 | 7,185 | |
| 8 | 시인학교-정오의 행복한 시 읽기 | 2015~2023 | 283 | 3,373 | |
| 9 | 우리 동네 이야기 공모 | 2013~2021 | 7 | 1,530 | |
| 10 | 기획전시 | 2001~2022 | 101 | 320,000 | |
| 11 | 월간 뉴스레터 발간 | 2001~2023 | 262 | 3,000 | |
| 12 | 문학청소년축제 | 2002~2019 | 18 | 3,221 | |
| 13 | 그림으로 보는 한국문학 공모전 | 2011~2018 | 7 | 17,539 | |
| 14 | 세계문학고류 | 2001, 2002, 2004, 2006 | 7 | 830 | |
| 15 | 문인극 | 2006, 2007, 2010, 2015 | 11 | 2,132 | |
| 16 | 예장문학콘서트 | 2009~2014, 2016 | 9 | 1,526 | |
| 17 | 시민시낭송경연대회 | 2001~2017 | 17 | 2,248 | |
| 18 | 가족백일장 | 2003~2011 | 9 | 1,400 | |
| 19 | 이웃사랑문학제 | 2003~2004, 2006, 2008~2013, 2018 | 10 | 3,011 | |
| 20 | 봄맞이 문학축제 | 2006~2011 | 6 | 890 | |
| 21 | 책과 함께 즐겁게 | 2006~2018 | 200 | 15,000 | |
| 22 | 농어촌(중소도시) 중학생을 위한 문학행사 | 2002~2004 | 3 | 6,914 | |
| 23 | 문학과 함께 시민과 함께 | 2002~2009 | 7 | 860 | |
| 24 | 남산미술당 | 2021~2023 | 103 | 1,669 | |
| 25 | 남산음악당 | 2022~2023 | 43 | 597 | |
| 26 | 시창작반 | 2022~2023 | 45 | 353 | |
| 27 | 글 연날리기 | 2002 | 1 | 150 | |
| 28 | 우리의 옛을 찾아서 | 2003 | 1 | 500 | |
| 29 | 하이서울 글잔치 | 2003 | 1 | 300 | |
| 30 | 한글날 기념 세미나 | 2003 2005, 2006 | 3 | 450 | |
| 31 | 시와 음악의 어울림 마당 | 2005 | 1 | 150 | |
| 32 | 광장시낭송회 | 2007 | 1 | 2,000 | |
| 33 | 한강여름행복시낭송회 | 2013 | 1 | 102 | |
| 34 | 유랑카페 문학콘서트 | 2014 | 2 | 140 | |
| 35 | 쓰담쓰담콘서트 | 2017 | 1 | 115 | |
| 36 | 서울 시에 빠지다(시낭송 축제) | 2018~2019 | 2 | 270 | |
| 37 | 문인 음악회 | 2019 | 1 | 1,333 | |
| 38 | 문학이 흐르는 서울 | 2020 | 2 | 423 | |
| 39 | 월인천강-한국문화, 새 길을 열다 글짓기 공모 | 2021 | 1 | 102 | |
| 40 | 스마트영상제작반 | 2022 | 13 | 135 | |
| 41 | 좋은 수필 읽고 쓰기 | 2023 | 12 | 72 | |
| 42 | 기후위기 대응 문학작품집 발간 및 북콘서트 | 2023 | 2 | 155 | |
| 43 | 그밖의 직·간접 방문객 | 2001~2023 | - | 1,000,000 | 추정치 |
| 합계 | | | 1,921 | 1,469,797 | |

* 출처: 문학의집 서울

부록10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수상지 내역

| 대회명 | 수상지 | 상종 | |
|-------------------|----------------------|------------------------|--|
| 제1회 (2000년) | 마을숲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 |
| | | 경남 하동군 약양면 정서리 | |
| |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두방마을 | |
| | |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 |
| |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 |
| | |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숲 | |
| | 천년의숲 | 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숲 | |
| | | 전남 장성군 서삼면 일대 | |
| | |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일대 | |
| | |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일대 | |
| |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일대 | |
| | | 충북 영동군 감나무거리 | |
| | 거리숲 | 대전 동구 낭월동-하소동간 플라타너스거리 | |
| |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거리 | |
| | | 대구 수성구 범어동거리 | |
| | | 서울 강남구 도곡동 메타세콰이어거리 | |
| | | 경남 창원시 메타세콰이어거리 | |
| | | 경북 포항시 청하면 청하중학교 | |
| 학교숲 | 경북 포항시 흥해읍 흥해서부초등학교 | | |
| | 강원 춘천시 남산면 참촌중학교 | | |
| | 제주 제주시 영평동 영평초등학교 | | |
|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초등학교 | | |
| | 제2회 (2001년) | | |
| | 마을숲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민속마을 | |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마을 | | | |
| 전북 남원시 대산면 월길마을 | | | |
|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당숲 | | | |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초장마을 | | | |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숲 | | | |
| 천년의숲 | 경기 포천시 광릉숲 | | |
|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일대 | | |
| | 강원 평창군 도암면 진부일대 | | |
|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일대 | | |
| | 제주 하원동 영실 | | |
|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비자나무, 동백림 | | |
| 거리숲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일대 | | |
| | 경남 화동군 화개면 화개장터 일대 | | |
| | 경북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일대 | | |
| | 경북 봉화군 물야면 물야초등학교 | | |
| | 충남 당진군 당진읍 호서고등학교 | | |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농업고등학교 | | |
| 학교숲 | 제주 조천읍 조천중학교 | | |
|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연곡초등학교 | | |
|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성당초등학교 | | |

* 출처: 생명의숲

| | | |
|-------------------|------|------------------------|
| 제3회 (2002년) | 마을숲 | 경남 사천시 정동 정동마을 |
| | | 경기 군포시 속달동 덕고개마을 |
| | | 제주 서흥동, 동흥동 마을숲 |
| | | 전남 화순군 동북면 연둔리숲 |
| | |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숲 |
| | 천년의숲 | 강원 인제군 북면 장수대숲 |
| | | 충남 부여군 부여읍부소산성숲 |
| | |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어부림 |
| | | 전북 정읍시 내장동 내장사 단풍나무숲 |
| |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콰이어거리 |
| | 거리숲 | 경남 밀양시 삼문동 소나무거리 |
| | | 충남 보령시 대천동 감나무거리 |
| |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3리 하양초등학교 |
| | 학교숲 | 제주 표선면 성읍리 성읍초등학교 |
| | | 경북 상주시 신봉동 상주고등학교 |
| 경기 파주시 적성면 적서초등학교 | | |

| | | |
|-----------------------|------|-----------------------|
| 제5회 (2004년) | 마을숲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관방제림 |
| | | 경북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숲 |
| | |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송림 |
| | 누리상 | 제주 남원읍 위미초등학교 |
| | 천년의숲 | 강원 영월읍 남면 청령포숲 |
| | | 충북 아산시 송악면 봉곡사 일대 |
| | | 경북 봉화군 소천면 일대 |
| | 거리숲 | 경기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
| | | 전남 보성군 문덕면 대원사 왕벚나무거리 |
| | | 충북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 진입로 |
| | | 전남 보성군 벌교읍 메타세콰이어 거리 |
| | | 대구 달서구 성당2동 원화여자고등학교 |
| | 학교숲 | 제주 성산읍 수산초등학교 |
| | | 제주 남원읍 위미초등학교 |
| | |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초등학교 |
| 충남 논산시 강산동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 | |

| | | |
|--------------------|------|-------------------------|
| 제4회 (2003년) | 마을숲 |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마을숲 |
| | | 강원 원주시 문막읍 진밭마을숲 |
| | | 강원 춘천시 신사우동 심금술숲 |
| |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거제 도장포마을숲 |
| |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화순 백암마을숲 |
| | 천년의숲 | 강원 평창군 하안미 소나무숲 |
| | | 강원 영월군 서면 한반도숲 |
| |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아홉산숲 |
| |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원림 |
| | | 제주 성효동 돈내코숲 |
| | 거리숲 | 대전 유성구 어은동 대전 이팝나무거리 |
| | | 경남 거제시 아주동 메타세콰이어/벚나무거리 |
| |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리장림 |
| | | 전북 정읍시 상동 왕벚나무거리 |
| | 학교숲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임고초등학교 |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서촌초등학교 | | |
|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송양초등학교 | | |
|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초등학교 | | |
| 충남 천안시 봉명동 봉서초등학교 | | |

| | | |
|----------------|----------------|--------------------------|
| 제6회 (2005년) | 마을숲 | 전북 진안군 정천면 하초마을숲 |
| | |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하안숲 |
| | 천년의숲 | 강원 삼척시 미로면 영경묘, 준경묘 소나무숲 |
| | | 제주 구좌읍 비자림 |
| | 숲 길 |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천 숲길 |
| |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 숲길 |
| | 학교숲 | 제주 도순동 도순초등학교 |
| | |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북한산초등학교 |
| | 대학숲 |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삼육대학교 |
| | |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
| 누리상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 | |

| | | |
|----------------|------------------|--------------------------|
| 제7회 (2006년) | 마을숲 | 경북 포항시 북구 덕동마을 |
| |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도천마을 |
|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삼산마을 |
| | 천년의숲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옥룡사지 동백숲 |
| | | 경남 창원군 창녕읍 우포늪 |
| |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인의산 숲정미숲 |
| | 숲길 |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 전나무숲 |
| | | 전남 영암 강진군 월출산국립공원 천황사지구 |
| | | 전북 남원시 도동동 용성고등학교 |
| | 학교숲 | 경기 화성시 비봉면 비봉고등학교 |
| | | 인천 남동구 만수1동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
| | | 전북 남원시 주생면 주생초등학교 |
| | 숲지기 |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동중학교 |
| | | 광주 북구 북동 (사)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
| | 누리상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최성현 |
| | 전남 보성군 봉산리 삼나무숲길 | |

| | | |
|----------------|--------------------|----------------------------|
| 제8회 (2007년) | 마을숲 | 전남 진도군 죽림리 강계마을숲 |
| | | 전남 광양시 돈탁마을숲 |
| | | 제주 남원읍 동백마을숲 |
| | 천년의숲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선몽대숲 |
| | | 전남 진도 첨찰산 |
| | | 강원 정선군 임계면 이기령숲 |
| | 숲길 | 제주 한경면 제주 저지오름 |
| | |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백운산 칠족령 숲길 |
| | | 경기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숲길 |
| | 학교숲 | 전남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 숲길 |
| | | 부산 사하구 과정1동 사하초등학교 |
| | | 제주 성산읍 온평초등학교 |
| | 숲지기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성여자중학교 |
| | | 대구 달서구 새동네로 성지초등학교 |
| | 누리상 | 서울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한살림도봉지구(숲살림) |
| | 강원 횡성군 우천면 독실마을숲지기 | |
|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감나무봉사단 | |
| |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송림 | |

| | | |
|----------------|---------------------|-------------------------|
| 제9회 (2008년) | 마을숲 |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숲 |
| | | 전남 보성군 웅치면 용추마을숲 |
| | 숲길 |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솔밭근린공원 |
| |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곶자왈 |
| | 천년의숲 | 전남 화순군 동북면 모후산 삼나무 숲길 |
| | | 강원 철원군 철원읍 소이산 평화의숲 |
| | | 경기 가평군 상면 잣향기푸른교실 |
| | 학교숲 |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읍성 소나무숲 |
| | | 대전 동구 성남1동 대전성남초등학교 |
| | | 전남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담양봉산초등학교 |
| 숲지기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중앙초등학교 | |
| | 울산 남구, 우리숲지킴이 | |
| 누리상 | 광주 북구 두암동, 군왕봉 숲지기 | |
| | 전북 진안군 백운면 영모정 하천숲 | |

| | | |
|-----------------|---------------------------|-------------------------|
| 제10회 (2009년) | 마을숲 |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장산숲 |
| | | 전남 화순군 남면 평촌마을숲 |
| | 숲길 | 전북 남원시 사곡마을숲 |
| | | 경북 영양군 대티골 숲길 |
| | 천년의숲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백련사간 숲길 |
| | | 제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숲길 |
| | |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
| | 학교숲 | 전남 신안군 증도면 한반도 해송숲 |
| | | 전남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비자림 |
| | |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자고등학교 |
| 숲지기 | 인천 동구 송림1동 인천송림초등학교 | |
| | 전남 광양시 옥곡면 옥곡초등학교 | |
| 누리상 | 부산 남구 문현2동 성동초등학교 | |
|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동백마을숲 | |
| | 인천 남동구 만수1동 인천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 |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여자고등학교 | |

| | | |
|-----------------|-------|---------------------------|
| 제11회 (2010년) | 시민의숲 | 부산 서구 서대신동 구덕산 구덕문화공원 편백숲 |
| | | 전남 여주시 미평동 봉화산 산림욕장 편백숲 |
| | | 제주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해송숲 |
| | 전통마을숲 | 강원 강릉시 초당동 초당마을숲 |
| | |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소나무숲 |
| | | 전남 신안군 안좌면 대리 우실숲 |
| | |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해송숲 |
| | 천년의숲 |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여인송숲 |
| | |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독일가문비숲 |
| | | 제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숲 |
| | 학교숲 | 경남 사천시 곤양면 곤양초등학교 |
| | | 전남 광양시 광양읍 광양서초등학교 |
| | 누리상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장전초등학교 |
| | | 강원 강릉시 초당동 초당마을숲 |

| | | | |
|-----------------|--------|--------------------------|--|
| 제12회 (2011년) | 아름다운 숲 |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국립공원 전나무 숲 | |
| | | 경북 포항시 북구 여인의숲 | |
| | | 울산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 | |
| | | 전남 담양군 고서면 명옥헌원림 | |
| | | 전남 신안군 안좌면 망화산 생태숲 | |
| |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당숲(신들의 정원) | |
| | | 전남 완도군 군외면 난대림 푸른 까끔길 | |
| | |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말방죽숲(대정저수지) | |
| | | 제주 제주시 사려니 숲길 | |
| |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 오리숲 | |
| | | 광주 광산구 임곡동 임곡초등학교 | |
| | | 심사위원특별상 | |

| | | | |
|-----------------|--------|----------------------------|-----------------------|
| 제13회 (2012년) | 아름다운 숲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국립공원 소리길 | |
| |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숲길 | |
| | | 경북 울진군 북면, 서면 금강소나무숲길(1구간) | |
| |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초등학교 학교숲 솔빛쉼터 | |
| | | 울산 중구 태화동, 남구 삼호동 태화강 십리대숲 | |
| | |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재초등학교 학교숲 | |
| | | 전남 순천시 조곡동 죽도봉 숲 | |
| |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독실산 난대수림 | |
| |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너릿재옛길 | |
| | | 제주 한경면 신창리 신창초등학교 학교숲 애육산 | |
| | | 심사위원특별상 |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마을숲 |

| | | | |
|-----------------|--------|-------------------------------|-----------------|
| 제14회 (2013년) | 아름다운 숲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봉대 공원 | |
| | | 경북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 마을숲 | |
| | |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캠퍼스 어은동산 | |
| | | 울산 남구 무거동 굴화두레마을 개울여숲 | |
|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곡마을 왕버들숲 | |
| | |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반월마을 당숲 | |
| | | 전북 무주군 안성면 명천마을 소나무숲 | |
| | | 제주 제주시 한림읍 명월 팽나무 마을길 | |
| |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송담초등학교 빛솔정원 및 녹음교실 | |
| | | 심사위원특별상 |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거북산 |

| | | |
|-----------------|--------|---------------------|
| 제15회 (2014년) | 아름다운 숲 | 강원 고성군 화진포호수 금강소나무숲 |
| | | 강원 양구군 원당리 소나무숲길 |
| | | 경기 수원시 수일여자중학교 용버들길 |
| | | 경남 거창군 웅양 동호 전통마을숲 |
| | | 경북 봉화군 청옥산 생태경관림 숲길 |
| | | 대전 서구 도솔생태숲 |
| | | 전남 함평군 해보 상곡 모평마을숲 |
| | | 전남 해남군 북일초등학교 소나무림 |
| | | 전북 고창군 삼태마을숲 |
| | | 제주 서귀포시 동남초등학교 학교숲 |
| | | 충남 서천군 솔바람 금솔숲 |

| | | | |
|-----------------|--------|-----------------------|-------------------|
| 제16회 (2015년) | 아름다운 숲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소나무숲 | |
| | | 경기 남양주시 광동중학교 학교숲 | |
| | | 경남 밀양시 위양동 이팝나무숲 | |
| | | 경남 진주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주라기숲 | |
| | | 경남 함양군 도천리 송림 | |
| | | 경북 청송군 주왕산 절골계곡 숲길 | |
| | | 전남 고흥군 금탑사 비자나무숲 | |
| | | 전남 함평군 향교숲 | |
| | | 충남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노송숲 | |
| | | 심사위원특별상 | 제주 한경면 환상숲 꽃자왈 공원 |
| | | 누리상 |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숲길 |

부록11 신혼부부 나무심기 식재지 현장조사 보고서

| | | |
|-----------------|--------|----------------------|
| 제17회 (2016년) | 아름다운 숲 | 강원 강릉시 강릉고등학교 솔숲 |
| | | 강원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 |
| | | 경북 성주군 성밖숲 |
| | | 부산 성지곡 산림욕장 편백숲 |
| | | 전남 순천시 순천공업고등학교 녹나무숲 |
| | | 전남 남원시 닭퇴마을숲 |
| | | 제주 서귀포시 치유의숲 |
| | | 제주 제주시 선흘 곳자왈 동백동산 |
| | 누리상 | 전남 고흥군 애도마을(쑥섬) 숲 |

| | | |
|-----------------|--------|-----------------------|
| 제18회 (2017년) | 아름다운 숲 | 강원 인제군 백두대간트레일 6구간 숲길 |
| | | 강원 양산시 통도사 무풍한솔길 |
| | | 전남 진도군 접도 남망산 숲길 |
| | | 제주 서귀포시 머체왓숲길 |
| | | 제주 서귀포시 화순곳자왈 |
| | 숲지기상 | 경남 함양군 상림 |
| | 누리상 | 부산 대신공원 편백숲 |

◎ 조사목적

신혼부부 나무심기 식재지에 대한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조사대상 개요

- 1985년 ~ 2021년까지 진행된 신혼부부 나무심기 사업 대상지 38개소 중 24개소
- 북한소재지 4개소, 대상지 확인 불가 지역 10개소 등 14개소 제외

◎ 조사기간

2021년 4월 ~ 9월

◎ 수행기관

생명의숲

◎ 조사항목

대상지 위치, 대상지 보전 현황, 대상지 관리 현황, 조림목 생장 현황, 안내판 존치 유무 등

◎ 조사대상지

| 사업연도 | 소재지 | 면적(ha) | 식재본수 | 조림수종 | |
|------|------|------------------------|------|--------|--------|
| 1 | 1985 |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2-1 | 4.0 | 12,000 | 잣나무 |
| 2 | 1987 | 대전 동구 추동 산32-1 | 0.6 | 11,000 | 잣나무 |
| 3 | 1989 |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139-1 | 1.0 | 3,000 | 잣나무 |
| 4 | 1990 | 대전 대덕구 비래동 산8-5 | 1.0 | 3,000 | 잣나무 |
| 5 | 1991 | 경기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산202 | 1.0 | 3,000 | 잣나무 |
| 6 | 1992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 1.0 | 3,000 | 잣나무 |
| 7 | 1994 | 경기 가평군 상면 울길리 산102 | 1.0 | 3,000 | 잣나무 등 |
| 8 | 1995 | 경기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77-1 | 5.0 | 14,000 | 잣나무 |
| 9 | 1998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산 산127 | 2.0 | 6,000 | 잣나무 |
| 10 | 2000 | 경기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2 | 2.0 | 6,000 | 잣나무 |
| 11 | 2002 |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산63-1 | 1.2 | 3,600 | 전나무 |
| 12 | 2004 |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239 | 1.3 | 3,000 | 잣나무 등 |
| 13 | 2009 | 경기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산6 | 3.0 | 5,000 | 잣나무 |
| 14 | 2010 | 경기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2 | 2.0 | 6,200 | 잣나무 |
| 15 | 2011 | 경기 여주시 하거동 산5-1 | 2.5 | 8,000 | 백합나무 등 |
| 16 | 2012 | 경기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산55 | 2.6 | 8,600 | 소나무 |
| 17 | 2013 |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16 | 2.6 | 8,000 | 잣나무 |
| 18 | 2014 | 경기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산120 | 4.2 | 13,000 | 잣나무 |
| 19 | 2015 | 경기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7 | 3.0 | 9,000 | 잣나무 |
| 20 | 2016 |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산174 | 3.0 | 9,000 | 전나무 |
| 21 | 2017 | 경기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141 | 2.5 | 8,000 | 전나무 |
| 22 | 2019 | 경기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140 | 2.5 | 8,000 | 전나무 등 |
| 23 | 2020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95 외 | 2.7 | 8,000 | 전나무 |
| 24 | 2021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91-3 외 | 8.5 | 36,200 | 소나무 등 |

◎ 현장조사결과

| No. 1 | 위 치 |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2-1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85년(제1회) | |
| | 조림수종 | 잣나무 (3년생) | |
| | 식재본수 | 12,000본 | |
| | 사업이력 | 어린나무가꾸기 1회, 속아베기 1회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없음 | |
| | 조림면적 | 4.00ha | |
| | 입목축적 | 본수 | 4,400본(1,100본/ha). 잣나무 4,000본(1,000본/ha) |
| | | 재적 | 1,055m ³ (264m ³ /ha). 잣나무 1,032m ³ (258m ³ /ha)" |
| | 조림목 | 잣나무 | |
| | 분포형태 | 조림 후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속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관리상태 양호함 | |
| | 임 령 | 39년 (파종부터) | |
| | 활 령 | 수관부 활력 양호 | |
| | 형 질 | 수간 통직, 수고, 직경생장 양호 | |
| | 경 급 | 8~30cm까지 다양, 평균 20cm | |
| | 수 고 | 7~20m까지 다양, 평균 14m | |
| | 울폐도 | 교목층 80% 이상 | |
| | 조림목 외 | 신갈나무, 상수리, 밤나무, 물푸레 등 단목 혼효 | |
| | 활 령 | 대부분 보통 이하 | |
| | 형 질 | 대부분 보통 이하 | |
| | 경 급 | 잣나무보다 작음 | |
| | 수 고 | 잣나무보다 비슷하거나 작음 | |
| | 아교목층 | 주로 산록, 산정부 분포 피도 5% 내외 | |
| | 관목층 | 주로 산록, 산정부 분포 피도 5% 내외 | |
| | 초본층 | 주로 산록, 산정부 분포 피도 5% 내외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속아베기작업 기 실시하여 시급하지 아니함 | |
| | 목표임형 | 잣나무 단층림 |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 관리방법 | 조림목외 교목 제거하고 하층식생은 최대한 존치 | |

| No. 2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산32-1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87년(제3회) | |
| | 조림수종 | 잣나무 (7년생) | |
| | 식재본수 | 11,000본 | |
| | 사업이력 | 2017년 속아베기(대전 공존숲)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없음 | |
| | 조림면적 | 0.60ha | |
| | 입목축적 | 본수 | 358본(597본/ha). 잣나무 338본(564본/ha) |
| | | 재적 | 136m ³ (227m ³ /ha). 잣나무 125m ³ (209m ³ /ha) |
| | 조림목 | 잣나무 | |
| | 분포형태 | 소면적이나 잣나무 단순림형태로 분포 | |
| | 임 령 | 41년 (파종부터) | |
| | 활 령 | 잣나무 활력은 양호한 편임 | |
| | 형 질 | 양호한 개체, 불량한 개체 혼생, 전체적으로는 양호 | |
| | 경 급 | 12~38cm까지 다양, 평균 24cm | |
| | 수 고 | 12~18m까지 다양, 평균 15m | |
| | 울폐도 | 교목층 80% | |
| | 조림목 외 | 낙엽송, 상수리 소량 | |
| | 활 령 | - | |
| | 형 질 | - | |
| | 경 급 | - | |
| | 수 고 | - | |
| | 아교목층 | 없음 | |
| | 관목층 | 비목, 쥐똥나무, 생강, 누리장 등 피도 20% 미만 | |
| | 초본층 | 담쟁이덩굴, 고사리 등 피도 90% | |
| 관리방안 | 시급성 | 부분적으로 입목밀도가 높은 지역도 있으나 현재 생태도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음 | |
| | 목표임형 | · 교목층은 잣나무 · 관목층은 생강나무 등 화목류 |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 관리방법 | 추가적인 관리없이 현재 상태로 수확까지 유지 가능 | |

| No. 3 | 위 치 |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139-1 (제5회) |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89년(제5회) | | |
| | 조림수종 | 잣나무 (7년생) | | |
| | 식재본수 | 3,000본 | | |
| | 사업이력 | 숙아베기 1회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없음 | | |
| | 조림면적 | 1.00ha | | |
| | 입목축적 | 본수 | 1,006본(1,006본/ha). 잣나무 829본(829본/ha) | |
| | | 재적 | 216m ³ (216m ³ /ha). 잣나무 164m ³ (164m ³ /ha) | |
| | 조림목 | 잣나무 | | |
| | 분포형태 | 조림후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숙아베기 등을 실시하였으나 숙아베기 추가 실시 필요 | | |
| | 임 령 | 39년 (파종부터) | | |
| | 활 령 | 수관부 활력 보통 | | |
| | 형 질 | 수간 통직, 직경생장 편차 심함 | | |
| | 경 급 | 6~26cm까지 다양, 평균 20cm | | |
| | 수 고 | 7~18m까지 다양, 평균 13m | | |
| | 울폐도 | 교목층 95% 이상 | | |
| | 조림목 외 | 신갈, 밤, 등 일부 수종 단목 혼효 | | |
| | 활 령 | 대부분 보통 이하 | | |
| | 형 질 | 대부분 보통 이하 | | |
| | 경 급 | 잣나무보다 동일하거나 작음 | | |
| | 수 고 | 잣나무보다 동일하거나 작음 | | |
| 아교목층 | 산벚 등 분포하나 피도 10% 이내 | | | |
| 관목층 | 주수종은 산철쭉, 피도 10% 이내. 소능선부는 밀생 | | | |
| 초본층 | 매우 빈약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입목밀도가 높아 시급히 숙아베기작업 필요함 | | |
| | 목표임형 | 잣나무 단층림 | |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 | 관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나무 생육공간 조절을 위한 숙아베기 필요 · 잣나무 고사지가 많아 가지치기 실시 | | |

| No. 4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8-5 |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90년(제6회) | | |
| | 조림수종 | 잣나무 (7년생) | | |
| | 식재본수 | 3,000본 | | |
| | 사업이력 | 없음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비례초등학교에서 농로를 따라 접근. 상태 불량 | | |
| | 조림면적 | 0.95ha (스트로브잣나무와 혼생지 포함) | | |
| | 입목축적 | 본수 | 909본(957본/ha). 잣나무 576본(606본/ha) | |
| | | 재적 | 181m ³ (190m ³ /ha). 잣나무 139m ³ (147m ³ /ha) | |
| | 조림목 | 잣나무 | | |
| | 분포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나무 단층림, 잣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혼생, 잣나무와 활엽수 혼생림으로 구분됨 · 스트로브잣나무는 칩덩굴 피해를 입고 있음 | | |
| | 임 령 | 38년 (파종부터) | | |
| | 활 령 | 고사지 발달. 수관부 활력은 양호한 편임 | | |
| | 형 질 | 양호한 개체, 불량한 개체 혼생, 전체적으로는 양호 | | |
| | 경 급 | 12~30cm까지 다양, 평균 20cm | | |
| | 수 고 | 8~18m까지 다양, 평균 14m | | |
| | 울폐도 | 교목층 90% 이상 | | |
| | 조림목 외 | 스트로브잣나무, 밤나무, 참나무류 | | |
| | 활 령 | 대부분 양호 | | |
| | 형 질 | 활엽수는 대부분 불량, 스트로브잣나무는 양호 | | |
| | 경 급 | 스트로브잣나무는 조림목보다 작음. 활엽수는 큼 | | |
| | 수 고 | 경급과 동일 | | |
| 아교목층 | 빈약 | | | |
| 관목층 | 생강, 쥐똥나무 등 10% 미만 | | | |
| 초본층 | 다양한 식생이 유입. 특히, 담쟁이덩굴 머루 다수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목밀도가 높고 고사지가 많아 작업 필요 · 특히, 칩덩굴 피해지는 시급히 조치 필요 | | |
| | 목표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목층은 잣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 관목층은 생강나무 등 화목류 | | |
| | 목표수종 | 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 | |
| | 관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나무 밀생림은 숙아베기 실시(분간목 제거) · 잣나무 가지치기 실시(400본/ha) · 잣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는 군상 혼효림 또는 2단림 으로 유도 | | |

| No. 5 | | | 위 치 | 경기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산202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91년(제7회) | | |
| | 조림수종 | 잣나무 (7년생) | | |
| | 식재본수 | 3,000본 | | |
| | 사업이력 | 없음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있음 | | |
| | 조림면적 | 1.00ha | | |
| | 입목축적 | 본수 | 2,430본(2,430본/ha). 잣나무 1,722본(1,722본/ha) | |
| | | 재적 | 1,856m ³ (185m ³ /ha). 잣나무 147m ³ (147m ³ /ha) | |
| | 조림목 | 잣나무 | | |
| | 분포형태 |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나 신갈나무 소군상 혼효 | | |
| | 임 령 | 36년 (파종부터) | | |
| | 활 령 | 수관부 활력 보통-쇠약 | | |
| | 형 질 | 수간, 직경성장 편차 심함 | | |
| | 경 급 | 6~24cm까지 다양, 평균 14cm | | |
| | 수 고 | 6~14m까지 다양, 평균 9m | | |
| | 울폐도 | 70% 이상 | | |
| | 조림목 외 | 신갈나무, 산벚, 소나무 등 단목혼효 | | |
| | 활 령 | 대부분 보통-쇠약 | | |
| | 형 질 | 대부분 보통-쇠약 | | |
| | 경 급 | 잣나무보다 동일하거나 작음 | | |
| | 수 고 | 잣나무보다 동일하거나 작음 | | |
| 아교목층 | 산벚, 쪽동백 등 분포하나 피도 10% 이내 | | | |
| 관목층 | 고추나무 등 피도 10% 이내. 능선부 밀생 | | | |
| 초본층 | 매우 빈약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입목밀도가 높고 잣나무가 신갈나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음으로 시급히 솎아베기작업 필요 | | |
| | 목표임형 | 잣나무, 신갈나무 군생혼효림 | | |
| | 목표수종 | 잣나무, 신갈나무 | | |
| | 관리방법 | · 수종 간 군상으로 생육공간 조정 및 밀도조절 · 잣나무 가지치기 실시 | | |

| No. 6 | | | 위 치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 127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92년(제8회) | | |
| | 조림수종 | 잣나무 (7년생) | | |
| | 식재본수 | 3,000본 | | |
| | 사업이력 | 2014년 솎아베기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있음 | | |
| | 조림면적 | 1.00ha | | |
| | 입목축적 | 본수 | 1,381본(1,381본/ha). 잣나무 946본(946본/ha) | |
| | | 재적 | 248m ³ (248m ³ /ha). 잣나무 193m ³ (193m ³ /ha) | |
| | 조림목 | 잣나무 | | |
| | 분포형태 | 전면적 고루 분포하나 활엽수가 단목 혼효 | | |
| | 임 령 | 36년 (파종부터) | | |
| | 활 령 | 수관부 활력 보통 | | |
| | 형 질 | 보통, 직경 성장 편차 심함 | | |
| | 경 급 | 8~30cm, 평균 16cm | | |
| | 수 고 | 8~18m, 평균 15m | | |
| | 울폐도 | 80% 이상 | | |
| | 조림목 외 | 밤나무, 신갈나무, 물박달, 산벚, 물푸레 등 단목 혼효 | | |
| | 활 령 | 대부분 보통-양호 | | |
| | 형 질 | 대부분 보통-양호 | | |
| | 경 급 | 대부분 잣나무와 동일하거나 작음 | | |
| | 수 고 | 대부분 잣나무와 동일하거나 작음 | | |
| 아교목층 | 밤나무, 신갈, 산벚 등 분포하나 피도 10% | | | |
| 관목층 | 산철쭉 등 피도 10% | | | |
| 초본층 | 매우 적음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입목밀도가 높고 활엽수 증가하고 있음으로 시급히 솎아베기, 가지치기작업 필요 | | |
| | 목표임형 | 잣나무 단층림 | |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 | 관리방법 | · 밀생된 조림목은 일부 제거 · 잣나무 가지치기 실시 · 조림목 성장을 방해하는 활엽수 제거 · 하층식생은 존치 | | |

| No. 7 | 위 치 | 경기 가평군 상면 울길리 산 102 |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94년(제10회) | | |
| | 조림수종 | 잣나무 (7년생), 밤나무, 대추나무 | | |
| | 식재본수 | 3,000본 | | |
| | 사업이력 | 2009년 숲아베기, 가지치기 실시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없음 | | |
| | 조림면적 | 1.00ha | | |
| | 입목축적 | 본수 | 1,725본(1,725본/ha). 잣나무1,530본(1,530본/ha) | |
| | | 재적 | 474m ³ (474m ³ /ha). 잣나무 450m ³ (450m ³ /ha) | |
| | 조림목 | 잣나무, 밤나무 | | |
| | 분포형태 | · 잣나무 단순림. 일부지역 활엽수 단목 혼효 · 밤나무 일부만 생존. 대추나무 없음 | | |
| | 임 령 | 34년 (파종부터) | | |
| | 활 령 | 수관부 활력 양호 | | |
| | 형 질 | 일부만 양호 | | |
| | 경 급 | 10~30cm까지 다양, 평균 22cm | | |
| | 수 고 | 8~18m까지 다양, 평균 14m | | |
| | 울폐도 | 교목층 80% 이상 | | |
| | 조림목 외 | 밤나무, 신갈나무, 물푸레 등 단목 혼효 | | |
| | 활 령 | 보통 | | |
| | 형 질 | 불량 | | |
| | 경 급 | 잣나무와 동일하거나 작음 | | |
| | 수 고 | 잣나무와 동일하거나 작음 | | |
| 아교목층 | 밤나무, 신갈, 산벚 등 분포하나 피도 10% | | | |
| 관목층 | 국수나무 등 10% | | | |
| 초본층 | 고사리 등 매우 적음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입목밀도가 높고 활엽수 증가하고 있음으로 시급히 숲아베기작업 필요 | | |
| | 목표임형 | 이단림 (교목층 잣나무, 관목층 화목류) | |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 | 관리방법 | · 잣나무 일부 제거, 단목 활엽수 제거 · 하층식생 최대한 존치 | | |

| No. 8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77-1 |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95년(제11회) | | |
| | 조림수종 | 잣나무(5년생, 7년생) | | |
| | 식재본수 | 14,000본 (5년생 6,000본. 7년생 8,000본) | | |
| | 사업이력 | 없음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 도로에서 약 100m 위치에 있음. 상태 불량 · 제12회 안내판은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음 | | |
| | 조림면적 | 5.00ha (피압 되어 있는 잣나무를 포함한 면적) | | |
| | 입목축적 | 본수 | 11,100본(2,220본/ha). 잣나무 4,175본(835본/ha) | |
| | | 재적 | 898m ³ (179m ³ /ha). 잣나무 333m ³ (66m ³ /ha) | |
| | 조림목 | 잣나무 | | |
| | 분포형태 | · 산록부는 잣나무 단순림, 산복부는 신갈나무와 혼생 · 산정부와 소능선부는 신갈나무에 피압된 상태 · 고사된 잣나무 다수 | | |
| | 임 령 | 33년 (7년생 기준, 파종부터) | | |
| | 활 령 | 밀생되어 고사지 발달. 수관부 활력 낮음 | | |
| | 형 질 | 수간 통직, 직경생장 편차 심함 | | |
| | 경 급 | 2~24cm까지 다양, 평균 12cm | | |
| | 수 고 | 2~15m까지 다양, 평균 10m | | |
| | 울폐도 | 교목층 80% 이상 | | |
| | 조림목 외 | 신갈나무가 우점, 들메, 물박달, 산벚 등 단목혼효 | | |
| | 활 령 | 대부분 양호 | | |
| | 형 질 | 대부분 불량, 다간목 다수, 구불구불함 | | |
| | 경 급 | 잣나무보다 큼 | | |
| | 수 고 | 잣나무보다 큼 | | |
| 아교목층 | 산벚 등 분포하나 피도 10% 이내 | | | |
| 관목층 | 주 수종은 산철쭉, 피도 10% 이내. 소능선부는 밀생 | | | |
| 초본층 | 매우 빈약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입목밀도가 높고 잣나무가 신갈나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음으로 시급히 숲아베기작업 필요 | | |
| | 목표임형 | · 교목층은 잣나무와 신갈나무 · 관목층은 산철쭉 | |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 | 관리방법 | · 수종 간 균상으로 생육공간 조정 및 밀도조절 · 잣나무 가지치기 실시(균생지 600본/ha) · 잣나무가 피압 된 지역의 관리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하여 결정 | | |

| No. 9 | 위 치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 127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98년(제15회) | |
| | 조림수종 | 잣나무 (7년생) | |
| | 식재본수 | 6,000본 | |
| | 사업이력 | 없음 | |
| | 안내판 | 있음 | |
| | 조림면적 | 2.00ha | |
| | 입목축적 | 본수 | 5,548본(2,774본/ha). 잣나무 1,130본(565본/ha) |
| | 재적 | 430m ³ (215m ³ /ha). 잣나무 24m ³ (12m ³ /ha) | |
| 산림조사 결과 | 조림목 | 잣나무 | |
| | 분포형태 | 전 지역 상층은 밤나무, 참나무류 등 활엽수가 우점. 조림한 잣나무는 대부분 피압되어 있음 | |
| | 임 령 | 30년 | |
| | 활 령 | 피압 되어 활력 낮음 | |
| | 형 질 | 정상적인 생육 못하여 나뭇 | |
| | 경 급 | 6~14cm, 평균 8cm | |
| | 수 고 | 5~12m, 평균 6m | |
| | 울폐도 | 중층을 이루며 울폐도 30% | |
| | 조림목 외 | 밤나무, 신갈나무, 산벚, 느티나무 등. 울폐도 80% | |
| | 활 령 | 보통이상 | |
| | 형 질 | 대부분 불량 | |
| | 경 급 | 잣나무보다 큼 | |
| | 수 고 | 잣나무보다 큼 | |
| | 아교목층 | 밤나무, 신갈, 산벚 등으로 피도 10% | |
| | 관목층 | 적음 | |
| | 초본층 | 매우 적음 | |
| | 시급성 | 조림한 잣나무가 대부분 자연발생 한 활엽수에 피압되어 있음으로 시급히 숲가꾸기 여부 의 사결정 필요 | |
| | 목표임형 | 잣나무, 활엽수 군상 이단림 | |
| 목표수종 | 잣나무, 참나무류 | | |
| 관리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층을 이루고 있는 활엽수는 대부분 맹아에서 기원하여 지속가능성 낮음. · 잣나무림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층의 활엽수를 제거하여야 함. 어느 수종을 키울 것인지 는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함. · 잣나무가 ha당 1,000본 이상인 지역은 상층의 활엽수를 제거하고 잣나무 입목본수가 적 은 지역은 활엽수림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 |

| No. 10 | 위 치 | 경기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2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00년(제17회) | |
| | 조림수종 | 잣나무 (7년생) | |
| | 식재본수 | 6,000본 | |
| | 사업이력 |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시 | |
| | 안내판 | 있음. 상태 비교적 양호 | |
| | 조림면적 | 2.00ha | |
| | 입목축적 | 본수 | 4,804본(2,402본/ha). 잣나무 3,662본(1,831본/ha) |
| | 재적 | 526m ³ (263m ³ /ha). 잣나무 140m ³ (70m ³ /ha) | |
| 산림조사 결과 | 조림목 | 잣나무 | |
| | 분포형태 | 잣나무가 전 지역에 분포. 활엽수가 단목 혼효 됨 | |
| | 임 령 | 28년 (파종부터) | |
| | 활 령 | 보통이하 | |
| | 형 질 | 보통이상 | |
| | 경 급 | 6~20cm, 평균 10cm | |
| | 수 고 | 5~10m | |
| | 울폐도 | 70% (교목층 전체 90% 이상) | |
| | 조림목 외 | 밤나무, 신갈나무, 산벚, 물푸레, 고로쇠 등 | |
| | 활 령 | 양호 | |
| | 형 질 | 보통 | |
| | 경 급 | 대부분 잣나무와 동일하거나 작음 | |
| | 수 고 | 대부분 잣나무와 동일하거나 작음 | |
| | 아교목층 | 밤나무, 신갈, 산벚 등 분포하나 피도 10% | |
| | 관목층 | 산철쭉 등 피도 10% | |
| | 초본층 | 매우 적음 | |
| | 시급성 | 입목밀도가 높고 활엽수 증가하고 있음으로 시급히 숲가꾸기작업 필요 | |
| | 목표임형 | 잣나무 단층림 또는 잣나무, 활엽수 이단림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 관리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목 밀도조절 및 단목 활엽수 제거 · 잣나무 가지치기 실시 · 하층식생 최대한 존치 | | |

| No. 11 | 위 치 | 경기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산 63-1 |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02년 (제19회) | | |
| | 조림수종 | 전나무 (5년생) | | |
| | 식재본수 | 3,600본 | | |
| | 사업이력 | 없음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있음 | | |
| | 조림면적 | 1.20ha | | |
| | 입목축적 | 본수 | 3,028본(2,523본/ha). 전나무 2,418본(2,015본/ha) | |
| | | 재적 | 217m ³ (181m ³ /ha). 전나무 46m ³ (38m ³ /ha) | |
| | 조림목 | 전나무 | | |
| | 분포형태 | 전나무가 전 지역에 분포. 상층에 참나무류 점상 | | |
| | 임 령 | 24년 | | |
| | 활 령 | 보통 | | |
| | 형 질 | 보통 | | |
| | 경 급 | 2~14cm까지 다양. 평균 8cm | | |
| | 수 고 | 3~7m까지 다양. 평균 6m | | |
| | 울폐도 | 교목층 90% 이상 | | |
| | 조림목 외 | 신갈나무, 밤나무, 아카시, 물푸레 등 단목 혼효 | | |
| | 활 령 | 대부분 양호 | | |
| | 형 질 | 불량목 많음 | | |
| 경 급 | 전나무보다 큼 | | | |
| 수 고 | 전나무보다 큼 | | | |
| 아교목층 | 밤나무, 신갈, 산벚 등 분포하나 피도 10% 이내 | | | |
| 관목층 | 적음 | | | |
| 초본층 | 매우 빈약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입목밀도가 높고 전나무가 활엽수에 피압되어 있음으로 시급히 숲아베기작업 필요 | | |
| | 목표임형 | 전나무 단층림 | | |
| | 목표수종 | 전나무 | | |
| | 관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층의 활엽수 제거. 전나무 밀도조절 · 전나무 가지치기 · 하층식생 최대한 존치 | | |

| No. 12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239 |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04년(제21회) | | |
| | 조림수종 | 잣나무(7년생), 주목 (8년생) | | |
| | 식재본수 | 3,000본 | | |
| | 사업이력 | 2004~2008년 풀베기, 2009년 덩굴제거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사업지 하단부에 위치, 가옥을 통과하여 접근 | | |
| | 조림면적 | 잣나무 1.10ha 주목 0.20ha | | |
| | 입목축적 | 본수 | 2,958본(2,275본/ha). 잣나무 1,235본(950본/ha), 주목 423본(211본/ha) | |
| | | 재적 | 141m ³ (108m ³ /ha). 잣나무 88m ³ (68m ³ /ha) | |
| | 조림목 | 잣나무, 주목 | | |
| | 분포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나무와 주목이 군상으로 분포 · 조림목과 활엽수가 혼효되어 생육경쟁하고 있음 · 조림지 주변은 백합나무 생육 | | |
| | 임 령 | 24년 (잣나무 파종부터) | | |
| | 활 령 | 편차 심함. 전체적으로는 보통 이상 | | |
| | 형 질 | 양호한 개체, 불량한 개체 혼생, 전체적으로는 보통 | | |
| | 경 급 | 2~18cm까지 다양, 평균 10cm | | |
| | 수 고 | 2~11m까지 다양, 평균 8m | | |
| | 울폐도 | 교목층 90% 이상 | | |
| | 조림목 외 | 참나무류, 밤나무 | | |
| | 활 령 | 대부분 양호 | | |
| | 형 질 | 대부분 불량 | | |
| 경 급 | 조림목과 비슷함 | | | |
| 수 고 | 조림목과 비슷하여 수고 경쟁 중. 주목은 피압됨 | | | |
| 아교목층 | 조림목 수고가 낮아 아교목층 빈약 피도 10% 이내 | | | |
| 관목층 | 작살, 생강, 산초 등으로 피도 20% | | | |
| 초본층 | 둥굴레, 새류, 사초 등으로 피도 10%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조림목과 경쟁하는 활엽수를 제거하면 조림성공지로 유지 가능함으로 숲아베기작업 시급 | | |
| | 목표임형 | 잣나무, 주목 수평적 군상 혼효림 | | |
| | 목표수종 | 잣나무, 주목 | | |
| | 관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나무 군생지는 자연발생 활엽수 제거와 고사지 제거 · 주목군생지는 상층에 있는 활엽수를 모두 제거 · 주목에 피해를 주고 있는 칩덩굴 지속적으로 제거 필요 | | |

| No. 13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산6 |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09년(제26회) | | |
| | 조림수종 | 잣나무(7년생) | | |
| | 식재본수 | 5,000본 | | |
| | 사업이력 | 2009~2013년 풀베기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1개소 | | |
| | 조림면적 | 잣나무 3.0ha | | |
| | 입목축적 | 본수 | 2,280본(1,649본/ha). 잣나무 1,848본(1,400본/ha) | |
| | | 재적 | 74m ³ (55m ³ /ha). 잣나무 62m ³ (47m ³ /ha) | |
| | 조림목 | 잣나무 | | |
| | 분포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나무 규칙적으로 분포 · 조림목과 활엽수가 혼효되어 생육경쟁하고 있음 · 잣나무 조림지 주변은 소나무와 낙엽송 조림지 | | |
| | 임 령 | 19년 (잣나무 파종부터) | | |
| | 활 령 |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 | | |
| | 형 질 | 대부분 양호 | | |
| | 경 급 | 6~14cm, 평균 10cm | | |
| | 수 고 | 6~9m, 평균 7m | | |
| | 울폐도 | 교목층 80% 이상 | | |
| | 조림목 외 | 참나무류, 밤나무 | | |
| | 활 령 | 보통 | | |
| | 형 질 | 불량 | | |
| | 경 급 | 조림목보다 약간 작음 | | |
| | 수 고 | 조림목보다 약간 낮으나 추후 수고경쟁 예상 | | |
| 아교목층 | 아교목층 빈약, 피도 10% 내외. 잣나무 소생지 밀생 | | | |
| 관목층 | 생강, 산초 등, 피도 10% 내외 | | | |
| 초본층 | 거의 없음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목과 경쟁하는 활엽수 시급히 제거 필요 · 잣나무 밀생지는 일부 형질불량목 제거 필요 | | |
| | 목표임형 | 잣나무 단순림 | |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 | 관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잣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자연발생 활엽수 제거 · 잣나무 가지치기 실시 · 숲아베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유령림단계)작업 실행 | | |

| No. 14 | 위 치 | 경기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2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0년(제27회) | |
| | 조림수종 | 잣나무 (7년생). | |
| | 식재본수 | 6,200본. 현장 안내판 (4,500본) | |
| | 사업이력 | 2010~2014년 풀베기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있음 | |
| | 조림면적 | 2.00ha | |
| | 조림목 | 잣나무 | |
| | 분포형태 | 전 지역에 고루 분포 | |
| | 임 령 | 18년 (파종부터) | |
| | 활 령 | 자연발생 활엽수와 경쟁이 심하여 활력 보통 | |
| | 형 질 | 잣나무 군생지 양호. 혼생지는 보통 | |
| | 경 급 | 2-12cm, 평균 8cm | |
| | 수 고 | 2-8m, 평균 5m | |
| | 입목 분수 | 4,032본 (2,016본/ha) | |
| | 울폐도 | 교목층 전체 100% (잣나무 70% 이상) | |
| | 조림목 외 | 밤나무, 신갈나무, 아카시, 물푸레 등. 단목 혼효 | |
| | 활 령 | 보통 | |
| | 형 질 | 보통 | |
| | 경 급 | 잣나무 비슷함, 벌채당시 남겨놓은 점상 분포 | |
| | 수 고 | 잣나무 비슷함 | |
| | 입목 분수 | 1,500본 (750본/ha) | |
| 아교목층 | 밤나무, 신갈, 물푸레 등 분포하나 피도 10% | | |
| 관목층 | 산철쭉 등 피도 10% | | |
| 초본층 | 매우 적음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자연발생 한 활엽수와 잣나무가 수관경쟁이 심하므로 시급히 어린나무가꾸기작업 필요 | |
| | 목표임형 | 잣나무 단층림 |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 관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활엽수 모두 제거 · 조림목은 형질이 극히 불량한 개체만 제거 · 잣나무 ha당 500본 가지치기 실시 | |

| No. 15 | | 위 치 | | 경기도 여주시 하거동 산5-1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1년(제28회) | | | |
| | 조림수종 | 백합나무(2년생), 소나무 (4년생) | | | |
| | 식재본수 | 8,000본 | | | |
| | 사업이력 | 2011~2014년 풀베기, 2020년 어린나무가꾸기 |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2개소가 있으며 농로주변에 위치하여 접근하기 용이 | | | |
| | 조림면적 | 2.50ha (백합 2.40ha, 소나무 0.10ha) | | | |
| | 입목축적 | 본수 | 3,091본(1,288본/ha). 백합 2,779본(1,158본/ha) | | |
| | | 재적 | 194m ³ (81m ³ /ha). 백합 172m ³ (71m ³ /ha) | | |
| | 조림목 | 백합나무, 소나무 | | | |
| | 분포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지역 균일하게 분포 · 작업시 하층 모두 제거하여 맹아 발생 중 · 주변도 대 면적 백합나무 조림지 | | | |
| | 임 령 | 12년 (백합, 파종부터) | | | |
| | 활 령 | 백합나무 양호. 소나무는 활엽수에 피압 | | | |
| | 형 질 | 양호 | | | |
| | 경 급 | 2~24cm까지 다양하고 편차 심함 | | | |
| | 수 고 | 5~15m까지 다양 | | | |
| | 울폐도 | 교목층 80% 이상 | | | |
| | 조림목 외 | 밤나무, 참나무류 소량 분포 | | | |
| 활 령 | - | | | | |
| 형 질 | - | | | | |
| 경 급 | - | | | | |
| 수 고 | - | | | | |
| 아교목층 | - | | | | |
| 관목층 | 아까시, 참나무류, 산초 맹아 피도 40% | | | | |
| 초본층 | 매우 빈약 |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합나무는 더 이상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유지가능 · 소나무는 빠른 시일 내에 어린나무가꾸기작업 필요 | | | |
| | 목표임형 | 백합나무, 소나무 수평적 군상 혼효림 | | | |
| | 목표수종 | 백합나무, 소나무 | | | |
| | 관리방법 | 소나무는 어린나무가꾸기(유령림단계) 시행하고 가지치기 50% 이상 실시 | | | |

| No. 16 | | 위 치 | |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2년(제29회) | | |
| | 조림수종 | 소나무 (3년생) | | |
| | 식재본수 | 8,600본 | | |
| | 사업이력 | 2012~2014년 풀베기 | |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가옥 뒤편에 위치함. 상태 불량 | | |
| | 조림면적 | 2.60ha | | |
| | 입목축적 | 본수 | 5,798본(2,230본/ha). 잔존 리기다소나무 제외 | |
| | | 재적 | 197m ³ (75m ³ /ha) | |
| | 조림목 | 소나무 | | |
| | 분포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 단순림으로 전 지역 균일하게 분포 · 주변의 조림지는 백합나무 조림지임 · 벌채 시 남겨놓았던 리기다소나무 소량 분포 | | |
| | 임 령 | 12년 (파종부터) | | |
| | 활 령 | 밀생되어 고사지 많으나 활력은 양호. | | |
| | 형 질 | H/D값 낮음. 최근에 정상적인 수고성장 중 | | |
| | 경 급 | 6~16cm, 평균 12cm | | |
| | 수 고 | 5~8m, 평균 6m | | |
| | 울폐도 | 90% 이상 | | |
| | 조림목 외 | 아까시, 밤나무 소량 하층에 분포 | | |
| 활 령 | - | | | |
| 형 질 | - | | | |
| 경 급 | - | | | |
| 수 고 | - | | | |
| 아교목층 | - | | | |
| 관목층 | 아까시, 밤나무 등. 피도 10% 미만 | | | |
| 초본층 | 매우 빈약 | |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소나무 임목밀도 높고 고사지 많음. 최근 들어 정상적인 수고 중에 있어 밀생된 상태로 유지 필요 | | |
| | 목표임형 | 소나무 단층림 | | |
| | 목표수종 | 소나무 | | |
| | 관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사지를 정리하지 아니하고는 임내 접근 곤란 · 솎아베기 하면 수고생장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임내소개 및 통풍 필요 · 어린나무가꾸기(유령림단계) 시행하되 소나무 제거본수 최소화하고 가지치기 50% 이상 실시 | | |

| No. 17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16번지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3년(제30회) |
| | 조림수종 | 잣나무 (6년생) |
| | 식재본수 | 8,000본 |
| | 사업이력 | 2014년 풀베기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있음 (2개소) |
| | 조림면적 | 2.60ha |
| | 조림목 | 잣나무 |
| | 분포형태 | 잣나무가 전면적 균일 분포하나 조림목 중 일부 고사 |
| | 임 령 | 14년 (파종부터) |
| | 활 령 | 보통이하 |
| | 형 질 | 보통 |
| | 경 급 | 2-8cm, 평균 8cm |
| | 수 고 | 2-5m, 평균 5m |
| | 입목본수 | 6,266본 (2,410본/ha) |
| | 울폐도 | 조림목 생육층 70% |
| | 조림목 외 | 밤나무, 신갈나무, 굴참 등. 상층 잔존 소나무 |
| | 활 령 | 대부분 보통-양호 |
| | 형 질 | 대부분 불량 |
| | 경 급 | 대부분 잣나무와 동일하거나 일부 큼 |
| | 수 고 | 대부분 잣나무와 동일하거나 일부 큼 |
| | 입목 분수 | 1,040본 (400본/ha) |
| | 아교목층 | 밤나무, 신갈 등 분포하나 피도 10% |
| | 관목층 | 국수나무, 밤나무 등 피도 10% |
| | 초본층 | 매우 적음 |
| 관리방안 | 시급성 | 입목밀도가 높고 맹아목인 활엽수가 혼효하고 있음으로 시급히 어린나무가꾸기작업 필요 |
| | 목표임형 | 잣나무 단층림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관리방법 | · 잣나무생장 방해하는 활엽수 제거 · 상층을 이루고 있는 잔존 소나무는 잣나무 수확시까지 유지시킴 |

| No. 18 |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산120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4년(제31회) |
| | 조림수종 | 잣나무 (5년생) |
| | 식재본수 | 13,000본 |
| | 사업이력 | 2014~2017년 풀베기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있음 (2개소) |
| | 조림면적 | 4.20ha (묘지 등 미입목지 제외) |
| | 조림목 | 잣나무 |
| | 분포형태 | 잣나무가 전면적 분포하나 불규칙하게 분포 |
| | 임 령 | 12년 (파종부터) |
| | 활 령 | 보통 |
| | 형 질 | 양호 |
| | 경 급 | 2-8cm, 평균 6cm |
| | 수 고 | 1-7m, 평균 4m |
| | 입목본수 | 6,678본 (1,590본/ha) |
| | 울폐도 | 전체 100% |
| | 조림목 외 | 밤나무, 참나무류, 산벚,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
| | 활 령 | 대부분 양호 |
| | 형 질 | 대부분 보통 |
| | 경 급 | 잣나무보다 작음 |
| | 수 고 | 대부분 잣나무와 동일하거나 일부 큼 |
| | 입목 분수 | 7,938본 (1,890본/ha) |
| | 아교목층 | |
| | 관목층 | 산초, 두릅 등 피도 50% |
| | 초본층 | 매우 적음 |
| 관리방안 | 시급성 | 자연발생 활엽수의 수고가 잣나무보다 높아 조림목이 지장을 받고 있음으로 시급히 어린나무 가꾸기작업 필요 |
| | 목표임형 | 잣나무 단층림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관리방법 | · 잣나무 수고의 70% 이상인 활엽수 제거 · 자연발생 소나무는 남김 · 자연발생 리기다소나무는 밀생지 솜아내기 |

| No. 19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7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5년(제32회) |
| | 조림수종 | 잣나무 (5년생) |
| | 식재본수 | 9,000본 (3.00ha) |
| | 사업이력 | 2016~2018년 풀베기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1개소(261194/555648) |
| | 조림면적 | 3.2ha |
| | 조림목 | 잣나무 |
| | 분포형태 | 잣나무가 전면적 고르게 분포 |
| | 임 령 | 12년 (파종부터) |
| | 활 령 | 양호 |
| | 형 질 | 양호 |
| | 경 급 | 2-6cm, 평균 4cm |
| | 수 고 | 1-4m, 평균 3m |
| | 입목본수 | 잣나무 4,760본 (1,488본/ha) - 유사수종(소나무) 포함 |
| | 울폐도 | 잣나무 70% |
| | 조림목 외 | 밤나무, 참나무류 |
| | 활 령 | |
| | 형 질 | |
| | 경 급 | 잣나무보다 작음 |
| | 수 고 | 잣나무와 동일하거나 작음 |
| | 입목 분수 | 2,720본 (850본/ha) |
| | 아교목층 | |
| | 관목층 | 산초, 두릅 쪽동백 등 피복도 50% |
| | 초본층 | 억새가 분포하는 지역 이외에는 초본층 피도 낮음 |
| 관리방안 | 시급성 | 활엽수 맹아 수고가 잣나무보다 높진 않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단계) 작업 필요 |
| | 목표임형 | 잣나무 단층림 |
| | 목표수종 | 잣나무 |
| | 관리방법 | · 잣나무 수고의 70% 이상인 활엽수와 덩굴제거 필요 · 소나무 천연치수는 잣나무와 함께 보육 |

| No. 20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산174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6년(제33회) |
| | 조림수종 | 전나무(6년생) |
| | 식재본수 | 9,000본 |
| | 사업이력 | 2016~2018년 풀베기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농로주변에 위치하며 명찰 일부가 떨어짐 |
| | 조림면적 | 전나무: 3.00ha (9,000본을 기준으로 임의 계획) |
| | 분포형태 | · 산록부는 활착 양호, 산복부는 활착률 낮음 · 전나무가 활엽수에 피압 됨 |
| | 임 령 | 11년 (파종부터) |
| | 생육상태 | 2019년 이후 조림지관리가 되지 않아 피압된 조림목이 많으며 산록부는 양호, 산복부는 불량함 |
| | 경 급 | 1~4cm |
| | 수 고 | 0.3~3.0m |
| | 조림목 분수 | 1,838본/ha 총 분수: 5,513본으로 당초 식재본수 9,000본 대비 활착률은 61% |
| | 관리상태 | 2019년 이후 사후관리하지 않아 조림목이 생장에 지장을 받고 있음 |
| | 관리방안 | 시급성 |
| 관리방법 | | 조림목이 고사한 빈 공간이 많음으로 조림목이 없는 지역은 리기다소나무를 전나무와 같이 키워 임목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No. 21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95번지의 2필지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7년(제34회) |
| | 조림수종 | 전나무(5년생), 화목류 |
| | 조림면적 | 2.50ha(수원관리소 풀베기 사업면적 기준) |
| | 식재본수 | 8,000본 |
| | 사업이력 | 2017~2021년 풀베기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조림지 하단부에 위치, 상태 양호 |
| | 조림면적 | · 전나무: 1.80ha · 화목류: 0.20ha (수종: 돌배, 산수유, 산벚, 이팝, 애기사과) 합계 면적: 2.00ha |
| | 분포형태 | · 전나무는 구획면적에 균일하게 분포. 일부는 수하식재 형태이나 생장 동일함 · 화목류는 작업로변에 2열 또는 소군상 식재 |
| | 임 령 | 6년 (식재부터) |
| | 생육상태 | 8월 첫째 주 풀베기작업 실시하였으나 전나무 활착률은 양호함. 일부 피압목은 생육 불량 |
| | 경 급 | 전나무(1~4cm), 화목류((2~8cm) |
| | 수 고 | 전나무(0.5~2.0m), 화목류(1-4m) |
| | 조림목 본수 | · 전나무: 4,522본 (2,512본/ha) · 화목류: 약 200본 (50% 정도는 돌배) 총 본수: 4,722본 |
| 관리상태 | 풀베기사업을 연 1회 시행하였으며 일부는 덩굴이나 맹아에 피압되어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전나무 생육상태 대부분 양호하나 칩덩굴과 맹아발달이 왕성하여 2022년에도 풀베기 및 덩굴제거 작업 필요 |
| | 관리방법 | · 전나무 식재지역은 추가 풀베기작업 필요 · 2022년에는 풀베기 작업시기를 7월초에 실시 · 칩덩굴과 환삼덩굴 발생이 심하여 덩굴제거 필요 |

| No. 22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140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9년(제36회) |
| | 조림수종 | 전나무, 팔배, 돌배, 졸참, 산사나무 |
| | 조림면적 | 2.50ha(수원관리소 풀베기 사업면적 기준) |
| | 식재본수 | 8,000본 |
| | 사업이력 | 2019~2021년 풀베기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조림지 능선부에 위치, 상태 양호 |
| | 조림면적 | · 전나무: 1.20ha · 애기사과(삼엽해당): 0.30ha - 수종 상이함 · 돌배나무: 0.15ha · 졸참나무: 0.10ha · 산사나무: 0.05ha 합계 면적: 1.80ha |
| | 분포형태 | · 전나무는 산복 이상의 지역에 분포 · 나머지 수종은 소면적으로 불규칙하게 분포 · 조림구역 내 큰나무(소나무, 메타 등)이 산재 |
| | 임 령 | 3년 (식재부터) |
| | 생육상태 | 풀베기 시기가 늦어져 생장에 영향이 있으나 전나무활착률은 양호함. 나머지 수종은 활착률 낮음 |
| | 경 급 | 1~3cm |
| | 수 고 | 0.3~2.0m |
| | 조림목 본수 | · 전나무: 3,270본 (2,725본/ha) · 애기사과(삼엽해당): 285본 · 돌배나무: 428본 · 졸참나무: 130본 · 산사나무: 50본 총 본수: 4,163본 |
| 관리상태 | 풀베기사업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나 작업시기가 늦어 조림목이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
| 관리방안 | 시급성 | 전나무 묘목의 수고가 낮고 맹아와 초본류의 발달이 왕성함으로 풀베기작업 지속 필요 |
| | 관리방법 | · 전나무 식재지역은 2년 이상 풀베기작업 필요 · 풀베기 작업시기를 5월말~6월초에 1회 실시하고 7월말~8월초 2회 실시 필요. · 산록부는 덩굴과 맹아발생이 왕성함으로 필요시 연간 3회 풀베기도 검토 필요 |

| No. 23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95번지의 2필지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20년(제37회) |
| | 조림수종 | 전나무(7년생) |
| | 조림면적 | 2.67ha |
| | 식재본수 | 8,000본 (2020년 3,600본, 2021년 4,400본) |
| | 사업이력 | 2021년 풀베기 1회 ~ 2회 실시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조림지 하단부에 위치, 상태 양호 |
| | 조림면적 | - 전나무 2.67ha (2020년 1.20ha, 2021년 1.47ha) |
| | 분포형태 | - 2020년 추기와 2021년 춘기에 식재 1.8m x 1.8m 정방형 식재. 전면적 균일하게 분포 |
| | 임 령 | 8년 (식재부터) |
| | 생육상태 | 보식된 묘목을 제외하고는 활착률 다소 저조 |
| | 경 급 | - |
| | 수 고 | 0.3~0.7m |
| | 조림목 본수 | 전나무: 8,000본 (3,000본/ha) |
| | 관리상태 | · 2020년 조림지에 1,000본 보식 · 2020년 추기 조림지 1.20ha는 2회 풀베기 실시. · 2021년 춘기 조림지 1.47ha는 1회 풀베기 실시하였으며 조림목 생장에 지장이 없음. 다만, 묘목상태 불량으로 활착률이 다소 낮음 |
| | 관리방안 | 시급성 |
| 관리방법 | | · 2022년에 보식 필요 · 2022년에 풀베기 2회 및 덩굴제거 작업 필요 |

| No. 24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191-3번지의 3필지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21년(제38회) |
| | 조림수종 | 소나무(2년생), 낙엽송(2년생) |
| | 조림면적 | 8.53ha (소나무 5.33ha, 낙엽송 3.20ha) |
| | 식재본수 | 36,200본 (소나무 26,600본, 낙엽송 9,600본) |
| | 사업이력 | 2021년 풀베기 1회 실시 |
| 산림조사 결과 | 안내판 | 조림지 구역 내 없음 |
| | 조림면적 | 8.53ha (소나무 5.33ha, 낙엽송 3.20ha) |
| | 분포형태 | 평탄지와 계곡부에는 낙엽송, 사면부와 소 능선에는 소나무가 군상으로 분포 |
| | 임 령 | 2년 (식재부터) |
| | 생육상태 | 소나무는 양호. 낙엽송은 대부분 양호하나 식재시기가 늦었던 일부지역은 고사목 많음 |
| | 경 급 | - |
| | 수 고 | - |
| | 조림목 본수 | 34,138본 (소나무 25,850본, 낙엽송 8,288본) |
| | 관리상태 | 풀베기사업을 1회 시행(8월말 완료)하였으며 관리상태 양호함 |
| | 관리방안 | 시급성 |
| 관리방법 | | · 풀베기작업은 2022년 6월하순과 8월초순에 시행 · 침덩굴제거작업은 2022년 7월초순에 시행하되 낙엽송 조림지 뿌리제거 필요 |

부록12 전국 나무심기 식재지 현장조사 보고서

◎ 조사목적

- 사업대상지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조림지별 환경성과 연구 기초조사

◎ 조사대상 개요

- 1985년 ~ 2021년까지 진행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업 대상지 중 16곳
- '생명의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중 5ha 면적 이상의 대상지 12곳
- '산림자원조성사업' 대상지 중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업으로 식재된 조림목 확인 가능 대상지 4곳

◎ 조사기간

2022년 6월 ~ 8월

◎ 수행기관

생명의숲

◎ 조사항목

대상지 위치, 대상지 보전 현황, 대상지 관리 현황, 조림목 성장 현황 등

◎ 조사대상지

| 사업연도 | 소재지 | 면적(ha) | 식재본수 | 조림수종 | |
|------|------------|------------------------|------|---------|-------|
| 1 | 2010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리 산1-1 | 16.5 | 49,500 | 소나무 |
| 2 | 2010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산88 | 6.0 | 18,000 | 편백 등 |
| 3 | 2013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산97 | 12.0 | 36,000 | 편백 등 |
| 4 | 2011 | 경기 여주시 상거동 산11-1 | 19.0 | 51,200 | 소나무 등 |
| 5 | 2010, 2012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 22.1 | 58,350 | 소나무 |
| 6 | 2011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236-211 | 10.0 | 30,000 | 소나무 |
| 7 | 2010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5-1 | 11.0 | 24,500 | 백합 등 |
| 8 | 2012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3-1 | 15.7 | 40,250 | 백합 등 |
| 9 | 2011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34-41 | 5.0 | 15,000 | 소나무 |
| 10 | 2011 |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산5-1 | 10.0 | 30,000 | 소나무 |
| 11 | 1988-1999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 56.9 | 169,500 | 잣나무 등 |
| 12 | 2013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산1-1 등 | 10.0 | 16,500 | 편백 등 |
| 13 | 1987-1992 |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3-1 | 49.5 | 270,000 | 자작나무 |
| 14 | 1991 | 경남 거제시 삼거동 산1-1 | 9.9 | 30,000 | 편백 |
| 15 | 1986-1990 | 경남 거제시 삼거동 산162 | 43.6 | 144,000 | 편백 등 |
| 16 | 2011 |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 | 9.0 | 22,500 | 굴거리 등 |

◎ 현장조사결과

| No. 1 | 위 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리 산1-1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0년 |
| | 조림수종 | 소나무 |
| | 식재본수 | 49,500본 |
| | 조림면적 | 16.50ha |
| | 조림 목적 | 우량 소나무숲 복원, 경관 향상 |
| 조사결과 | 조림지 특성 | 우량 대경재 생산 |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곳의 표준지(10m x 10m)의 조림목 상태를 조사하였음. · 첫 번째 표준지의 경우 잔존본수는 36본, 평균 수고는 5-6m, 흉고 직경은 4-6cm였으며, 맹아로 올라온 참나무 류가 조림목과 비슷한 수고로 자라고 있음. · 두 번째 표준지의 경우 잔존본수는 48본, 평균 수고는 7-8m, 흉고직경은 6-8cm였으며, 참나무 및 하층식생이 많지 않았음. · 활착 및 생존률은 두 표준지 모두 100m² 당 30본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 No. 2 | 위 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산88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0년 |
| | 조림수종 | 편백, 황칠나무, 종가시나무 |
| | 식재본수 | 18,000본 |
| | 조림면적 | 6.00ha |
| | 조림 목적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경영림 조성 |
| 조사결과 | 조림지 특성 | 리기다소나무 갱신 조림지, 간벌 후 수하식재 |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백조림지 대상 10m x 1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 40본, 평균수고 5-6m, 평균 흉고직경 8cm로 조사되었음. · 조림 12년 경과 지역으로 편백 조림지의 편백 생육 상태는 양호함. 황칠나무, 종가시나무 혼식 조림지의 경우 황칠 나무는 많이 고사하였으나, 종가시나무는 비교적 잘 자라고 있음. |

| No. 3 | 위 치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산97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3년 |
| | 조림수종 | 편백, 동백, 후박나무, 황칠나무, 가시나무 |
| | 식재본수 | 36,000본 |
| | 조림면적 | 12.00ha |
| | 조림 목적 | 우량목재 자원공급 기반 조성, 생태적으로 건전한 경관 조성 |
| | 조림지 특성 | 리기다소나무 갯신 조림지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박나무 조림지를 대상으로 5m x 20m 표준지 조사를 하였으며, 잔존본수 32본, 평균 수고 3-4m, 평균 흉고직경 2-3cm 었음. 2013년 조림 당시 남겨 두었던 리기다소나무와 혼효상태로 자라고 있음. | |

| No. 6 | 위 치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236-211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1년 |
| | 조림수종 | 소나무 |
| | 식재본수 | 30,000본 |
| | 조림면적 | 10.00ha |
| | 조림 목적 | 소나무 경제수 단지 조성 |
| | 조림지 특성 | 소나무 벌채 갯신지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m x 1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 15본, 평균 수고 10m, 평균 흉고직경 12cm 었음. 2020년 홍수 피해가 심해 2021년에 사방사업을 진행한 지역임. 잔존목의 생존 상태는 양호하며, 수형도 좋은 편임. | |

| No. 4 | 위 치 | 경기 여주시 상거동 산11-1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1년 |
| | 조림수종 | 소나무 용기묘, 소나무 대묘, 복자기나무, 이팝나무, 산벚나무, 때죽나무, 쉬나무, 단풍나무, 산수유나무 |
| | 식재본수 | 51,200본 |
| | 조림면적 | 19.00ha |
| | 조림 목적 | 고속도로변 경관림, 목재생산림 조성 |
| | 조림지 특성 |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벌채지, 갯신조림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나무 조림지를 대상으로 10m x 1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는 20본, 평균 수고는 8-10m, 평균 흉고직경은 4-6cm 었음.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자라고 있으나 일부 사면부가 침으로 뒤덮임. 덩굴 제거 등 어린나무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임. | |

| No. 7 | 위 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산15-1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0년 |
| | 조림수종 |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
| | 식재본수 | 24,500본 |
| | 조림면적 | 11.00ha |
| | 조림 목적 | 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목재생산림 육성 |
| | 조림지 특성 | 소나무 및 불량활엽수 갯신지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합나무 조림지를 대상으로 10m x 1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 8본, 평균 수고 10-12m, 평균 흉고직경 12-24cm 었음. 백합나무 조림목의 생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고사목이 많아 생존본수가 적으며, 상수리나무 조림지는 조림실패지로 판단할 수 있음. | |

| No. 5 | 위 치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0년, 2012년 |
| | 조림수종 | 소나무 |
| | 식재본수 | 58,350본 |
| | 조림면적 | 22.10ha |
| | 조림 목적 | 조림을 통한 소나무숲 복원 및 경관 조성 |
| | 조림지 특성 | 소나무 및 불량 활엽수 갯신지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m x 1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 39본, 평균 수고 10m, 평균 흉고직경 8cm 었음. 잔존본수는 조림목 외에도 천연치수를 포함하였음. 조림목의 생존 상태는 양호하며, 수형도 좋은 편임. | |

| No. 8 | 위 치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3-1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2년 |
| | 조림수종 | 소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
| | 식재본수 | 40,250본 |
| | 조림면적 | 15.70ha |
| | 조림 목적 | 산림 복원 및 유지를 통한 지역경관 증진과 문화적 정체성 증진 |
| | 조림지 특성 | -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합나무 조림지를 대상으로 10m x 1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 25본, 평균 수고 12-14m, 평균 흉고직경 20cm 었음. 조림목의 생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음. | |

| No. 9 | 위 치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34-41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1년 |
| | 조림수종 | 소나무 |
| | 식재본수 | 15,000 |
| | 조림면적 | 5.00ha |
| | 조림 목적 | 우량 소나무림 복원 |
| | 조림지 특성 | 리기다소나무 벌채지 갱신 조림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m x 1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 32본, 평균 수고 4m, 평균 흉고직경 6-10m 었음.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주변에 천연치수인 소나무도 함께 생육하고 있음. | |

| No. 12 |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산1-1 등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3년 |
| | 조림수종 | 소나무, 편백, 전나무 |
| | 식재본수 | 16,500본 |
| | 조림면적 | 10.00ha |
| | 조림 목적 | 태풍피해지 복원 |
| | 조림지 특성 | 연구 목적의 학술림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대학교 학술림으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곳에 식재하여, 조림지가 흩어져 있음. 소나무 조림목은 대부분 아까시나무에 의해 피압을 받아 고사한 상태임. 수하식재한 편백은 생육상태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생존율은 높음 것으로 판단됨. | |

| No. 10 | 위 치 |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산5-1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1 |
| | 조림수종 | 소나무 |
| | 식재본수 | 30,000 |
| | 조림면적 | 10.00 |
| | 조림 목적 | 우량 소나무림 복원 |
| | 조림지 특성 | 형질 불량 소경재림 벌채지 갱신 조림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m x 1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는 24본, 평균 수고는 4-6m, 흉고직경은 10-18cm 었음. 침당굴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약 50% 정도의 조림목이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생존하고 있는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임. | |

| No. 13 | 위 치 |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23-1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87년 - 1992년 |
| | 조림수종 | 자작나무 |
| | 식재본수 | 270,000본 |
| | 조림면적 | 49.50ha |
| | 조림 목적 | 산림자원 조성 |
| | 조림지 특성 | 산림조합중앙회 회유림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m x 1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 8본, 평균 수고 15m, 평균 흉고직경 18-22cm 었음. 자작나무의 생존 본수와 성장 정도는 사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임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건조한 지역보다 계곡 이 있는 지역의 자작나무 생장이 좋았음. | |

| No. 11 | 위 치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88년 - 1999년 |
| | 조림수종 | 잣나무, 느티나무, 구상나무 |
| | 식재본수 | 169,500본 |
| | 조림면적 | 56.93ha |
| | 조림 목적 | 산림자원 조성 |
| | 조림지 특성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2년 제8회 신혼부부 나무심기 때 식재한 잣나무 7년생 대묘는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오래된 잣나무 식재지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었을 확률이 높으며, 수종갱신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

| No. 14 | 위 치 | 경남 거제시 삼거동 산1-1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91년 |
| | 조림수종 | 편백 |
| | 식재본수 | 30,000 |
| | 조림면적 | 9.90ha |
| | 조림 목적 | 산림자원 조성 |
| | 조림지 특성 | 산림청 관리 국유림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m x 2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는 17본, 평균 수고는 18-20m, 흉고직경은 26-42cm 었음. 생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아 조림 이후 숲가꾸기 등의 관리가 잘 된 것으로 판단됨. 수확 간벌 2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

부록13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인쇄광고 모음

*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인쇄광고는 오랜 기간 캠페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담은 실증 자료입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내용을 별도로 작성했으며, 표현방식 및 수치 오류 등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없이 작성했습니다.

1984년 4월



Head Copy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크리넥스 티슈와 함께 나무 100만 그루를 조림합니다.

Body Copy 보다 살기좋은 환경, 보다 풍요한 산림자원을 이룩하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저희 유한킴벌리는 1984년 8월부터 여러분이 구입하신 크리넥스 티슈 매출액중에서 나무 100만 그루를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 중앙회에 기증하여 조림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시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크리넥스 티슈와 함께 우리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가꿉시다.

| No. 15 | 위 치 | 경남 거제시 삼거동 산162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1986년 - 1990년 |
| | 조림수종 | 편백, 상수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
| | 식재본수 | 144,000본 |
| | 조림면적 | 43.56ha |
| | 조림 목적 | 산림자원 조성 |
| 조림지 특성 | - |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백 조림지를 대상으로 20m x 20m 표준지 조사 결과 잔존본수 10본, 평균 수고 15-16m, 평균 흉고직경 36cm 였음. 상수리나무는 조림 이후 많이 고사하여, 해당 임지에 백합나무를 재조림함. 스트로브잣나무의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림 이후 고사한 것으로 판단됨. 편백 조림목의 생육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했음. | |

| No. 16 | 위 치 |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 |
|--------|---|-------------------------|
| 기본정보 | 조림년도 | 2011년 |
| | 조림수종 | 굴거리나무, 동백,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
| | 식재본수 | 13,500본 |
| | 조림면적 | 9.00ha |
| | 조림 목적 | 난대수종의 생존 여부 시험 |
| 조림지 특성 | - |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백, 붉가시나무, 굴거리나무 등 난대수종의 조림지는 소나무 등 기존 수목과 함께 혼효림을 구성하고 있으며, 생육상태도 양호한 편임. 이 지역에 충남도에서도 추가로 난대수종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안면도 휴양림 입구 부근의 소나무식재지와 시민참여 나무심기 사업지의 소나무 조림목들은 생육상태가 양호하였음. | |

1984년 10월



Head Copy 연기로 사라지는 아까운 숲! 회복하는데엔 몇십년이 걸립니다.

Body Copy 산불! 산불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부주의들 때문에 해마다 상당한 넓이의 산림이 불타 없어집니다. 몇십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중한 나무! 심는 것 못지않게 가꾸고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산불방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크리넥스 티슈 애용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시는 크리넥스 티슈 값의 일부는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 중앙회에 기증되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계속 보람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 8월



Head Copy 다음 세대는 홍수, 가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Body Copy 지금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꿔야겠습니다.

산, 산, 산마다 나무가 울창하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의 재산이자 보호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 풍요한 땅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꿔야겠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차 100만그루 조림에 협조해 주시는 크리넥스 애용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985년 10월



Head Copy 산에 가시면, 그 나무들을 기르는데에 몇십년이 걸렸다는걸 생각하십시오.

Body Copy 산불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20년, 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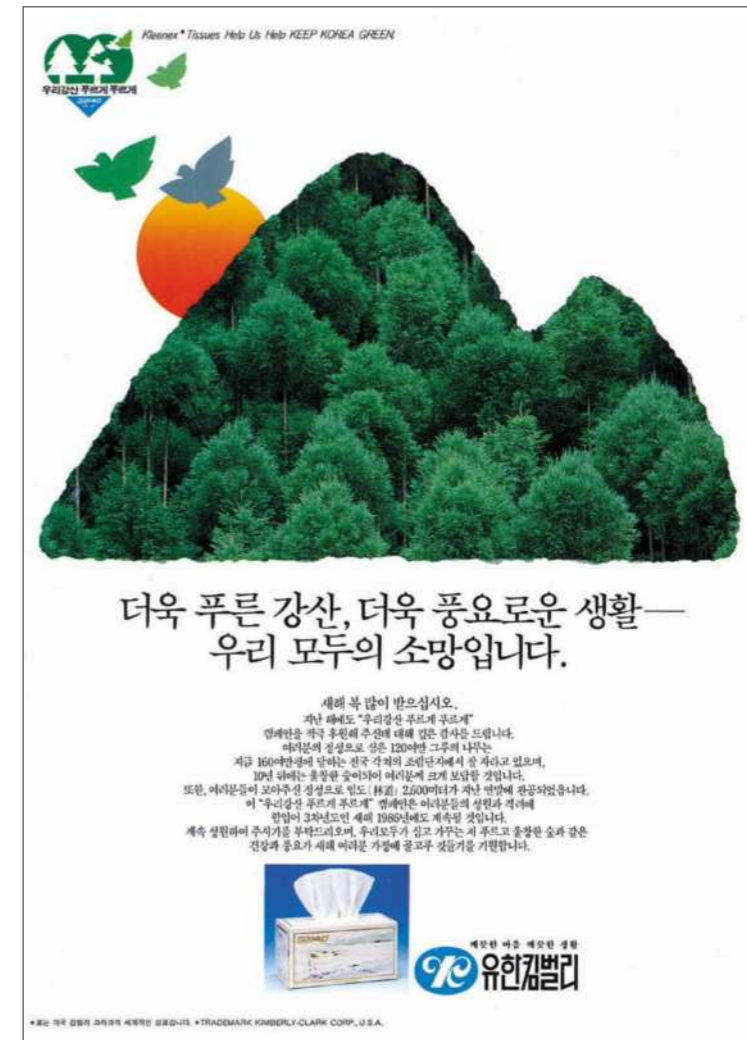
오랜세월 공든탑이 순간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무너져서야!

나무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 - 심는것 못지않게, 사랑으로 가꾸고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다 살기좋은 환경, 풍요한 내일을 위해,

산불을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1986년 1월



Head Copy 더욱 푸른 강산, 더욱 풍요로운 생활 -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Body Copy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에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적극 후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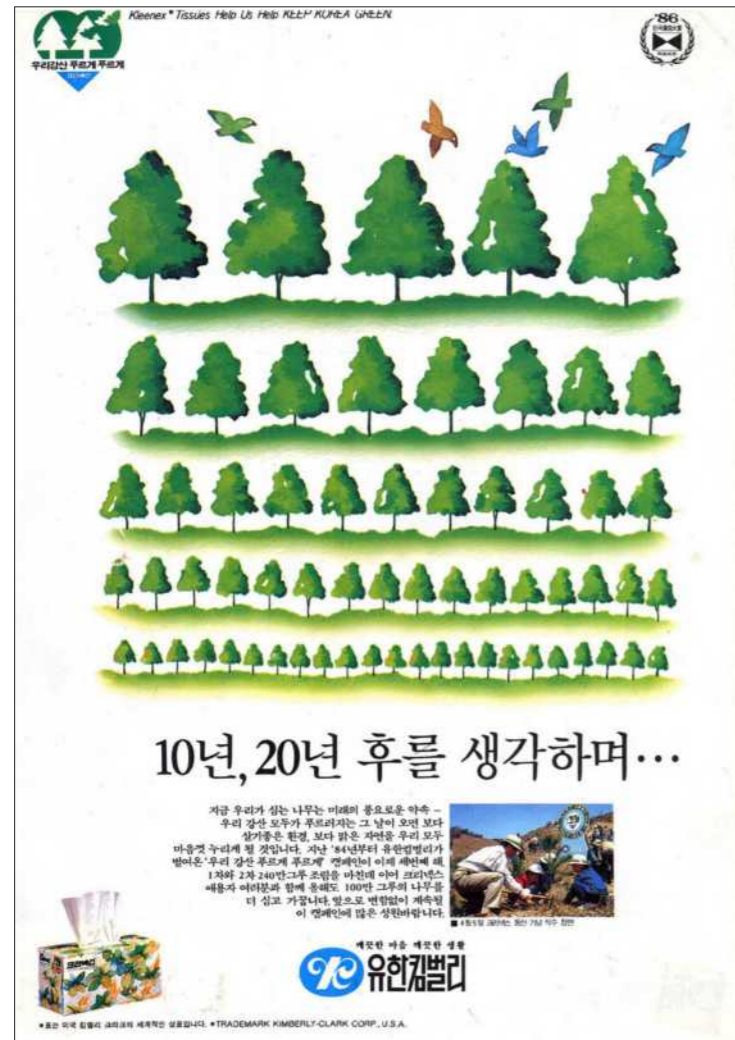
여러분의 정성으로 심은 120만여만 그루의 나무는 지금 160여만평에 달하는 전국 각처의 조림단지에서 잘 자라고 있으며, 10년 뒤에는 울창한 숲이 되어 여러분께 크게 보답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정성으로 임도(林道) 2,600미터가 지난 연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3차년도인 새해 1986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모두가 심고 가꾸는 저 푸르고 울창한 숲과 같은 건강과 풍요가 새해 여러분 가정에 골고루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198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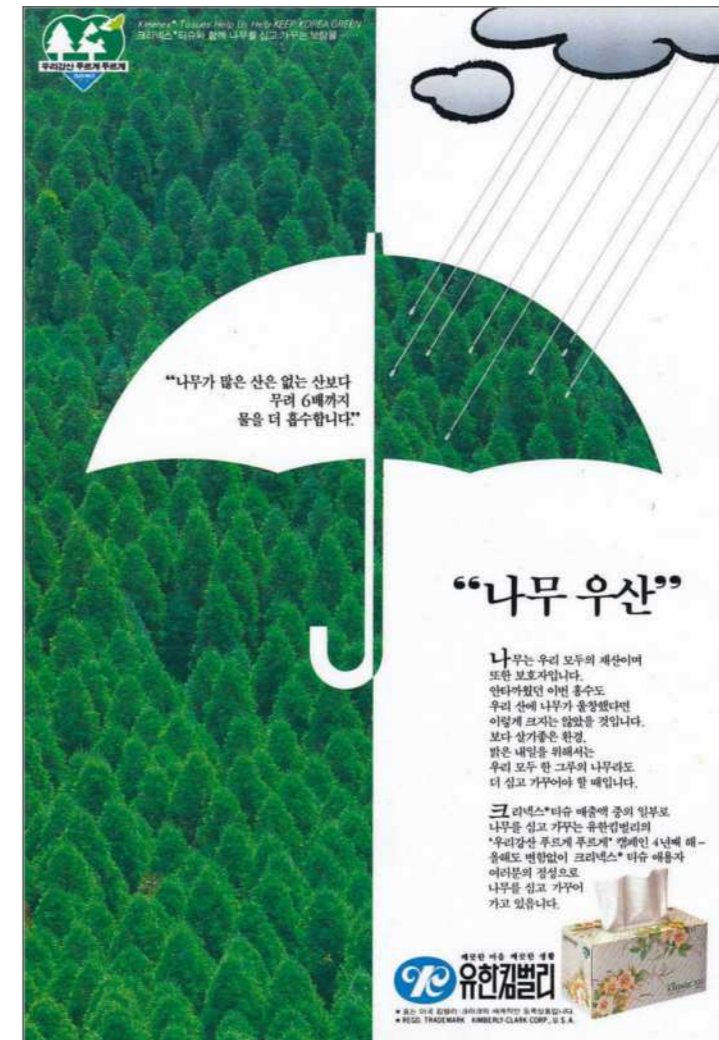


Head Copy 10년,20년 후를 생각하며...

Body Copy 지금 우리가 심는 나무는 미래의 풍요로운 약속 -

우리 강산 모두가 푸르러지는 그 날이 오면 보다 살기좋은 환경, 보다 맑은 자연을 우리 모두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84년부터 유한킴벌리가 벌여온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이제 세번째 해. 1차와 2차 240만그루 조림을 마친데 이어 크리넥스 애용자 여러분과 함께 올해도 100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고 가꿉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계속될 이 캠페인에 많은 성원바랍니다.

1987년



Head Copy "나무 우산"

Body Copy 나무는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또한, 보호자입니다.

안타까웠던 이번 흉수도 우리 산에 나무가 울창했다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다 살기좋은 환경,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크리넥스 티슈 매출액 중의 일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4년째 해 - 올해도 변함없이 크리넥스 티슈 애용자 여러분의 정성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1988년 3월



Head Copy 푸른 강산 푸른 꿈나무

Body Copy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리강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시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5번째해를 맞이한 유한킴벌리가 내일의 푸른 우리강산을 가꿀 청소년에게 ‘푸른 강산, 푸른 꿈나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00만 그루째 나무를 꿈나무와 함께 심으면서, 일년동안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 1. 나무심기 행사** 4월 3일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에서 청소년 400명이 나무를 심으며 나무의 중요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 2. 나무 관찰대회** 나무 이름을 맞추면서 나무를 공부하는 나무 관찰대회가 지난 5월 29일과 7월 17일에 2회 실시됐습니다.
- 3. 나무 캠프**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설악산 임간학교에서 꿈나무들이 나무속에서 자라고 배우는 숲속생활이 펼쳐졌습니다.
- 4. 나무 사생대회** 나무도 그리고 글짓기도 하는 꿈만 같은 꿈나무들의 생활이 펼쳐집니다. 나무 사생대회는 단풍이 오른 가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1990년



Head Copy 나무 - 그것은 산에 사는 다목적 댐

Lead Copy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는 나무 - 유한킴벌리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Body Copy 나무는 장마나 폭우때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차단, 흡수하고 일부는 강으로 흘러보냄으로서 물난리를 막아줍니다. 또한, 겨우내 뿌리에 저장해 두었던 물을 필요한 때에 흘러보내 가뭄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유한킴벌리가 1984년부터 시작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운동입니다. 유한킴벌리는 지금까지 약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으며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10억원을 산림청에 기탁하여 각종 산림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이 되고, 우리강산이 푸르러질때까지 계속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물을 만난 물고기가 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맑게 개인 어느날, 산소가 가득한 산들바람이 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기적들 - 나무, 풀, 물, 햇빛, 첫서리 - 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이 어찌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미묘하고 투명한 청색으로 물빛은 더욱 푸르름을 더하고 맑고 생생한 푸른빛 하늘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대자연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 어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 강산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달이 있고, 아름다움과 맑음 또한, 무수히 많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봄비와 여름소나기, 가을의 바람과 겨울의 눈,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가 있으며 산에는 산새들이 지저귀는 곳 -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신선하게 맞이해 주는 대자연을 지키고 살려야 합니다. 강에는 탁류가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탁류가 흘러 물고기가 물을 뛰쳐나와 갈 곳 없이 사라져 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설 땅을 잃어버린다는 징조가 아닐까요!

물은 물고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깨끗한 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괴롭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웬만큼 오염된 물도 물 자체의 자연정화력으로 오염물을 산화하거나 분해시켜 다시 깨끗한 물로 바꿔 놓지만 이제 우리 강산의 물은 자연정화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의 물이 정화력을 잃어버렸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의 전염병이 급속히 번지고 많은 사망자가 생길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미나마타 병으로 유명한 1953년 일본 큐우슈우의 수은중독사건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 또한, 공장의 폐수로부터 오염된 물이 야기시킨 비극의 씨앗입니다. 1976년 이태리 밀라노시 근교에서 일어났던 TCDD중독사건은 더욱 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유독성 개스는 유독성 구름으로 변해 이것이 비가 되고 개울이 되었고, 지하수 깊숙이 침투되어, 농작물이 죽어가고 대지는 버림받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천형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이어주는 물, 이 물을 지키고 살리는 길만이 우리를 지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 감시원이 되어, 맑은 물의 수호신이 됩시다! 공장의 폐수, 중성세제, 산업폐기물, 배설물 그리고 농약과 비료까지도 물로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수천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지구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무와 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뚜렷하게 증명됩니다. 나무들은 토지를 냉각시키거나 바람에 의한 수분증발과 침식을 지연시킴으로써, 또 잎을 통해 대기에 수분을 발산시킴으로써 강우량을 높여줍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서도 나무들은 특이한 방법으로 비를 오게 합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들에는 '슈도모나스 시링가'라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이 미생물은 대기중을 떠돌아다니면서 얼음의 응결핵과 같은 역할로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렇듯 가뭄과 홍수를 막아주어 수량을 조절해주는 나무들이 많아야지만 생태계의 파괴와 수질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맑은 물을 지키고 되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감시원이 되어야 할 이때, 나무심는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합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한킴벌리와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펼쳐갑시다!

올해도 유한킴벌리는 사라져가는 자연,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비록 작은 부분에 대한 고민일지라도,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우리의 자연은 푸르름을 더해갈 것입니다. 지난 6년동안 우리의 자연, 우리의 나무심기에 대해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함께 올해도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킴벌리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왔습니다.

- 1984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으며,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10억여원을 산림조합중앙회에 기탁하여 조림, 육성사업 및 산길개설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나무관찰대회, 여름나무캠프, 푸른꿈나무 글짓기대회를 펼쳐왔습니다.
- 4월 5일 식목일에 때맞추어, 한가족 한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매년마다 개최, 나무사랑을 널리 일깨워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1년 4월



木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한킴벌리와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펼쳐갑시다!

지금 우리들 세상엔 산소가 가득한 바람이 불지 않고, 오염된 바람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 세상이 오염된 바람속에 요동쳐 버리고, 사람들 마음속이 혼탁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설 땅을 잃어버린다는 징조가 아닐까요. 심각한 대기오염, 나무가 많아야 공기도 맑고 깨끗해집니다. 유한킴벌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나가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 왔습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으며, 산림자원조사기관으로 김천지역을 산림조합 운영하여 가꾸어주어 조림, 녹지사업 및 산림재생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4월 5일 한가평 한라산 나무심기운동을 주관하기도 하며, 나무 사육을 널리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비롯한 생활 유한킴벌리 숲·환경 캠페인 40주년 백서

Head Copy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Body Copy 유한킴벌리와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펼쳐갑시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 왔습니다.

지금 우리들 세상엔 산소가 가득한 바람이 불지 않고, 오염된 바람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 세상이 오염된 바람속에 요동쳐 버리고, 사람들 마음속이 혼탁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설 땅을 잃어버린다는 징조가 아닐까요. 심각한 대기오염, 나무가 많아야 공기도 맑고 깨끗해집니다. 유한킴벌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나가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1991년 5월

나무는 두팔벌려 숨을 쉬고 싶어합니다

'91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2

바람은 숲속의 여행자입니다

바람은 생명의 우주속에 자유롭게 뒹굴고 있는 한 조각, 울동적인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든 바람은 이제 우리들 곁에서 곱고 온화한 바람이 되어 우리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노닐고, 밤이 깊어 잠을 꾸벅 자는 바람은 대지의 자유를 숨을 쉽니다.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인간의 발자취, 짐승의 발자취에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여행자입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람은 숲속의 여행자입니다. 바람은 생명의 우주속에 자유롭게 뒹굴고 있는 한 조각, 울동적인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든 바람은 이제 우리들 곁에서 곱고 온화한 바람이 되어 우리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노닐고, 밤이 깊어 잠을 꾸벅 자는 바람은 대지의 자유를 숨을 쉽니다.

바람은 숲속의 여행자입니다

바람은 생명의 우주속에 자유롭게 뒹굴고 있는 한 조각, 울동적인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든 바람은 이제 우리들 곁에서 곱고 온화한 바람이 되어 우리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노닐고, 밤이 깊어 잠을 꾸벅 자는 바람은 대지의 자유를 숨을 쉽니다.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인간의 발자취, 짐승의 발자취에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여행자입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Keep Korea Green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한킴벌리와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펼쳐갑시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 왔습니다.

바람은 숲속의 여행자입니다

바람은 생명의 우주속에 자유롭게 뒹굴고 있는 한 조각, 울동적인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든 바람은 이제 우리들 곁에서 곱고 온화한 바람이 되어 우리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노닐고, 밤이 깊어 잠을 꾸벅 자는 바람은 대지의 자유를 숨을 쉽니다.

바람은 숲속의 여행자입니다

바람은 생명의 우주속에 자유롭게 뒹굴고 있는 한 조각, 울동적인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든 바람은 이제 우리들 곁에서 곱고 온화한 바람이 되어 우리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노닐고, 밤이 깊어 잠을 꾸벅 자는 바람은 대지의 자유를 숨을 쉽니다.

바람은 숲속의 여행자입니다

바람은 생명의 우주속에 자유롭게 뒹굴고 있는 한 조각, 울동적인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든 바람은 이제 우리들 곁에서 곱고 온화한 바람이 되어 우리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노닐고, 밤이 깊어 잠을 꾸벅 자는 바람은 대지의 자유를 숨을 쉽니다.

Head Copy 나무는 두팔 벌려 숨을 쉬고 싶어합니다

Body Copy 바람은 숲속의 여행자입니다

바람은 생명의 우주속에 불규칙하게 뒹굴고 있는 한 조각, 울동적인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든 바람은 이제 우리들 곁에서 곱고 온화한 바람이 되어 우리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노닐고, 밤이 깊어 잠을 꾸벅 자는 바람은 대지의 자유를 숨을 쉽니다.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인간의 발자취, 짐승의 발자취에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여행자입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람은 자연의 향기입니다

봄의 대지는 천개의 손을 가진 마법의 요술사일까요. 바람이 불어오면 대지는 우리를 향해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손짓합니다. 그 령습니다. 바람은 봄의 대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시인의 마음으로 화답합니다. 새벽안개가 호숫가를 질게 드리워지며, 가지가지의 잎새마다 이슬방울이 맺힐 때, 바람은 그 청명한 대지를 향해 시샘을 하죠. 잔잔한 호숫가에 드리워진 새벽 안개를 거두어 버리고, 저멀리 태양이 떠오를 때면, 보무도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바람은 드러냅니다. 봄의 대지는 천개의 손을 가진 마법의 요술사 - 그것은 봄이기 때문이 아니라 봄바람이 빚어낸 마술상자가 아닐런지요.

바람은 자연의 시인입니다

시인의 마음을 가져본적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자연을 보노라면, 자연스럽게 시상이 떠오르고, 어느새 시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람은 못시인들의 등장인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고 아름답게 가꾸어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바람은 시인들의 아름다운 관조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서녘바람은 훈훈한 바람/새울음소리로 그득한 바람/내눈에 눈물없이 서녘바람소리는 듣지 못하네/서녘바람엔 4월과 수선화 향기 깃들어 있음이라... W.B 예이츠가 바람을 예찬한 시입니다. 우리의 옛시인들은 더욱 더 다정다감하게 시를 읊었습니다. 봄바람이 먼데 사는 손님과 갈아/한해에 한차례 서로 만나네/가만히 꽃의 고움 더 보태주고/가볍게 버들가지 스쳐가누나..... (정도전, 삼봉) 우리 모두 바람을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합시다. 바람을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런지요.

바람은 솔이요, 차요, 연기입니다

가수암바람, 간들바람, 건들바람, 궁동잇바람.... 바람은 계절따라 모습을 달리합니다. 바람은 봄꽃 필 무렵이면 쌀쌀한 바람이 되었다가, 어느새 솔솔 부는 봄바람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자연의 향기속에 매료되게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는 이렇게 바람을 찬미했습니다. “봄바람은 솔이요, 여름바람은 차, 가을바람은 연기이며, 겨울바람은 생강과 같다” 그렇습니다. 봄바람이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꽃의 향기로 유혹합니다. 여름바람은 운치가 있습니다. 그윽한 차 한잔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찾아옵니다. 가을바람은 고향언덕에서 내려다보던 마을같은 느낌입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감정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겨울바람은 맵습니다. 고추처럼, 생강처럼 코끝이 시릿시릿합니다. 서쪽에서 불었다가 동쪽으로 불었다가 산꼭대기에서 산밑으로 불어오는 바람, 봄에는 솔처럼, 가을엔 연기처럼 찾아오는 바람 - 너무나 변덕이 심한 바람이기에 우리의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가 봅니다.

바람은 이제 산소가 가득한 공기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위에서 부는 산바람, 강을 따라 부는 강바람, 골바람, 갈바람.... 우리의 고향을 생각나게 하고, 어린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바람 - 그 바람은 사라져가고 지금 부는 바람은 어제의 바람이 아닙니다. 산소가 가득하고 자연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상쾌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고향을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메마르고 역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아닙니다. 봄의 대지위에 새벽 안개가 드리워지고, 그 안개속에서 천사의 웃음 소리가 들리면 어느새 꽃과 나비, 청명한 하늘로 바뀌어지는 이런 천국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 우리 강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천국에는 달이 있고, 아름다움과 맑음 또한, 무수히 많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 세상엔 천사의 바람이 불지 않고, 오염된 바람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 세상이 오염된 바람속에 요동쳐 버리고, 사람들 마음속이 혼탁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설 땅을 잃어버린다는 징조가 아닐런지요.

나무는 두팔벌려 숨을 쉬고 싶어합니다

경상남도 울산시 여천동, 이 동네에는 마을 사람들이 신주처럼 모시는 3백살 먹은 늙은 곰반송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곰반송나무는 지난 82년까지만해도 푸른 솔잎이 무성해 이 동네의 명물로 통했던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을 하늘로 뻗은 채 흉측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독야청청하던 그 모습이 사라진 이유는 대기오염과 산성비 때문이었습니다. 3백년동안 그 푸른 모습을 위풍당당하게 내보이던 곰반송나무도 이제는 숨을 제대로 못쉬고 사라져가야만 하는 우리의 환경 -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이 점점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문제입니다. 중국 남서부 시추안 지방의 소나무숲은 거의 대부분이 말라 죽었는데, 이 지역이 유황 함유도가 높은 석탄 때문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석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산성비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사라져 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람들입니다.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가 사라짐으로써 지구온난화 현상을 가속화 시킵니다. 지금 지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마음놓고 숨을 쉬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감시원이 되어, 맑은 공기의 수호신이 됩시다! 산업폐기물, 매연, 무분별한 산림벌목... 대기오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심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수천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지구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입니다. 우리의 삶을쾌적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환경감시원이 되어야 할 이때,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켜야 합니다.

Keep Korea Green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한킴벌리와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펼쳐갑시다!

1991년 6월

올해도 유한킴벌리는 자연,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대해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매년 유한킴벌리 제품의 매출액 일부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는 유한킴벌리는 올해도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왔습니다

- 1984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으며,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12억여원을 산림조합 중앙회에 기탁하여 조림, 육림사업 및 산길개설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나무관찰대회, 여름나무캠프, 푸른꿈나무 글짓기대회를 펼쳐 왔습니다.
- 4월5일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매년마다 개최, 나무 사랑을 널리 일깨워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1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

1984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나무심기행사를 가져온 유한킴벌리는 올해에도 식목일을 맞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하나로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은 이 행사는 새롭게 가정을 꾸미는 신혼부부, 내일의 푸른 꿈나무인 청소년등 6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화대리의 국유림에서 펼쳐졌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이 행사를 통해 2ha의 임야에 7년생 잣나무 3,000그루를 심었고,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 2억여원을 기탁했습니다. 유한킴벌리의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91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3

Keep Korea Green
자연은 자라는 것이 우리를
자라는 것은 나무를
유한킴벌리와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를 펼쳐갑시다!

숲속의 자연화로 소대합니다

숲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숨결만도 남아있지 않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이렇게 펼쳐 왔습니다

Head Copy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Body Copy '숲'이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대지위에 아낌없이 씨를 뿌렸습니다.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자랐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는 나무를 낳고, 또 다른 나무를 낳았습니다. 열그루가 되고, 백그루로 늘어나고, 천 그루가 되어 웅기종기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을이름을 '숲'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무들이 마을을 이루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산목련이 피어나고, 멧돼지, 다람쥐, 산새들이 나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숲속에 가면 나무들이 손짓합니다. 숲속에 가면 아름다운 친구들이 숲을 찬미하는 노래를 합창합니다. 아름다운 친구들과 푸른 나무들이 기다리는 숲속으로 오십시오.

숲속에 도깨비가 살았습니다.

숲속에 들어서면 원시 그 자체가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태고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름모를 가녀린 들꽃이 나무그루터기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밤나무, 자작나무 등이 뽀뽀이 들어차있고, 천년만년 견디어온 바위, 그위에 촘촘히 젖어 있는 이끼가 파릇이 목숨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은빛날개를 파닥이며 숲에서 숲으로 오가는 멧새 소리와 달빛에 찢려 하나로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숲속에는 여우도 살고, 멧돼지도 살며, 눈밝은 새앙쥐를 단숨에 찍어 삼키는 호랑이도 살며, 전설같은 이야기만 만들어내는 도깨비도 삽니다. 나뭇꾼과 선녀의 이야기도 금도끼, 은도끼도 숲속의 아름다운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먹던 시절의 이야기가 배어있는 숲속에서 태고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옛날옛적의 이야기가 배어있는 숲속으로 금도끼를 찾으러 떠나십시오. 숲속에 가면 아름다운 전설이 기다립니다.

숲속에 가면 천국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숲속에선 매일아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신이 창조한 위대한 연주자는 바람이었고, 동물친구들의 합창과 나무악기들이 바람에 따라 숲속의 음악회를 멋지게 펼쳐갑니다. 소슬바람이 불면 나무는 플루트가 되고, 센바람이 불면 나무는 바이올린이 됩니다. 천둥 소리는 심벌즈가 되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캐스터넷트가 탬버린을 연출합니다. 숲속의 음악회는 청명한 아침이슬이 내린 맑고 깨끗한 공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지휘자인 신은 이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인 숲속의 음악회가 다칠 세라, 온갖 요술로 자연의 변화무쌍함을 마음껏 제공합니다. 맑은 공기에 실려, 저멀리 다른 숲속으로 오묘한 자연의 소리가 흐트러질때, 우리는 자연을 노래합니다. “서늘한 바람 불어와 숲속에 스며들때면/푸른잎 갈아입고 저꽃을 따서 단장해 힘차게 솟은 아침해 젊음을 자랑해/꽃이슬에 배불린 산새들 흥겹게 오래하는 새”(F.W 퀴켄 작곡) “산들바람 따라서 숲속에 들머는/물샘가에 고이핀 한쪽의 수선화여 아침이슬 방울에 풀잎은 빛난다/산들바람 곁에 풍겨주는 그 향기여”(핀란드 민요, 김성태 편곡)

숲속의 전람회로 초대합니다.

숲속에는 생명력과 활력이 존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조그마한 목소리들과 지극히 미미한 속삭임과, 지극히 경쾌한 재잘거림과, 지극히 오묘한 숨결이 숲속에 가득차 있습니다.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 햇살의 줄기들과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점점 더 커지고, 나무 꼭대기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산들바람과 더불어 조금씩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숲속의 따스한 기운은 축축한 솔잎과, 이끼와, 증발하는 이슬 따위의 새로운 향기들을 땅으로부터 끌어모아 숲속 특유의 분위기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숲을 지나서 가는 길은 섬세하고 오묘한 변화들로 가득합니다. 그 길은 단 1미터도 한가로움을 느낄 수 없으며, 발자국을 옮길때마다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들이 점점 튼튼해졌다가 등성등성해지며, 풍상에 시달린 인상이며, 그 밑에 깔린 풀밭에는 점점 꽃이 박혀있고... 숲과 오묘한 분위기와 송진냄새들... 그리고 그 앞에는 산과 구름과 하늘의 풍경들-숲속에 들어서면 살아있는 전람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은 이제 마음속의 고향일 뿐입니다.

어느날 숲속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건장한 체구에 큰키, 부리부리한 눈매를 가진 나뭇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리한 칼날이 번뜩이는 연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의 친구들이 노래소리를 멈추었습니다.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이쪽 저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마저, 나무들도, 숨을 멈추고 숲속은 적막감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뭇꾼들은 키가 크고 건강한 나무들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나무들의 외마디 소리와 함께 도끼질 소리가 구석구석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아침 열리던 숲속의 음악회는 사라지고 숲속의 적막감을 깨는 도끼 내리치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한그루씩 한그루씩 나무들은 베어지고 숲은

조그맣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나무들이 땅에서 뿌리뽀뽀하고, 학살당하고, 끝장나고 말았으니, 나무들과 아름다운 친구들은 사람들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나무들은 탄식했습니다. 나무들이 베어지고 사라져간다면, 동물 친구들도 이 마을을 떠날 거라고... 나무들은 안타까워 했습니다. 우리들 숲마음이 점점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사람들도 안식하고, 호흡하는 지상의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훼손된 숲은 사람들 스스로 다시 살려야 합니다. 사람들 모두의 꿈과 희망은 우리들 사는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일이니깐요.

숲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숨쉴 권리도 잃어갑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우는 아마존, 프랑스땅의 16배나 되는 5억 2천만ha의 원시림-세계 열대재자원의 31퍼센트를 공급하고, 세계인구의 5퍼센트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땅-신이 내려준 자연의 보고-아마존이 지금 환경보호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개발이란 이름아래 울창한 숲 들이 마구 베어지고, 마구 불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일대에서는 고의적으로 불을 내 타버린 원시림이 약 3백만 헥타르(벨기에 넓이 정도), 이런 아마존의 방화로 우리들의 숨쉴 권리는 조금씩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나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해 집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수분을 빨아들이고, 잎을 통해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선이 엽록소가 있는 세포에 작용하면 산소를 방출하게 되고, 이러한 광합성을 통해 4000m2의 숲은 세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의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마다에는 독특한 향기가 발산되고 있는데, 이 향기는 식물끼리는 천적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물에게는 아주 좋은 세포 활성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숲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산소를 공급하고, 심지어는 신진대사 활동을 왕성하게 돕는 역할을 해, 현대인의 난치병과 성인병을 치료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마존의 방화가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나무가 점차 사라져가고 숲이 황폐화될수록 우리의 목을 더욱 조이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나무를 심읍시다. 한그루가 열그루가 되고, 천그루가 되어 울창한 숲이 될 때, 우리의 자손은 맑고 깨끗한 공기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무를 지키는 환경감시원이 되어, 자라나는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와 울창한 숲을 물려줍시다. 숲이 울창해지면 사람들의 숨쉴 권리도 되찾게 됩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한킴벌리와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펼쳐갑시다!

올해도 유한킴벌리는 자연,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대해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매년 유한킴벌리 제품의 매출액 일부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는 유한킴벌리는 올해도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캠페인을 이렇게 펼쳐왔습니다

- 1984년부터 지금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으며,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12억여원을 산림조합 중앙회에 기탁하여 조림, 육림사업 및 산길개설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나무관찰대회, 여름나무캠프, 푸른꿈나무 글짓기대회를 펼쳐왔습니다.
- 4월5일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매년마다 개최, 나무 사랑을 널리 일깨워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다. 한집, 두집, 세집... 웅기중기 집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늘어나고 대지위에 치솟았던 나무들과 숲들은 점차 그들의 터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쉽게 싫증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짓기 놀이에 재미가 들린 듯, 지은 집은 내동댕이 치고 다른 집을 지었습니다. 하늘까지 기세가 등등한 사람들은 원뿔 모양으로 다음어진 나무들을 일정한 도형으로, 때로는 원형으로, 때로는 사각형으로 하늘을 가리고 대지를 자신들의 잠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한그루 한그루씩 나무들은 베어지고 여러가지 빛깔로 잃어 버리고 죽은 나무 색깔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나무들은 조그맣게, 조그맣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나무들이 대지위에서 뿌리뽕히고, 학살당하고, 끝장나고 말았으니, 이제 사람들의 안식처였던 대지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일그러졌습니다. 천연의 모습을 간직했던 대지는 이제 인공의 세계로 바뀌었으니, 그만큼 사람들도 안식하고, 호흡하는 지상의 낙원을 잃어버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로부터 오염된 대지는 사람들 스스로 정화시켜야 합니다. 사람들 모두의 꿈과 희망은 우리들 사는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대지는 병들어가고, 삶의 터전도 잃어갑니다.

로마의 남쪽에 있는 폰틴평야는 1200제곱 킬로미터나 되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16개의 도시를 소유하고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역이었지만 홍수로 말미암아 소택지로 악화되고, 열병이 만연되어 결국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25전에는 마포에서 인천까지 증기선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토사의 퇴적으로 수심이 알아져서 배의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삼림의 벌채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삼림을 벌채하거나 불을 질러 농경지나 마을을 만들고 이것이 토양의 침식을 일으키는 시초가 됩니다. 우리는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땅을 빼앗아가는 문명은 잘못된 문명입니다. 땅을 되찾으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없는 땅에는 대나무나 버드나무처럼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야 하며, 나무가 자라면 저절로 새들이 모여들고, 개구리나 풀벌레들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나무는 우리의 땅을 되찾아줄뿐 아니라, 나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나무를 심읍시다. 한그루가 열그루가 되고, 천그루가 되어 울창한 숲이 될 때, 우리의 자손은 맑고 깨끗한 공기속에서, 비옥한 대지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무를 지키는 환경감시원이 되어, 우리 모두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환경창조자가 되어, 자라나는 후손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와 울창한 숲을 물려줍시다. 나무를 심을수록 사람들의 삶의 터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한킴벌리와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펼쳐갑시다!

올해도 유한킴벌리는 자연,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대해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매년 유한킴벌리 제품의 매출액 일부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가는 유한킴벌리는 올해도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연을 지키고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캠페인을 이렇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 연간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억원의 기금을 통하여 1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그린캠프, 나무관찰대회, 나무사생대회 등의 나무 사랑, 나무알기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국민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국가환경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심볼마크엔 내일의 푸른 강산을 꿈꾸는 유한킴벌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깊은 이때, 유한킴벌리의 푸른 강산에 대한 각오와 의지를 심볼마크에 담았습니다. 푸른 강산에 대한 사랑과 맑은 미래상을 의미하는 나무의 모습과 맑은 물을 상징하는 물결모양 등으로 구성된 심볼마크와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1992년 3월



Head Copy 푸른 강 친구들 -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Body Copy '92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아름다운 자연의 친구들(1) '한국의 민물고기'

맑은 시냇가, 미역감고 물장구를 치면서 물고기들을 만났습니다. 우거진 나무 사이 계곡에 차갑고 투명한 물이 흐르고, 수십마리의 어린 고기들이 돌 사이를 날쌔게 헤엄쳤습니다. 피라미 한 마리 잡기 위해 등이 바알갈게 달아오르는 것도 잊고 하루종일 강가에서 살았습니다. 집에서 야단맞고 나온 저녁 무렵, 물속을 왔다갔다하며 손등을 간지르던 물고기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촌형과 함께 직접 만든 반두로 붕어를 건져 올렸을 때의 기쁨, 어항을 떠올렸을 때 그 속을 왔다갔다하던 물고기들의 날렵한 모습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열목어, 돌고기, 납줄갱이, 각시붕어, 꼬치동자개...

휴전선 이남에서 발견되는 민물고기는 145종에 달합니다. 그중 일생을 민물에서만 사는 것만도 90여종입니다. 꼬치동자개나 어

름치처럼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물고기들이 한종, 두종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 숲과 맑은 물이 사라지면서 푸른 강의 친구들도 함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20 종 내지 30종은 다시 못보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은빛 입술을 가진 한강의 신사 은어, 금강의 기상통보관 여름치, 그 맛으로 소문나 왕에게 진상했다는 종어, 오대산 맑은 물의 열목어, 이름때문에 수난을 겪던 망둥이...

우리의 생활과 함께하고 우리의 곁에 있던 그 친숙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억속에서도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차고 맑은 물에서 살던 열목어는 어디로 갔을까요? 나무그늘에 시원하게 가리워져 열목어가 살기 좋던 산속 계곡은 숲이 사라지면서 뜨거운 태양아래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열목어는 뜨거운 물속에서 산소를 부족해하며 누워버립니다.

경기도 수원 서호에는 머리끝에서 꼬리 지느러미 끝까지 5.5센티미터를 넘지 않는 자그맣고 귀여운 물고기, 민물조개를 먹고 살아가는 한국특산종 '서호납줄갱이'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근의 숲이 파괴되고 서호의 물이 말라가면서 서호납줄갱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어느곳에도 '서호납줄갱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깨끗한 물을 지켜가는 마음이 없다면 푸른 숲, 푸른 강의 친구들은 사라져 가게 됩니다. 물고기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일, 유한킴벌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무를 심어 푸른 강산을 만들고 가꾸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곳을 만들기 위해 유한킴벌리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잘 알고 꾸준히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하는 일

- 연간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억원의 기금조성을 통하여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그린캠프, 나무관찰대회, 나무사생대회 등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2년 6월



Head Copy 푸른 숲 사이 - 어린시절 꿈이 날고 있습니다.

Body Copy '92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아름다운 자연의 친구들(2) '한국의 나비'

여름 들판, 노오란 배추꽃밭을 날던 배추흰나비를 기억하십니까? 하얀 무우꽃에 앉아 있는 노랑나비 등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그 보드라운 날개를 두 손가락으로 살짝 잡았었지요. 햇빛이 쏟아지는 양지바른 들녘에는 호랑나비와 표범나비가 커다랗고 화려한 날개로 팔랑팔랑 날아다니고, 아름답리 참나무와 상수리나무 푸른 숲 그늘에는 뱀눈그늘나비가 살았습니다. 아름다움에 눈 떠던 시절, 푸른 숲 사이를 날던 나비들의 모습은 어린시절의 꿈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날개에 투명한 창이 있고 그 모습이 화려해 수풀을 떠들썩하게 한다는 유리창떠들썩팔랑나비, 단풍나무를 맴돌며 세련된 자태를 뽐내는 도시처녀나비, 조팝나무 꽃 사이로 수줍은 듯 날개를 살짝 드러내는 시골처녀나비, 그 선과 빛이 요염하고 매혹적인 북방

기생나비, 날개에 여덟 팔(八)자가 거꾸로 그려져 있는 북방거꾸로여덟팔나비, 태풍을 타고 남쪽 열대지방에서 날아와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별선두리왕나비, 날개에 커다란 눈을 10개나 가지고 있는 눈많은그늘나비 - 우리나라에는 모두 251종의 나비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 남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202종입니다.

여름의 푸른 숲은 나비들이 살기 좋은 최고의 낙원입니다. 숲에는 청띠제비나비가 즐겨 먹는 후박나무의 진, 푸른부전나비가 좋아하는 토끼풀, 꼬리명주나비가 찾는 딸기덩굴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비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탐스런 열매를 맺게 하는 중매쟁이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나비들은 푸른 숲에서 즐겁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 근처 언덕에 올라가면 열댓 마리의 나비들과 흔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분홍 엉퀴꽃에서 사뿐히 내려앉은 멋쟁이 사향제비나비도 흔히 볼 수 있었고, 개망초꽃줄을 빨고 있는 멧노랑나비도 손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편편한 곳에 걸터앉아 하모니카를 꺼내 불면 바위 밑에서 굴뚝나비가 살랑살랑 날아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곳에 가도 예전처럼 쉽게 나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비가 날던 들판 주변에는 경작지가 조성되어 많은 농약이 뿌려지고, 나비의 집인 푸른 숲은 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더럽혀지고, 나비에게 달콤한 꿀을 내어주던 꽃들은 사라져갑니다. 드문드문 색이 바랜 나비 한, 두마리가 우리의 주위를 맴돌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푸른 숲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푸른 숲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면 푸른 숲, 푸른 강의 친구들은 사라져가게 됩니다. 나비들이 마음 놓고 고운 날개로 너울너울 날아다닐 수 있는 곳, 우리 모두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유한킴벌리는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무를 심어 우리와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푸른 강산을 만들고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하는 일

- 연간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억원의 기금조성을 통하여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그린캠프, 나무관찰대회, 나무사생대회 등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여러분의 실천사례를 모집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연을 지키고 가꾸며,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한킴벌리는 그 소중한 실천사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천사례를 보내주시면 신문,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갈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기념품을 보내드리며, 유한킴벌리가 개최하는 모든 환경관련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모집된 글들은 "환경보호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자연환경보호 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1월



Head Copy 푸른 산 골짜기의 - 야생의 친구들이 그림습니다.

Body Copy '92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아름다운 자연의 친구들(3) '한국의 야생동물'

산과 들에 눈이 두껍게 쌓이는 겨울밤이면,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맹수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멧돼지나 여우 같은 텃짐승들은 심심찮게 볼 수 있었으며, 이따금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들이 재너머 뒷산에 나타나 밤이 되면 문밖출입을 삼가했다고도 하셨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할머니의 얘기를 들은 다음날엔, 아침을 먹자마자 동네 형들이랑 눈이 하얗게 덮인 마을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루종일 산토끼 발자국을 좇으며 해가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용맹스러움에 비해 행동이 부드럽고 침착해 우리겨레의 경외의 대상이 된 백두산호랑이, 겨울 멧부리 치솟은 바위 끝에 명주털 나무끼며 하늘을 우러르는 수려한 한국표범, 몽툰 털북숭이 같지만 지혜롭고 행동 또한, 전광석화처럼 재빠른 큰곰, 반달가슴

곰,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절벽 등에 사는 한반도 특산종, 한국산양 - 한반도는 비록 크지는 않으나 본래 숲이 울창하고 물이 맑으며 사계 또한, 뚜렷하여 크고 작은 텃짐승들의 낙원이요, 야생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산허리가 잘려 나가고, 푸른 숲이 사라져 가면서 자연의 친구들은 하나 둘씩 어디론가 그 모습을 감춰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생의 숨소리가 끊긴 텅 빈 강산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일반백성들이 호환을 두려워할 만큼 이 강산에 호랑이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 자취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녘땅 백두산 줄기에 몇 마리의 호랑이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들어와 우리를 설레이게 합니다. 60년대에 거의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 세계적인 희귀종, 한국산양이 지난 해 10월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인 강원도 고성군 고진동 계곡에서 20여마리가 군락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들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껍데기가 딱딱한 열매를 아주 쉽게 까먹는 숲 속의 귀엽둥이 청설모, 비단처럼 매끄러운 털을 자랑하는 여우, 나무타기의 명수 노랑목도리담비, 물갈퀴가 있어 헤엄을 잘 치는 수달...

혹시라도 어느 산, 어느 계곡에서 이들을 만나거든 손을 흔들어 반갑시다. 추위가 풀리고 새싹들이 돋아나 겨울잠에서 깨어난 반달곰, 고슴도치, 다람쥐, 오소리, 너구리 등이 귀여운 새끼들을 데리고 나타나면 조용히 반가워 합시다.

우리는 누구나 푸른 숲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푸른 숲과 맑은 물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면 푸른 숲과 강, 푸른 바다의 친구들은 사라져 가게 됩니다. 야생동물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곳,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유한킴벌리는 사회 여러 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무를 심어 우리와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푸른 강산을 만들고 가꾸어오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하는 일

- 연간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7억원의 기금조성을 통하여 1,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그린캠프, 나무관찰대회, 나무사생대회 등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Head Copy 푸른 하늘에 울려퍼지던 - 숲 속의 합창곡이 있었습니다.

Body Copy '93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아름다운 자연의 친구들(4) '한국의 텃새'

어릴 적 동네 아이들과 함께 뒷동산에 오르면 어디선가 예쁜 새가 날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나무 뒤쪽으로 숨어서 얼굴만 내미는 모습이 무척 귀여웠습니다. 딱따구리는 마른 나무 줄기를 쪼며 아름다운 타악기 선율을 들려주었고, 작은 동고비는 겨울에 꺼내먹을 개암열매를 바위틈에 몰래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숲에 들어서면 우리는 누구나 휴머니스트가 되었고, 바람에 실려오던 새들의 아름다운 합창곡은 지금도 우리 귓가에 은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우리를 지을 때 꿈꿨던 바느질 솜씨를 뽐내는 까치, 짝짓는 계절이 돌아오면 키 큰 소나무 꼭대기에 앉아 하루종일 재잘대는 진박새, 갈대나 달풀, 창포가 우거진 사이에 수초를 모아 뗏목 같은 집을 만드는 잠수의 도사 논병아리, 재빨리 움직일 때면 긴 꼬지

를 좌우로 쓸듯이 흔드는 붉은 머리오목눈이(뺨새), 축새와 달리 번식기 이외에는 거의 울지 않는 흰꼬리수리 - 우리나라의 새는 모두 394종이며, 그 중 철이 바뀌어도 옮겨 다니지 않는 텃새는 57종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부한 울창한 숲은 새들의 포근한 쉼터이자 보금자리입니다. 나무가 무성한 숲에는 곤충박이가 좋아하는 딱딱한 열매, 딱새가 즐겨 먹는 작은 벌레들, 황조롱이가 찾는 들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숨소리가 총명한 자연의 품 속에서 새들은 즐겁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창하던 숲이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의 텃새들은 그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울새, 멧새, 굴뚝새, 종다리 등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 고유의 텃새들이 우리 주변에서 차츰 사라지거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미 많은 우리 겨례의 심금을 울리던 소쩍새는 어디로 갔을까요? 마을 뒷산의 숲이 점점 줄어들자 야속한 인간들을 원망하며 우리 곁을 영영 떠난 것일까요? 소쩍새는 이제 교과서에나 이름이 나오는 전설 속의 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류 중에서 가장 큰 종인 황새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1971년 4월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살던 한 쌍 가운데 지금은 암컷 한 마리만이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해마다 무정란만을 낳아 황새의 대를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다 된 이 과부황새마저 세상을 뜨는 날,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황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푸른 숲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푸른 숲과 맑은 물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면 푸른 숲과 강, 푸른 바다의 친구들은 사라져 가게 됩니다. 새들이 마음껏 노래 부르며 날다닐 수 있는 곳,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유한킴벌리는 사회 여러 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무를 심어 우리와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푸른 강산을 만들고 가꾸어오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하는 일

- 연간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억원의 기금조성을 통하여 1,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습니다.
-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그린캠프, 나무관찰대회, 나무사생대회 등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 신문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3년



Head Copy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Body Copy ‘침병-침병’ 땀병이 부서지는 파아란 물속을 헤치며 은빛 어린 고기를 오후 내내 쫓아다니고, 이끼끼 바위밀, 꼭꼭 숨은 가재를 찾으려 킁킁대던 마을넷가 그리고 그 맑은 물보라에 비친 얼굴 겹겹이 탄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맑은 물도, 깨끗한 숲도, 그리고 물장구 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마저도 사라져가는 지금-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온 그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 유한킴벌리는 오늘도 정성스럽게 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10년째 펼쳐오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산을 물려주자 1984년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지금까지 16억원의 기금을 통해, 1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유한킴벌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린캠프, 나무관찰대회, 나무사생대회 등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93 대전 엑스포에도 참가합니다. 유한킴벌리는 엑스포 도약관 내에 “숲속의 극장”을 꾸며 21세기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엑스포 기간 동안 전시장 내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 운반할 무공해 청소용 전기자동차와 컨테이너 등을 기증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1993년 5월



Head Copy 숲의 주인이 나그네가 됩니다

Lead Copy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아름다운 자연의 친구 (1) “봄의 전령들”

Body Copy 봄바람이 살랑살랑 귓볼을 간지르는 휴일날 오후, 참으로 오랜만에 교외에 있는 키작은 산을 올라봅니다. 겨우내 개어두었던 등산복과 모자, 그리고 황토흙이 아직도 쫄쫄이 붙어 있는 낡은 등산화를 꺼내 신고 소풍길에 나서는 어린이 마냥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숲의 품을 찾아가봅니다. 긴 겨울을 보낸 숲과의 해묵은 인사가 오가고 나면 봄차림이 한창인 숲이 먼저, 계곡을 가리키며 이리오라 손짓합니다. 다가간 봄의 계곡에선 물소리가 재잘댁니다. 졸졸졸... 잘잘잘... 뽕뽕 얼어 붙었던 골짜기는 어느새 얼음웃을 벗고 이제 냇가로, 강으로 먼 여행길을 떠나려 합니다. 물은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어느 이름 없는 바위 틈에 앉아 쉬고, 또 흘러 가면서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바다로 안겨들겁니다. 민들레, 솜다리, 금붓꽃, 노루귀, 조팝나무, 미선나무,...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봄꽃, 봄나무들이 형형색색의 꽃망울을 터뜨리며 서로 질세라 저마다의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아도 반가운 산, 아름다운 숲의 모습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 봅니다. 한동안 만나보지 못한 자연의 친구들이 그리워 나뭇가지 위에도, 꽃잎 위에도, 그리고 저 아래 골짜기에도 시선을 주어 봅니다. 이른 봄에 야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멧팔랑나비, 몸길이가 10 ~ 13 밀리미터나 돼 한국산 무당벌레무리 가운데 가장 큰 종에 속하는 남생이무당벌레, 검정색과 흰 무늬가 마치 팬더곰을 연상시키는 배자바구미, 벌과 비슷하게 생겨 동무들과 자주 논란을 불러 일으키던 수종다리꽃등애의 모습도 눈에 띄입니다.

1993년 9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숲의 주인들 가운데 하나인 곤충들은 해마다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릴 적 봄이면 마을 뒷동산에만 올라도 온갖 종류의 곤충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두렁의 개구리도, 봄의 사신 제비도, 고운 목소리의 종다리도, 꼬마친구 굴뚝새도 봄이 오는 길목에서 봄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던 반가운 전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집없는 나그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던 주인공들이 하나 둘 숲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공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무분별한 개발이 부른 산림훼손,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이들을 숲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빠알간 딱지날개 등에 멋진 중절모 그림이 새겨진 모자무늬 주홍하늘소도, 연두색의 원탁의 기사처럼 철갑옷을 두른 알락수염 노린재도 만나보기가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 않아 그들은 아스라한 추억속의 친구들로만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푸른 숲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자연은 더 이상 자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사회 여러 단체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무를 심어 대기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우리와 자연이 보다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한킴벌리는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캠페인을 10년째 펼쳐오고 있습니다.

- 풍요로운 자연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산을 물려주고자 1984년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매년 1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억원의 기금을 통해 1,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린캠프, 나무관찰대회, 나무사생대회 등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93 대전엑스포에도 참가합니다.

유한킴벌리는 엑스포 도약관 내에 “숲속의 극장”을 꾸며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엑스포 기간 동안 전시장 내의 각종 쓰레기를 수거, 운반할 무공해 청소용 전기자동차와 컨테이너 등을 기증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Head Copy 자연의 친구들이 노닐던 숲이 그림습니다

Lead Copy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 아름다운 자연의 친구 (2) “가을의 전령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10년째 펼쳐오고 있습니다

Body Copy 물줄기 같이 퍼붓는 햇볕, 푸른 하늘을 수놓는 금빛 구름, 부드러운 바람, 무성한 나뭇잎, 타는 듯이 붉은 꽃, 맑은 물 속에는 은어, 피라미, 붕어, 송사리, 누치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거리마다 수박, 호박, 참외, 이들이 짐짐이 나부딿 뜨러져 있다....

김 동리의 황토기 (黃土記)같은 여름이 끝난 길목에서, 숲은 어느새 새로운 친구들과 반가운 가을인사를 나눕니다.

여름내내 무더위를 못이기겠다는 듯 요란스럽게 울어대던 유지매미, 아름드리 참나무나 상수리나무에 둘러붙어 나무진을 빨아 먹던 풍뎡이,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하늘소, 사슴벌레 등은 차츰 사라지고 졸참나무숲에서 지-스, 지-스 하며 울어대는 누룽지만이 낮은 목청으로 가을노래를 불러댁니다. 한 여름엔 여름잠을 자 날개짓 한번 못해본 갈색점의 각시뿔노랑나비도 가을내음을 맡고 깨어나 꿀을 찾아 이꽃저꽃으로 날아 다닙니다.

숲의 가을은 풀과 나무들이 색색가지웃으로 갈아 입고 아름다운 패션쇼를 펼치는 계절입니다. 풀잎은 가을을 만나 빛을 바꾸고, 나무는 가을을 만나 이파리를 벗으면서 겨울로 향하는 외로운 마음을 달랠니다. 열매가 노란 살구와 비슷하게 생겼다 하여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은행나무, 평소에는 붉은 잎이지만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노랗게 물드는 붉나무, 빠알간 손가락을 펼쳐보

1994년 3월

이며 온 산을 물들이는 단풍나무 등이 가을산의 주연급 패션모델입니다.

쭉을 캐러 다니던 대장장이의 딸 쭉부쟁이가 죽어서 핀 꽃이라는 슬픈 전설을 지닌 노란 색의 쭉부쟁이도, 통이 깊어서 왕벌들의 잠자리가 되곤 하는 연보라빛 꽃의 용담도 가을산을 수놓는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들입니다. 숲의 가을은 곤충들에게 날개나 몸의 빛깔을 보호색으로 바꾸게 하는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네발나비는 짙은 빛깔의 옷으로 갈아입고 사람을 피해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빨간 고추만큼 빨간 고추좀잠자리는 꼬리를 흔들며 가을숲 푸른 하늘을 신이 나게 맴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적 가을에 즐겨 만났던 친구들이 해가 갈수록 만나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시절의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들판에는 폭날개 애메뚜기를 비롯해서 실베짚이, 왕사마귀들이 분주히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가을 숲에는 백, 적, 흑색의 가로무늬를 지닌 박각시와 어두운 밤에 “리이-리이-”하며 울던 알락귀뚜라미, 숲속 풀밭에서 “루루루”소리 내던 긴꼬리, 그리고 하천을 낀 산기슭에 살던 늦반딧불이도 부르면 대답하던 친근한 벗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을의 친구가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기억되는 안타까운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늦반딧불이는 하천의 오염과 농약의 과다사용, 서식지의 축소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들어 이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의 서식지인 숲을 죽이는 주원인은 공업화에 의한 대기오염과 무분별한 개발이 부른 산림훼손, 토양의 산성화,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1년, 5년, 그리고 10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이 숲을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사라지는 늦반딧불이의 다음 차레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푸른 숲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자연은 더 이상 자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한킴벌리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무를 심어 대기에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우리와 자연이 보다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한킴벌리는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캠페인을 10년째 펼쳐오고 있습니다.

- 풍요로운 자연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산을 물려주고자 1984년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매년 1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억원의 기금을 통해 1,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린캠프, 나무관찰대회, 나무사생대회 등의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Head Copy 산, 그 언제나 넉넉한 베품의 고향이여-

Body Copy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1)

초봄, 소릿이 날리는 아지랑이를 호흡하며 씩바귀 어린 잎이 송이송이 자랍니다. 웅이없이 곧게 자란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울이 뻗어, 하늘이라고 세 뼘도 채 못될 깊은 골짜기를 만들지요. 혼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습성이 배어 어느새, 그 넉넉함이 주는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름드리 나무에서 이름 모를 꽃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버릴 것이 없고, 묘묘한 섭리의 생명력을 가르치는 산은 아직도 변함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해질녘 마을 뒷산, 까맣게 그늘은 꼬마들이 주섬주섬 모여 민들레 가락지 낀 손으로 솔뚜껑 밑에 불을 놓으며 새까만 연기속에서 통통히 익은 햇감자가 껍데기에 자글자글 잔주름이 지도록 구워졌습니다. 여름 햇살이 화사한 냇가, 분꽃가루 분과 잇꽃잎 연지로 치장한 여인들이 봉선화 물든 손으로 창포 우린 물에 머리를 푸는 모습은 산을 배경으로 자연이 놀리는 한쪽의 붓질이었습니다.

1994년 6월

산은 건강을 주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예로부터 떡을 찰 때는 솔잎과 떡갈나무 잎을 쓰고, 송엽주, 두견주 등 이름도 향긋한 초목을 넣어 술을 빚었습니다. 이는 비단 그 향기로움 뿐 아니라 몸에 좋은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들개지가 움틀 무렵부터 피나무, 싸리나무, 당귀 등 온갖 꽃을 돌며 모든 토종벌의 꿀, 석청은 사람눈에 띄기까지 여러 해를 묵어 그 진한 맛이 간질, 산후구갈증에 귀한 약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서리 내릴 무렵, 얼굴의 검댕쯤 잊은채 뽀뽀하면서도 달콤달콤한 속살맛에 아이들 군것질거리가 되었던 어린 다래는 기관지염과 천식에 특효한 한방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효험은 산천도처마다 샘샘이 솟는 약수에도 녹아 있어 약초뿌리 녹은 물이 스며든 샘물은 신체에 영험한 신비의 생명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산은 뿌리깊은 생활의 터전입니다.

논농사가 보잘것 없는 산골에선 누에와 벌을 치고, 잣과 버섯을 길렀습니다. 솔솔이 자란 삼으로 짓는 아낙네들의 삼베길쌈도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지요. 텃밭조차 없이 가난한 화전민들은 덜 선 비탈에 불을 놓아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껍질을 벗겨 등우리를 틀어 말린 달달한 옥수수는 겨울을 나는 주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흥년이 겹친 해에도 산에는 활엽수 그늘에서 한껏 자라 쇠지 않은 산나물이 송송이 돋았고 송진, 송화를 콩가루에 버무리면 비록 입에 거칠맛정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연 속에 있습니다.

둘러보면 지금도 우리는 산으로부터 끊임없이 귀한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외딴 산골 바위틈에 비뿔게 솟은 한떨기 구절초도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가르쳐 주어 질병을 막을 뿐 아니라 건강을 복돋는 자연식품이 되니까요. 각종 공해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오늘날, 무공해 식품과 자연식을 애써 강조하는 것도 모두 자연 그대로의 혜택을 다시 받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산이 주는 넉넉함을 오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산은 더불어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소유욕과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없이 즐기는 휴양지로 인간의 마음쓰며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아름답고 건강한 산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푸르른 숲과 맑은 숲을 지키는 마음 없이 그 쓰임새와 이용에만 급급한다면 자연이 주는 풍요로운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바로 자연이 주는 넉넉함을 오래 나누고 싶은 유한킴벌리의 노력입니다. 유한킴벌리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Head Copy 강, 그 푸르게 지켜갈 생명의 젖줄이여-

Body Copy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2)

초여름, 햇빛을 잘게 뿌려주는 강물 위로 고동을 찾는 왜가리가 모듬발로 살금거리입니다. 쪽빛 강물이 굽이 치며 펼쳐낸 천연의 수족관에는 두자는 너끈한 열목어가 대차고 실팍한 몸매를 반짝이지요. 어머니의 이불같은 넉넉함으로 한응큼 던진 돌에도 아파하지 않고, 그 돌마저 푼어 흐르게 하는 우리의 강 - 강은 태고적부터 커져이 쌓아 온 우리문화의 숨결이 밴 은혜의 젖줄입니다. 갈대바람에 머리를 감으며 해진 삼태기로 보리새우를 건져올렸습니다. 저녁해가 목이 걸린 서쪽 강둑에서 논농덩이의 물을 퍼재고 한양 뽀싹 퍼올린 살진 미꾸라지는 푸성귀로만 살림을 나던 농민들의 여름에 좋은 영양식이 되어 주었지요.

1994년

강은 오랜 정착의 생명선입니다.

예부터 강은 우리 민족이 젓줄삼아 모듬살이를 해 온 정착의 지역이었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뺨은 풍부한 물줄기는 앞벌에 넉넉한 논물을 대주며 기름진 평야를 열어놓았습니다.

붕어, 잉어, 뱀장어는 물론, 물 맑은 강줄기를 따라 올라온 바닷고기들도 풍성했고 모래 하얀 강가에는 만선이 된 고깃배가 펄떡거리는 은빛 생선들을 퍼내놓습니다. 철도가 없던 시절, 각 지방을 이어주는 물길이었다던 나루터에는 늪수그레한 뱃사공이 읊는 아리랑의 매김새가 구수했지요. 김, 멸치를 실은 발동선과 봉초, 썰매를 싣지 가득 실은 거룻배가 만나는 인심좋은 장이 되기도 했던 강. 강은 가장 중요한 자연이요, 값진 생명선이었습니다.

강은 그리움 짙은 향수의 원천입니다.

어릴적, 밤깊은 옛이야기에 도깨비불로 등장하던 반딧불은 맑은 물과 풀밭만 있으면 어디서나 그 푸른 빛을 밝혀 여름밤을 수놓곤 했습니다. 먼산 그림자가 연자빛으로 물드는 저녁, 가는 명주목도리처럼 감기는 물결 사이로 모래무지새끼들이 잔비늘을 다지고, 날개짓이 서툰 어린 백조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허둥지둥 건너뛩니다. 무리지어 솟아오르는 수만마리 철새떼들의 힘찬 날개짓은 어린 마음들에 희망과 더불어 때로는 낭만까지 북돋아 주었었지요.

강은 마음마저 씻어주는 정화의 샘이었습니다.

옛조상들은 무심한 물에서도 자연의 슬기를 배웠습니다. 액바가지라 불리는 표주박에 근심, 증오, 시샘의 감정을 담아 흐르는 강물에 띄워 씻어버리곤 했습니다. 더러워진 물을 자연정화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자연으로 되돌려 주듯이 강은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정신적인 정화제가 되어 주었던 것이지요.

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오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 추억의 한 모퉁이에는 예전 그 천연의 빛과 숨소리를 간직한 강이 축축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이 강에 목숨을 대고 살아가는 모든 물고기와 나무, 곤충에 이르기까지 은혜로운 물줄기를 뿜어주었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바로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오래 나누고 싶은 유한킴벌리의 노력입니다. 유한킴벌리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Head Copy 물은 잊혀져가는 추억입니다

Body Copy '침범-침범' 땡벌이 부서지는 파아란 물속을 헤치며 은빛 어린 고기를 오후 내내 쫓아다니고, 이끼낀 바위 밑, 꼭꼭 숨은 가재를 찾으려 깡깡대던 마을넷가 그리고 그 맑은 물보라에 비친 얼굴 검게 탄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맑은 물도, 깨끗한 숲도, 그리고 물장구 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마저도 사라져가는 지금.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온 그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 유한킴벌리는 오늘도 정성스럽게 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10년째 펼쳐오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93 대전엑스포에도 참가합니다.

1995년 2월



Head Copy 자연도 선진국을 꿈꿉니다.

Body Copy 인간과 자연, 그 조화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자연은 후대에까지 계승해야 할 우리의 자산 - 지금 인류는 깨끗한 환경을 삶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자문해 봅니다.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올라서고 있는 우리는 물질적 풍요에만 쫓겨 자연의 중요성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연은 과연 선진국 수준이라 말할 수 있을지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지금은 다음 세대의 자연선진국을 설계할 때입니다.

울창한 숲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물을 정화시키며 흙을 기름지게 하는 나무-나무는 환경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

리의 숲은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우리 숲 1헥타르당 심어진 나무의 양(임목축적율)은 독일과 비교해 아직 6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토의 65%를 덮고 있는 숲때문에 산림자원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산림녹화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 30년 동안으로 2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많아 자연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기엔 아직도 빈약한 실정입니다. 2차 대전으로 우리와 같이 숲의 황폐화를 겪었던 영국은 정부와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몇 년간의 실험을 통해 자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나무의 종류를 가려내어 풍성한 숲을 조성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의 공익가치는 목재자원 가치의 14배나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 볼 때 아직 우리의 숲에는 풍요로움이 아쉽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그 나라의 정신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맑은 흐름-이 건강한 호흡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큰 보탬을 주는 것이 바로 잘 가꾸어진 숲입니다. 1헥타르의 숲은 연간 약 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합니다. 숲이야말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숲을 울창하게 하는 노력은 우리의 호흡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다른아닌 것입니다.

맑은 물빛과 건강한 땅은 국력의 원천입니다.

각 가정의 생활하수량 줄이기 노력에서부터 정부 차원의 지원까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전의 깨끗한 강을 되찾은 일본의 하천살리기 캠페인은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흙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호주의 토양 되살리기 운동도 땅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맑은 물과 건강한 땅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흙에 영양을 공급하고 빗물을 저장하여 맑은 지하수를 만들어 내는 숲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연의 건강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젠 자연선진국을 향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연으로부터 풍부한 자원의 혜택을 받아온 우리의 물질문명-그러나 선진대열에 들어선 물질문명 못지않게 자연이 풍요로울 때 진정한 앞선 문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6배가 되는 풍요의 숲을 가꿔 온 자연선진국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의 자연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나설 때입니다. 맑은 물의 원천이요, 산소의 공급원이며 국토를 보전하고 기후를 조절하는 등 모든 환경정화의 근본이 되는 숲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는 마음, 바로 적극적인 실천뿐입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풍요로운 자연을 되찾고 싶은 유한킴벌리의 의지입니다.

유한킴벌리는 산림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임업협동조합에 설립, 지난 10년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자연보호기금을 조성하여 국유림을 푸르게 가꾸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과 한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행사 등을 통해 매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자연 선진국- 이제 또다른 자연사랑 캠페인 10년을 시작으로 유한킴벌리가 앞장서겠습니다.

1995년 6월



Head Copy 자연선진국을 꿈꾸며(1): 나무가 사람을 키웁니다-

Body Copy 천년의 세월을 근심없이 자라온 세계에서 가장 큰 세쿼이아 나무 - 키만큼이나 울창하게 가꾸어진 숲이 넉넉한 자연의 혜택을 되돌려 주는 자연선진국의 자랑스런 나무입니다. 나무는 산소를 주고 물을 정화시키는 생명의 원천, 우리가 심고 가꾸는 것보다 더 큰 혜택으로 나무는 모든 생명을 키웁니다. 나무가 크고 건강할 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자연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단위면적당 나무의 양이 아직 자연선진국들의 6분의 1에 그치는 우리의 숲. 이제 양질의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에 심고 가꾼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산소 가득한 맑은 공기를 만들고 풍부한 물줄기가 넘쳐 흐르는 자연 -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진정한 자연선진국의 모습입니다.

1995년 6월



Head Copy 자연선진국을 꿈꾸며(2): 나무가 나라를 키웁니다-

Body Copy 우리나라의 전체 숲은 1년간 소양강댐의 6배가 넘는 물을 저장합니다. 50년 동안 자란 나무 1헥타르는 한사람이 21년간이나 숨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지요. 나무가 천연의 다목적댐이자 산소공급기인 셈입니다. 우리의 생활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의 혜택 - 나무는 물과 산소를 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나무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직 적습니다. 숲이 풍성해 보이는 우리의 산이지만 대부분은 20년이 채 안된 어린 나무들 - 백년, 천년을 키워온 자연선진국의 나무에 비해 아직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자연을 가꾸어 갈 아이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나무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세요.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는 마음이 바로 내가 키울 수 있는 나라의 경쟁력 - 백년 후에도 천년 후에도 나무가 나라를 키웁니다.

1996년 3월

'96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자연선진국을 꿈꾸며(4) / 뉴질랜드편

자연선진국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낙원보다 값진 자연선진국 - 뉴질랜드
신이 시드록 우거진 녹음, 풍운을 일컫는 호수는 풍만한 물줄기 보물창고. 그대요, 푸른산맥 제1의 천공의 나비 - 이곳 초당삼촌의 자연선진국. 신의 축복이라 불리우는 이곳 뉴질랜드-그러나 울창한 뉴질랜드 산림의 5분의1은 자연림이 아닌 그들의 손으로 가꾸어진 것입니다. 이곳에도 100여년에 걸쳐 절반 이상의 산림이 파괴된 시기가 있었지만 숲을 살리려 전력한 결과, 이제 다시 전세계 라디에 타 소나무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녹음 우거진 자연선진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무, 나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숲이 100여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로 줄어있습니다. 인공적인 숲이 아닌 자연림이 사라진 곳에서는 숲을 재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적인 숲은 자연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공적인 숲은 자연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공적인 숲은 자연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공적인 숲은 자연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13회 나무심기 행사에 전문분부를 초대합니다.
자연선진국을 가꾸어가는 나만의 방법으로 제1의 천공의 나비 - 이곳 초당삼촌의 자연선진국. 신의 축복이라 불리우는 이곳 뉴질랜드-그러나 울창한 뉴질랜드 산림의 5분의1은 자연림이 아닌 그들의 손으로 가꾸어진 것입니다. 이곳에도 100여년에 걸쳐 절반 이상의 산림이 파괴된 시기가 있었지만 숲을 살리려 전력한 결과, 이제 다시 전세계 라디에 타 소나무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녹음 우거진 자연선진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한킴벌리

Head Copy 자연선진국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Body Copy 낙원보다 값진 자연선진국 - 뉴질랜드

신의 축복이라 불리우는 이곳 뉴질랜드-그러나 울창한 뉴질랜드 산림의 5분의1은 자연림이 아닌 그들의 손으로 가꾸어진 것입니다. 이곳에도 100여년에 걸쳐 절반 이상의 산림이 파괴된 시기가 있었지만 숲을 살리려 전력한 결과, 이제 다시 전세계 라디에 타 소나무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녹음 우거진 자연선진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무, 나무가 필요합니다.

100여년 전, 울창했던 우리의 숲은 오랜 수난기를 겪은 지금, 3분의 1로 줄어있습니다. 숲은 나무가 없는 곳보다 30배나 많은 물을 저장합니다. 매년 가뭄과 홍수 때마다 물의 소비량이 늘어갈수록, 잃어버린 나무의 소중함이 절실해집니다. 천혜의 자연도 지키는 마음이 없다면 곧 사라지고 말지요. 신은 어느 곳에나 자연선진국이 될 가능성을 주었지만 그것을 살려내는 것은 철저히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자연선진국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1996년 7월

'96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자연선진국을 꿈꾸며(4) / 뉴질랜드편

숲을 가꾸는 국민들이 자연선진국을 가꿉니다

맑은 물, 푸른 하늘의 자연선진국 - 뉴질랜드
스위스의 맑은 물과 공기, 독일의 질푸른 흑림지대, 북유럽의 투명한 호수와 숲, 미국, 캐나다의 끝없는 숲과 맑은 강, 뉴질랜드의 울창한 침엽수림 - 전세계 목재 및 펄프 수요의 70% 이상을 공급하면서도 매년 그 숲이 울창해져가는 자연선진국들의 모습입니다. 천혜의 성장조건보다는 온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꿈으로 자연을 일궈온 나라들 - 나라전체가 내 일처럼 새로운 유전공학 및 영림기술을 발전시키며 산림문화를 전문가와 산림 끊임없이 양성해온 결실인 것입니다.

자연선진국까지 앞으로 25년, 기다리기보다는 앞당겨야 합니다.
산지가 국토의 65%나 되고, 연간 강우량이 1,300억톤이나 되면서도 물이 부족한 나라-40여년을 쉬지 않고 가꾸었지만 우리나라 숲의 임목축적율은 아직도 스위스의 1/7, 독일의 1/5, 세계 평균의 1/3. 그러나 우리도 온 국민의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25년 후에는 지금의 뉴질랜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점점 멀어져가는 자연선진국-한 그루의 나무라도 내손으로 심고, 숲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자연을 선진국으로 1년, 10년 앞당기는 길입니다. 자연선진국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자연선진국을 가꾸는 길 - 영림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선진국을 가꾸어가는 나만의 방법으로 제1의 천공의 나비 - 이곳 초당삼촌의 자연선진국. 신의 축복이라 불리우는 이곳 뉴질랜드-그러나 울창한 뉴질랜드 산림의 5분의1은 자연림이 아닌 그들의 손으로 가꾸어진 것입니다. 이곳에도 100여년에 걸쳐 절반 이상의 산림이 파괴된 시기가 있었지만 숲을 살리려 전력한 결과, 이제 다시 전세계 라디에 타 소나무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녹음 우거진 자연선진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한킴벌리

Head Copy 숲을 가꾸는 국민들이 자연선진국을 가꿉니다

Body Copy 맑은 물, 푸른 하늘의 자연선진국 - 뉴질랜드

스위스의 맑은 물과 공기, 독일의 질푸른 흑림지대, 북유럽의 투명한 호수와 숲, 미국, 캐나다의 끝없는 숲과 맑은 강, 뉴질랜드의 울창한 침엽수림 - 전세계 목재 및 펄프 수요의 70% 이상을 공급하면서도 매년 그 숲이 울창해져가는 자연선진국들의 모습입니다. 천혜의 성장조건보다는 온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꿈으로 자연을 일궈온 나라들 - 나라전체가 내 일처럼 새로운 유전공학 및 영림기술을 발전시키며 산림문화를 전문가와 산림 끊임없이 양성해온 결실인 것입니다.

자연선진국까지 앞으로 25년, 기다리기보다는 앞당겨야 합니다.

산지가 국토의 65%나 되고, 연간 강우량이 1,300억톤이나 되면서도 물이 부족한 나라-40여년을 쉬지 않고 가꾸었지만 우리나라 숲의 임목축적율은 아직도 스위스의 1/7, 독일의 1/5, 세계 평균의 1/3. 그러나 우리도 온 국민의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25년 후에는 지금의 뉴질랜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점점 멀어져가는 자연선진국-한 그루의 나무라도 내손으로 심고, 숲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자연을 선진국으로 1년, 10년 앞당기는 길입니다. 자연선진국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1997년 3월



Head Copy 대를 잇는 나무사랑-자연선진국의 시작입니다

Body Copy "1대 할아버지께서 처음, 나무 한 그루로 시작하셨습니다."

"5대 할아버지께서 숲의 형태를 갖춰 놓으셨습니다."

"지금온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숲, 흑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검은 빛을 떨 정도로 나무가 울창하다는 독일의 흑림지대-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잘 가꾸어진 숲으로 이름난 이 곳은 3백여년에 걸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숲입니다. 11대 할아버지부터 지금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긴 안목으로 나무의 숲가꾸기를 실천해 오는 사람들 - 국가와 국민 모두가 대를 이어 심고 가꾸는 그 노력이 3백여년 전 보잘것 없었던 독일의 숲을 세계에서 가장 잘 가꾼 숲, 흑림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연선진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부터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산지가 국토의 65%나 되고, 연간강우량이 1,300억톤이나 되면서도 물이 부족한 나라, 산소가 부족한 나라-40여년을 쉬지 않고 나무를 심고 가꾸었지만 우리나라 숲의 임목축적율은 아직 독일의 1/5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50여년 후에는 지금의 자연선진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자연선진국-한 그루의 나무라도 내 손으로 심고 가꾸는 것만이 맑은 공기와 풍부한 물의 혜택을 누리는 자연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998년 3월



Head Copy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은 숲을 키웁니다.

Body Copy 숲이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숲은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자라날 터전이 되어주니까요. 지금 우리의 숲은 작은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런 어린 숲을 마치 아이를 키워나가듯 정성으로 가꾸어 주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잘 가꿔준다면 우리의 숲이 3배나 더 큰 숲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2/3는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숲의 88% 가량은 아직 30년이 안된 어린 나무들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 어린 나무들을 잘 가꾸어 더 큰 숲으로 키우느냐, 그냥 방치하여 잡목이 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숲을 가꾸는 일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숲을 잘 가꾸면 미래의 생명자원이 되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속아베기(간벌), 덩굴제거 등 숲을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몇 십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과 애정으로 어린 숲을 가꿔 주었을 때, 우리나라는 오십년 내에 지금보다 3배나 더 큰 숲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베푸는 숲 - 숲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보냅니다. 잘 가꾸어진 숲은 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게 되고,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줍니다. 3배나 커진 미래의 숲은 매년 소양강댐의 열 두배가 넘는 240억 톤의 맑은 물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거대한 녹색댐의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숲은 야생동물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사라졌던 노루를 다시 불러들이고 사슴을 뛰놀게 하여 우리 강산을 활기차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숲은 우리 경제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필요한 임산물을 얻을 수 있어 매년 30억불이 넘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숲가꾸기를 통해 미래의 환경을 저축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삶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숲을 가꾸는 것. 바로 우리의 미래를 가꾸는 것입니다.

1998년 7월



Head Copy 자연선진국 그 풍요로운 꿈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Body Copy 패전의 아픔을 딛고 애국심으로 세계적인 흑림을 가꾸어낸 나라-독일.

숲가꾸기로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은 나라-미국.

숲을 가꿔 산림자원을 얻고 국부를 이룬 나라-캐나다.

온 국민의 노력으로 낙원보다 값진 깨끗한 환경을 만든 나라-뉴질랜드.

가꾼 것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는 나라, 자연선진국 - 맑은 공기와 물, 풍부한 입산자원-환경적 가치에서 경제적 가치까지 자연선진국이 누리고 있는 숲의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숲이라는 것입니다. 천혜의 자원처럼 보이지만 모두 미래를 보는 긴 안목과 국민의 애정으로 가꿔진 숲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숲에서 가꾼 것보다 더 큰 혜택을 되돌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연선진국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숲이 황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조림의 노력으로 임목축적율이 헥타르당 11입방미터에서 52입방미터로 약 5배 성장했습니다. 아직은 자연선진국의 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짧은 기간에 이만큼 숲을 키운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숲은 현재 30년도 안된 어린 나무들이 뺏뺏이 들어서 있고 참나무들이 나무를 휘감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솎아 내고 덩굴을 제거하는 등 숲을 잘 가꾸어 준다면 우리는 50년 내에 3배나 더 커진 자연선진국의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숲을 가꾸으로써 나오는 부산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 힘이 되는 숲을 가꾸는 일-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1999년 3월



Head Copy 숲을 키우는 것은 희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Body Copy 자연선진국의 숲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람하고 건강하여 크게 자란 나무. 줄기차게 뻗은 가지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맑은 공기가 가득하여 동물과 자연, 사람들 모두 건강하게 뛰노는 숲 - 자연선진국의 숲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온 국민이 100년 넘게 가꾸고 키워 이룩한 것입니다.

숲은 나라에 큰 힘이 되는 복합자원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가득한 청정자원이자 마음의 안정과, 평온, 예술혼을 일깨워주는 문화자원.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는 관광자원. 그리고 연간 수십억불의 가치를 제공해주는 경제적인 자원까지, 숲은 우리가 가꾸어야 할 복합자원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53%은 아직 30년 이상 더 가꾸어야 할 산림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국토를 둘러보고 푸른 숲을 키운다면, 우리 세대는 물론 우리의 후손까지 풍요로운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숲은 우리의 희망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1999년 3월



Head Copy 숲을 키우는 것은 희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Body Copy 나무와 나무가 더불어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면 나무가 손흔들어 반깁니다. 맑은 공기가 세상을 감싸고 쪽빛 강물에 야생동물들이 목을 축이고, 키 큰 나무는 물론 키작은 나무와 이름모를 풀꽃 등 하층식생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숲은 바로 나무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무는 나뭇잎에, 뿌리에, 줄기에 비로 내린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우리 숲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물은 소양강 댐의 9배도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삭막한 도심에서도 나무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합니다. 줄지어 서 있는 가로수들은 별 자락이 쉬어갈 짙은 녹음을 만들어주고, 자동차의 나쁜 매연을 깨끗이 세탁해 다시 들려주기도 합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푸른 빛 생명을 선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엔 고마운 우리나라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동구밖 입구에서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던 느티나무. 이제는 숲이 그리운 도시인에게 연두빛 새순으로 봄을 알리고, 여름이면 짙푸른 녹음으로 더위를 달래줍니다. 버즘나무를 알고 계시는지요? 플라타너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버즘나무는 생명력이 강해 날이 추우면 추운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돌봐주는 이 없이도 잘 자라줍니다. 대기 속 오염물질을 흡수해 자신의 몸속에 넣고 맑은 공기를 대신 내어주는 이 버즘나무는 서울 가로수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공해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정말 고마운 우리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들이 돌보지 않는 동안 우리의 나무들은 오염에, 공해에, 산성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고향, 삶의 터전인 숲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나무 역시 그냥 자라주지는 않습니다. 나무에게 받고만 있는 우리, 이제는 우리가 베풀 차례입니다. 우리 국토의 69%는 아직 30년 이상을 더 가꾸어야 할 산림. 이제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심기만 하는손' 보다는 '가꾸어 주는 손'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적당하게 유지해 크게 팔 뻗을 수 있게 해주고, 골고루 햇빛이 들어 나무뿐 아니라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층식생까지 건강하게 어울려 클 수 있는 숲으로 가꾸는 일... 지금이라도 나무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보세요. 나무를 아끼고 키우는 것, 바로 숲을 키우고 대를 이어갈 푸른 희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2000년 1월



Head Copy 보살핌 속에 자라는 건 어린이만이 아닙니다

Body Copy 숲도 어린이처럼 보살핌 속에 자랍니다.

아플세라, 다칠세라, 바람불면 꺼질세라. 아이를 키울 때면 고이고이 정성을 쏟습니다. 심기만 하면 그냥 뒤도 잘 자라는 줄 알지만,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뻣뻣한 숲은 햇빛이 잘 들어 크게 자라도록 숨아베기를 해주고, 척박한 산지에는 병충해로부터도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의 정성어린 보살핌 속에서 푸르게 자라는 숲은 어린이와도 같습니다.

숲도 어린이처럼 자라는 미래입니다.

밝게 웃는 아이의 웃음 속에 밝은 내일이 있듯 푸르게 자라는 숲에 우리의 푸른 미래가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가득한 생명자원으로,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는 문화자원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관광자원으로, 그리고 수십억불의 가치를 지닌 경제자원으로, 우리가 가꾼 만큼 나라의 커다란 자원이 되는 숲-숲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가꾸는 것입니다.

숲의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가꾼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숲-그 숲은 아이처럼 우리의 보살핌 속에서 더 푸르게,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길로 숲을 키워주십시오.

2000년 3월



Head Copy 이제, 정보선진국과 함께 산림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Body Copy 빌 게이츠의 집을 보셨습니까? 최첨단 정보시설로 가득한 그의 집은 예상외로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자연 속에 있습니다. 정보화가 피할 수 없는 21세기의 화두라 해도, 삶의 질은 결코 정보화만으로는 향상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선진국과 함께 산림선진국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이 모두를 함께 이룰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선진국과 산림선진국이 눈 앞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선진국과 산림선진국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이미 세계 3위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린 우리의 국토는 2/3가 녹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림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지가 펄펄 나는 학교 운동장에 크고 작은 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드는 일.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도시 주변의 숲을 다양한 복층림으로 가꾸는 일. 황폐한 북한의 산림을 되살리는 일까지 -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숲을 가꾸고 키워나간다면 산림선진국은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숲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 Agenda 21에서는 숲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회지도자들과 청년,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먼저와 나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의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2000년 3월



Head Copy 숲을 키우면 나라가 큼니다

Body Copy 숲을 보면 그 나라가 보입니다. 대를 잇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흑림을 가꾸어낸 독일, 숲가꾸기 운동으로 경제공황을 딛고 일어난 미국, 푸르고 울창하게 숲을 가꿔 국부를 이룬 캐나다. 잘사는 나라들을 보면, 일찍부터 숲의 소중함을 깨달아 숲을 키우고 가꾸은 산림선진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숲을 키우면 나라가 큼니다. 한 나라의 삶의 질과 국력을 약속하는 숲. 그러나 우리의 숲은 30년생 이하의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숲을 키우고 가꾸는데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뻣뻣한 숲은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속아베기를 해줘야 하고, 갖가지 병충해로부터도 지켜줘야 합니다. 숲이 있어 힘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산림선진국은 정보선진국만큼이나 가치가 큼니다. 숲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숲을 가꾸어나간다면 30년 후, 우리도 산림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7월



Head Copy 자연이 만든 녹색댐

Body Copy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천연의 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숲은 흙과 흙 사이의 공간에 많은 물을 저장해 홍수를 막아주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저장한 물을 풀어 가뭄을 해결해 주는 '천연의 댐'입니다. 낙엽활엽수림으로 덮인 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의 14배나 되는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지난 30년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숲이 한 해에 저장하는 물의 양은 소양강댐의 10개분과 맞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은 흙이나 나무를 통해 비와 눈을 정화시킴으로써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주기도 합니다. 숲을 가꾸고 키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 숲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7월




Head Copy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힘 - 그 시작은 학교 숲에 있습니다.

Body Copy 영국이나 호주 같은 자연선진국의 학교에는 학교와 사회를 단절시키는 벽이 없습니다. 학교는 낮은 담장이나 푸른숲에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잘 가꾸진 학교 숲은 아이들의 '자연체험공간'인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열린공간'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며 밝게 크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런 아이들과 한데 어울려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선진국 국민들의 남다른 여유와 행복을 봅니다. 실제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 학교에 숲을 키운 후 지역 주민들의 교류나 단합이 보다 활발해지고, 학교 내 문제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 학교 숲은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시내에만 120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의 넓이는 약 800만평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습은 선진국 아이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이 중요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숲과 새 대신 높다란 담장과 흙먼지 날리는 덩그러ん 운동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미래가 있으려면 먼저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부터 정성 들여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학교와 사회를 단절시켰던 담장을, 선진국처럼 생활터라 나무숲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릴 때 체험은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학교 숲은 아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열린 사회와 나눔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일생을 가는 아름다운 꿈과 건강한 미래를 열어줍니다. 학교 숲을 가꾸는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열림과 나눔의 큰 의미를 가르치는 숲 - 도시와 학교에 숲을 키우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2001년 12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학교를 둘러싼 푸른 숲은 더 큰 교실, 더 큰 학교입니다



숲은 재미있는 수학교실입니다. 나무의 지름과 숲의 너비를 재어가며, 아이들은 숫자의 재미를 알아갑니다. 숲은 실감나는 과학교실입니다. 물과 토양, 나무와 곤충의 한살이를 배우며, 책에서는 미처 배우지 못했던 살아있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숲은, 때로는 수학과 과학 교실로, 또 때로는 미술관, 체육관이 되어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선진국의 아이들처럼, 이제 우리의 학교에도 숲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숲을 키우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 날 - 우리 사회도 더 밝아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배우는 큰 교실, 숲 - 도시와 학교에 숲을 키우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 아후코리아 선정 2001년 최고의 사이트

인공우기에 주는 숲 - 포레스트 코리아 (www.forestkorea.org)

유엔개발기구

Head Copy 학교를 둘러싼 푸른 숲은 더 큰 교실, 더 큰 학교입니다.

Body Copy 숲은 재미있는 수학교실입니다. 나무의 지름과 숲의 너비를 재어가며, 아이들은 숫자의 재미를 알아갑니다. 숲은 실감나는 과학교실입니다. 물과 토양, 나무와 곤충의 한살이를 배우며, 책에서는 미처 배우지 못했던 살아있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숲은, 때로는 수학과 과학 교실로, 또 때로는 미술관, 체육관이 되어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선진국의 아이들처럼, 이제 우리의 학교에도 숲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숲을 키우는 우리의 노력은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 날 - 우리 사회도 더 밝아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배우는 큰 교실, 숲-도시와 학교에 숲을 키우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2002년 3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이 있는 도시에 미래가 있습니다

도시를 건강하게 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숲 - 미래를 이끌 우리의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일이기도, 숲을 키우는 일은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숲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자연을 느끼고, 세대와 세대,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숲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공원의 면적은 선진국의 1/3수준 - 따라서, 도시숲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빈터 곳곳에 나무를 심고, 학년 우리 아이들이 다하는 학교 앞과 휴식 공간을 가꾸어야 합니다. 건강한 숲을 가꾸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를 둘러싼 푸른 숲이 바로 생명교육의 장일 뿐 아니라,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숲의 시대입니다. 숲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나라만이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산림 선진국의 그 날을 위해 -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건강한 숲을 가꾸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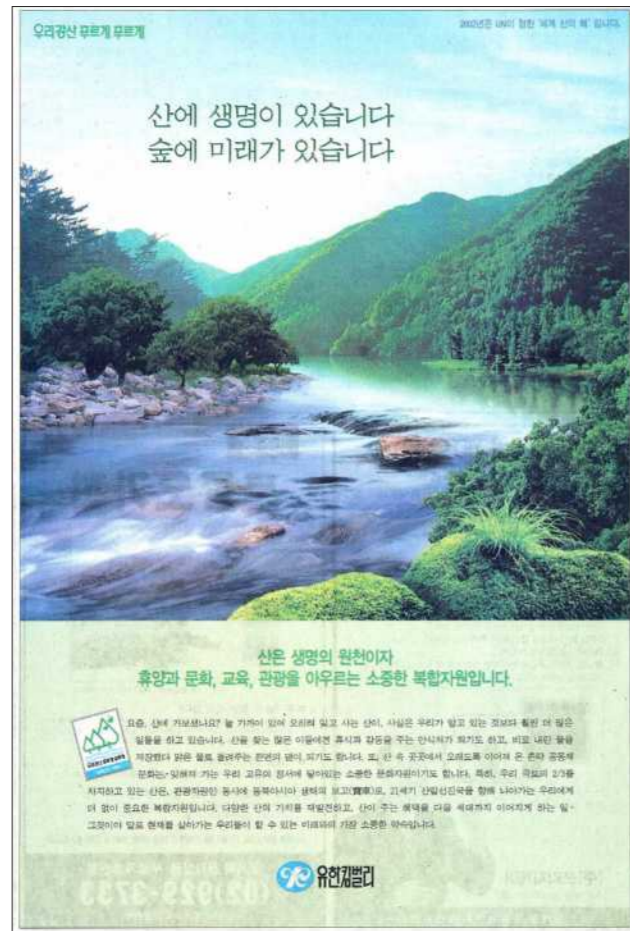
유엔개발기구

Head Copy 숲이 있는 도시에 미래가 있습니다

Lead Copy 도시를 건강하게 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숲 - 미래를 이끌 우리의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일이기도, 숲을 키우는 일은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Body Copy 우리에게 숲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과 자연을 느끼고, 세대와 세대,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숲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공원의 면적은 선진국의 1/3수준-따라서, 도시숲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둘러싼 푸른 숲이야말로 생명교육의 장일 뿐 아니라,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숲의 시대입니다. 숲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나라만이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산림 선진국의 그 날을 위해 -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건강한 숲을 가꾸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4월



Head Copy 산에 생명이 있습니다. 숲에 미래가 있습니다.

Lead Copy 산은 생명의 원천이자
휴양과 문화, 교육,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자원입니다.

Body Copy 요즘, 산에 가 보셨나요? 늘 가까이 있어 오히려 잊고 사는 산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찾는 이들엔 휴식과 감동을 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비로 내린 물을 저장했다 맑은 물로 돌려주는 천연의 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산 곳곳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촌락 공동체 문화는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정서에 닿아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국토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산은,관광자원인 동시에 동북아시아 생태의 보고로, 21세기 산림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더 없이 중요한 복합자원입니다. 다양한 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산이 주는 혜택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그것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미래와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2002년 5월



Head Copy 나무는 탄소 통조림

Lead Copy 공기중의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숲-
숲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고 인간을 숨쉬게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Body Copy 산업이 발달하고 인간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지구상에는 다량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공장은 물론 각종 생활 에너지를 사용할 때도 대기중의 탄소 함유량은 높아만 갑니다. 이런 탄소의 농도가 점점 짙어져 지구의 표면에 두터운 탄소층을 만들게 되고, 탄소층에 갇힌 태양열은 지구의 온도를 높여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특히 탄소통조림이라 불립니다.
공기중의 탄소를 흡수, 저장할 뿐 아니라 깨끗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숲은 미래와의 약속-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다음 세대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숲을 가꾸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002년 6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이 있는 학교에 미래가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숲 - 학교에 숲을 키우는 일은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학교숲이 시작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숲은 숲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그늘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술관, 때로는 과학실이 되어 아이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담 대신 학교를 둘러싼 푸른 숲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한 마을의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가꾸가는 학교숲은 이제, 그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문화의 확대로 공동체 문화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생명의 소중함과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학교숲이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가장 뜻깊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유한김벌리

Head Copy 숲이 있는 학교에 미래가 있습니다

Lead Copy 생명의 소중함과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숲- 학교에 숲을 키우는 일은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Body Copy 가장 먼저 학교숲이 시작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숲은 숲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그늘을 줄 뿐 아니라, 때로는 미술관, 때로는 과학실이 되어 아이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담 대신 학교를 둘러싼 푸른 숲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한 마을의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가꾸가는 학교숲은 이제 그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문화의 확대로 공동체 문화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생명의 소중함과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학교숲이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가장 뜻깊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2002년 7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이 있는 도시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도시를 숨쉬게 하고, 그 속에 사는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숲- 도시숲은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뉴욕 맨해튼 섬 한가운데에는 100만평이 넘는 대규모 가족 공원인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마천루에 둘러싸인 센트럴 파크에는 10만여 명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잔디밭이 있는가 하면 깊은 산 속 원시림의 야생미를 그대로 살린 건강하고 우람한 숲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도 호수와 초원, 수백년 된 원시림이 살아있는 스탠리 파크가 있습니다. 30여 종이 넘는 새들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동식물들, 그 속에 한데 어우러져 여유롭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모여 사는 우리나라-하지만 우리 도시의 숲은 선진국의 1/3수준에 불과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도시 곳곳에 숲을 키우고 가꾸는 노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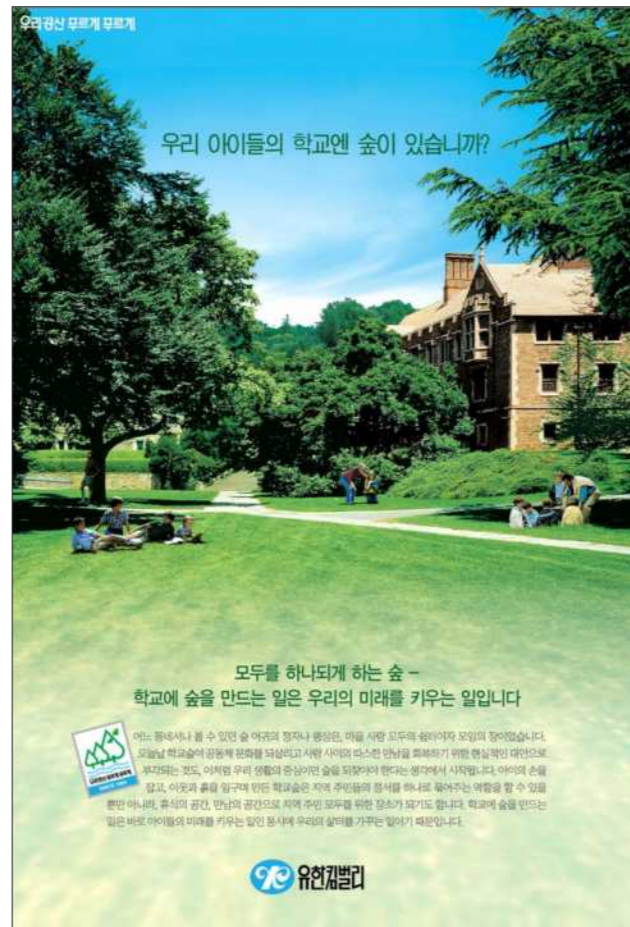
유한김벌리

Head Copy 숲이 있는 도시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Lead Copy 도시를 숨쉬게 하고, 그 속에 사는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숲- 도시숲은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Body Copy 뉴욕 맨해튼의 섬 한가운데에는 100만평이 넘는 대규모 가족 공원인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마천루에 둘러싸인 센트럴 파크에는 10만여 명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잔디밭이 있는가 하면 깊은 산 속 원시림의 야생미를 그대로 살린 건강하고 우람한 숲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도 호수와 초원, 수백년 된 원시림이 살아있는 스탠리 파크가 있습니다. 30여 종이 넘는 새들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동식물들, 그 속에서 한데 어우러져 여유롭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모여 사는 우리나라-하지만 우리 도시의 숲은 선진국의 1/3수준에 불과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도시 곳곳에 숲을 키우고 가꾸는 노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2002년 12월



Head Copy 우리 아이들의 학교엔 숲이 있습니까?

Lead Copy 모두를 하나되게 하는 숲 -

학교에 숲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Body Copy 어느 동네서나 볼 수 있던 숲 어귀의 정자나 평상은, 마을 사람 모두의 쉼터이자 모임의 장이었습니다.

오늘날 학교숲이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고 사람 사이의 따스한 만남을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도, 이처럼 우리 생활의 중심이던 숲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웃과 흙을 일구며 만든 학교숲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의 공간, 만남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 숲을 만드는 일은 바로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일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가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 3월



Head Copy 우리 집 앞에 광릉숲이 있으면 좋겠다

Body Copy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숲을 볼 때마다 내집 앞에 이런 숲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잘사는 도시를 위해서는 푸른 숲이 있어야 합니다. 숲은 단순히 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살아 있는 생명체들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생태공간으로서의 도시숲 - 숲을 가꾸는 일은 바로 우리 삶을 가꾸는 일입니다.

2003년 6월



Head Copy "생명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Body Copy 이한응 교장선생님은 오늘 뜻 깊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를 집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시고 나무를 가꾸시어 푸른 숲에서 저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모습에 저희는 항상 행복하답니다. 이에 상장을 드려 감사드립니다. - 2학년 2반 김태현"

흙으로 까매진 교장선생님의 손에 쥐어진 것은 어린이가 손수 만든 공로상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여느 학교처럼 원일 초등학교도 사방으로 아파트만 보이던 삭막한 교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늑한 환경을 주고 싶었던 교장선생님이 가장 먼저 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옷에 거름냄새가 베이도록 땀흘리며 나무를 심는 교장선생님 옆에서 '학교사랑 아빠모임'의 학부모들도 밤늦게까지 흙을 나르며 함께 숲을 가꾸었습니다. 숲을 가꾸기 위해 땀을 흘린 선생님들도, 이곳에서 생명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겠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숲은 대대로 남아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정신을 전해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숲 뒤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2003년 7월



Head Copy 숲을 가꾸고 배우며 자란 아이들이 내일의 환경지킴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Lead Copy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를 꿈꾸는 화랑초등학교 정진해 교장

Body Copy 우리 학교에서는 어느 반이나, 어느 복도나 할 것 없이 학교 안으로 숲이 깔려들어 옵니다. 건물배치부터 학교숲과의 조화를 우선으로 했으니깐요. 원래부터 자연환경이 좋은 자리여서 학교숲을 가꾸는 게 욕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운동장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학부모도 있었죠.

그렇지만, 학교숲은 단순히 가꾸어진 숲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소중함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숲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서 환경운동가도 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되어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교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는 숲이 있어야겠구나, 학교에 숲이 있으니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갑니다. 우리가 가꾼 학교숲을 통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학교숲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도 학교숲을 가꾸는 커다란 의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정작 그걸 만들기 위한 노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앞장서지는 못하더라도 훼손시키지 않고 아름답게 이용해야겠다는 생각, 내가 이용한만큼 남에게도 혜택 주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나라전체를 가꾸는 건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한 일이니깐요. 어릴 때부터 숲을 가꾸는 노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런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더 큰 교육이죠. - 정진해 교장선생님

2003년 7월



Head Copy 숲은 더 큰 학교입니다

Body Copy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곳은 교실만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고 느끼며 그 안의 생명체들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생태계를 극복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학교숲 - 아이들은 학교숲을 통해 더 큰 세상과 만납니다.

그린캠프는 미래환경의 주역인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필드 스터디 (Field Study)로 숲과 물, 대기, 토양, 생물의 다양성 등을 통해 숲을 배우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04년 1월



Head Copy 숲이 있는 도시로 더 많은 새들이 돌아옵니다

Body Copy 청둥오리, 재두루미, 쇠오리, 황조롱이, 고니...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겨울새들입니다. 서울 한강에서 볼 수 있는 새는 불과 50여종.

도시숲이 잘 조성된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발견되는 270여종에 비해 채 5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더 많은 새들을 날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부터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도시숲을 가꾸고 그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생명이 살아있어 살기좋은 도시, 지금 우리가 가꾸는 도시숲에서 시작됩니다.

2004년 3월



Head Copy 태어날 내 아이를 위한 선물

Body Copy 도시엔 큰 빌딩을 세우고, 커다란 놀이공원을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울창한 숲으로 자라고, 오늘 우리가 가꾼 작은 숲이 백 년을 이어갈 큰 숲이 됩니다.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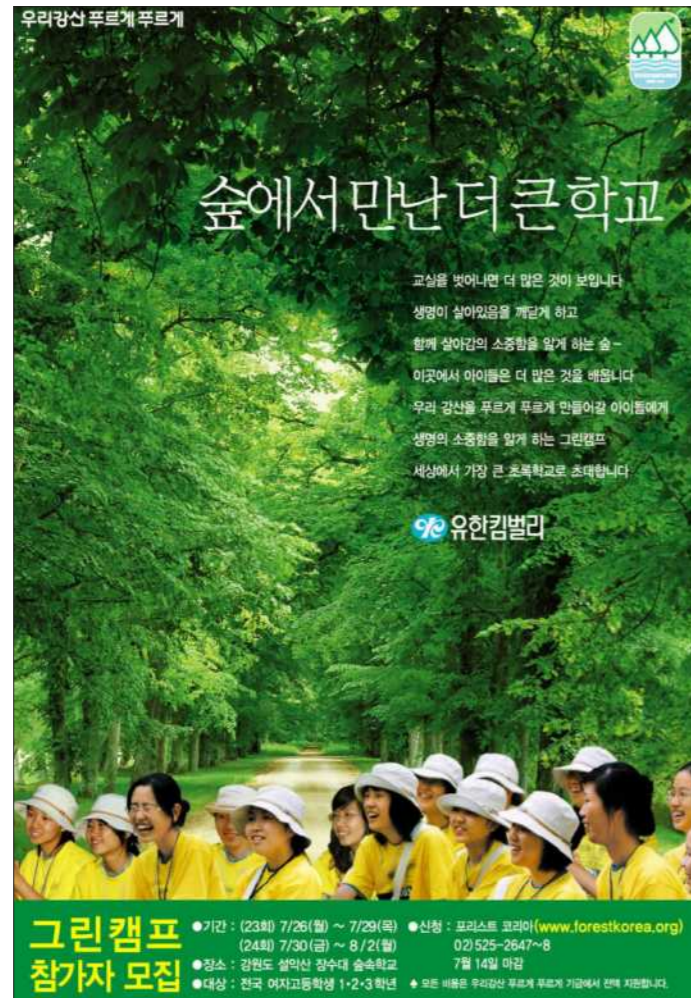
2004년 7월



Head Copy 숲은 세상에서 가장 큰 교실입니다

Body Copy 7년 동안 땅속에서 기다려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는 매미. 생명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가 깨닫는 순간, 아이들에게 매미소리는 더 특별하게 들립니다. 하나 하나 배울수록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숲은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과서입니다.

2004년 7월



Head Copy 숲에서 만난 더 큰 학교

Body Copy 교실을 벗어나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고 함께 살아감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숲 - 이곳에서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만들어갈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그린캠프. 세상에서 가장 큰 초록학교로 초대합니다

2004년 12월



Head Copy 100년 전의 선물

Lead Copy 1904년, 아들을 위해 심은 나무 한 그루가 100년을 이어온 푸른 숲으로 자랐습니다.

아들에게, 또 아들의 아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숲을 주었습니다.

Body Copy 도시에 큰 빌딩을 세우고, 커다란 놀이공원을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푸른 나무처럼 쑥쑥 자라고 푸른 숲처럼 내일을 키워갈 아이들.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울창한 숲으로 자라고, 오늘 우리가 가꾼 작은 숲이 백년을 이어갈 큰 숲이 됩니다. 도시숲, 우리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2005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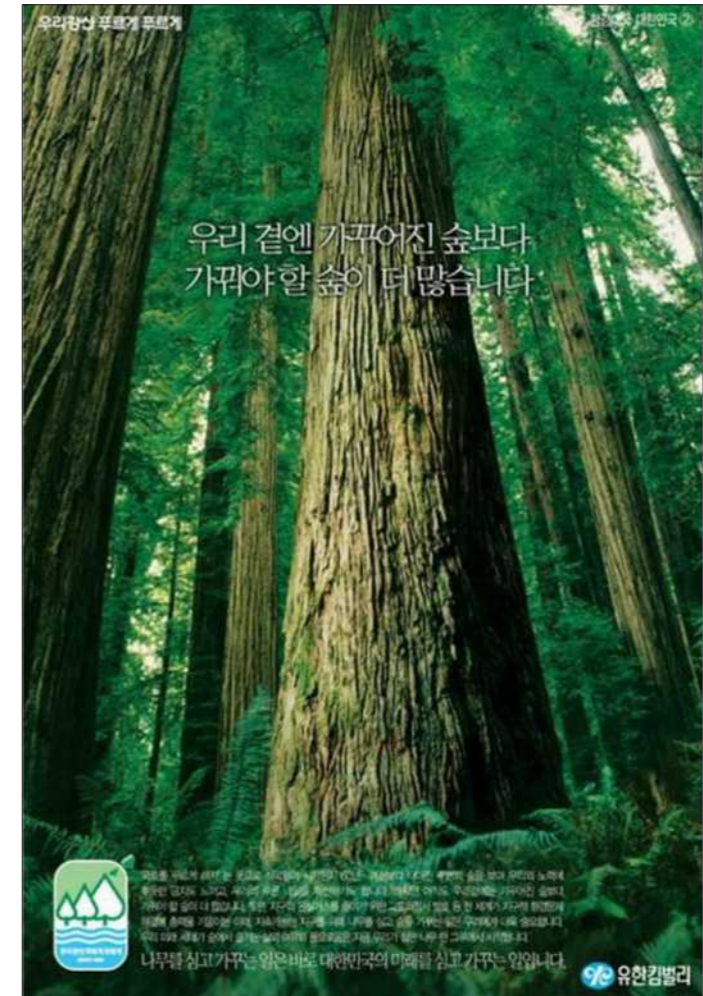


Head Copy 나무는 탄소통조림

Lead Copy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내뿜는 커다란 탄소통조림이라는 거 아세요?

Body Copy 그래서, 건강한 숲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는 맑아지고 지구는 더 살기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연간 72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커다란 탄소흡수원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흡수원이 되어줄 숲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는 전 세계적인 노력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지금, 에너지다소비산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시마다 나무를 심고 학교마다 숲을 키워야 합니다. 나무 한그루에 대기가 살아나고, 우리의 노력에 지구가 살아납니다. 환경대국 대한민국! 숲이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2005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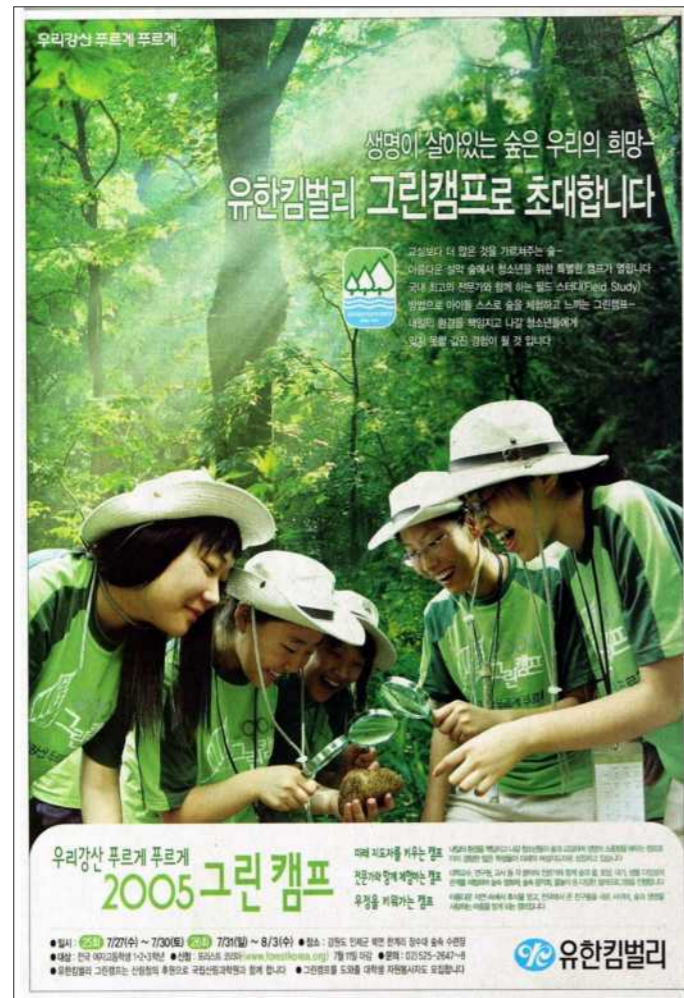


Head Copy 우리 곁엔 가꾸어진 숲보다 가꿔야 할 숲이 더 많습니다

Body Copy 국토를 푸르게 하자는 뜻으로 식목일이 시작된 지 60년- 예전보다 나아진 숲을 보며 우리의 노력에 뿌듯한 긍지도 느끼고, 우리의 푸른 내일을 확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는 가꾸어진 숲보다 가꾸어야 할 숲이 더 많습니다. 또한,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 등 전 세계가 지구환경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 때,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숲에서 즐기는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은 지금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심고 가꾸는 일입니다.

2005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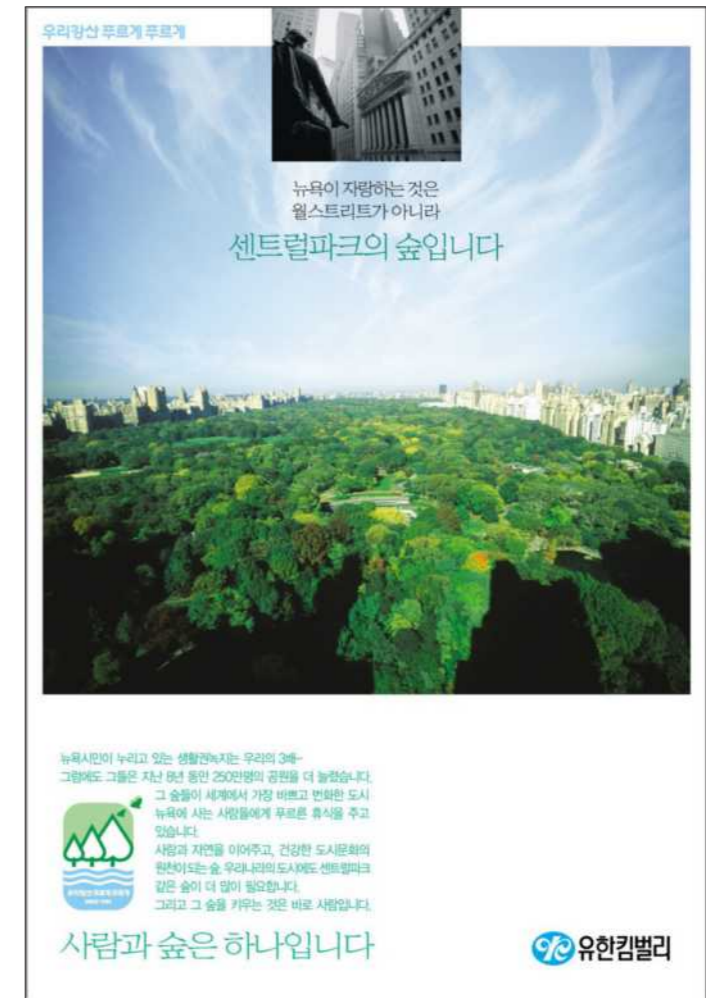


Head Copy 유한킴벌리 그린캠프로 초대합니다

Lead Copy 생명이 살아있는 숲은 우리의 희망-

Body Copy 교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숲- 아름다운 설악 숲에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립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필드 스터디(Field Study) 방법으로 아이들 스스로 숲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린캠프- 내일의 환경을 책임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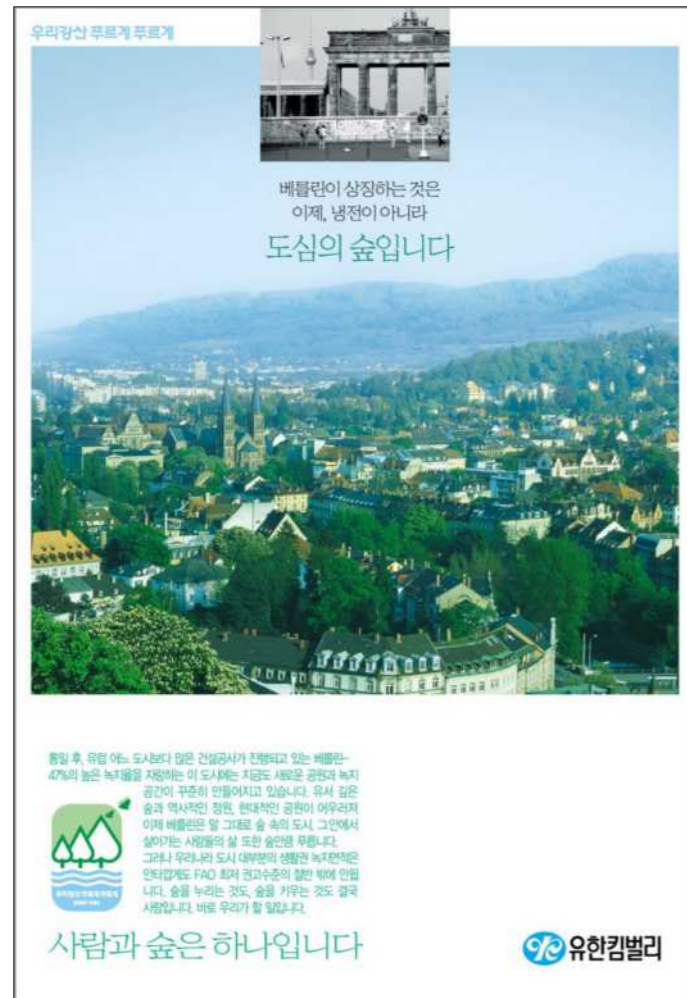
2005년 11월



Head Copy 뉴욕이 자랑하는 것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센트럴파크의 숲입니다

Body Copy 뉴욕시민이 누리고 있는 생활권녹지는 우리의 3배- 그럼에도 그들은 지난 8년동안 250만평의 공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숲들이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변화한 도시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푸르른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이어 주고, 건강한 도시문화의 원천이 되는 숲. 우리나라의 도시에도 센트럴파크 같은 숲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숲을 키우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 숲은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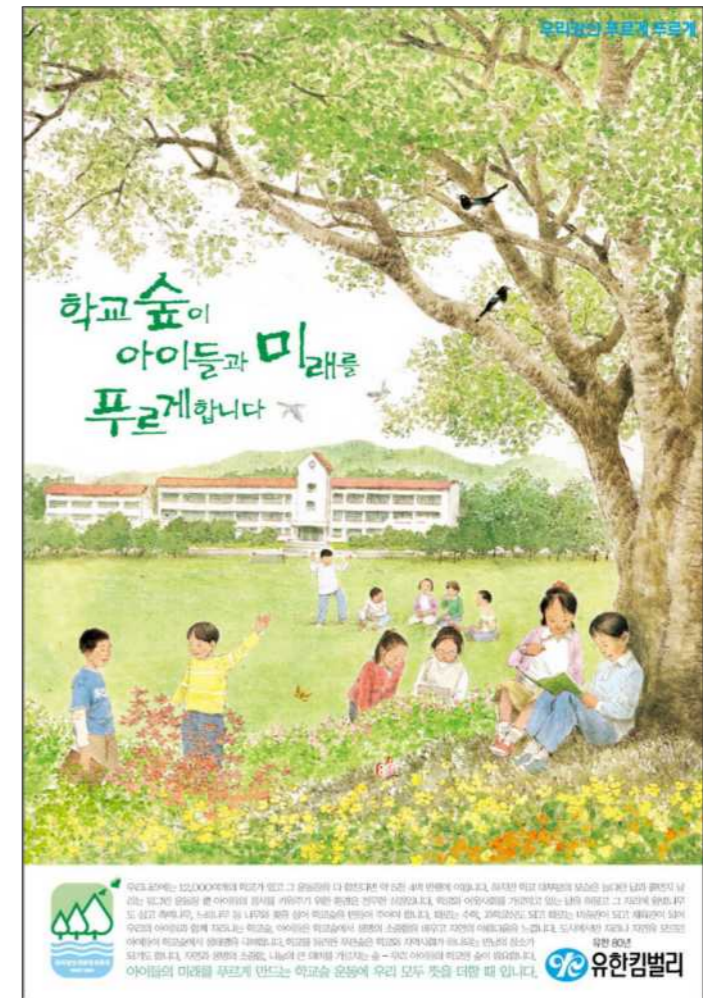
2005년 11월



Head Copy 베를린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냉전이 아니라 도심의 숲입니다

Body Copy 통일 후, 유럽 어느 도시보다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베를린- 47%의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이 도시에는 지금도 새로운 공원과 녹지공간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숲과 역사적인 정원, 현대적인 공원이 어우러져 이제 베를린은 말 그대로 숲 속의 도시. 그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또한, 숲만큼 푸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 대부분의 생활권 녹지면적은 안타깝게도 FAO 최저 권고수준의 절반 밖에 안됩니다. 숲을 누리는 것도, 숲을 키우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과 숲은 하나입니다

2006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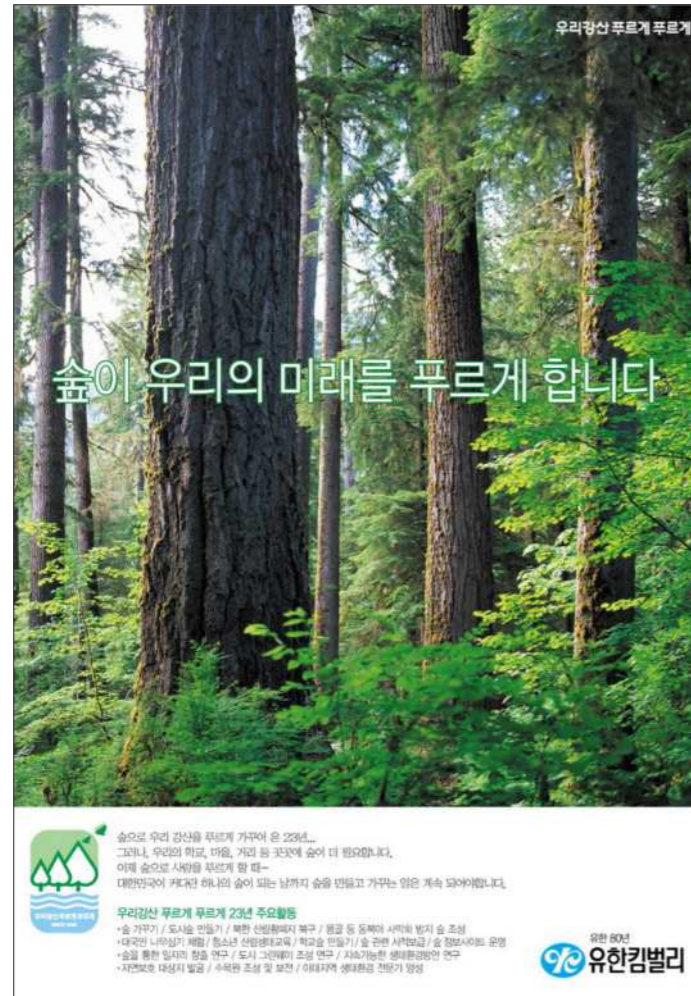


Head Copy 학교 숲이 아이들과 미래를 푸르게 합니다

Body Copy 우리나라에는 12,000여개의 학교가 있고 그 운동장을 다 합친다면 약 5천4백 만평에 이릅니다. 하지만 학교 대부분의 모습은 담과 흙먼지 날리는 덩그런 운동장 뿐 아이들의 정서를 키워주기 위한 환경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학교와 이웃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왕벚나무도 심고 측백나무, 느티나무 등 나무와 꽃을 심어 학교숲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수학, 과학교실도 되고 때로는 미술관이 되고 체육관이 되어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는 학교 숲. 아이들은 학교숲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도시에서만 자라나 자연을 모르던 아이들이 학교숲에서 생태맹을 극복합니다. 학교를 둘러싼 푸른숲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되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나눔의 큰 의미를 가르치는 숲 - 우리 아이들의 학교엔 숲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푸르게 만드는 학교숲 운동에 우리 모두 뜻을 더할 때입니다.

2006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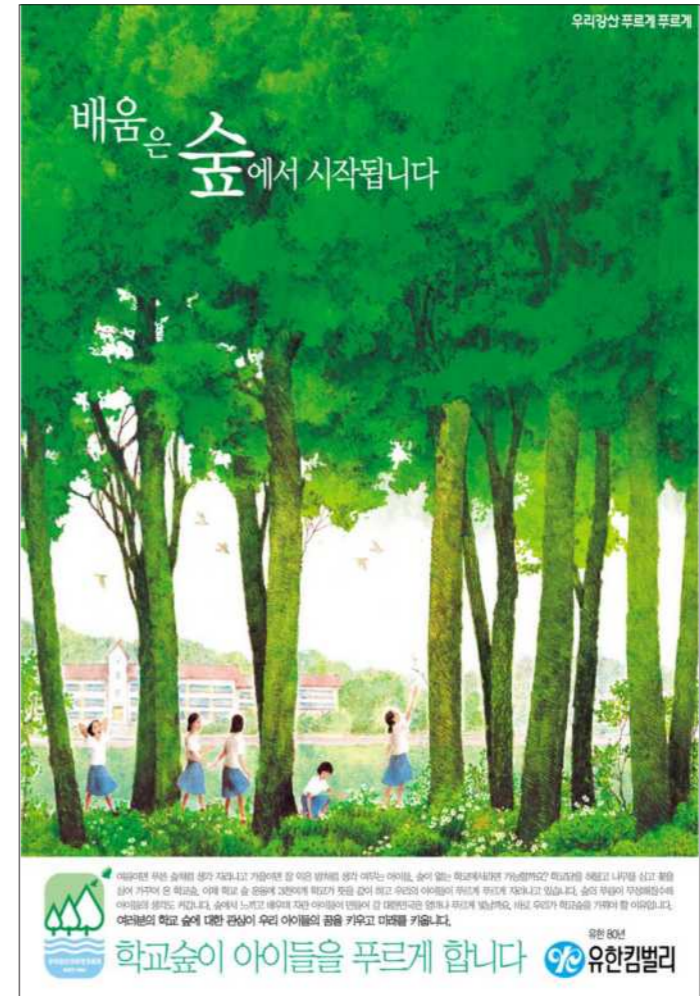
Head Copy 숲이 우리의 미래를 푸르게 합니다

Body Copy 숲으로 우리 강산을 푸르게 가꾸어 온 23년... 그러나 우리의 학교, 마을, 거리 등 곳곳에 숲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숲으로 사람을 푸르게 할 때 - 대한민국이 커다란 하나의 숲이 되는 날까지 숲을 만들고 가꾸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3년 주요활동

- 숲가꾸기 · 도시숲 만들기 ·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 · 몽골 등 동북아 사막화 방지 숲 조성
- 대국민 나무심기 체험 · 청소년 산림생태교육 · 학교숲 만들기 · 숲 관련 서적보급 · 숲 정보사이트 운영
- 숲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 도시 그린웨이 조성 연구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방안 연구
- 자연보호 대상지 발굴 · 수목원 조성 및 보전 · 아태지역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

200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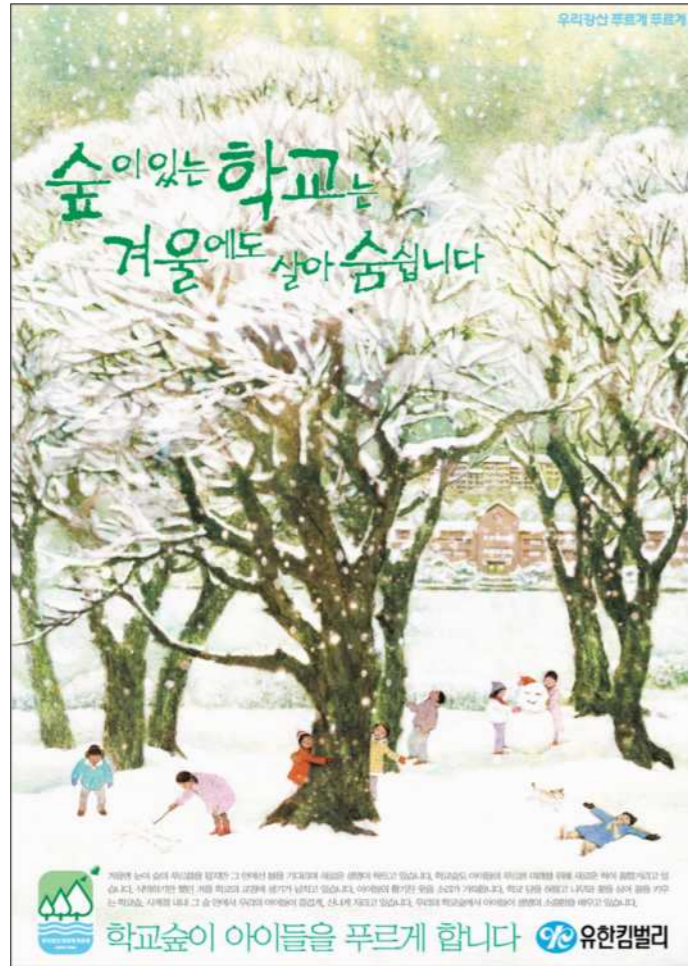


Head Copy 배움은 숲에서 시작됩니다

Body Copy 여름이면 푸른 숲처럼 생각 자라나고 가을이면 잘 익은 밤처럼 생각 여무는 아이들. 숲이 없는 학교에서라면 가능할까요? 학교담을 허물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 가꾸어 온 학교숲. 이제 학교숲 운동에 3천여개 학교가 뜻을 같이 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푸르게 푸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숲의 푸름이 무성해질수록 아이들의 생각도 커집니다. 숲에서 느끼고 자란 아이들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은 얼마나 푸르게 빛날까요. 바로 우리가 학교숲을 가꿔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숲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키웁니다.

학교숲이 아이들을 푸르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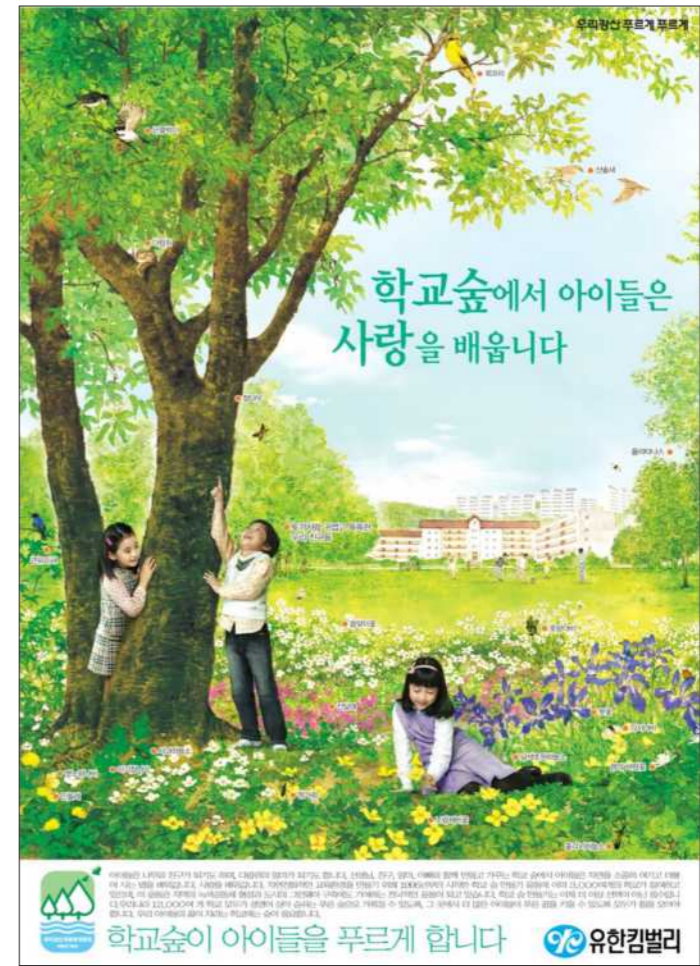
2006년 12월



Head Copy 숲이있는 학교는 겨울에도 살아 숨쉬니다

Body Copy 겨울엔 눈이 숲의 푸르름을 덮지만 그 안에선 봄을 기다리며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습니다. 학교숲도 아이들의 푸르른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싹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삭막하지만 했던 겨울 학교의 교정에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 소리가 가득합니다. 학교 담을 허물고 나무와 꽃을 심어 꿈을 키우는 학교숲. 사계절 내내 그 숲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즐겁게, 신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숲에서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숲이 아이들을 푸르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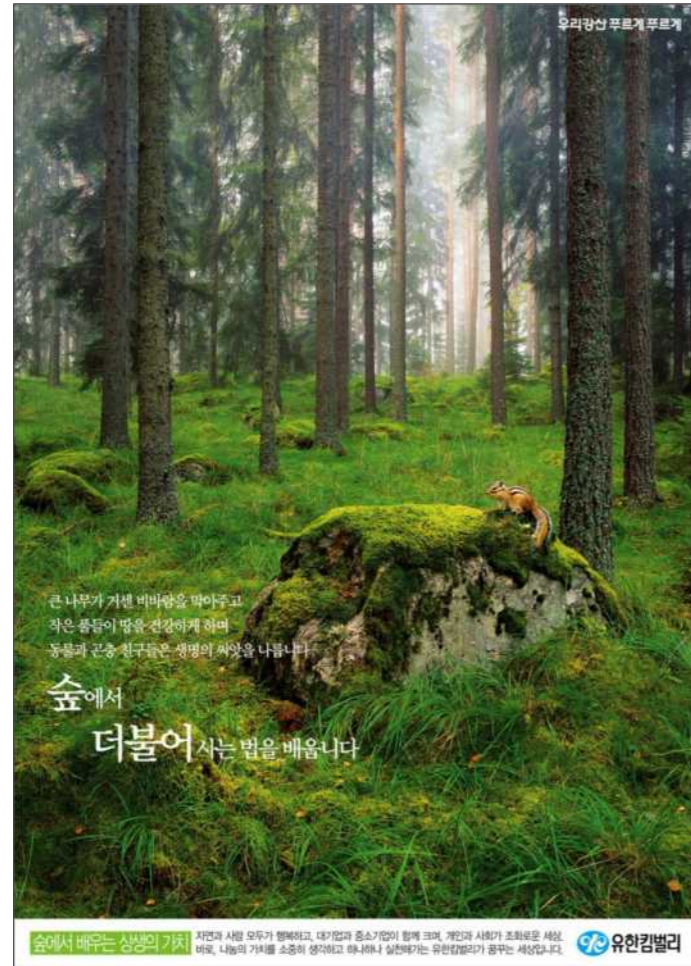
2007년 3월



Head Copy 학교숲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배웁니다

Body Copy 아이들은 나무와 친구가 되기도 하며, 다람쥐의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친구, 엄마, 아빠와 함께 만들고 가꾸는 학교숲에서 아이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사랑을 배워갑니다.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1995년부터 시작한 학교숲 만들기 운동에 이미 300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지역의 녹색공동체 형성과 도시의 그린웨이 구축에도 기여하는 전국적인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숲 만들기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12,000여 개 학교 모두가 생명이 되어 살아 숨쉬는 푸른 숲으로 가꿔질 수 있도록, 그 곳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푸른꿈을 키울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학교에는 숲이 필요합니다. **학교숲이 아이들을 푸르게 합니다**

2007년 4월



Head Copy 숲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웁니다

Body Copy 큰 나무가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고 작은 풀들이 땅을 건강하게 하며 동물과 곤충 친구들은 생명의 씨앗을 나눕니다. 숲에서 배우는 상생의 가치 자연과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크며, 개인과 사회가 조화로운 세상. 바로, 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유한킴벌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2007년 7월



Head Copy 학교숲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푸르게 합니다

Body Copy 거친 모래만 가득하던 황량했던 운동장이 풀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다람쥐도, 토끼도, 잠자리도, 나비도 가득한 숲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가로막던 콘크리트담이 무너지자 노란 햇살과 산들바람이 자유로이 드나듭니다. 학교숲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친구가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며, 마음껏 상상하고, 푸르게 자랍니다. 학교숲 운동이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선생님, 지역주민, 동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숲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기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동참해야 할 우리의 푸른 사명인 것입니다. 학교숲에서 아이들은 푸르게 자랍니다.

2008년 2월

나비의 숲...

“나비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온통 하늘을 물들였었는데” 여름이면 경기도 일대를 가득 날아다니던 “들신선나비”가 지난 10년 동안엔 겨우 5마리밖에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CO₂가 늘자 아름답던 나비들이 터를 잃은 것이죠.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지구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친구들을 지키는 울창한 숲으로 클 것입니다.

유한킴벌리

지구온난화의 주범 CO₂를 없애는 가장 푸른 방법 바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5년 간 학교숲 만들기, 국공유지 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 동북아 사막화방지 숲 조성, 신혼부부 나무심기, 청소년 숲체험교육, 우리숲 웹사이트 등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숲의 소중함을 국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 금강산 신혼부부 나무심기 • 나무심는 날 : 2008년 3월 29일 ~ 30일 (1박 2일) • 대상 :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부부 • 장소 : 북한 금강산 자연(금강산 부근) • 인터넷 주소창에서 '우리숲'을 치세요

Head Copy 나비의 숲...

Body Copy “나비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온통 하늘을 물들였었는데!” 여름이면 경기도 일대를 가득 날아다니던 “들신선 나비”가 지난 10년 동안엔 겨우 5마리밖에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CO₂가 늘자 아름답던 나비들이 터를 잃은 것이죠.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지구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친구들을 지키는 울창한 숲으로 클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CO₂를 없애는 가장 푸른 방법 바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5년간 학교숲 만들기, 국공유지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 동북아 사막화방지 숲 조성, 신혼부부 나무심기, 청소년 숲체험교육, 우리숲 웹사이트 등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숲의 소중함을 국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명태의 숲...

“예전엔 그물이 찢어져라 잡았는데, 작년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느 명태잡이 어부의 말처럼 12만톤의 명태 어획량을 기록하던 대한민국이 작년엔 0톤을 기록했습니다. CO₂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내 이웃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져가는 명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입니다.

유한킴벌리

지구온난화의 주범 CO₂를 없애는 가장 푸른 방법 바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5년 간 학교숲 만들기, 국공유지 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 동북아 사막화방지 숲 조성, 신혼부부 나무심기, 청소년 숲체험교육, 우리숲 웹사이트 등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숲의 소중함을 국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 금강산 신혼부부 나무심기 • 나무심는 날 : 2008년 3월 29일 ~ 30일 (1박 2일) • 대상 :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부부 • 장소 : 북한 금강산 지역(금강산 부근) • 인터넷 주소창에서 '우리숲'을 치세요

Head Copy 명태의 숲...

Body Copy “예전엔 그물이 찢어져라 잡았는데, 작년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느 명태잡이 어부의 말처럼 12만톤의 명태 어획량을 기록하던 대한민국이 작년엔 0톤을 기록했습니다. CO₂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내 이웃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져가는 명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CO₂를 없애는 가장 푸른 방법 바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5년간 학교숲 만들기, 국공유지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 동북아 사막화방지 숲 조성, 신혼부부 나무심기, 청소년 숲체험교육, 우리숲 웹사이트 등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숲의 소중함을 국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2008년



Head Copy 수박의 숲...

Body Copy "한 여름에 머리통만한 무등산수박 하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원하게 아삭아삭 참 좋았는데..."광주의 명물, 무등산 수박이 광주에서도 키우기 힘들어 진답니다. 지구온난화로 특산물지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구의 사과도 천안의 포도도 제주의 한라봉도....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을 되살리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Head Copy 홈런의 숲...

Body Copy "프로야구 팬이라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요?" 프로야구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아세요? 첫 해에 6경기뿐이었던 우천으로 취소되었던 프로야구가 작년엔 66경기나 호우로 취소되었답니다. 지구온난화로 아열대 기후처럼 비가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시원한 홈런이 즐거운 프로야구를 지키는 길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입니다

2009년



Head Copy 오늘도 우리강산은 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Body Copy 오늘도 우리강산은 푸르게 푸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국토에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활동, 아이들의 꿈을 푸르게 자라나게 해 주는 학교숲 만들기, 북한 및 동북아 지역 숲 복원 활동, 청소년 환경체험교육, 미래를 위한 신혼부부 나무심기까지 지난 26년간 동안 3600만여그루의 나무가 우리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바꾸었습니다.



Head Copy 1,456

Body Copy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숲을 더 가꿔주세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숲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루에 4시간씩 1년동안 냉방을 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어린 소나무 1,456그루가 흡수해준답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지요. 숲이 고마운 이유가 어디 이뿐인가요?



Head Copy 결혼식 편

Body Copy 인생의 새출발을 위한 33,448. 행복한 결혼식을 위해서 숲을 더 가꿔주세요. 2008년 하루 평균 897번 열린 결혼식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33,448그루의 어린 소나무들이 흡수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새출발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지요. 숲이 고마운 이유가 어디 이뿐인가요?

2009년



Head Copy 우유 편

Body Copy 신선한 한 잔을 위한 16,985

하루 한잔 우유를 마신다면 숲을 더 가꿔주세요.

1년에 젖소 한 마리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16,985그루의 어린 소나무가 막아준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지요. 숲이 고마운 이유가 어디 이뿐인가요?



Head Copy 자동차 편

Body Copy 편리한 교통을 위한 10,809

운전을 하시는분이라면 숲을 더 가꿔주세요.

1년 평균 주행거리인 14,892km를 운전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10,809그루의 어린 소나무가 막아준답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지요. 숲이 고마운 이유가 어디 이뿐인가요?



Head Copy 콘서트 편

Body Copy 열광의 순간을 위한 200,000

즐거운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숲을 더 가꿔주세요.

약 2백명 규모의 콘서트가 1년동안 열릴 경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어린 소나무 200,000그루가 흡수해 준답니다. 신나는 여가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지요. 숲이 고마운 이유가 어디 이뿐인가요?

2010년



Head Copy 사람과 함께 농사짓는 숲을 아세요?

Body Copy 옛 흙담길과 따뜻한 시골 청취가 살아 있는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의 평촌마을 숲. 1565년 함양 여씨가 마을에 정착하면서부터 직접 나무를 식재하여 조성한 숲입니다. 마을 뒷산의 형태가 호랑이가 배를 깔고 있는 형상이라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하나 둘 심은 느티나무와 팽나무들은 이제 400m이상 길게 늘어선 멋진 숲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개천을 따라 숲이 형성된 평촌마을 숲은 너른 들판을 끼고 마을을 감싸고 있어 우리네 농촌 특유의 한가로움과 여유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숲이 소중한 이유는 단지 풍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살고 있는 평촌마을 사람들에게 숲은 가장 질 좋은 비료를 넉넉하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농경지와 주거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이자, 가을마다 넉넉한 비료를 만들어주는 친구요, 주민들의 아늑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평촌마을 숲. 어쩌면 남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우리네의 인심은 숲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평촌마을 숲이 아니더라도 숲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쯤 가까운 숲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떨까요?



Head Copy 나무는요, 탄소통조림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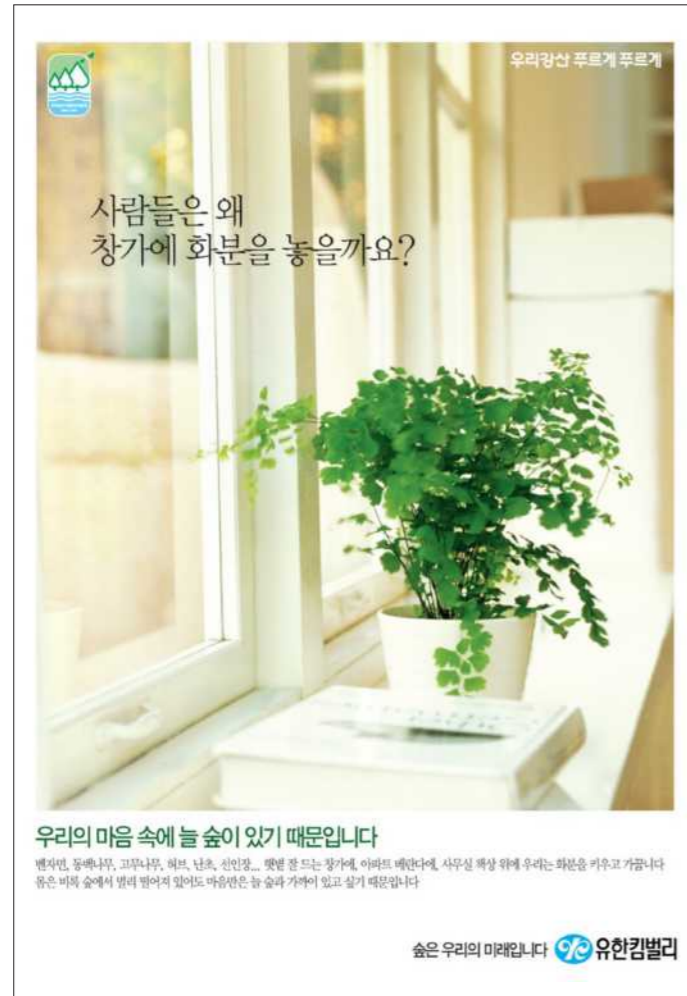
Body Copy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숲을 더 가꿔주세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숲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루에 4시간씩 1년 동안 냉방을 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어린 소나무 1,456그루가 흡수해 준답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지요. 숲이 고마운 이유가 어디 이뿐인가요?



Head Copy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통조림!

Body Copy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숲을 더 가꿔주세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숲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루에 4시간씩 1년 동안 냉방을 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는 어린 소나무 1,456그루가 흡수해 준답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지요. 숲이 고마운 이유가 어디 이뿐인가요?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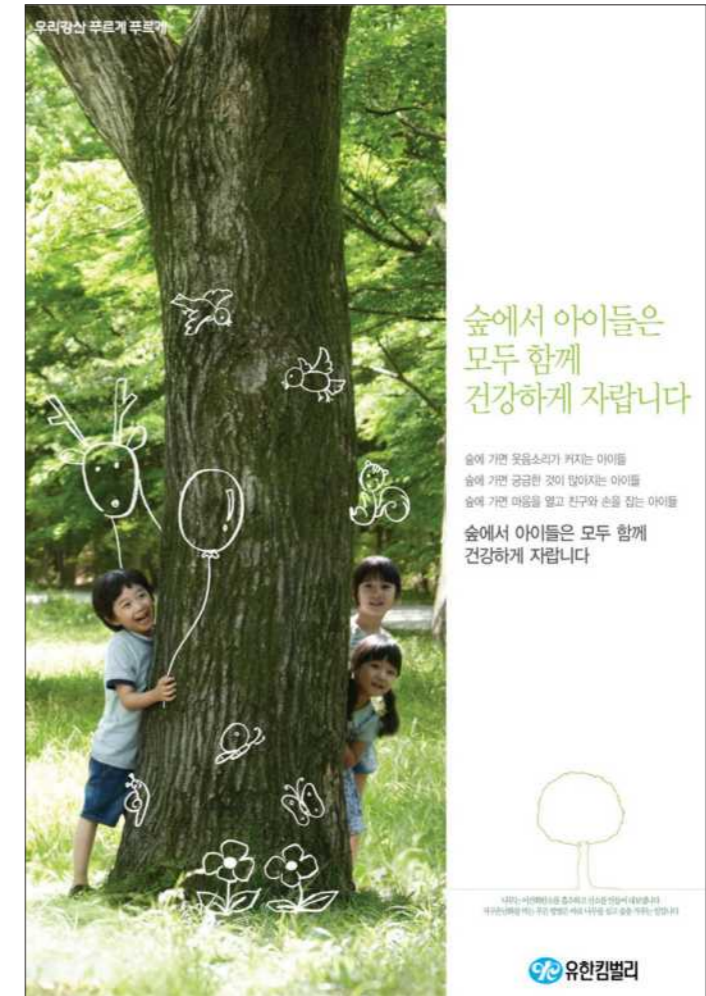
Head Copy 사람들은 왜 창가에 화분을 놓을까요?

Lead Copy 우리 마음 속에 늘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Body Copy 벤자민, 동백나무, 고무나무, 허브, 난초, 선인장... 햇빛 잘 드는 창가에, 아파트 베란다에, 사무실 책상 위에 우리는 화분을 키우고 가꿉니다. 몸은 비록 숲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숲과 가까이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숲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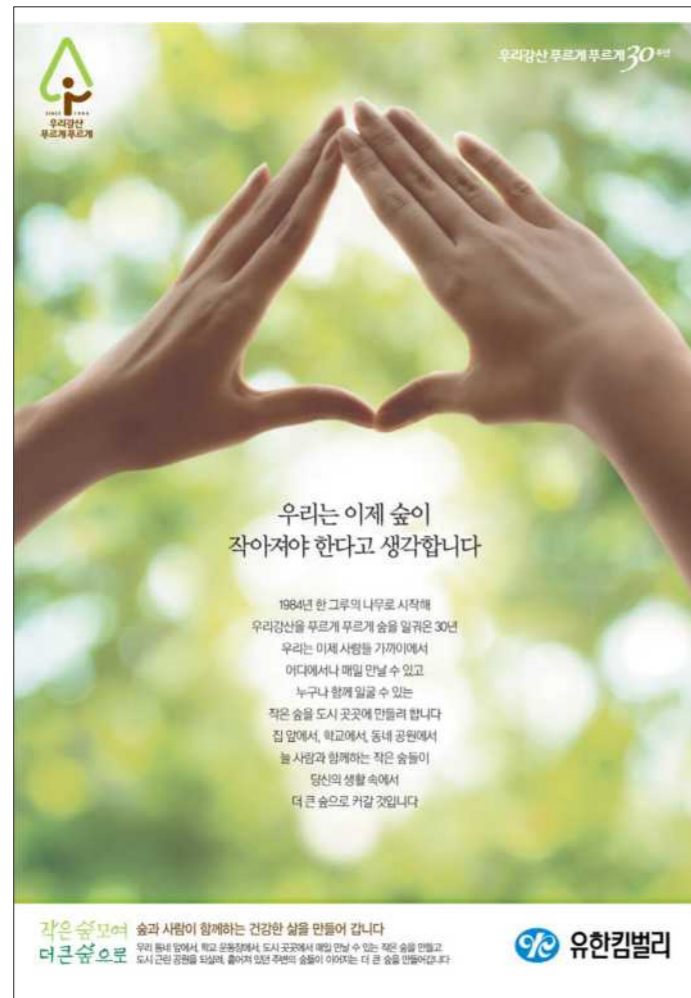


Head Copy 숲에서 아이들은 모두 함께 건강하게 자랍니다.

Body Copy 숲에 가면 웃음소리가 커지는 아이들. 숲에 가면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 아이들. 숲에 가면 친구와 손을 잡는 아이들. 숲에서 아이들은 모두 함께 건강하게 자랍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 내보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푸른 방법은 바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입니다.

2014년



Head Copy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ead Copy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Body Copy 1984년 한 그루의 나무로 시작해 우리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일궈온 30년. 우리는 이제 사람들 가까이에서 어디에서나 매일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일궈 수 있는 작은 숲을 도시 곳곳에 만들려 합니다. 집 앞에서, 학교에서, 동네 공원에서 늘 사람과 함께하는 작은 숲들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더 큰 숲으로 커 갈 것입니다.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동네 앞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을 만들고 도시 근린 공원을 되살려 흠어져 있던 주변의 숲들이 이어지는 더 큰 숲을 만들어 갑니다.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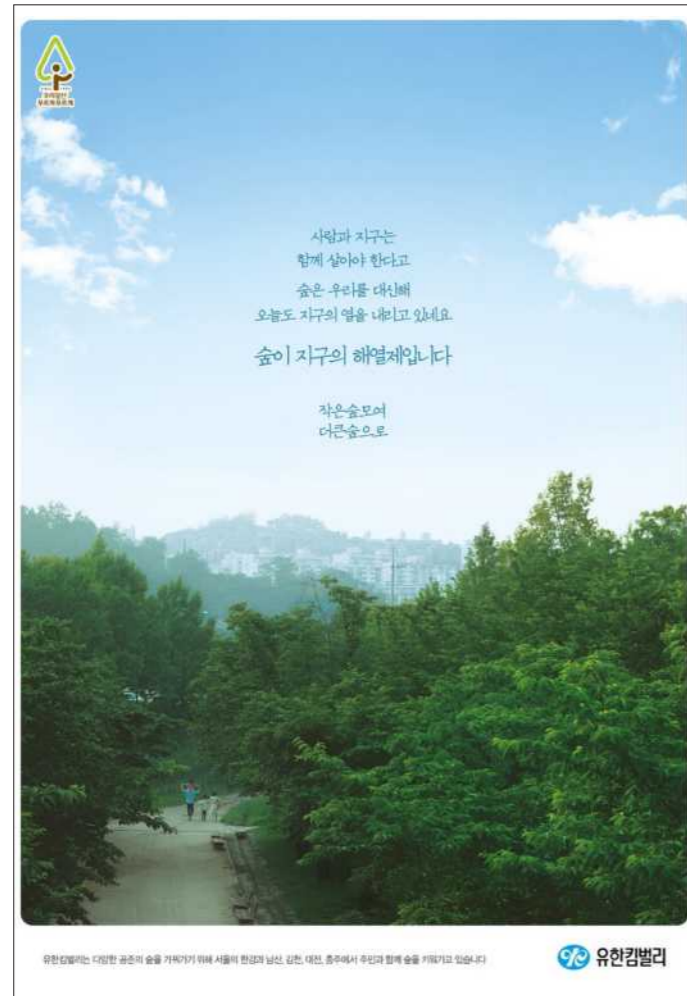


Head Copy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우리 동네에 옵니다.

Lead Copy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Body Copy 우리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일궈온 유한킴벌리. 이제는 당신과 숲이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당신이 직접 가꾸고 함께 호흡하며 생활 속에서 매일 즐길 수 있는 우리 동네 작은 숲으로 당신과 숲의 건강한 공존을 만들어 갑니다.

2016년~2017년



Head Copy 사람과 지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숲은 우리를 대신해 오늘도 지구의 열을 내리고 있네요 숲이 지구의 해열제입니다.

Lead Copy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2018년



Head Copy 우리 강산은 어디까지일까요?

Body Copy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도시 곳곳에서 저 멀리 몽골까지 숲을 키우는 일
언젠가 찾아올 미래를 위해 북한으로 보낼 아기 나무들을 키우는 일
푸르게 커나갈 꿈들을 위해 여고생들의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 심는 일
함께 살아갈 푸르른 내일을 위해서 하늘도, 북한도, 사람도 모두가 우리 강산입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굳건하게 자라날 푸르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2019년



Head Copy 누가 데려왔을까요?

Lead Copy 기다려지는 날은 숲에서 옵니다.

Body Copy 아이들이 막 등교한 학교에 차려진 이 상쾌한 아침 공기는, 당신의 출근길을 기분 좋게 감싸는 이 시원한 아침 바람은 누가 데려왔을까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걸 준비한 부지런한 일꾼은 바로, 나무들이랍니다. 미세먼지를 감추고 도시를 식히는 부지런한 나무들 덕분에 우리의 내일은 아마 더 상쾌할 거예요.

학교숲, 도시숲 조성사업 유한킴벌리가 생명이숲,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조성한 숲들이 도시의 열을 식히고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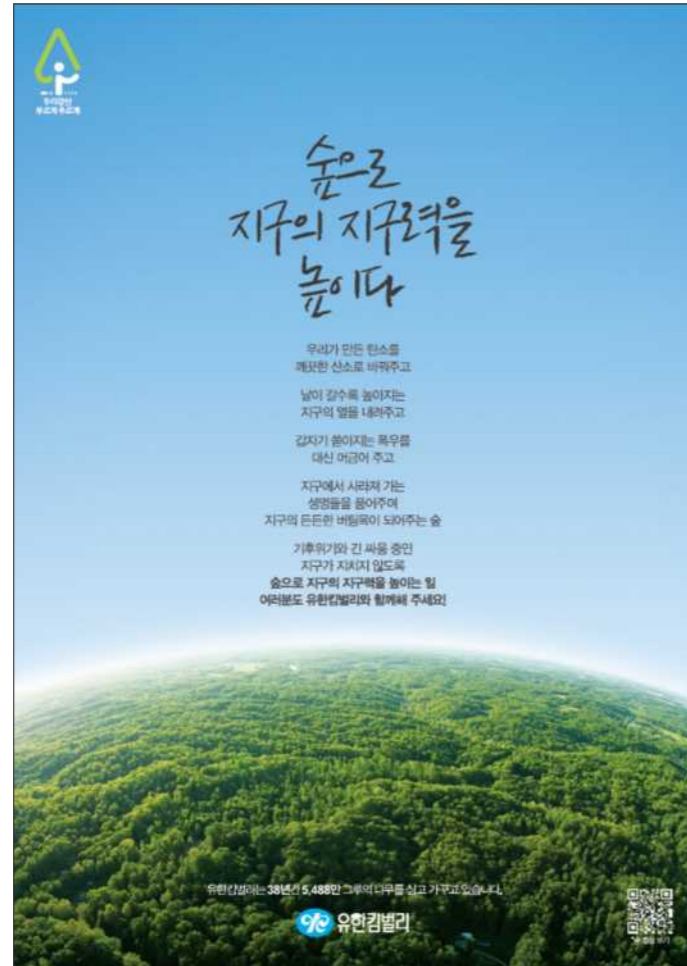
2020년



Head Copy 누구나 1인 1숲 할 수 있도록 숲은 코로나 없는 세상을 준비합니다.

Body Copy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도시숲을 가꾸었고 사막화 방지를 위해 머나먼 몽골 땅에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모두와의 거리가 멀어진 지금 지켜버린 우리의 마음이 숲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도시 곳곳에 숲의 힘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누구나 1인 1숲 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더 많은 숲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5,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 심기, 숲 가꾸기를 이어 왔습니다.

2021년~2022년



Head Copy 숲으로 지구의 지구력을 높인다.

Body Copy 우리가 만든 탄소를 깨끗한 탄소로 바꿔주고,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지구의 열을 내려주고,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대신 머금어 주고, 지구에서 사라져 가는 생명들을 품어주며 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숲. 기후위기와 긴 싸움 중인 지구가 지치지 않도록 숲으로 지구의 지구력을 높이는 일, 여러분도 유한킴벌리와 함께해 주세요!
유한킴벌리는 39년째 약 5,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2022 기준 : 55,406,712그루)

2023년



Head Copy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39주년 반성문

Lead Copy 1984년부터 시작, 39년간 55,000,000그루

Body Copy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지구에겐 더 많은 숲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유한킴벌리는 계속 숲을 보태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한 그루라도 더 심겠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23년



Head Copy 2030세대에게 편

Body Copy 청춘. 인생의 푸른 시절. 여러분의 20대는 지금 푸르른가요? 질문이 많이 늦었지만 답을 드립니다. 숲으로 당신을 푸르게.



Head Copy 숲가꾸기 중요성 편

Body Copy 대전 대덕구 추동리의 잣나무숲에게 이제야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1987년 심은 우리의 3호숲. 그러나 꾸준한 사랑은 주지 못한 숲. 우리가 심었지만, 제대로 가꾸지 못해 잃어버린 잣나무숲에게 사과합니다. 가꾸고, 지키는 일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푸르른 숲을 위해서.



Head Copy 산불 편

Body Copy 산불은 순식간에 숲을 삼키고 후유증을 100년 가까이 남깁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산불의 후유증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잘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좀 더 소리내어 알리겠습니다. 순간의 실수는, 숲의 100년을 불태운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높여 산불의 위협을 낮추겠습니다.



Head Copy 학교숲 졸업 편

Body Copy '학교숲'이 졸업했습니다. 화랑초등학교, 태백중학교, 수성고등학교... 738개 학교에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함께 만든 푸른 숲. 그러나 모든 학교에 '학교숲'을 만드는 꿈은 못 이룬 채, 졸업했습니다. 아쉽지만 또 만날 거라 믿습니다. 가까운 공원숲, 궁궐숲에서 우린 계속 만날 거니까요. 늘 가까이에,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있습니다.



Head Copy 생물 다양성의 숲 편

Lead Copy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가 멸종되고 있습니다.
Body Copy 기후위기가 숲을 덮치가 78억 마리 꿀벌들도 실종됐습니다. 39년간 숲을 일궈온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는 거듭나야 합니다. 구상나무가 되살아나고, 꿀벌이 돌아오는 생명다양성의 숲으로.

함께한 고마운 분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협력 기관 및 시민단체

| | | | | | |
|------------|---------|--------|-----------|-----------|-----------|
| 국립산림과학원 | 동북아산림포럼 | 문학의집서울 |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 생명의숲 |
| 서울그린트러스트 | 생태산촌 | 평화의숲 | 에코피스리더십센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숲재단 | 천리포수목원 | | | |

개인(국내)

| | | | | | | | | | |
|-----|-----|-----|-----|-----|------|------|-----|-----|-----|
| ㄱ | 김범일 | 김일중 | 남준기 | 박상진 | 변형운 | 신항식 | 우수영 | 이덕진 | 이은욱 |
| 강대승 | 김봉구 | 김재범 | 남태현 | 박선양 | 봉두완 | 신희택 | 우재현 | 이돈구 | 이임영 |
| 강문규 | 김상균 | 김재현 | 노건일 | 박수택 | | 신혜영 | 원경선 | 이동균 | 이장호 |
| 강수진 | 김상민 | 김정빈 | 노건일 | 박신애 | ㅅ | 심주영 | 원덕재 | 이동우 | 이재영 |
| 강신수 | 김상원 | 김정욱 | 노무현 | 박영숙 | 사사지원 | | 원홍순 | 이명박 | 이재정 |
| 강영훈 | 김상진 | 김정은 | 노영일 | 박완수 | 서귀숙 | ㅇ | 유기준 | 이미경 | 이재현 |
| 강원룡 | 김상희 | 김정태 | 노용희 | 박원순 | 서승진 | 안문석 | 유영민 | 이민우 | 이재협 |
| 강지원 | 김석권 | 김종은 | 노응범 | 박은경 | 서영애 | 안봉원 | 유인춘 | 이범영 | 이재형 |
| 강호덕 | 김선규 | 김종필 | 노재식 | 박은실 | 서영훈 | 안상국 | 유재건 | 이병철 | 이재희 |
| 강호상 | 김선진 | 김종호 | | 박재인 | 서왕진 | 안승일 | 유재성 | 이병훈 | 이정웅 |
| 고 건 | 김성일 | 김주원 | ㄹ | 박재화 | 서재경 | 안이영노 | 유재천 | 이보식 | 이정진 |
| 고동욱 | 김성환 | 김준순 | 류병렬 | 박정희 | 설동근 | 양길승 | 유재현 | 이상영 | 이정희 |
| 고영주 | 김성훈 | 김종곤 | 류영재 | 박종권 | 성종상 | 양병이 | 유종성 | 이석태 | 이종대 |
| 고윤권 | 김세빈 | 김지하 | 류종탁 | 박종민 | 손 철 | 양영준 | 유종하 | 이선경 | 이종상 |
| 곽만섭 | 김수종 | 김진수 | 류진호 | 박종호 | 손성인 | 양운재 | 유홍준 | 이선조 | 이주현 |
| 구길본 | 김수필 | 김진현 | | 박주현 | 손요한 | 양윤재 | 유효중 | 이설조 | 이주호 |
| 권병현 | 김순애 | 김찬희 | □ | 박찬열 | 손요한 | 양장일 | 윤광배 | 이세중 | 이준우 |
| 권상진 | 김승규 | 김창렬 | 마상규 | 박찬인 | 손종호 | 엄대식 | 윤도현 | 이수용 | 이지수 |
| 권숙표 | 김승현 | 김철수 | 맹원재 | 박창근 | 송동근 | 엄태원 | 윤승모 | 이수현 | 이진식 |
| 권태준 | 김아연 | 김철영 | 문국현 | 박창석 | 송동섭 | 여창호 | 윤여창 | 이승우 | 이창복 |
| 김광순 | 김연금 | 김태진 | 문선경 | 박춘거 | 송명식 | 연만희 | 윤영각 | 이승욱 | 이창섭 |
| 김기범 | 김영달 | 김태훈 | 문수언 | 박태정 | 송월주 | 연만희 | 윤영균 | 이애주 | 이창재 |
| 김기원 | 김영락 | 김택천 | 민병갈 | 박태준 | 송인주 | 오구균 | 윤은주 | 이어령 | 이창호 |
| 김기준 | 김영삼 | 김판기 | | 박필선 | 송천현 | 오대현 | 윤인숙 | 이어하 | 이철수 |
| 김기호 | 김영호 | 김판석 | ㅂ | 박 현 | 송태범 | 오세훈 | 윤준하 | 이연숙 | 이춘만 |
| 김길수 | 김옥라 | 김한수 | 박 경 | 박호진 | 송하원 | 오승우 | 이 관 | 이영래 | 이춘희 |
| 김남조 | 김완순 | 김한태 | 박건조 | 방상훈 | 송학선 | 오영란 | 이가옥 | 이용경 | 이치범 |
| 김대중 | 김외정 | 김현영 | 박노경 | 배상원 | 신강균 | 오인현 | 이각표 | 이용수 | 이택순 |
| 김덕용 | 김용한 | 김형진 | 박동균 | 배신한 | 신도현 | 오정수 | 이강오 | 이용훈 | 이택주 |
| 김동구 | 김원주 | 김혜숙 | 박명순 | 배재수 | 신동화 | 오준식 | 이강현 | 이용희 | 이학송 |
| 김동근 | 김유리 | 김홍남 | 박명학 | 배진섭 | 신순우 | 오진이 | 이경원 | 이우향 | 이형모 |
| 김동엽 | 김유선 | 김후란 | 박미선 | 백광훈 | 신연숙 | 오충현 | 이경재 | 이원열 | 이호영 |
| 김동완 | 김윤섭 | | 박미호 | 백완균 | 신용목 | 오해영 | 이계안 | 이원재 | 이효숙 |
| 김동윤 | 김의경 | ㄴ | 박범진 | 백윤선 | 신원섭 | 오형은 | 이관영 | 이유미 | 이훈구 |
| 김동일 | 김인식 | 나천수 | 박병구 | 백정희 | 신원섭 | 오호성 | 이근향 | 이윤기 | 임경빈 |
| 김명자 | 김인현 | 남성현 | 박병권 | 백혜숙 | 신은희 | 운수진 | 이기영 | 이윤중 | 임병수 |
| 김명전 | 김인호 | 남승우 | 박병배 | 법 룬 | 신응배 | 용태영 | 이기태 | 이윤주 | 임상섭 |
| 김미영 | 김인환 | 남원희 | 박봉우 | 변우혁 | 신준환 | 우보명 | 이남주 | 이은애 | 임성재 |

| | | | | | | |
|-----|-----|-----|-----|-----|-----|-----|
| 임승빈 | 전택부 | 조건영 | 진익철 | 최석진 | ㅎ | 홍선기 |
| 임영숙 | 정광수 | 조경민 | | 최선덕 | 하영구 | 홍성각 |
| 임영화 | 정규원 | 조경진 | ㅈ | 최승희 | 하영제 | 홍인옥 |
| 임재일 | 정달영 | 조남조 | 차두송 | 최 열 | 하지원 | 홍진표 |
| 임태형 | 정만우 | 조동성 | 차윤정 | 최완용 | 한경식 | 홍혜란 |
| | 정명일 | 조동업 | 차종태 | 최용호 | 한규희 | 황두환 |
| ㅊ | 정미홍 | 조명래 | 차준업 | 최윤종 | 한삼희 | 황병주 |
| 장 원 | 정석준 | 조민성 | 차중근 | 최윤호 | 한상욱 | 황인선 |
| 장관웅 | 정성현 | 조사인 | 채 일 | 최중수 | 한주현 | 황인성 |
| 장만기 | 정수정 | 조연환 | 최 열 | 최중협 | 한호선 | 황환주 |
| 장미희 | 정연정 | 조욱제 | 최광빈 | 최준석 | 허경태 | |
| 장 원 | 정용숙 | 조원덕 | 최규복 | 최평욱 | 허상만 | |
| 장일환 | 정운천 | 조재호 | 최대호 | 최해성 | 허신행 | |
| 장태평 | 정운천 | 조혜령 | 최동호 | 최해원 | 허진숙 | |
| 전근우 | 정재춘 | 조홍섭 | 최동희 | 최현섭 | 현재혁 | |
| 전범권 | 정주년 | 주성민 | 최민자 | 최현아 | 현정오 | |
| 전영우 | 정채진 | 지영선 | 최민후 | | 현천욱 | |
| 전의찬 | 정 학 | 지재성 | 최병암 | ㅅ | 홍문식 | |
| 전재경 | 정홍식 | 진두생 | 최상우 | 탁광일 | 홍병규 | |
| 전정일 | 조 우 | 진용주 | 최상후 | 탁영란 | 홍보라 | |

개인(국외)

| | | | |
|-----------------------|-----------------------|----------------------------|-----------------------|
| 다윈 스미스 Darwin Smith | 럭 나까자 Luc Gnacadja | 마이클 슈 Mike Hsu | 바투 Batkhuu Nyam-Osor |
| 비암바 D.Byambaa | 아킴 슈나이더 Achim Steiner | 오윤사나 Oyunsanaa Byambasuren | 을지 Ulziiibayar.N |
| 에롤 플라우먼 Errol Plowman | 웨인 샌더스 Wayne Sanders | 츠크트바타르 Tsogtbaatar | 클라우스 토퍼 Klaus Toepfer |
| 톰 포크 Tom Falk | | | |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지난 40년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재승 외 유한킴벌리 전·현직 임직원 일동-

발간을 마치며

이수현

생명의숲연구소 부소장



어린 시절, 또래의 청소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라디오방송을 많이 듣고 지냈습니다. 맑은 새소리, 물소리가 들리고 마지막에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라고 맺음을 짓는 라디오광고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과 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민단체인 경실련 환경개발센터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이사로 참여하셨던 문국현 대표님을 통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쯤 후에 '생명의숲가꾸기 국민운동' 창립부터 상근활동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숲에서 일한 지난 25년 동안 숲가꾸기 운동, 숲체험 교육, 학교숲 운동, 아름다운 숲전국대회, 공존숲 등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중요한 사업들에 실무자로 참여하거나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제 나

름의 시민운동을 고민하고 풀어가는 매개이자 지지기반이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버넌스형 시민운동에 대해 처음 배우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저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캠페인에 참여했던 많은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황폐해진 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회색 도시에 숲을 만들고, 북한과 몽골의 산림을 복구해 온 지난 40년의 과정을 돌아보는 여정은 저에게는 무척 설레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유한킴벌리라고 하는 기업의 캠페인이 아닌 본인의 숲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지 않아 그분들의 말씀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이룬 성과들을 돌아보며 마음 한구석에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가장 큰 성과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나무를 심고, 저마다의 숲을 만들어 온 것이 산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한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모든 기록물 제작 과정이 그렇듯이 이번 백서를 만드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많은 분들의 진정성 있는 협력과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느낀 심적 부담을 함께 나눠주신 김희웅 부장님과 유한킴벌리 임직원분들,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아주신 협력단체 활동가분들, 무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주신 김재현 교수님과 오충현 교수님, 바쁜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여러 선배님과 김선규 작가님, 많은 요구를 다 받아주시고 멋진 책을 만들어주신 김승현 대표님과 월든 가족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게 좋은 영감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문국현 대표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기록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그것이 현재에 투영되고 미래에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담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40년의 기록도 우리 사회가 처한 심각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발간을 마치며

유한킴벌리 40주년 프로젝트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지난 40년 발자취와 역사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백서 프로젝트가 1막 1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농친 부분, 부족한 부분, 추가해야 할 부분은 왜 인제야 보이는지, 매번 마무리를 앞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백서 발간을 위해 2021년부터 지난 3년 동안 여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함께해온 숲 환경 시민 단체들과 함께 캠페인의 정량적 성과를 정리하고,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를 연구하고, 사회적 성과를 조명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분들을 초대해 함께 논의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백서에 소개된 내용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캠페인 이면에 감춰진 많은 분의 노력과 헌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했던 모든 분의 공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공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실천해 온 협력 활동에 감동했고, 오래된 사진과 기록 속에서 공감하고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뭉클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동의 집을 짓는데 각자의 돌을 보탬 수 있다'라는 말씀을 40년 역사의 면면히 발견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 전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헌신적으로 도움 주셨던 이수현 부소장님, 김승현 대표님, 김선규 작가님, 오혜교 작가님, 진선주 디자이너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물도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백서에 언급된 모든 분과 민간, 기업, 시민 단체, 학계, 정부가 참여한 거버넌스로 유례없는 변화를 만드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40년간 변치 않았다.', '진정성', '똑심' 백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분들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함께 만든 지난 40년 성과의 비결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에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이번 백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그 진정성의 결과가 차곡차곡 만들고 기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숲을 매개로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던 선구자분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실천이 바뀌었던 과정에서 작지만 미약하지 않았던 **우리 회사 '유한킴벌리에도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1막을 시작으로 앞으로 50년, 100년의 2막 3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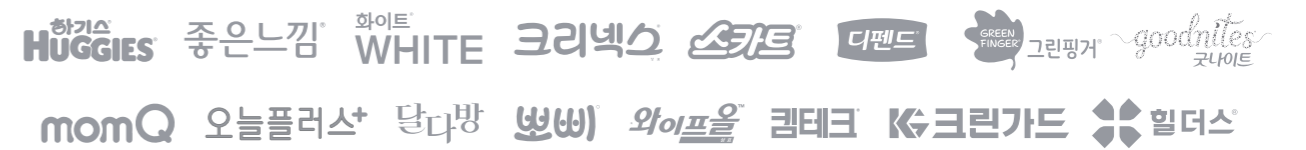


유한킴벌리 비전

“우리는 생활·건강·지구환경을 위해 행동합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1984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171,422개의 일자리가 되고
405,102명의 시민이 함께했으며
57,090,039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16,451.46ha의 숲이 되었습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의 시간은 쌓여갑니다.
숲과 사람과 함께 쌓여갑니다.

건강해질 지구를 위한 걸음,
유한킴벌리가 함께 합니다